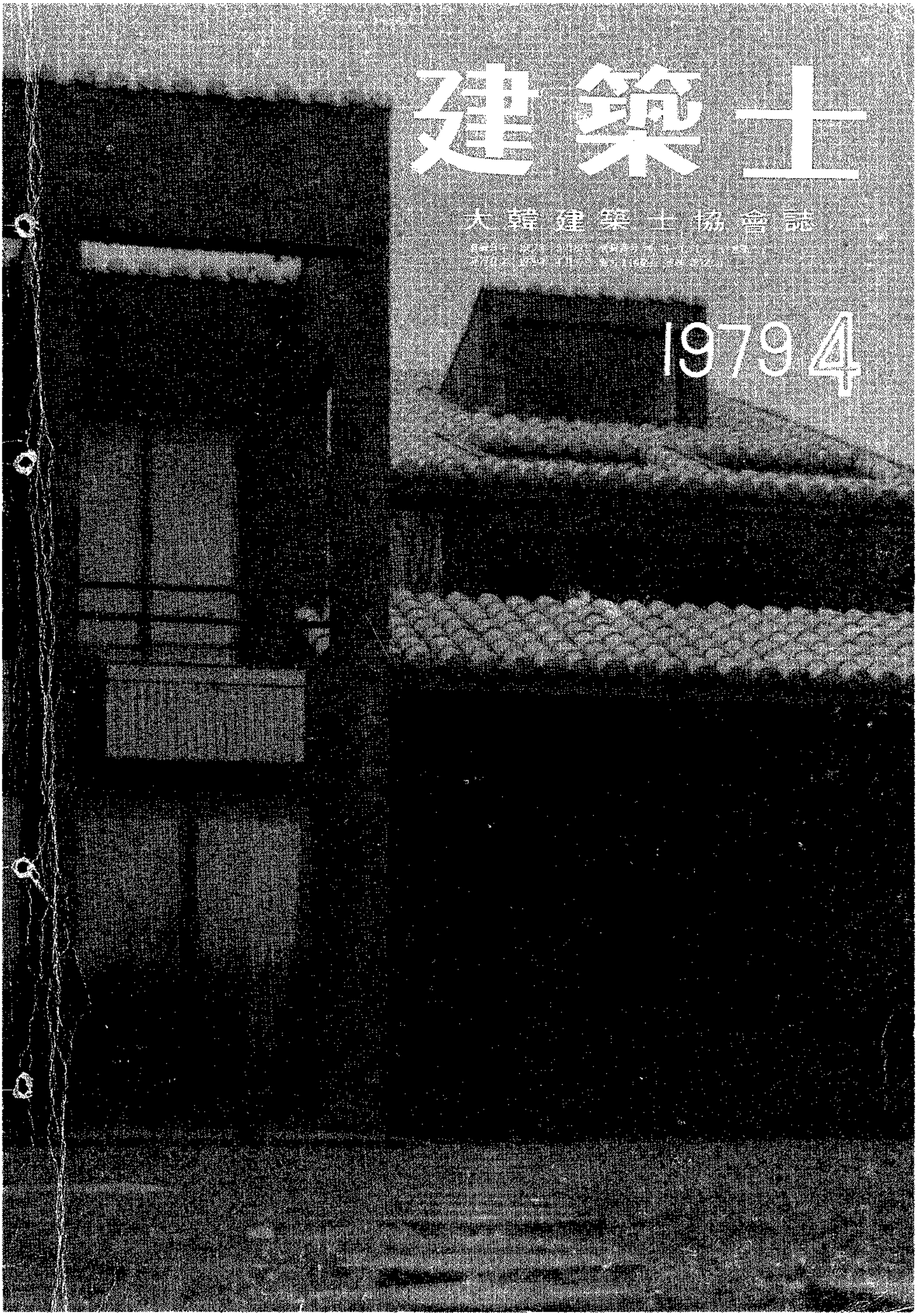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1979 4



U. D. C. 69 / 72 (054 - 2) : 0612 (519)

月刊 建築士

1979. 4

目 次

□ 建築許可一部制度에 대한 建議 …… 2
月間協会動静 …… 3
会員動静 …… 4

■ 論說
臨時行政首都와 住宅供給問題 …… 柳 栄 進 … 5
熱料節約을 위한 熱管理住宅 …… 申 鉉 權 … 9
佛教建築計劃에 관한 研究 …… 金 正 秀 … 15
막살이집의 研究 …… 金 鴻 植 … 26
建築士의 建築創作風土改善策에 관한 研究 …… 梁 元 永 … 31
建築工事標準품셈 改正. 補完内容 …… …… … 37
建築材料의 품질기준에 관한 研究 …… 40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研究制定 …… 48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 …… 49

会員作品作成要領 …… 52
■ 会員作品 …… 53
가. 洪淳寅　라. 李永熙
나. 車東明　마. 尹汝旭
다. 李文雨　바. 鄭時春

1979年度国展(제28회)
建築部門大統領賞受賞作品 …… 66
文公部長官賞受賞作品 …… 69
建築스케치展(建築家 金重業) …… 72
建築界 月間消息 …… 76
海外作品 …… A + U …… 80

編纂委員會
委員長 金 正 澈
委 員 吳 昌 熙
〃 尹 道 根
〃 尹 鳳 源
〃 尹 太 鉉
〃 李 璟 會
〃 李 文 輔
〃 李 廷 德
〃 洪 性 穆

発行人兼 編輯人・金斗燮 / 登録番号・第라-1251号
登録日字・1967年 3月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9年 4月30日 / 通巻 第122号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印刷人：郭得龍(三文印刷所)中区 乙支路3街
21-7676

건축허가 일부 제한에 대한건의

건축법 제44조 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저 소득층의 주택과 공장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목적으로 1978. 5. 22부터 전국에 걸쳐 건축허가를 일부 제한 하고 있는데 대하여 건축허가 일부 제한을 완전 해제시 까지 별첨 내용과 같이 조정 시행함이 가 할것으로 사료되어 건의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건축제한 조정(안)

1979. 4. 30

현 행	조 정(안)	사 유
2. 대상 건축물 가. 공공건축물 나. 민간건축물 (1)상업용건축물 (가)사무실용 건축물(다만 공장, , 아파트에 부수되는 사무실은 제외한다.)	가. 공공건축물 현 행 나. 민간건축물 (1)상업용건축물 (가) 연면적 1,155m^2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다만, 공장, 아파트에 부수되는 사무실 은 제외한다)	현재 각처에 사무실부족 현서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개발지역에서의 사무실 부족 난이 극심하므로 연면적 1,155m^2 미만의소규모 사무실의 건축을 허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나)연예장, 유흥장 사치성목욕탕, 음식점	(나) 현 행	
(다) 백화점, 시장, 점포등 판매점(다만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제외한다)	(다) 백화점, 시장, 점포등 판매장. (다만 아파트의 부대 시설 및 주택 연면적의1/2 이내의 주택병용 점포는 제외한다)	주택가등에 소규모 점포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이것마저 규제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건축후에 임의로 점포를 내는 등 위법 건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므로주택 병용점포정도는 허용함이 바람직하나고 사료됨.
(라)숙박시설(다만 관광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라)현 행	
(마)위험물저장 시설(주유소)집회시설(예식장 관람장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전시장 등) 촬영시설	(마)현 행	
연면적 3,300m^2이상의 종교시설.		
(2)주거용건축물 단독주택 : 지상층의 연면적132m^2이상	(2)주거용건축물 단독주택 : 지상층의 연면적 198m^2 이상	단독주택의 규모를 작게 규제하므로서 사실상 갖가지 형태의 위법 건축을 조장하는결과가 되므로 현실에 맞게 다소 규제 면적을 완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전용면적 148.5m^2 이상	공동주택 : 현 행	
5. 건축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	5. 건축제한에서제외 되는 경우	
신설	(바)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치 않는 용도 변경	건축억제 대상 행위에서 개축이 허용되고 있으며 용도변경 행위는 자재수급과는 무관하므로 동 건축제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규제하므로 위법건축 발생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조 변경을 수반치 않는 용도 변경은 허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김 두 섭

표준 상세도 제정운용에 따른 간담회 개최의건

1. 일　　시 : 1979. 4. 4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참　　석 : 김창곤한규봉 이종만 김정철
이승우 이상수 안영배 윤도근 오창희
조항구 조창한
4. 결의사항 : 가) 외부설계도
낙수구, 다스트슈트, 난간 및 환기구등의 상세52종중 계단실, 엘리베이터, 창그릴, 빨래걸이등의 표준화작업은 건축계획 및 설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방수층, 바닥마감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재 작성키로 결정함

나) 내부설계도
천정마감, 거실, 침실등의 각실마감 및 건식칸막이벽 상세등의 상세 37종중 각실 출입문상세 및 욕실상세등을 삭제하고 천정, 벽, 바닥등의 마감상세에 대하여는 보완 및 추가 형식으로 수정키로 결의함

다) 창호설계도
창호 부분에 대하여는 표시된 규격치수를 제 재목 규격치수로 하여 문 및 창의 틀 칫수로 표기키로 결정하였으며 문및 창의틀 두께를 산림청고시 제4호에 의거 4.5cm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문 및 창의 크기를 정하여 전체적인 창호의 규격화를 유도하기로 결정함.

제2회 건축사 사무소 합동방안연구소위원회

1. 일시 : 1979. 4. 16
2. 장소 : 본협회의실
3. 참석 : 위원장 : 박우하
소위원장 : 김동규
위　　원 : 이명환, 김원안, 송관식, 정진민
4. 안건 : 건축사사무소합동 방안 연구에 관한 건

제4회 보수기준 개정 연구 위원회

1. 일　　시 : 1979. 4. 9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참　　석 : 위원장 : 김두섭
위　　원 : 김동규　강진삼　최창규
구윤회　이명환
4. 결의사항 : 설계비는 현행요율의 80%로 하고 동설계비의 80%를 감리비로 하여 분할하는 것으로 결의된것으로 하고 이에 맞게 문안을 바꾸어 다음 회의에 내 놓도록 결의 함.

제4회 편찬위원회 개최

1. 일　　시 : 1979. 4. 11
2. 장　　소 : 본협 회의실
3. 참　　석 : 위원장 : 김정철
위　　원 : 오창희, 윤봉원, 윤도근
이문보, 이경희, 홍성목
4. 토의안건
가) 회지 발간기간 정상화 확립
나) 특집 계획 수립
다) 시도지부 건설 행정 현지 취재반검토

会員動靜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울
성　　명 : 임 병준
명　　칭 : 중앙기술
소 재 지 : 동대문구 용두2동 138－95
전　　화 :
면허번호 : 700
등록번호 : 13
월　　일 : 3.24

본　　적 : 부산
성　　명 : 오 봉석
명　　칭 : (주)천일건축기술단
소 재 지 : 중구을지로4가310－68
전　　화 :
면허면호 : 1470
등록번호 : 합동11호
월　　일 : 4.2

본　　적 : 서울
성　　명 : 신 동해
명　　칭 : (주)천일건축기술단
소 재 지 : 중구을지로 4가 310－68
전　　화 :
면허번호 : 1470
등록번호 : 합동11호
월　　일 : 4.2

충북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충남
성　　명 : 송 인택
명　　칭 : 한벌건축설계공사
소 재 지 : 청주시북문로2가116－160
전　　화 : 2－3207
면허번호 : 2－1757
등록번호 : 3
월　　일 : 2. 28

부산지부 신입회원

본　　적 : 부산
성　　명 : 노 소일
명　　칭 : 진아건축연구소
소 재 지 : 서구충무동4가16－6
전　　화 : 제10호
면허번호 : 2－1218
등록번호 :
월　　일 : 2. 20

본　　적 : 부산
성　　명 : 이 상철
명　　칭 : 우진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남구 남천동7의10
전　　화 : 제11호
면허번호 : 2－542
등록번호 :
월　　일 : 2. 20

경북지부 신입회원

본　　적 : 경북
성　　명 : 유 배근
명　　칭 : 도시건축
소 재 지 : 대구시중구삼덕동3가 138－7
전　　화 : 46－4482
면허번호 : 1－775
등록번호 : 2
월　　일 : 3. 22

본　　적 : 경북
성　　명 : 신 효근
명　　칭 : 대진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경북경산군경산읍 중방동327
전　　화 : 8－0303
면허번호 : 2－1801
등록번호 : 제 6 호
월　　일 : 2. 14

회원사무소명 정정

남견희 : 한벌건축설계공사

임시 行政首都와 住宅 供給問題

柳 栄 進

이 논문은 1978년 문교부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정책과제 제 1 차 연구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A)서론

4次經濟開発 5個年計劃 年度의 始発인 1977年들어 政府에서는 半月工業団地竣工및 임시行政首都 그리고 半月工業団地 規模로 1～2地域을 더 建設 하겠다는 것이 発表된바 있다.

이와같은 新都市 추진方向은 다같이 大都市에 問題가 되고 있는 人口, 交通및 産業施設을 地方都市 근린地域에 分散하되 過去 大都市에만 集中되었던 政治, 社会, 経済的 여건을 中小都市 育成方向으로 하여 国土開発을 꾀하자는 政策一環으로 간주된다.

이중 임시行政首都는 行政首都로서의 活力을 갖는 機能都市로 表出하여 장차는 大都市 為主의 탄력을 갖는 中心的 役割을 試図하는 것으로 展望하여 바람직한 都市機能은 勿論이며 그중 住宅의 供給方向이라 든가 住居環境의 諸問題를 研究된 政策으로 부상 되어야할것으로 믿어진다.

아직 政府에서는 이에 関하여 地域選定 및 그 開発方法論을 発表하여 表面化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都市機能을 알수 없을뿐아니라 特히 都市基本概念에 있어 住宅供給部門을 어떠한 住居水準으로 供給질서를 바로 잡을 것인가에는 더욱 関心이 될수있다.

本論에서는 임시行政首都를 건설하는데 그 開発方法論과 都市住宅의 量的供給問題를 推定하고 都市에 맞는 人口推定을 하여 適正規模와 住宅供給比率을 利用하여 住宅의 供給질서를 바로잡는 모델을 마련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같은 方法論을 都市의 土地利用에서 基本的 用途地域 配分率로는 住居地域이 60～65%를 点有하므로 実로 都市란 住居地域開発이 重要하다. 따라서 住宅政策이 樹立된 다음에 非住居에 對한 建設行政이 뒤 따르는 政策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住居地域을 推定 하므로서 非住居地域을 推定할수 있게 마련하고 이에 関한 투자금을 推定할수있도록 마련해 보고저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人口를 모르고 都市計劃을 할때 얼마마한 人口의 規模로 얼마마한 宅地를 求해야되며 어떤 住宅型을 供給하여 物理的인 計劃을 할것인가를 모른다. 그리고반대로 투자금이 결정되어도 어떤 住宅型을 어떤 規模로 어떤 供給秩序로 할것인가를 모르며 同時에 어떤規模의 都市内 住居地域이 될것인가 또는 都市範囲가 必要한가를 推定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方法을 研究하면 어떠한 문제 등은 쉽게 우리의 目的을 만족시킬수 있으며 하나의 政策論으로 応用될 수 있다고 볼수있다.

(3) 住区構成

임시행정首都에 人口標本設定은 30万～100万人으로 推定하는 発表가 있었으나 뚜렷하게 行政府에서 発表한적은 없다.

그러나 임시行政首都 建設의 目標은 어디까지나 現서울의 人口增加를 억제하는 方案으로 하기 때문에 人口分散為主의 標本을 만들 必要가 있다.

그리고 임시수도에서는 첫째 都市의 自給自足을위하고 둘째 目標年度의 人口에 比해 增加를 推定해야한다. 만일 目標年度의 人口를 자급자족을 위해 주구성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2개의 住区를 構成해야 相対的으로 활동공간이 推定될 것으로 본다. 一般的으로 住区構成은 班, 統, 洞의 結合을 말하며 日本에서는 隣保区 隣分区 近隣住区이고 우리나라 서울의 人口構成은 1洞이 1만～2만인으로 보며 32～36洞/区, 10統 / 洞, 3班 / 統이다(75′)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통일하여 보면 1洞이 1만명으로 되기때문에 32洞을 構成하면 1住区構成은 人口 32万으

로 되며 2住区構成은 64만人으로 된다. 그리고 인구 수가 많은것으로 알아보면 1洞이 36만인으로 1洞半 정도 구성하여 목표연도에 推定하고 증가율을 가상하면 목표연도는 50만인(36만+18만=50만)으로 되며 증가율은 경제 기획원(77~81년추계)연도별인구 증가율추계는 평균 1.6%이므로 년평균 8,000名(50만×$\frac{1.6}{100}$=8,000名)이 된다. 따라서 1住区半을 目標年度에 設定하여 시설년한을 10個年을 가상하면 50만+(8,000名×10年=80,000名)=580,000名의 계산이 나와 약60만을 잡을수 있다.

이상과 같은 方法이외에도 현행정부의 機構分化를 하여 꼭 임시首都에 유치해야할 空間에 따라 人口를 推計하는 方法이 있겠으나 78년들어 대통령년두교시에서 行政首都建設을 10年~15年을 내다보기 때문에 当時에 行政機構가 어떠한 機能分化를 하여 分散의 이미지를 가감할 것인지를 예측할수 없으므로 역시 住区構成方法을 하여 行政機構가 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行政機能分化에 対한 分散方法으로 推計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C) 広域都市에 対한 주거구성方法

都市의 土地利用 構成比를 보면 住居地域(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60~65%를 점한다.

그리고 住居地域의 空間機能을 合理的 方法을 고려한다면 人間의 生活活動空間을 편익하고 쾌적하게 하기 為하여 住居空間과 非住居空間과의 相関性 距離를 원활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住居地域이라함은 非住居地域인 교양 시설지구를 機能으로 하는 文化, 위생機能을 하는 의료지구, 체육기능을 하는 후생지역, 행정기능을 하는 관공지역, 통근기능을 하는 業務지역, 구매기능을 하는 一般商業地域 오락機能을 하는 오락지역, 通学機能을 하는 文教地域 等이 相関된다. 그리고 편익과 쾌적한 住居環境은 이와 같은 지역에 있어 직주거리에 따르는 適正 距離에 기준된다.

그러므로 住居地域은 一般的으로 広域都市에 있어 同心円 距離에 따라 都市 成長概念 方向과 더불어 造成되는것이 経済的이다.

(표 1) 동심원거리에 대한 아파트 가구현황비

区 分	거리km	家 口	%	市 営	%	公 営	%	家口	市営	公営
同心円	5	15,378	44.	713,414	60.2	1,964	16.2	44	29	15
	10	15,108	43.9	8,326	37.4	6,782	56.0	40	29	11
	15	3,908	11.4	540	2.4	3,678	27.8	8	2	6
		34,394	100	22,280	100	12,114	100	92	60	32

일예로 서울의 경우 아파트住区構成을 보면 표1에서 알수 있듯이 아파트의 家口 分布에서 同心円으로 分析하면 전체 34,394家口에서 5km~10km에 98.6%를 차지하는 分布率을 갖고 있으며 15km에는 不過11.4% 정도이다. 団地 分布에서는 전체 92단지에서 5km~10km에 84%를 分布되고 10km에서는 不過8%에 해당된다(73,까지)

이와같은 現像은 住居地域은 大体로 中心施設과 関係되므로 中心地域 또는 외주부(10km)에 位置하고 家口가 分布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km에 位置코저 할때는 都市의 首都圏확대개발 정책이냐 수도권 억제개발정책이냐에 따라 人口를 집중 또는 분산의 의미를 포함시켜야 한다.

(表2) 洞心円距離에 対한 아파트 規模

km	区分 \ 家口規模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2,000	計
5	団地分布数	5/2	5/8	2/2	1/1	/2	/2	/1	/1	2/1	/1	/1	/1					/1	/1		/3	/1	44
	家口数	238	1,248	580	372	463	615	328	405	1,349	513	539	575					854	910		3,829	2,650	15,378
10	団地分布数	/4	1/5	2/3	1/5	1/3			/2	/2	/1		1/1	1/1	1/1	1/1				1/1		1/1	40
		112	555	695	1,087	948			849	904	490		1,174	1,272	1,320	748				930		4,024	15,108
15	団地分布数				1/1		/1		1/1	1/1											1/1		8
					380		300	728	728												2,050		3,908

즉 都市内 人口를 為한 수용력을 갖추는 住宅을 生産 하느냐 아니면 人口 집중을 막기위해 타지역을 위해 도시외각에 자리잡게 하느냐에 정책을 발표 하는데 住居地域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표2에서 家口規模別 団地分布를 보면 50家口의 小規模에서 2,000家口分의 大規模로 팽창되었고 同心円5km~15km까지 点分布현상으로 되어있다.

임시 행정수도에서는 이와같은 点分布로 팽창할것이 아니라 大規模(1,000~2,000家口) 中規模(500戸) 小規模(100戸)로 区分하여 中心施設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大規模 団地로 할것과,

住居地域内 人口密度는 低密度, 中密度, 高密度지역으로 区分하고 低密度에는 人口50人~100人/ha, 中密度는

100~200人/ha로 高密度地域에는 200人~350人/ha 로 構成하여 平均 120人/ha 이상 수용력을 갖는 住居 地域 面積을 策定하고 1家口1住宅과 적정규모의 택지를 갖는 住居地域으로 計劃해야 한다.

그리고 住区構成은 人口수용과 거주 형식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율을 높일것과 用途地域을 결정하여 도시의 sky~Line을 상관하는 住居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게 計劃해야 할 필요가 있다.

(D) 住宅需要推定

住宅需要의 推定方法은 目標年度의 住宅在庫, 增加率 및 空家率을 합한것으로 한다.

目標年度의 推定人口 50만을 基準하는 것을 住宅 在庫로 보고 우리나라 도시 家族数別 家口構成比를 보면 都市에서는 5人을 피크로 4人, 3人順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目標年度의 家族数는 1家口当 家族数를 3.6人으로 推定하면 住宅数는

(1) 138,888戸이다(500,000÷3.6=138,888,88戸)

(2) 目標年度에서 建設期間을 10年으로 보고 人口增加는 年 1.6%로 본다고 하면 매년 8,000(50万×$\frac{1.6}{100}$=8,000)명이고 10年間은 80,000名이 늘어난다.

그래서 총人口는 580,000名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住宅增加는 每年 2,222戸이고(8,000÷3.6=2,222) 10年間增加 戸数는 22,220戸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3) 都市의 住宅空家率은 住宅市場이 安定된 地域에서는 全体住宅의 3~4%를 보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러나 住宅市場의 不安定한 투기및 이동이 심할때는 5%까지 본다.

그런데 임시 行政首都에서는 새로 마련되는 住宅으로 간주 되고 人口推移 또한 計劃된 水準에서 収容한다고 보면 空家率을 4%로 推定設定 해 보았다.

따라서 空家率 住居数는 目標年度에 대하여 138,888戸×$\frac{4}{100}$=5,555.52戸

年間증가 호수에 대하여 2,222×$\frac{4}{100}$= 88,88戸이므로,

空家住宅=目標年度 住宅在庫空家+年間증가율주택공사=5,555+(88×10)=6,435戸

(4) 총住宅数는 住宅在庫+增加率+空家率

= 138,888戸+22,220戸+6,435戸

= 167,543戸이다.

住宅数를 推定하는 다른 한 方法으로는 目標年度의 人口를 580,000万人으로 할때,

目標年度주택数=수용人口÷1家口当平均人이므로

580,000÷3.6=161,111戸

住宅增加率=目標年度住宅数×주택호수증가율(2.6%)

※ 우리나라에서 1차~3차 경제개발 10年間 주택 건설 호수증가율 2.6이다.

161,111×$\frac{2.6}{100}$ =4,188戸

空家率: 目標年度住宅数×공가율(4%)

161,111×$\frac{4}{100}$=6,444戸

총주택수=161,111+4,188+6,444=171,743戸이다.

그리고 다른 한 방법으로는 目標年度의 人口를 늘려잡고 1家口当家族数에 비례한 住宅在庫로 고정하는 方法이다.

가령 人口標本으로는 580,000万인을 60万으로 하여 1家口当 3.6人으로 算出하면 총주택수는 166,666戸 이다.

그러나 이 計劃에서는 人口를 標本하였기 때문에 第1안인 총주택수 167,543戸를 기준을 한다.

(E) 適正規模와 住居率応用

㉠ 주거형식별배분

総住宅数 167,543戸를 住宅型別 規模 및 様式을 設定하므로서 住宅開発 建設時 体系的 住宅供給 方案을 마련할 수 있다.

1958年 英国의 地方住宅行政省(Ministry of Housing Local Government)에서 아파트와 住宅을 적용하는 고층과저층 計劃은 1,000住居室(大規模)를 対象으로 할때 全体의 15%를 住宅으로하고 나머지 850거주실은 他建物을 본다고 한다.

住 宅 150室	全住居室의 15%
연립주택 및 아파트(4층이하)272실	全住居室의 27%
고층아파트(7층~11층, 13층)	全住居室의 58%
	(580의 68%)578室
	100%

이상의 이론을 적용하면 총주택수 167,543戸를 住宅型式別 配分하면 다음과 같다.

総住宅数	167,543戸	100%
住 宅	25,131戸	15%
연립주택	45,237戸	27%
아 파 트	97,175戸	58%

㉡ 적정규모와 주거율

① 독립주택: 우리나라에서 1977~1981년 까지 住宅需要推定에서 全国住宅에 対하여 適正規模別 住居率은 1室住宅(10.2坪)0.7%, 2室住宅(13.5坪)4.1% 3室住宅(16.5坪)35.6%, 4室住宅(20.6坪)31.7%, 5室住宅(30.3坪)13.2%等으로 공급하는 것이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② 연립주택: 住居規模에 対한 住居率을 1室住宅(7.5坪)10%, 2室住宅(13坪)20%, 3室住宅(20坪)55%, 4室住宅(25坪)8%, 5室住宅(32坪)7%로 된 公営低尺으로 建設토록한다.

③ 아파트 : 住居規模와 住居率은 1室住居(9.8坪 10%, 2室住居(19坪)20%, 3室住居(27坪)55%, 4室住居(33坪) 8%, 5室住居(39평) 7%로된 民營高层으로 建設토록 한다.

(表3) 적정규모와 주거율을 사용한 주거수추정

주택형	주택수	백분비	침실형	주거율(%)	적정규모 (%)	주거수 (戶)	총상면적 (평)
독립주택 (House) H	25,131	15%	1 실	4.7	10.2	1,181	11,810
			2 실	14.8	13.5	3,719	52,066
			3 실	35.6	16.5	8,947	152,099
			4 실	31.7	20.6	7,967	167,307
			5 실	13.2	30.3	3,317	99,510
			소 계	100%		25,131戶	482,792
연립주택 (Town House)	45,237	27%	1 실	10	7.5	4,524	36,192
			2 실	20	13	9,047	117,611
			3 실	55	20	24,880	497,600
			4 실	8	25	3,619	90,475
			4 실	8	25	3,619	101,34444
			소 계	100%		45,237戶	847,222
아파트 (APT)	97,175	58%	1 실	10	10	9,718	97,180
			2 실	20	19	19,435	369,265
			3 실	55	27	53,446	1,443,042
			4 실	8	33	7,774	256,542
			5 실	7	39	6,802	265,278
			소 계	100%		97,175戶	2,431,307
총 계	167,543	100%				167,543戶	3,757,321

※ 1인당 6.4평을 모델한것임.

표3에서는 이상과 같은 적정규모와 주거율을 사용하여 실별住宅数를 算定하고 그 床面積을 求할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住宅供給은 室別위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計劃으로 住宅価를 적용하면 建設総量에 対한 住宅資金을 산출할 수 있고 宅地価를 적용하면 全住居의 開発資金을 알 수 있으며 都市의 土地利用 構成比를 적용하면 都市 計劃面積및 그 투자한도를 산출 하여질 것이 명백해 진다.

(F) 住宅供給原則

① 앞서 論한 바와 같이 1家口当 家口員을 3.6人으로 한다.

② 住居水準을 1室~5室住宅 規模로 하되 1室~3室型 住居水準을 85%까지 끌어올려 労動者 위주의 住宅供給을 원활히 하여, 住宅의 首都圏의 억제 開発과 人工土地의 투기방제, 사회경제적혼란 방지 인구분산의 목표를 시도한다.

③ 都市 土地利用의 経済的개념을 도입하여 住区構成을 시도케 하고 高密度地域은 아파트 中密度地域은 연립주택 低密度地域은 独立住宅을 建立토록 하되 1個団地内에서도 아파트와 연립주택 · 독립주택을 스카이라인(sky-Line)을 고려 配分하되 1室住宅~5室住宅을 住居率에 맞게 섞어 개발한다.

④ 行政府의 年次計劃의 目的에 따라 供給토록 한다.

서울産業大學助教授

熱料節約을 위한 熱管理住宅

— 大韓住宅公社 아파트의 断熱施工을 中心으로 —

申 鉉 権

1. 序 論

現在 우리나라의 重要한 課題는 에너지節約 方案과 經済的 利用方法의 開発이 時急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 節約方法을 大別하면 다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 建物自体의 構造에 의한 方法

○建物 表面積을 最小로 한다.

○窓門을 작게하고 二重窓을 使用

○直射日光을 遮弊한다.

○지붕, 벽, 바닥 等에 断熱材를 使用

○二重門, 回転門에 의한 外風防止를 도모

둘째, 需要에너지의 最高効率에 의한 方法

○機器의 効率運転

○室内温度條件의 変更

○設備運転 時間의 最小化

熱의 再生

○새로운 시스템 創案

○機器의 清浸 交換 等

여러가지 方法中에서 建物自体의 断熱材를 使用한 熱管理 住宅에 관한 考察만을 簡略히 紹介하며 讀者여러분의 建築設計時 参考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1973년 世界에너지 파동이후 効率的인 熱管理와 代替에너지의 開発을 위하여 世界各国이 온갖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이때, 우리 政府에 燃料節約政策에 呼応하며 効率的인 熱管理 国民住宅 建設을 위하여 建物의 保温構造体가 煖房負荷에 미치는 効果와 이에 따르는 建設工事費의 増減幅에너지 節約에 따른 経済性을 検討하여 이를 실제로 住宅建設工事에 広範囲하게 活用토록 하는데 本 研究의 目的을 두었고 研究의 範囲는 大韓住宅公社에서 建設中인 아파트 施工事例를 中心으로 하여 실제 소요되는 建設費, 資材, 施工方法, 無保温時와 保温時의 節減熱量에 대한 測定, 이로 인한 初期建設投資費, 管理費의 増減 等을 比較分析 하였다.

2. 우리나라 住宅建設에 있어서의 断熱에 의한 熱管理 実際

우리나라의 経済力 向上과 더불어 에너지 消耗가 急激히 増加하는 추세이지만, 무연탄의 심층부 채탄에 따른 技術 및 経済性 問題와 低質化에 따라 1970年代에 와서는 漸次石油 中心의 消費構造로 転換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現実에서 볼 때 에너지 消耗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住宅建設에 있어서 設計에서 完工, 管理面에 이르기까지 効率的인 에너지 節約을 図謀하여야 할 것이다.

本 項에서는 熱管理住宅建設에 必要한 代表的인 断熱材種類와 性能에 対하여 検討하고 断熱材 施工의 事例를 列挙하였다.

2－1 国内市販 断熱材의 種類와 性能

保温材料의 種類는 20余種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소방법에 규정된 불연재료에서 단열재를 사용 시공하는 것이 보온 방화의 二重効果를 거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유리면, 석면 보온판, 퍼라이트, 규산칼슘 등이 바람직하며 그외 스치로폴, 우레탄폼도 경우에 따라 우수한 단열재로 사용한다(表1 참조).

2－2 断熱材 施工의 例

断熱施工法으로는 従来에 使用하던 中空壁 쌓기와 断熱材 使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外壁保温, 側壁保温, 天井保温 1層바닥보온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시공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중에서 반포 2지구 아파트 18평형 및 25평형 벽체보온 사례(表 2, 3参照)와 같은 방법이 적당하다.

3. 断熱에 의한 熱管理 住宅의 経済性 分析

3－1 建築保温에 따른 保温熱量 比較

그동안 大韓住宅公社에서 施工한 아파트를 中心으로 調

査分析한 各型別 保温効果에 対한 事例를 検討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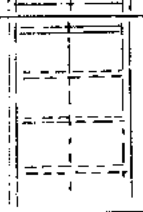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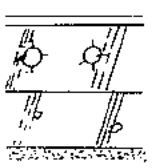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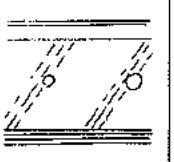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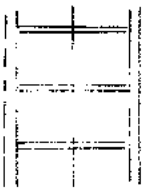
3－1－1 無保温時와 保温時의 熱伝達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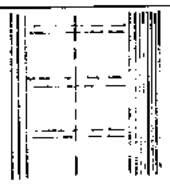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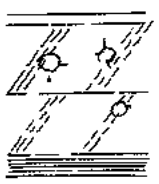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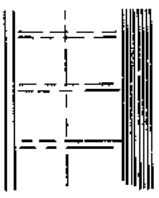
다음 表－2에서 説明되는 것은 서울반포2地区 18坪 N, S型, 中心으로 測定한 保温熱量 比較이다. 大体로 断熱性의 優劣은 熱貫流抵抗R (熱의 흐름을 防害하는데 作用하는 抵抗$m^2hr℃$ / Kcal)과 이의 역수인 K(単位面積, 単位時間内에 内外의 温度差가 1℃인 경우에 흐르는 熱量 Kcal/$m^2hr℃$)의 大小로 나타내는데 다음 式에 따라 算出된다.

〈表－1〉 代表的 断熱材의 種類 및 性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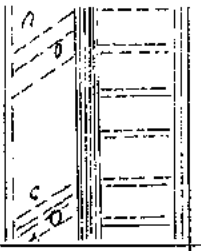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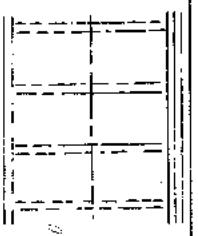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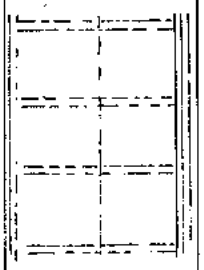
区分		材料名	우레탄	스치로폴	암면	유리면	석면	퍼라이트	석고	규산칼슘	질석	규조토	세라믹면
性能		比重(부피)	0.103~0.045	0.015~0.05	0.015~0.035	0.01~0.024	0.17~0.45	0.2~0.3	2.36~2.8	0.22	0.1~0.2	0.5~0.6	0.08~0.45
		熱伝導率(kcal/mhr℃)	0.022~0.025	0.033~0.039	0.033~0.045	0.03~0.043	0.2~0.3	0.04~0.18	0.076~0.14	0.04~0.055	0.02~0.075	0.08~0.095	0.05~0.27
		最高安全使用温度(℃)	100	90	600	300	550	650	300	650	1,200	500	1,300
用途	建築面	天井保温	○	○	○	○	△	○	○	△	○	×	×
		壁保温	○	○	○	○	△	○	○	△	○	×	×
		바닥保温	○	○	○	○	×	○	×	△	○	×	×
		내장재	×	×	△	△	○	○	○	△	○	×	×
	設備面	닥트및配管保温	△	○	○	○	×	×	×	○	○	○	○
		보일러및熱交換器保温	×	×	○	○	×	×	×	○	△	○	○
	音響面	防音	○	○	○	○	○	○	○	×	○	×	×
		吸音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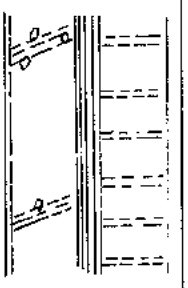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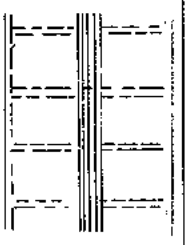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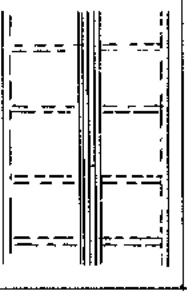
〈表－2〉반포2지구아파트 18평형 벽체 보온 사례

区分	保温前 詳細図	構造	두께	열관류율K (kcal/m²hr℃)
外壁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高圧벽돌 4.시멘몰탈 5.内部熱抵抗	— 20 240 20 —	1.33
間壁		1.内部燃抵抗 2. 시멘몰탈 3.高圧벽돌 4 시멘몰탈 5.内部熱抵抗	— 20 240 20	1.20
寝室바닥		1.内部熱抵抗 2.시멘몰탈 3. 바닥콘크리트 4.콘크리트 5.스치로폴 6.外部熱抵抗	— 20 177 120 25 —	0.82
一般居室및부엌바닥		1.内部熱抵抗 2.라왕합판 3.시멘몰탈 4.콘크리트 5.스치로폴 6.外部熱抵抗	— 18 20 120 25 —	0.81
一層욕실바닥		1.内部燃抵抗 2.모자익타일 3.시멘몰탈 4.콘크리트 5.스치로폴 6.外部熱抵抗	— 6 30 120 25 —	0.89
側壁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高圧벽돌 4.시멘몰탈 5.内部熱抵抗	— 20 375 20 —	0.95

区分	保温後			
	詳細図	構造	두께	열관류율K (kcal/m²hr℃)
外壁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高圧벽돌 4.스치로폴 5.질섬보드 6.內部熱抵抗	— 20 240 36 9	0.5
間壁		1.內部熱抵抗 2.시멘몰탈 3.高圧벽돌 4.스치로폴 5.질섬보드 6.外部熱抵抗	— 20 240 36 9 —	0.49
寢室바닥		1.內部熱抵抗 2.시멘몰탈 3. 바닥콘크리트 4.콘크리트 5.스치로폴 6.外部熱抵抗	— 20 177 120 50 —	0.48
一層居室및부엌바닥		1.內部熱抵抗 2.라왕合板 3.시멘몰탈 4.콘크리트 5.스치로폴 6.外部熱抵抗	— 18 20 120 50 —	0.47
一層욕실바닥		1.內部熱抵抗 2.모자익타일 3.시멘몰탈 4.콘크리트 5.스치로폴 6.外部熱抵抗	— 6 30 120 50 —	0.5
側壁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高圧벽돌 4.스치로폴 5.질섬보드 6.內部熱抵抗	— 20 375 36 9 —	0.43

〈表－3〉 반포2地区 아파트 25평형 벽체보온 사례

区分	保温前			
	詳細図	構造	두께	열관류율K (Kcal/m² hr℃)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 24	
側壁		3.콘크리트 4.공기층 5.스치로폴 6.시멘블록 7.시멘몰탈 8.內部熱抵抗	100 25 25 100 18 —	0.70
外壁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시멘블록 4.시멘 몰탈 5.內部熱扱抗	— 24 200 18 —	
外壁(浴室)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시멘블록 4.시멘몰탈 5.세라믹타일 6.內部熱抵抗	— 24 200 18 6 —	1.8

区分	保温後			
	詳細図	構造	두께	열관류율K (Kcal/m² hr℃)
側壁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콘크리트 4.스치로폴 5.시멘벽돌 6 시멘몰탈 7.內部熱抵抗	— 24 100 50 100 18 —	0.45
外壁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탈 3.시멘블록 4.스치로폴 5 시멘블록 6.시멘몰탈 7.內部熱抵抗	— 24 100 50 100 18 —	0.47
外壁(浴室)		1.外部熱抵抗 2.시멘몰탈 3.시멘블록 4.스치로폴 5.시멘블록 6.시멘몰탈 7.세라믹타일 8.內部熱抵抗	— 24 100 50 100 18 6 —	0.45

$$R = \frac{1}{a_1} + \sum \frac{d}{\lambda} + \frac{1}{a_0}$$

$$K = \frac{1}{R}$$

R : 熱貫流抵抗($m^2hr℃$ / kcal)

K : 熱貫流率(kacl / $m^2hr℃$)

a^1 : 室内側表面 熱伝達率(kacl / $m^2hr℃$)

a_0 : 外側表面 熱伝達率(kcal / n $hr℃$)

d : 構成材料의 두께 (㎜)

γ : 構成材料의 熱伝導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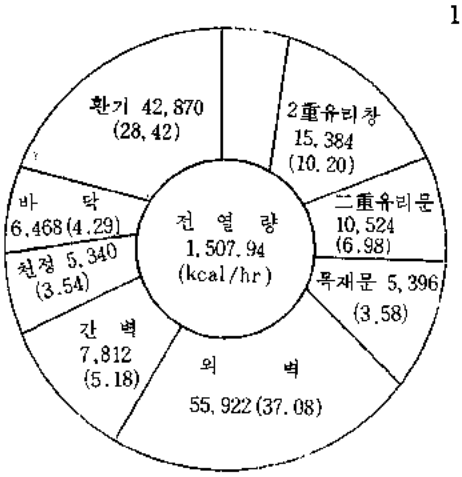
반포 2 地区 18坪 아파트의 경우 1977年10月~ 1978年3月사이에 30世帯를 対象으로 測定하였는데 그 平均値를 算出한 結果 外壁의 경우 240㎜의 고압벽돌 1매쌓기, 20㎜시멘몰탈마감, 내부에 20㎜ 시멘몰탈로 마감하였더니 k=1.33kcal1 /$m^2hr℃$의 熱貫流率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工法에 内部 20㎜ 시멘몰탈 대신 36㎜의 스치로폴과 9㎜의 짚섬보드로 施工한 結果 k=0.5kcal / $m^2hr℃$가 되었다. 保温 前과 保温後의 熱貫流率의 比率을 보면 約3 : 1이나 된다. (表2 参照)

위와같은 内容으로 施工한 結果 간벽의 경우 保温前 熱貫流率 k=1.20kcal /$m^2hr℃$, 保温後 熱貫流率 k=0.49kcal /$m^2hr℃$가 되었다.

침실바닥의 경우 120㎜의 콘크리트 위의 20㎜의 시멘몰탈과 177㎜의 바닥 콘크리트를 하고 맨아래 25㎜의 스치로폴을 부착시킨 結果 k=0.82Kcal/$m^2hr℃$가 되었는데 같은 内容의 施工에 스치로폴의 두께만 25㎜에서 50㎜로 바꾸었더니 k=0.48kcal/$m^2hr℃$가 되어 断熱材의 두께에 따라 相当한 熱차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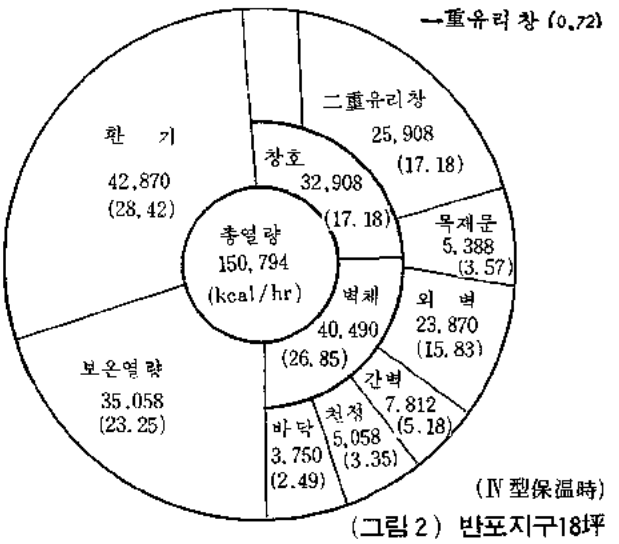
3-1-2 各型別 無保温時와 保温時의 損失熱量 및 保温 熱量 比較

本項에서는 盤浦2地区 18坪N型 30世帯를 標本抽出하여 無保温時의 熱損失量을 測定한 結果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N型無保温時

(그림1) 반포지구18坪



(Ⅳ型保温時)

(그림2) 반포지구18坪

前述한 바와 같이 本 研究에서는 室内温度 10℃, 外気温度 12℃의 겨울 날씨를 基準으로 하여 必要熱量 測定을 한 結果 無保温時 時間当 単位 面積(m^2)에 所要되는 熱量이 150.79kcal / hr로 나타낸다. 그런데 外壁, 間壁, 天井, 바닥에 50㎜두께의 스치로폴 또는 기타 断熱材를 兼用하더니 23.225%(35,058kcal / hr)의 熱量이 節約되었다. 즉 약 23.25%의 燃料代가 節約되었다.

그림 2에서 熱損失率을 보면 창호(一重유리창, 二重유리창, 목재문)에서 모두 21.48%인 33.382kcal / hr가 소모되고 벽체(외벽, 간벽, 天井, 바닥)에서 50.09%인 75.542kcal / hr가 소모되고, 환기에서 28.42%인 42,870 kcal / hr가 소모되었다. 그림 2과 같이 保温後의 熱損失率을 測定한 結果 창호에서 21. 47%인 32.376kcal / hr 벽체에서 26.85%인 40,490kcal / hr로 23.4% 35,052 kcal / hr가 節減되고 환기에서는 28.42% 42,870kcal / hr로 同一한 数値가 나타난 結果 保温前 消耗熱量150,791 kcal / hr보다 35,058kcal / hr가 節約되었다.

3-2. 経済性 検討

앞 節에서와 같이 大韓住宅公社가 施工한 1977年度 盤浦2地区 発注 工事를 事例로하여 初期·建設 投資와 管理費의 両面에서 経済性을 検討하였다.

3-2-1 初期建設投資費 分析

3-2-2 管理費 分析

서울盤浦 2地区 1,690世帯의 경우 난방유지비를 算出한 결과 保温時의 燃料消費가 無保温時 보다 21,56% 나 節減되었다.

하루에 平均 12 時間 1年中 7 個月(10월 中旬부터 다음 해 5月 中旬)을 煖房한다고 볼때 모두 647,640ℓ(약 3,200드럼)의 油類가 절약되고 금액으로 換算하면 약31,734,360원이 절약 되었다.

電気動力費의 경우 保温構造에 의한 節減電気動力費가 22.11 % 즉 56.5Kw/hr(2,260원/hr)가 되었다.
이것을 하루의 12 시간씩 년중 7 개월을 가동한다고 볼때 총 142,380Kw 5,695,200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表－4〉 盤浦 2地区 建築保温에 따른 初期建設投資費 比較表

単位：千원

区 分	事業量(坪)	計劃金額(1)	住宅価格算定金額 (2)	建築保温에 따른 初期建設投資費 増減額 (3)	(3)/(1) %	(3)/(2) %	備 考
建築工事費		5,317,848	5,354,183	+78,500	+1,476	+1,466	건축보온공사비 68,000 골조추가공사비 10,500
機械工事費		2,322,041	2,397,223	− 117,800	−5,073	−4,914	옥내감소액 88,000 옥외감소액 29,800
電気工事費		5,146,964	435,308	− 4,500	−0.887	−1,034	
計	33,718	8,146,964	8,186,714	−43,800	0.535	0.535	절감액 1,300원 / 坪

資料：大韓住宅公社 住宅研究所 提供

〈表－5〉漢江맨숀아파트등 在京 5個地区 煖房아파트 煖房管理費 基準

区 分	煖房油類費	電気動力費	計
原設計에 依한 消費量	2,717,510ℓ	724,200KwH	
保温構造에 依한 消費量	2,131,227ℓ	565,160KwH	
保温構造에 依한 節減量	586,283ℓ	159,040KwH	
保温構造에 依한 年間管理費 節減量	29,314,150원	6,361,600 원	35,675,750원
坪当年間 節減量	17.4ℓ 869원(1ℓ 당49원)	4.7KwH 189원(Kw당40원)	1,058원

資料：大韓住宅公社, 住宅研究所 提供(1978년 3월)

〈表－6〉 全国의 集中 煖房아파트 適用時 節減額 검토

区 分	金額算出内역
初期 投資費 節減額	1,300원×1,242,497평×1.2(물가상승율) =1,938,295,320원
年間 관리비 節減額 油類費	
油類費	17.4ℓ / 坪×1,242,497坪=21,619,447.8ℓ 21,619,447.8ℓ×49원 / ℓ= 1,059,352.2원
電力動力費	4.7Kw / hr坪×1,242,497坪=5,839,735.9Kw / hr5,hr×40/839,735.9Kw 원 / hr / Kw=233,589,436원
小 計	1,292,942,378원
計	3,231,237,698원

8) 建設部, 全国 아파트 分析현황, 1977. 8. 10現在

다음(表－5)에서는 漢江맨숀아파트 등 在京 5개지구 煖房아파트의 煖房管理를 基準으로하여 算出한 坪当 年間 油類費 및 電氣動力費 內容을 分析하였다.

表5에서 算出된 內容을 根拠로 全国의 集中煖房 아파트 48,224세대(연건평 1,242,497坪)[8]를 適用한다면 年間 약 21,000,000ℓ의 油類가 節約되고 金額으로 換算하면 약 1,000,000,000원이 節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전기 動力費의 年間 坪当 煖房에 소요되는 平均値를 算出한 결과 4.7Kw/hr가 節減되는 것으로 이것을 適用하면 약 5,800,000Kw/hr의 전력이 절약되고 이것을 金額으로 換算하면 약 200,000,000원이 되는 것이다.

結　　論

熱節約을 위한 効率的 熱管理 住宅建設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단열시공 사례를 中心으로 保温 構造体가 煖房負荷에 미치는 物理的 効果를 측정하고 経済的比較検討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使用되는 断熱材 20余種의 断燃効果와 経済性으로 보아 스치로폴, 유리면(안전사용온도 300℃), 석면보온판(안전사용도 350℃～550℃) 퍼라이트(650℃), 규산칼슘(650℃)등 5종류가 좋으며, 단 스치로폴은 열안정성이 약한 단점을 고려야 한다.

2. 반포2지구 아파트 18평형, 및 25평형과 같은 경우 表3과4와 같은 시공방법으로 外壁, 間壁, 바닥 보온을 하였을경우 熱貫流率 K=0.5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내어 우수한 단열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천정, 바닥에 50mm두께의 스치로폴 및 기타 단열재를 겸용 保温한경우 평균 23%(35,000kcaℓ/hr)의 열절약이 되었다.

3. 初期建設投資費에 있어서 建築保温에 따른 建築工事費의 增加額보다 난방무하의 감소로 인한 난방 및 전기설비의 감소액이 더 많아 실질적인 초기건설투자비가 43,800,000원이 절감되었고, 煖房管理費에 있어서도 年間21 56%인 37,499,000원이 절약되었는 바, 年間 約 3,200D/M의 기름과 142,380Kw/hr의 電力이 절약 되었다.

断熱材의 経済的 두께에 대한 技述的 基準이 없고 熱管理 住宅建設을 위한 供給者 및 断燃材 生産業体에 対한 政府의 規制와 금융면, 세제면에서의 지원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建築保温 構造에 対한 設計, 施工에 따른 基準을 行政的으로 確立하고 制度化해야 하며 아울러 금융면, 세제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量産体制를 갖추게 하고 원가절감을 하는 한편 단열재의 다양한 개발과 품질 관리제도가 시급하다 하겠다.

参考 : 1978년 11월 현재 유류가격은 방카시유 1ℓ당 51.98원, 경유는 1ℓ당 61.78원임

주택공사설비과장

仏教建築計劃에 関한 研究

金 正 秀

第1節 韓国仏教宗派의 現況과 分類

가. 宗派別 建築의 分類

8·15 解放과 더불어 信仰의 自由가 許容되는 大韓民国憲法規定에 따라 韓国에는 国内·国外의 各種 宗教教派가 생겼으니 仏教도 또한 새로운 宗派가 多数 発生하게 되었으며 特히 5·16以後 急速한 増加를 보이고 있다.

(1) 宗教上 分類

이들 宗派는 크게 나누어 伝統仏教系와 新興 仏教系로 区分할 수 있으니 伝統仏教系는, 仏教導入以後 今日까지 16世紀의 期間에 걸쳐 韓国仏教의 法統을 이어온 教派를 말하며 現在의 比丘側의 曹溪宗과 帯妻側의 太古宗을 말한다.

그에 反하여 新興仏教系는 大部分 解放을 前後하여 発生 또는 登録한 教派를 말하며 現在 20余 宗派에 達하고 大体로 浄土信仰系, 元暁思想系, 密教系, 法華信仰系, 其他 等으로 分類하고 있으니[47]이를 그림으로 表示하면 第1表와 같다. 新興仏教系中에도 元暁思想系는 大体로 伝統仏教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仏寺도 相当히 오랜 歴史를 지닌 경우가 많다.

新興仏教中에는 日本 日蓮宗系에 属하는 宗派가 많으니 韓国仏教 法華宗, 大韓仏教 法華宗·仏入宗, 靈山 法華宗 等이 이에 属한다.[6]

(2) 建築上 分類

다음 分類方式은 第3章 以下의 調査에 対한 結論의 一部라 할 수 있다.

各種 教派를 建築形式上으로 分類하면 多仏殿型과 単仏殿型으로 区別할 수 있으며 多仏殿型은 伝統仏教系인 曹溪宗, 太古宗과 元暁思想系의 大韓仏教 元暁宗, 大韓仏教 華厳宗, 大韓仏教 総和会 等이 이에 属하며, 単仏殿型은 이를 仏壇에 仏像을 모시는 有仏殿과 仏壇에 仏像이 全혀 없는 無仏型으로 区分할 수 있다고 본다.

(47) 週間宗教社, 韓国宗教総鑑(서울, 성화사 1973) p78.
(6) 李喜秀, 韓国佛教(서울, 佛教普及所 1971) p204

前記 単仏殿 有仏型의 宗派에 있어서는 대개 仏殿内部에 安置된 仏像의 数는 宗派에 따라 一仏 内至 五仏을 前面 仏壇에 安置하며 其中 大韓仏教 法華宗·一乗宗은 釋迦 単仏을 安置하였고 韓国仏教 法華宗은 2仏, 大韓仏教 仏入宗은 5仏을 各各 安置한다.

但, 真言宗은 大日如来単仏을 安置하며 天華 仏教에서는 仏像은 単仏 薬師仏이고 기타는 仏幀曼陀羅이다. (曼陀羅란 密教系에서 大日如来를 中心으로 각종 仏 및 菩薩을 배치한 仏画를 말함)

特히 在来의 伝統的 二大宗派의 本山인 曹溪宗 曹溪寺와 太古宗 法輪寺가 勿論 都市型 仏寺인 関係도 있겠지만, 各各 単仏殿型으로서 釋迦 三尊仏만을 須彌壇에 안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在来式 多仏殿型仏寺가 차츰 単仏殿型으로 改革의 推勢를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特記할 만한 현상이라 보겠다. 単仏殿無仏型으로써는 密教系의 大韓仏教 真覚宗과 円仏教를 들 수 있으나 其中 円仏教는 이를 仏教로 認定할 것인가에 関하여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나. 各仏教宗派의 現勢와 分布統計

仏教 各種派中 信徒数가 가장 많은 宗派는 옛날부터 그 法統을 継承해오는 曹溪宗과 太古宗이며 全体 信徒数의 七割以上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法華宗, 円仏教, 天台宗, 一乗宗 等의 順이다. 寺庵, 僧侶, 信徒 等의 詳細한 数는 第3表와 같다.[47] (註(47)은 第3表参照)

第2節 新興佛教系建築

1. 法華信仰系

各 宗派는 大体로 法華経을 所依経典으로 하며 佛殿의 건축은 単佛殿型이고 佛壇에 安置된 佛像의 数도 釋迦 単佛像 또는 많아야 五佛以内 程度의 佛像을 안치하며,

(第1表) 韓国仏教宗派의 教理上 分類

- 韓国仏教宗派
  - 伝統仏教系
    - 曹溪宗
    - 太古宗
  - 新興仏教系
    - 法華信仰系
      - ○大韓仏教法華宗
      - ○大韓仏教仏入宗
      - ○韓国仏教法華宗
      - 大韓仏教一乗宗
      - 大韓仏教天台宗
    - 浄土信仰系
      - 大韓仏教浄土宗
      - 大韓仏教法相宗
      - 大韓仏教龍華宗
      - 大韓仏教彌勒宗
      - 天華仏教
    - 元暁思想系
      - 大韓仏教元暁宗
      - 大韓仏教華厳宗
      - 大韓仏教総和会
    - 密教系
      - 大韓仏教真覚宗
      - 大韓仏教真言宗
    - 기타
      - 普門宗
      - 観音宗
      - 普清宗
      - ○霊山法華宗
      - 救世仏教
      - 円仏教

但, ○印은 日本 日蓮宗系임.

(表2表) 韓国佛教宗派의 建築上 分類

- 韓国佛教各宗派
  - 多佛殿型—曹溪宗, 太古宗, 元暁宗, 華厳宗, 総和会, 普門宗
  - 単佛殿型
    - 無佛型—眞覺宗, 円佛教
    - 有佛型
      - 単佛型
        - (釋迦佛) 大韓法華宗, 一乘宗
        - (大日如来) 眞言宗
        - (藥師佛) 天華佛教
      - 二佛型—韓国法華宗, 龍華宗
      - 五佛型—佛入宗

(第3表) 韓国佛教의 教勢現況(宗教総鑑 1973)(47)

区分 / 宗団名	寺庵数	僧侶数			信徒数		
		男	女	計	男	女	計
大韓佛教彌勒宗	5	—	—	67	38,710	29,420	68,130
大韓佛教法相宗	15	36	39	75	31,012	61,559	92,586
大韓佛教法華宗	781	—	—	1,530	—	—	980,670
大韓佛教普門宗	4	—	—	170	31,275	75,512	103,787
大韓佛教佛入宗	25	40	91	2 1	2,000	62,300	64,300
大韓佛教龍華宗	12	76	68	144	7,450	11,450	18,900
大韓佛教元暁宗	50	198	59	257	96,090	203,299	299,389
大韓佛教一乘宗	226	128	133	259	113,957	193,907	307,864
大韓佛教浄土宗	7	—	—	12	2,825	15,201	18,026
大韓佛教曹溪宗	1,255	8,251	5,153	13,404	2,626,082	3,246,920	5,873,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690

区分 / 宗団名	寺庵数	僧侶数			信徒数		
		男	女	計	男	女	計
大韓佛教眞覺宗	98	33	101	134	60,550	171,450	231,980
大韓佛教眞言宗	16	6	12	18	—	—	14,386
大韓佛教天台宗	93	184	108	292	286,181	198,730	484,911
大韓佛教総和會	84	25	11	36	3,489	7,753	11,242
大韓佛教華厳宗	30	—	—	57	—	—	87,800
韓国佛教法華宗	34	25	26	51	1,450	9,690	11,140
韓国佛教太古宗	1,639	2,374	356	2,730	681,367	800,360	1,481,727
計	4,374	11,374	6,157	19,367	3,982,438	5,084,531	10,149,840

区分 / 宗団名	教堂数	教職者数			信徒数		
		男	女	計	男	女	計
圓佛教	186	386	536	904	228,372	408,130	636,502

天台宗祖인

佛殿의 형식도 現代式建築様式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共通的 傾向으로 볼 수 있다.

가. 大韓佛教法華宗

本宗은 高麗時代 天台宗祖인 大覚國師를 宗祖로 하여 天台宗의 法系를 復活시킨 것이며 法華経을 根本経典으로 하여 1956年 法華宗을 創立하였다. 建築的 特色으로는 山神閣, 七星閣, 神像壇 等이 없으며 単佛殿 現代式으로하여 釋迦如来만을 佛壇에 安置한다. 全国에 近 八百餘 寺庵을 가진, 新興佛教宗派中에서는 首位의 大宗派이다.

但, 地方의 佛寺는 傳統的 韓式의 建築様式을 많이 擇하고 있다.

大法精舎(서울 城北洞 93)

大法精舎는 法華宗의 本山이며 代表的 寺刹이다. 1971年에 新築된 이 建物은 大雄殿을 南向에 配置하고 그 左側에 梵鍾閣이 설치된 単佛殿型佛寺이다.

大雄殿 建物은 鉄節콘크리트 現代式 3층건물이며 1, 2층은 僧房이고 設問을 통하여 알어본 결과, 술, 담배, 肉食과 帶妻長髪은 沙門이라 할 지라도 허용되므로 僧房은 一般住宅에 準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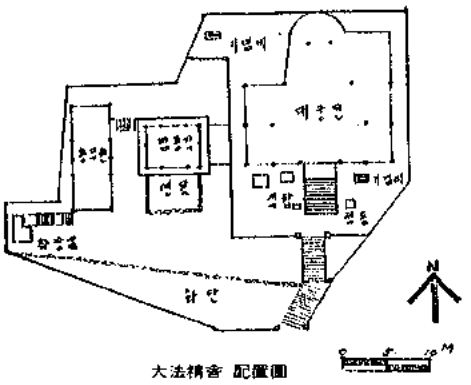
3層은 佛殿이며 地形関係로 佛壇左側을 건축할 수없어 全体平面이 若干 ㄱ字型이다. 配置 및 3層平面은 第1圖를 参照할 것. 반자에는 龍 8마리의 木刻에 붙어있고 바닥은 무늬木이 깔려있다.

○ 佛壇의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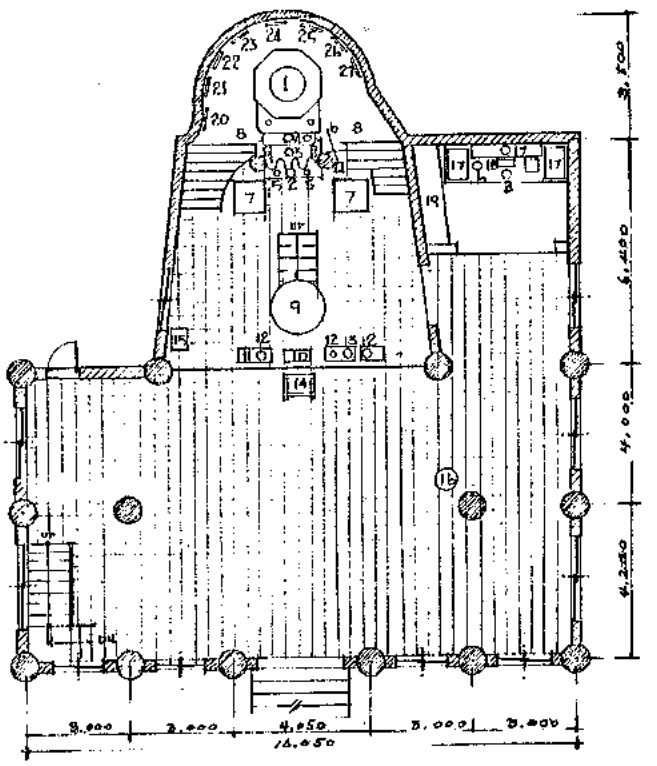
佛壇을 設置하기 위하여 建物의 北側中央部分을 平面에서 보면 平円形 Apse 模様으로 突出시키고, 約15cm 높혀서 内陳바닥보다 1.2 m 높히어 佛壇을 設置하되 佛壇中央左右에 円柱를 세우고 円柱밖으로 左右階段을 설치하여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佛壇中央에 三重須彌壇을 설치하고 그위에 8角 3段의 連花무늬가 없는 台座를 設置하고 그위에 西藏宰覩波型의 佛龕을 올려놓았으며, 그속에 前面에서 佛像을 보이게 앉을 트고 合

掌釋迦單独結跏坐像이 안치되어 있으며
佛像에는 또 다시 台座와 아울러 後光이 장만되어 있다. 半円形의 内陳壁에는 부처님의 8相画가 액자에 넣어져서 둘려 부쳐져 있고, 内陳 中央前面에 設法机, 木鐸台, 坐鍾台, 椅子 等이 配置図(第104 図)에 表示된 것과 같이 配置되었으며 佛壇右側은 靈位牌를 모시기 위한 壇이 別途로 장만되어 있다.

佛壇全景은 (第2図)를 参照할 것.



大法精舍 配置圖



佛壇 平面圖

1図 大法精舍(大韓佛教法華宗総本山)筆者実測

1. 釋迦矣尼佛
2. 香 爐
3. 茶 器
4. 마지佛器
5. 燈 燭
6. 花
8. 코끼리花瓶
9. 法 床
10. 祝願貞子
11. 経 床
12木 鐸
13. 坐 鍾
14. 椅 子
15. 祝願文函
16. 보성계
17. 釋迦矣尼佛
18. 連 坐
19. 선 반
20. 興率来儀相
21. 毘藍降生相
22. 四門遊観相
23. 踰城出家相
24. 雪山修道相
25. 樹下降魔相
26鹿苑転法相
27. 雙林涅槃相

나. 大韓佛教佛入宗

1965년 太虛 李泓宣이 創宗한 法華信仰系의 佛教宗派이며 法華経을 所依法典으로 하며 釋迦佛을 主佛로 하여 左二位, 右二位의 菩薩像을 安置한다. 設問事項을 要約하면, 佛殿은 大雄殿 單佛殿으로 한 韓国式包作様式을取하되 철근콘크리트 等의 現代式 材料도 무방하며 都市地方을 通하여 3層程度의 高層化된 集中式도 賛成하고 있다. 教職者의 結婚은 自由이고 僧侶는 寺刹内에 있도록 하되 家族은 寺刹外에 住居를 두도록 하며 座式温突을 願한다.

将來 增設希望建築物로서는 納骨堂, 法堂, 講堂, 祈禱室, 布教会舘, 青年会舘, 修道院, 寮養院 等을 願하고 있으나 写府殿, 應眞殿 等의 佛殿은 必要로 하지 않는다.

最近 落成한 龍乘寺(東大門区 踏十里洞 149)는 鉄筋콘크리트의 現代式建築이며 寺刹의 特色을 具備한 아름다운 外観을 가진 優秀한 建物이다.

§ 妙覺寺(서울 東大門区 崇仁洞 178의 8)

佛入宗의 總本山이며 中庭에 面하여 大雄殿과 鉄筋콘크리트 法堂建物이 있으며 中庭에는 石塔, 石燈이 있다.

大雄殿에는 釋迦牟尼 主佛, 左神処에 安立行·無変行菩薩 右補処正行·上行 両菩薩이 안치되어 있으나 이 建物은 낡어서 不遠 撤去할 予定이라고 한다.

法堂은 現代式 三層建物이며 屋上 平지붕위에는 露天立像大佛이 서있다. 1層은 僧房, 2층은 기도실, 3층 法堂이며 法堂에는 佛壇에 釋迦 單佛이 安置되어있고 右側에 靈壇이 마련되어 있다. 佛壇前面에는 法床을 설치하고 그 주위에 목탁, 징, 북, 経床 等이 있으며 左側壁에는 説法用卓子 및 黒板이 준비되어 있고 信徒席이 넓게 마련되어 있다.

建物配置 및 法堂 佛壇配置는(第3図)와 같다.

佛具 — 主要佛具의 종류로서는 법주, 징, 범종, 대북, 좌종, 木鐸, 북, 여이, 竹篦 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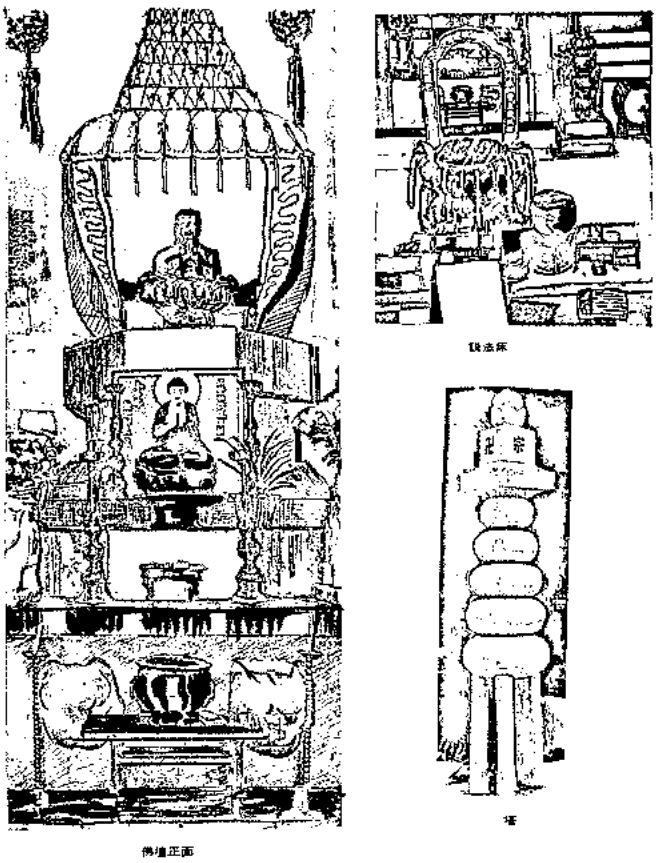
다. 韓国佛教法華宗(서울 城北区 三仙洞 2街 233)

日政時代부터 日本 日蓮宗 本門 本能寺와 法縁을 맺고 布教를 하여오던 金慧宣法師에 依하여 1960年 創宗登録되었으며, 所依法典은 大乘抄法華経이다. 現地踏査하여 設門을 通하여 알어본 결과, 法堂外에서는 肉食이 허용되고 머리를 기른다던가 私服차림도 인정되는 相当히 進歩的 宗派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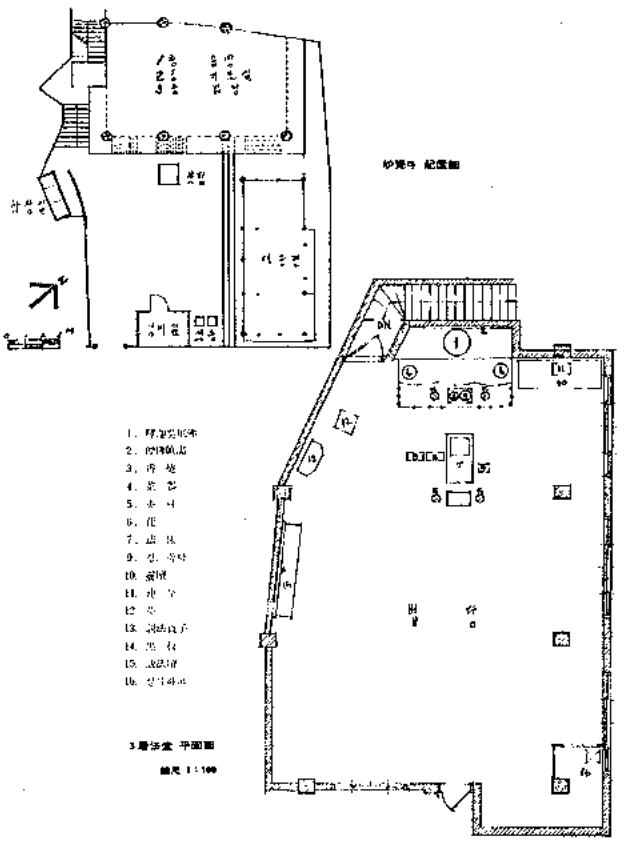
佛寺建築은 山地에서는 韓式建物로 하되 都心地에서는 現代式을 賛成하며 건축재료도 木材가 아닌 現代式材料使用도 可하고 보일라, 電氣 等의 現代式 設備을 하여도 무방하다. 大体로 山地佛寺는 多佛殿分散式보다 單層으로 하고 都心地佛寺는 高層을 願하고 있으며 建物配置方式은 多佛殿 分散式보다 單佛殿集中式을 賛成한다. 法堂建物은 現代式도 좋으나 外観은 蓮꽃을 表現한 Design 을 願하고 있으며 法堂을 高層化하였을 경우에

는 大衆室, 圖書室, 研究室事務室, 주방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 法堂内部의 信徒席은 韓式 방석座式이어야 하며, 佛壇에는 佛像으로 釋迦牟尼와 多宝如来 三座만을 모시되 佛殿에는 円青을 하지 않는다. 法堂에서 使用되는 佛具中 座鍾, 죽비(竹篦), 촛대 等의 형태는 曹溪宗과 다르다고 하고 있다. 또한 便所는 法堂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

僧侶를 法師라 稱하며 法師의 居処는 일반적으로 寺刹外部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建築形式은 現代式住宅建築様式도 무방하다.



2図 大法精舎佛壇(大韓佛教 法華宗)



3図 妙覚寺(大韓佛教 佛入宗) 筆者実測

§ 法華寺(서울 城北区 三仙洞 2街 233)

韓国佛教法華宗의 本山이며 1941年 건축되었다. 蓮꽃무늬와 홍예形 부란벽이 正面壁朝上에 솟아있는 組積造의 現代式單層法堂建物은 一般 基督教 教会建物에 가까운 形式의 平面이며 法堂内部 信徒席은 마루널을 깔아 방석에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다. 正面에 設置된 佛壇은 5段의 階段式으로 되어 最上部 中央에는 佛経이 모셔 있고 그 左側에 多宝如来, 右側에 釋迦如来 二尊佛이 안치되어 있고, 最下段은 巾이 좁은 移動式 須彌壇으로써 그 前面 中央左右에 説法師의 방석이 3개 놓이고 座鍾, 촛대, 기타 佛具配置는 別圖(第4図)에 建物平面과 같이 表示하였다.

本堂建物 越便에는 小法堂을 비롯하여 居室, 事務室, 부엌 等이 달린 2層의 現代式建物이 中庭을 사이에 두고 別棟으로 건축되어 있다.

라. 大韓佛教一乗宗

妙法建華経을 所依経典으로 하며 崔浩民和尚에 依하여 1969年 文公部에 登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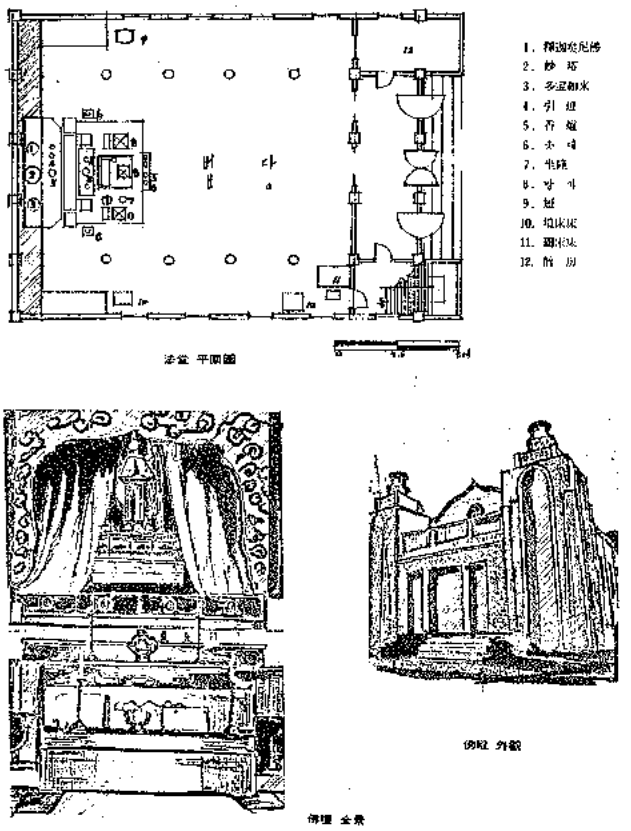
一般 法華信仰系에 準하여 釋迦世尊의 佛像만 모시는 單佛殿單佛型 寺刹形式을 택하고 佛寺의 現代化를 追求하는 상당히 先進的新興佛教宗派라 할 수 있다.

一乗寺는 一乗宗의 總本山이며 서울 城北区 城北洞 179 - 33에 位置하는 韓式建物의 佛寺이지만 芮惠教 總務院長은 現代式 佛教建築도 否定하지 않고 있다.

○佛寺 : 一乗寺의 배치는 釋迦如来 單佛像만 모시는 宗派답게 佛殿도 大雄殿하나 뿐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僧房, 事務室이니 그 模様은(第5図)와 같다. 大雄殿 建物은 純韓国式建物로서 1965年 착공하여 1968年에 준공하였으며 正面 5間, 側面 3間의 單層八作지붕이고 外部 2出目 5包, 5出目 12包 1高柱 6梁집이다. 기둥은 배흘림을 가졌고 室内에는 佛壇後面에 맞추어 1列의 内陣기둥을 설치하였다. 内部天障은 우물반자이고 마루는 長株樓를 깔고 문은 교살문 꽃살문 等으로 되어있다.

○佛壇配置 : 一乗寺의 佛壇配置는 一般 傳統的 韓式佛寺와 類似하다. 但, 特色은 佛像이 室内에 4개 정도 있으나 全部 釋迦如来佛 一種 뿐이고 菩薩像, 王, 天,

神, 童子, 羅漢, 將軍 等의 諸刻像이 一切 없을 뿐이다. 主佛壇의 須彌壇은 4段으로 되어 있고 左側에 靈壇 右側에 副佛壇이 있으며 香爐, 징, 坐鍾, 中鍾 궤불함 大鼓기타 各種 佛具가 配置되었으며 主佛壇 上部에도 또한 小佛壇이 장만되었으니 그 中央에는 三宝의 眞理를



4図 法華寺(韓国佛教 法華宗) 筆者実測

2. 淨土信仰系

淨土信仰系는 大体로 淨土三部経이 이들 教派의 所依経典(47)이며 阿彌陀를 信仰하여 將来 極楽淨土에 往生하는 것을 主로 하는 宗派들을 意味한다.

가. 大韓佛教淨土宗

申東煥 宗正이 創宗하여 1965年 文公部에 登録되어 있으며 阿彌陀佛을 主佛로 하며 無量壽経을 所依経典으로 하고 西山大師를 宗祖로 한다고 되어 있다.(47) 寺刹実例는 位置를 発見할 수 없어서 実測을 할 수 없었다.

나. 大韓佛教法相宗

1970年 文公部에 登録되었으며 眞表律師를 宗祖로 하며 瑜伽経, 点察善悪経을 所依経典으로 하고 彌勒佛을 主佛로 한다.(47)

서울에 亀福庵이 있다고 하나 発見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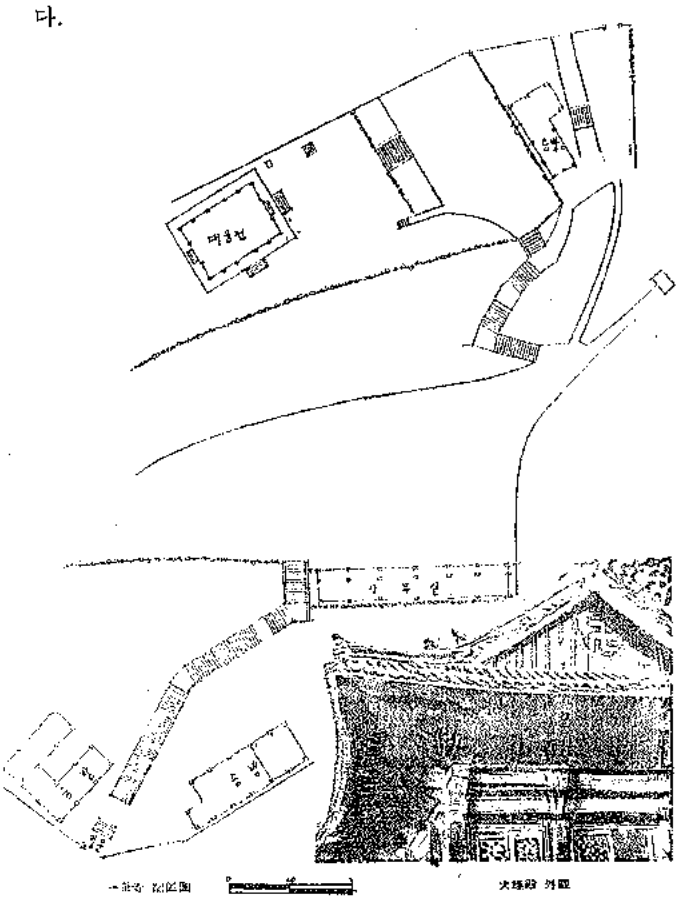
다. 大韓佛教龍華宗

本 宗은 1963年 金德淵이 創宗하였으며 장래 龍華世界에 出現할 彌勒仏을 本尊으로 하는 比丘尼僧의 淨土信仰系 宗派이다. 所依経典은 阿彌陀所説経이며 宗祖는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81

나타내는 묘탑이 놓이고 左側에 釋迦佛, 右側에 多宝佛이 안치되어 있으며 多宝佛은 모든 것을 증명하는 뜻에서 安置되어 있다고 한다.

佛殿配置内容과 佛壇外観의 詳細한 것은(第6圖)와 같다.



5図 一乗寺(大韓佛教一乗宗本山) 筆者実測

眞表律師이다. 本山인 全北 全州市円覺寺를 訪問하고 設問을 通한 内容을 보면, 本殿인 彌勒殿 以外에 極楽殿을 추가하여도 무방하며 기타 禪堂, 僧房, 講堂 等을 願하고 있다. 建築様式은 佛殿은 大体로 在来式 包作 韓式建物로 하되 材料는 콘크리트 等의 現代式 材料를 使用하는것도 可하며 韓式外観인 限 高層도 反対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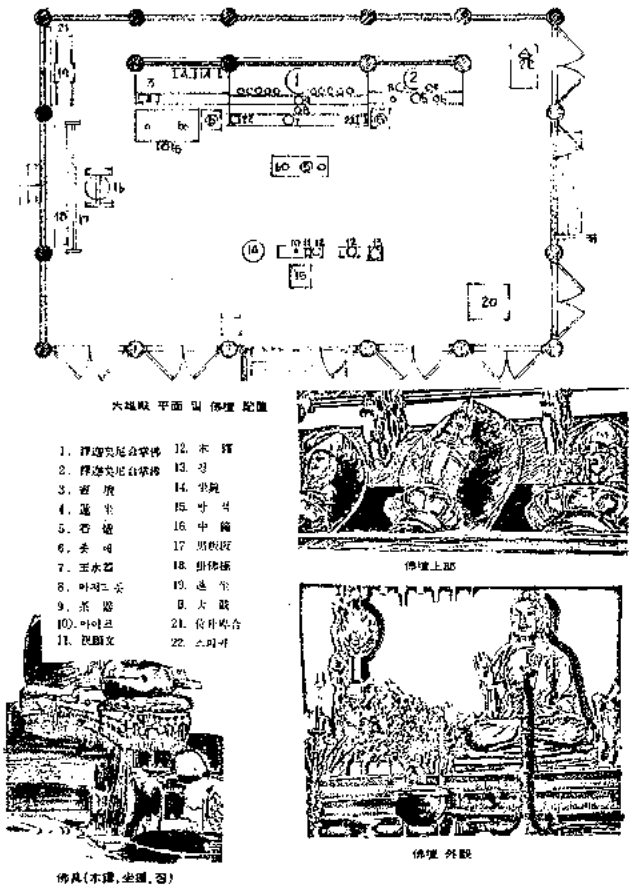
僧侶의 夫婦生活, 담배, 酒類 等은 일절 禁하며 坐式生活을 主로하고 있다. 僧房은 現代式 아파트 等도 可하며 代表的 末寺로서는 全北 金堤郡 金山面 清道里에 龍華寺가 있다.

§円覺寺(全州市 完山洞 272)

龍華宗의 總本山이며 全州市内 都市型 單佛殿佛寺이다. 寺刹内部에는 金堂인 彌勒殿과 祖師堂, 僧房, 禪堂 等이 中庭 주위에 배치되며 中庭에 梵鍾閣이 있다. 彌勒殿은 正面 5間 側面 2間, 2翼工의 八作 木造建物이며, 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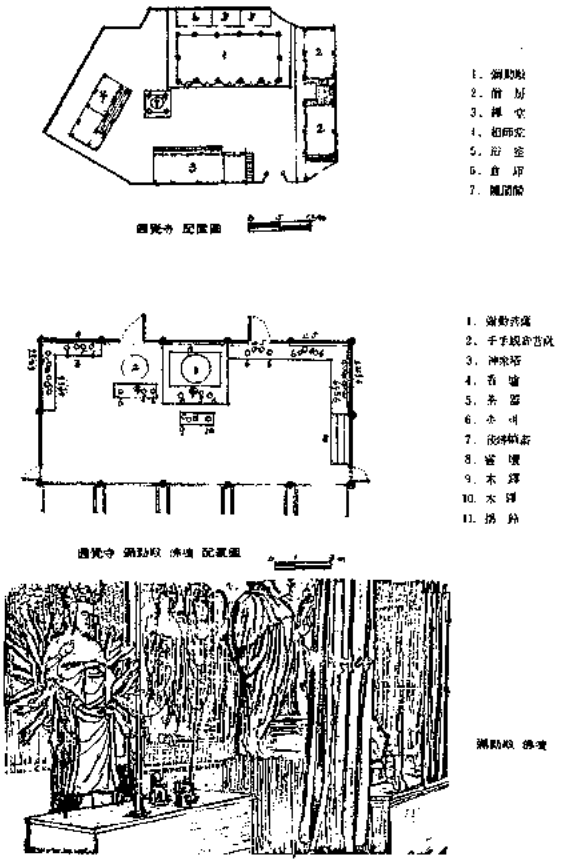
部에 主佛로 彌勒佛의 結迦跌坐像이 안치되고 正面左側에 千手觀音立像이 있으며 그 주위에 靈壇, 神衆壇을 두고 正面 左右의 3面壁에는 後佛幀画가 걸려 있다. (第7図参照) 僧房建物은 内装과 外装 共히 一般 現代式建物에 準하여져 있다.

라. 大韓佛教彌勒宗



6図 一乗寺佛壇配置図 筆者実測

彌勒宗을 現地踏査하기 위하여 全州市 豊南洞 3街16의 7의 全北支部를 찾어 갔으나 同所는 個人住宅이고 찾을 도리가 없어 調査를 못하였다. 文献上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64年 文公部에 등록되어 있으며 瑜伽経이 所依経典이며 宗祖는 眞表律師이고 彌勒佛을 本尊佛로 하고 있다. (47)



7図 円覚寺(全州, 大韓佛教龍華宗) 筆者実測

마. 天華佛教

李 淑峰外外 3人의 女史에 의하여 創宗되어 1964年 登録되었다. 勒佛을 本尊佛로 하고 있다. (47)
登録되었다. 瑜伽密教를 宗典으로 하되 所依経典은 華厳経이며, 藥師를 主佛로 하여 藥師曼多羅와 藥師十二神将을 安置하며 壇君과 詞梨帯母를 曼多羅에 安置함으로써 土着化된 韓国的인 佛教로 보고 있다.

서울 樓上洞 166－204에 있는 龍雲寺를 現地踏査하였으나 現寺刹은 移転되어 없으며, 地方의 代表的인 寺刹로서는 忠南 天原郡 北面 梧谷里에 鳳冠寺가 있다. 設問을 通한 調査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建築構造: 木造 韓国様式을 願하며 最小限 法堂, 講堂, 僧房을 필요로 하며 可及的 藥水浴湯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物理療法을 한 後에 法堂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한다. 都心地에 있어서는 集中式 重層佛殿도 可하며 이러한 때에는 上層을 法堂으로 하고 下層을 其他室로 함이 좋다고 한다.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82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82

主로 教職者가 女僧이며 結婚을 인정하고 있고 僧房은 現代式住宅設備를 갖추어도 무방하되 座式 温突을 원하고 있다.

3. 元暁思想系

元暁思想系宗派는 大部分 華厳経을 所依経典으로 하며 釋迦牟尼를 本尊佛로 하고 元暁大師를 宗祖로 하고 있다. 따라서 寺刹形式은 韓国古建築의 多佛殿型이 많으며 韓国의 傳統的인 宗派인 曹溪宗, 太古宗과 그 건축형식이 가장 가까운 경우를 많이 본다.

가. 大韓佛教元暁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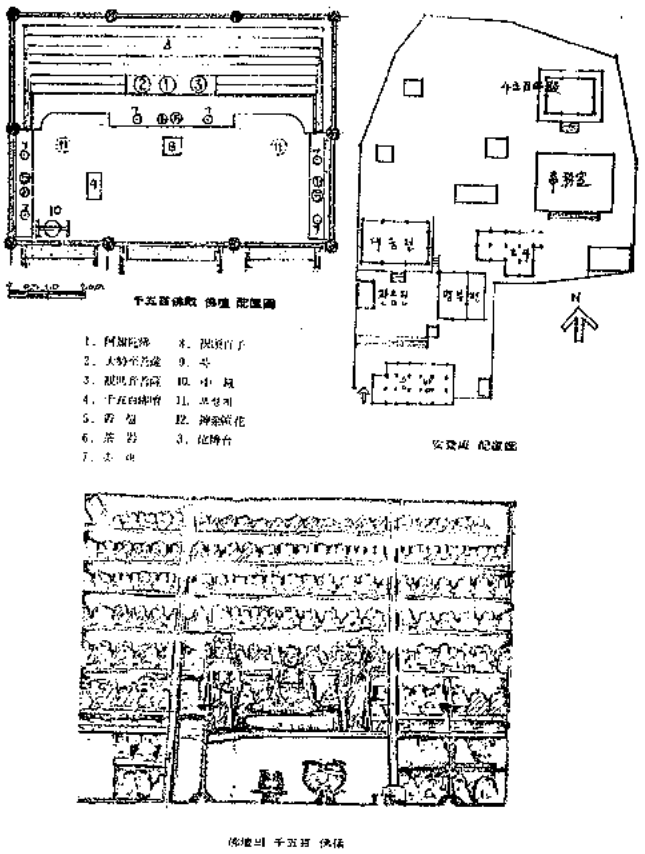
元暁大師의 思想을 骨子로 하되 所依法典은 華厳経이며 1963年 創宗 登録하였다. 大体로 易道人이 教役者中 大部分이고 主로 경북과 江原道에 많이 布教가 되어 있다.(47) 本宗의 寺刹인 서울 東大門밖 安養庵은 傳統的 曹溪宗系佛寺와 큰 차이없는 多佛殿型이지만 安養庵의 教務部長 辺 東雲氏와의 設問内容을 보면 佛像도 釋

迦佛만 安置하는 것을 願하고 大雄殿을 除外한 모든 건물의 現代化를 긍정하고 帶妻僧을 인정하니 상당히 진보적이며 不遠 많은 現代的佛寺가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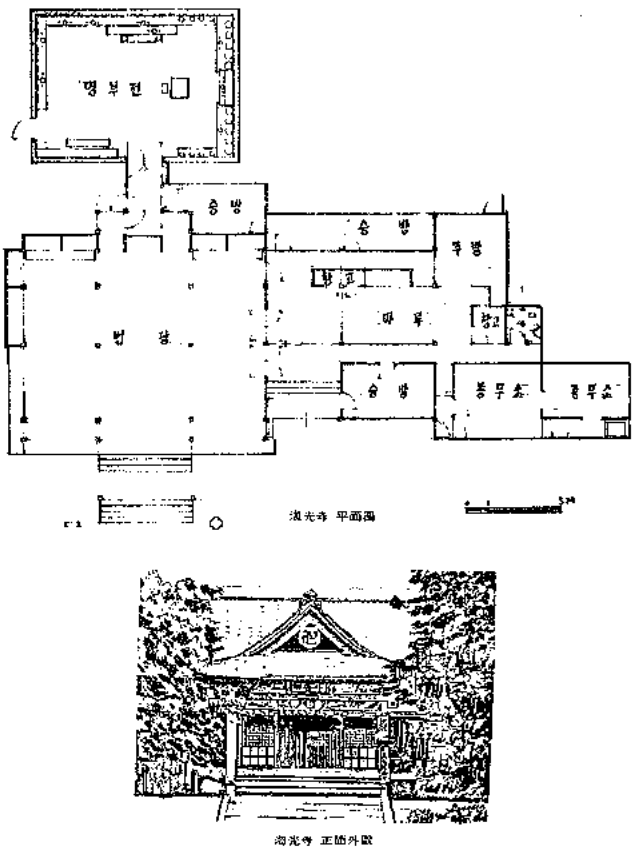
§ 安養庵

서울 東大門区 昌信洞 130 에 位置하며 상당히 오래된 寺刹로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元曉宗으로 近来에 와서 吸収된 寺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現在建物로서는 大雄殿, 冥府殿, 千五百佛殿, 観音殿, 山神閣, 七星閣, 僧房 等이 있는 多佛殿型佛寺로서 一般傳統的佛寺와 大同少異하다. 異彩로운 것은 観音殿이 天然石壁에 観音像을 부각한 앞의 岩壁에 부치어져 佛殿을 지은 것과 一般 佛寺에 흔하지 않은 千佛殿이 있음이라 하겠다.

佛殿配置와 千佛殿의 平面 및 外観은 第8図와 같다.



8図 安養庵 千五百佛殿(大韓佛教 元暁宗) 筆者実測



9図 海隆寺(大韓佛教 華厳宗) 筆者実測

나. 大韓佛教華厳宗

創宗主 韓永錫師가 1965年 文教部에 創宗 登録하였으며, 元暁思想系 宗派로서 所依経典은 華厳経이고 本尊佛은 釋迦牟尼佛이며 宗祖는 元暁聖師이다. 設問内容을 보면, 大体로 曹溪宗 等과 같은 多佛殿形式의 寺刹로 하되 現代式 材料를 使用한 包作 韓式外観을 願하며 佛殿, 僧房 等을 行廊으로 연결한 集中式建物도 可하고 山地型은 分散式을 賛成하고 있다. 僧侶의 起居는 境内로 하되 座式 온돌이 좋으며 都心地에 高層化할 때에는 3층 정도로 하고 地下층은 幼稚園, 1層 僧房, 2層 佛教会館, 3층 法堂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 海光寺(仁川市 新興洞 1의 4)

本 佛寺는 日帝時代의 건물로서 華厳宗 總本山이다. 法堂, 冥府殿, 僧房, 宗務所 等이 行廊으로 연결되어 全体가 한 건물로 되어 있으며, 法堂에는 主佛로 釋迦佛, 左補処 地蔵菩薩 右補処 観世音菩薩을 主佛壇에 安置하고 그 주위에 神衆壇, 七聖壇, 山神壇, 独聖壇, 現王壇, 靈壇 等을 모시고 있으며 法堂中央에 法床卓子, 북, 징, 을 설치하고 殉国烈士 祈願壇도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詳細한 것은 筆者가 実測한 平面, 立面(第9図 参照) 및 法堂, 佛壇配置(第10図)를 各各 参照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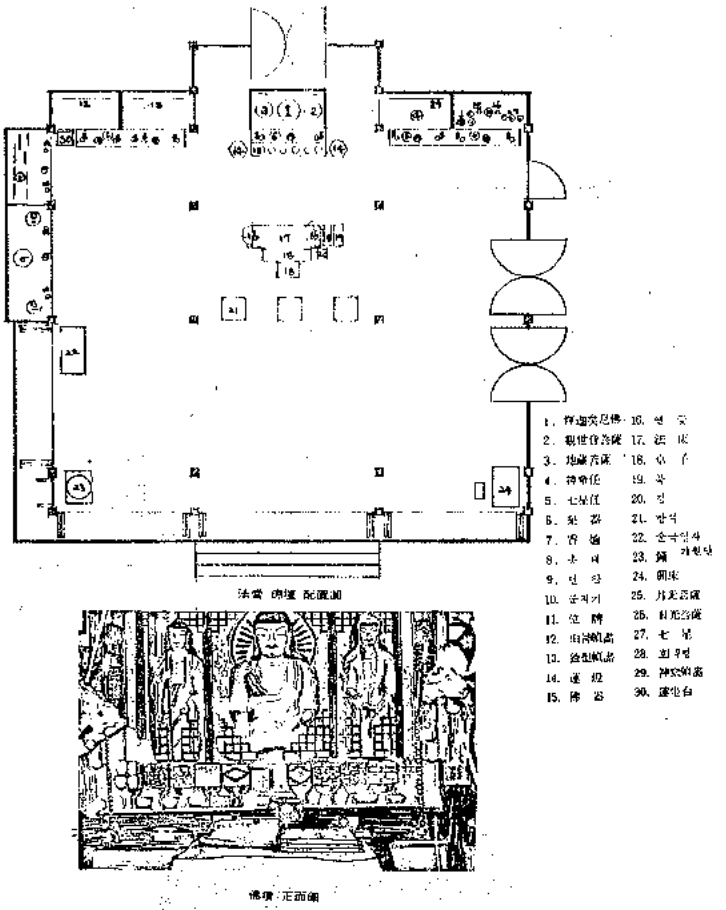
기타 本 寺 境内에는 ㄱ字型 平面을 가진 寮舎体 一棟과 入口에 鍾閣이 있다. 건물구조는 日本式 木構造 합각 日本式결침기와지붕이며, 梵鍾閣은 8角 韓式翼工지붕이다.

4. 密 教 系

密教의 所依法典은 大日経, 金剛頂瑜迦経, 蘇悉地経의 三部大経이라 하는데 曼多羅佛像画로서 그 内容을 表示한다.(6) 韓国의 眞覺宗, 眞言宗이 이에 해당하며 佛殿의

形態는 大日如来單佛單殿型 또는 單殿無佛型이고 건축구조도 벽돌 또는 콘크리트 等의 現代化한 方式을 채택하는 첨단을 걸는 宗派들이다.

曼多羅라는 것은 大日如来를 中心으로 各佛, 菩薩, 神将 等을 四方에 배열한 佛像画(26)를 보통 말한다.



10図 海光寺 法堂佛壇配置 筆者実測

則 心印은 마음속의 印法임을 알 수 있다.

本 宗은 1949年 創立되었으며 本部를 總印院이라 하고 各 教堂을 心印堂이라 稱하며, 各 佛殿建築은 一般學校의 講堂이나 或은 新教教会建築을 상기시킬만큼 간소하고 현대적이며 佛殿內部에는 一切 佛像을 安置하지 않는 單殿無佛型 現代式寺刹形式이라 할 수 있다.

眞覺宗의 總印院은 서울 城北区 下月谷洞 22이며 總印院에는 前記 宗祖殿 心印堂, 事務室 等의 건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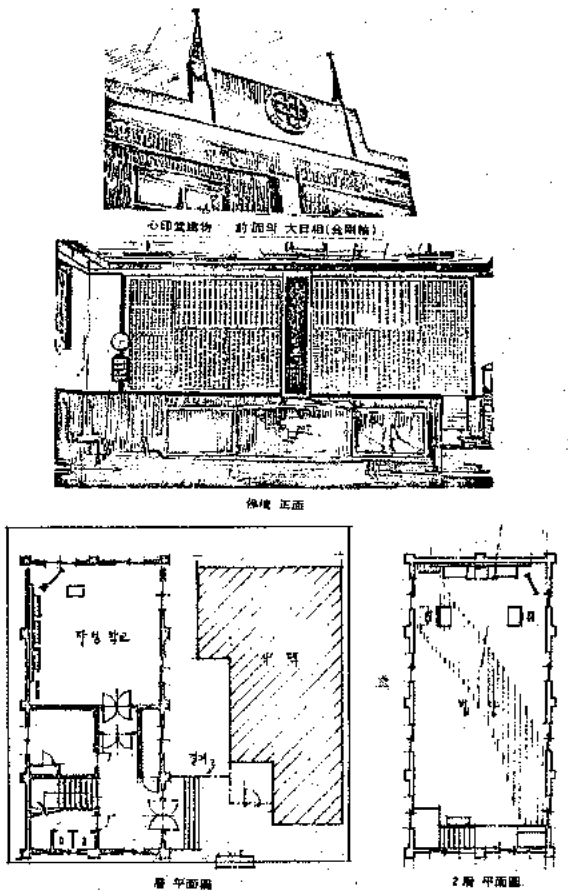
§ 新村心印堂

서울 西大門区 滄川洞 57～31에 위치한 現代式 2層의 鉄筋콘크리트 건물이다. 下層은 자성학교 교실이고 2層 佛殿은 講義室等一般建物과 다를 바 없고 佛壇에 해당하는 前面壁 中央에 六字眞言 액자가 걸려있고 左右에는 教理를 全部 한글로 記入한 것이 揭示되어 있다.

佛壇部分은 간단한 단을 장만하고 中央에 喜捨箱을 설치하였을 뿐 一切 佛像은 볼 수 없다. 正面左右에는 說法台를 坐式으로 설치하고 信者나 教役者가 一切 坐式

가. 大韓佛教眞覺宗

本 宗은 密教에 属하며 密教에서는 結印이라하여 부처님의 說法을 갖가지 손가락의 形態로 表示한다. 眞覺宗의 法佛教門에 依하면 心印은 곧 陀羅尼를 내마음에 새겨있는 佛心印三昧王을 가리켜서 말함이요…(64)



11図 新村心印堂(大韓佛教 真覚宗) 筆者実測

이다. 正師舍宅(住持舍宅)은 心印堂과 인접한 独立 一般住宅과 同一하며 可反的이면 心印堂과는 울타리境界가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第19図는 新村心印堂의 配置 및 各層平面과 建物外部正面의 大日相(金剛輪) 및 佛壇全景이다.

나. 大韓佛教眞言宗

孫 榮振 宗主가 慶北 大邱市 大鳳洞에서 創宗하여 1963年 文公部에 登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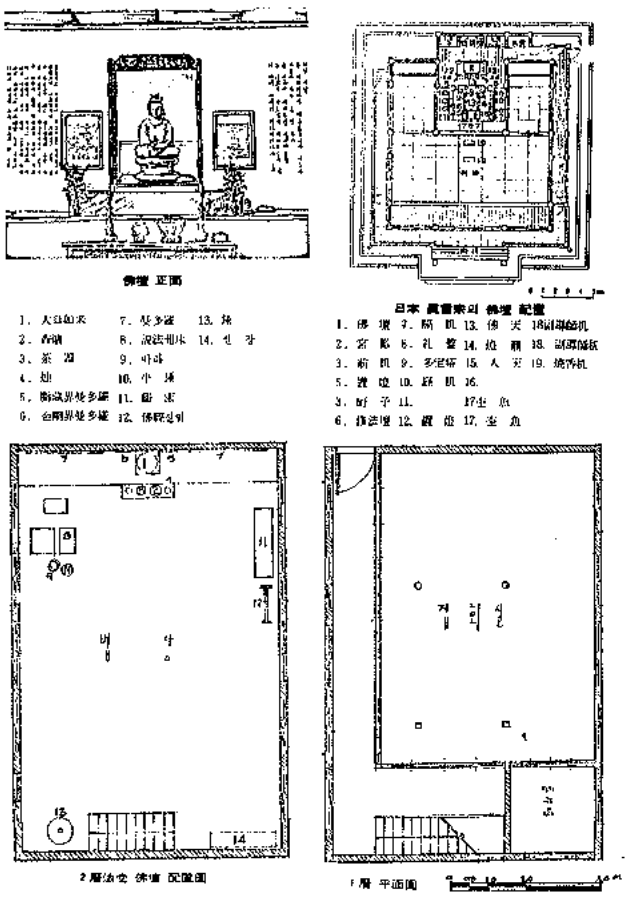
大日如来를 本尊으로 惠通国師를 宗祖로, 大日経을 所依経典으로 하고 있다. 密教에 属하는 單佛殿單佛型 寺刹로서 大体로 現代式建築構造를 擇하고 있다. 上記 大邱에 總院이 있고 서울 龍頭洞 52의 2에 眞光院이 있으며 그 건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 眞光院

壁乭造 2層建物이며 지붕은 韓式 8作지붕으로서 円青이 없다. 下層은 集会室이며 2層은 法堂으로 되어 있고 布教師 舍宅이 佛殿에 가까이 인접하여 後面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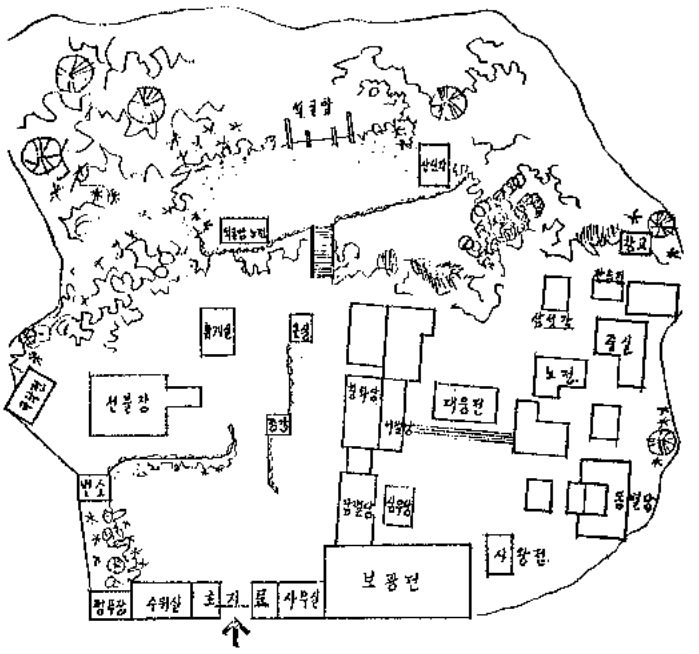
(6) 李喜秀, 前掲書 p222要約 (26) 佐和隆研, 佛像圖典(東京, 吉川弘文舘 1969)
(64) 孫珪祥, 법불교문(서울, 眞覺宗 1972) p43

法堂의 配置는, 中央前面에 須彌壇을 設置하고 台坐를 놓고 大日如来 單佛像을 安置하고 左右에 各各 金剛界 曼陀羅 佛画를 액자에 넣어 壁에 부치고 또 그 左右壁에 宗旨의 四智梵語, 佛讃 等의 한글을 부친다. 須彌壇 앞에 작은 香爐台를하나一段 낮게 附設하고 좃대. 香爐를 設置하게 되어 있으며 說法机, 기타 配置는 別圖(第115図)와 같다.



12図 眞光院(大韓佛教 眞言宗) 筆者実測

本 宗은 大体로 日本의 眞言宗과 같은 系統이므로 日本 眞言宗의 佛壇配置를 参考로(第12図)에 例示하였으며 本宗에서 使用하는 各種 佛具는 本論 佛具項에 準한다.



13図 普門寺 配置図(大韓佛教 普門宗)

5. 其 他 宗 派

가. 大韓佛教普門宗

本 宗의 本山인 普門寺는 唯独 調査·実測 等을 不許하므로 佛殿 및 佛壇配置 等의 圖面을 作成할 수 없고 入口에서 판매하는 안내서와 宗教總鑑을 参考하여 大畔한 内容을 記述하고자 한다.

創宗과 教理에 있어서는, 1972年에 創宗되었으며 釋迦牟尼佛을 信奉하되 観音経을 所依経典으로 하고 観音菩薩을 本尊으로 하고 있다. 本 宗의 首寺刹인 普門寺의 경우를 보면 各種 韓式佛殿을 大部分 具備한 点으로 보아 一般 傳統的 宗派様式에 가까운 多佛殿式方法을 채택하는 比丘尼宗派로 인정된다.

§ 普門寺

楼形의 正門인 護特門 内部境内에는 118年 되었다는 가장 오랜 大雄殿을 비롯하여 観音殿, 極樂殿, 十王殿 等의 諸佛殿과 山靈閣, 三聖閣 및 梵鍾楼가 있고 慶州石窟庵을 摸倣한 石窟庵子를 만들었다. 그밖에 講堂 및 禪堂으로 쓰이는 選佛場과 位牌安置 및 修練場으로 쓰이는 普光殿과 各種 附属建物로 구성되어 있다. 大部分의 건물이 최근에 完成된 8作 및 맞배지붕의 韓式建物들이며 大雄殿에는 釋迦 三尊佛의 補処가 文殊·普賢 両菩薩이다. 十王殿에는 地蔵佛像이 있고 주위에 十王壁浮刻이 있다. 実測을 不許하므로 各佛殿의 大畔한 寫生配置만을 表示하면(第13図)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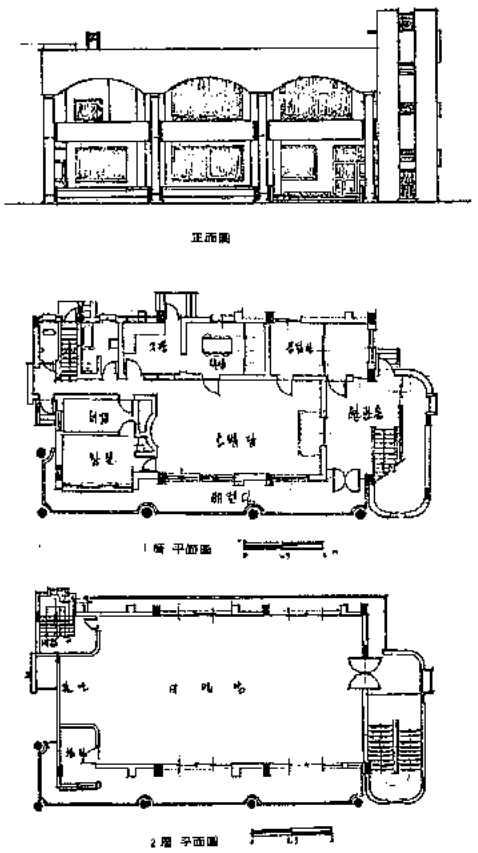
나. 圓佛教

円佛教는 韓国에서 처음 創宗한 宗教로서 佛教를 根本教理로 하여, 佛像을 代置해서 一圓相을 信仰의 標本으로 하며 모든 禮法儀式, 建築 等을 現時代에 적합하도록 간편하게 하고 出家 修行者에 対한 結婚을 制限하지 않으며, 各地方의 教堂을 지부, 지소, 선교소, 출장소 等으로 稱한다. 其他 圓光大学을 비롯하여 많은 中高等学校의 教育事業도 大規模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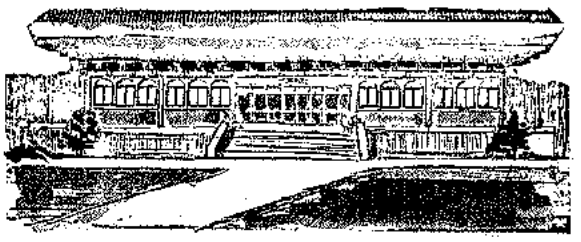
本 宗派는 1924年 全北 裡里의 現中央本部 所在地에 佛法研究会를 설치함으로써 비롯된다.[47]

§ 圓佛教 裡里本部(이리시 갈산동 204～1)

裡里 圓光大学에 隣接한 裡里本部를 踏査한 結果, 그 配置를 살펴보면 中央의 大中庭을 中心으로 하여 正面中央에 永慕殿이 있고 그 右側에 半百年記念館, 後面에 女子 및 女学生 寄宿舎·食堂이 놓이며, 半百年記念館 反対便에 大覺殿 및 鍾閣이 놓이고 永慕殿後面은 울창한 山林의 숲이 있으며 그 左側 숲속언덕에 大宗師의 旧屋과 大宗師의 舎利石塔이 놓여 있으며 永慕殿 左側에도 大石塔이 놓여져 있다.



14 図 円佛教 新村支部(朴金永氏設計)



15 図 円佛教

① 大覺殿 : 布教初期에 건축한 法堂으로서 構造는 現代式講堂을 연상시키는 건물이며, 約 500 名 以上을 収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信徒席 中央正面에 演壇模様의 한단 높은 佛壇이 장만되고 一円相이 安置되었으며, 주위는 蓮花, 촛대, 香爐 等이 둘려 놓여져 있고 그 右側前面에 持殊한 꿇어 앉을 수 있는 形式의 説法台가 놓여 있고 그 뒤에 피아노가 놓여 있다. 이 法堂의 標準形이라고도 볼 수 있다.

但, 信徒席은 移動式 椅子를 使用한다.

② 永慕殿 : 祖師殿에 해당하는 건물이며 超現代式으로 잘 調和되게 건축한 將来佛殿의 方向을 어느 程度 提示해 주는 Design 이라고 할 수 있다. 總 鉄筋콘크리트 平지붕 構造이며 正面의 넓은 階段을 올라서면 左右에 大型 香爐가 놓여있고 正門이 있으며 各窓은 홍예型이다. 内部에는 큰 階段式 祭壇을 設置하고 中央에는 開宗祖의 眞影과 各 先烈의 位牌가 안치되어 있다. (第15図参照)

③ 半百年記念館 : 劇場形式의 스테디암式 教人席을 가진 約1500名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大學講堂式의 大説法室이며 演壇에 해당하는 部分은 円佛像의 祭壇으로 꾸며져 있으며 督教의 Pulpit을 연상하는 設法台가 左側에 놓여있고 右側에는 피아노가 있다.

§ 円佛教 新村支部(서울시 창천동 53)

서울 市内에는 円佛寺 鍾路支部(김 진천氏 設計), 苑南支部, 新村支部(朴 金永 設計) 等이 있으며 三者가 大同少異하고 그 중 가장 最近에 完成된 新村支部를 보면 2層 鉄筋콘크리트造의 現代式 平지붕건물로서 下層은 出入口, 小法堂 및 寝室, 炊事場, 食堂, 書斎 応接室 等을 具備한 教職者 舎宅이고 2層은 法堂이다. 法堂은 講堂形式으로서 前面의 祭壇에 一円相이 안치되었음은 裡里 大覺殿과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第14図)는 圓佛教 新村支部建物의 各層平面과 立面図이며 (第15図) 下는 一円相佛壇이다.

(47) 週間宗教社 前掲書 p545要約

第 3 節 佛寺建築에 関한 設問統計

장래 韓国佛教 寺刹建築의 方向을 定立하는데 参考하기 위하여 主要寺刹 22個所를 訪問하여 住持 其他 寺刹 主要職責에 제신분등을 相対로 設問하였다. 22個 寺刹中 傳統宗派라 할 수 있는 曹溪宗, 太古宗系가 12寺이고 新興宗教系 寺刹이 10寺이다. 이중 新興宗教系에 対한 設問内容은 前述한 第2節의 各新興宗派의 説明中에서 既히 各各 反映하였음으로 여기에서는 残餘 傳統系宗派인 太古宗 曹溪宗系의 12寺刹에 対하여 直接 訪問하여 聴取한 内容만을 集計하기로 한다.

가. 設問内容

○ 建築様式

(1) 山地型 佛寺의 建築様式은 韓国在来式包作을 具備한 古建築様式과 現代式建築様式의 両者中에서 新築時에는 어느 것을 擇하겠읍니까?

(2) 都市型 佛寺를 新築할 때에는 韓国古建築様式과 現代式様式中 어느 것을 擇하겠읍니까?

○ 建築材料

(1) 佛寺의 新築材料는 在来式 木材를 使用하겠는가 或은 鉄筋콘크리트 其他 現代式材料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建物配置

(1) 山地型 佛寺新築에 있어서 各建物의 配置는 在来分散式方法과 動線을 짧게하기 위하여 各佛殿이 서로 연결된 集中式과 어느 쪽을 擇하겠읍니까?

(2) 都市型에서는 上記 分散式과 集中式中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行廊: 건물과 건물을 佛国寺 模様으로 不燃材로 된 行廊으로 연결하여 비를 맞지않고 通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僧房

(1) 僧侶의 거처는 寺刹 境内外 어디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 僧侶의 僧房에서의 生活方式을 座式에서 椅子를 使用하는 立式으로 改良하는데 対한 意見은 어떠하십니까?

(3) 僧房을 아파트形式으로 하고 電氣 暖房의 現代施設을 하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4) 便所를 水洗式 等으로 改良하여 僧房内部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設問의 集計分析

以上의 設問에 対한 集計는 表(4表)와 같으며 이를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建築様式

(1) 山地型 佛寺의 建築様式은 韓国在来式 句作古建築様式을 大部分 願하고 있다.

(2) 都市型 佛寺는 現代建築様式으로 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建築材料: 在来式 建築材料를 使用하는 것이 옳다는 意見과 現代式材料도 무방하다는 意見이 半半이다.

○ 建築配置: 山地型 佛寺에 있어서는 在来式의 分散式建物配置를 賛成하며 都市型 佛寺는 集中式 單一建物型 佛寺도 찬성하고 있다. 但, 一部는 都心地에서도 垈地만 허락되면 分散式을 찬성하고 있다.

○ 行廊: 佛国寺 模様으로 建物 相互를 不燃材 行廊으로 連結함을 좋아하고 있으나 一部는 不必要하다고 보는 若干의 意見도 있다.

○ 僧房

(1) 僧房은 結婚하지 않은 僧侶에 対하여서는 寺刹境内에 두는 것을 옳다고 보고 있으며 寺刹에 가까운 境外를 願하는 것도 하나 있었다.

(2) 僧侶의 生活方式은 大部分 在来式의 座式生活을 願하며 立式生活을 찬성하는 의견은 極히 적다.

(3) 僧房建築을 在来式보다 아파트 等으로 하여 暖房, 電氣 等 施設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意見이 在来式을 찬성하는 의견보다 若干많다.

(4) 便所는 改良式이라 할지라도 大体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願하며 깨끗한 설비만 되어 있으면 僧房内에 두어도 可하다는 意見은 過히 많지 않다.

다. 設問에 対한 綜合

佛寺建築改善의 限界를 現時点에서 明示해준다 할 수 있는 以上의 設問에 対한 意見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山地型 佛寺는 建物 相互間을 行廊으로 連結하는 정도 이외는 在来式의 單層分散式方法을 大体로 찬성하며 건축재료는 包作 기분을 낼 수만 있으면 鉄筋콘크리트 等의 現代式材料를 使用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2) 都心地 佛寺는 集中式의 高層의 現代式建築도 無妨하되 可及的 包作 等의 韓式 外観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3) 僧房建築은 山地라 할지라도 建物内部는 暖房·電氣 等의 施設이 잘 되어 있음을 願하되 都心地에 있어서는 아파트도 無関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과반수 있다. 그러나, 大体로 立式生活을 願하지 않으며 便所는 水洗式이라 할지라도 다소 떨어져 있음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은 現時点에서 改善 可能性의 限界를 論한 것이며 장래 時代가 경과됨에 따라 加一層 佛寺建築은 現代化될 것을 筆者는 確信하는 바이다.

延世大学校 産業大学院長

막살이집의 研究

金 鴻 植

1. 머릿글

막살이 形式의 집은 自立의 경제능력을 갖지 못하고 남의 집에 딸려서 경제활동을 하며 다만 기거만을 따로하는 일종의 大家의 附屬舍에 가까운 집이다.

이 형식의 집은 民家를 時代的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때 古代樣式에 속하는 집이다. 古代樣式이란, 엄격한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주택양식에 있어 신분의 차이에 따른 2중구조가 현저하게 진행되어 상층계급의 주택과 하층계급의 주택이 서로 바교될 수 없을 만큼 다른 평면을 갖게 된 시기의 주택양식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古代樣式이란 古代에 있어서 下層民의 주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범위가 쓰이게 된다.

2. 외통형

외통형집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분포했던 집으로서 현재도 산간 벽지에서는 간간히 볼 수 있다. 외통형 집은 극소수 존재하고 있는 2칸집을 포함해서 가장 규모가 작고, 살림방과 부엌 및 앞뒤에 설치된 토방만이 나란히 옆으로 구성된 집이다. 즉, 전형적인 외통형집을 말한다.

(1) 맞걸이 三間집

「맞걸이 三間집」이란 맞걸이 三樑의 구조로 된 집인데 이런 型의 집을 안채로 삼고 사랑채 없이 외양간, 뒷간 곳간등의 부속시설물들이 住居空間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그 예로서 權五興씨 댁(榮州郡 浮石面 素泉 751)을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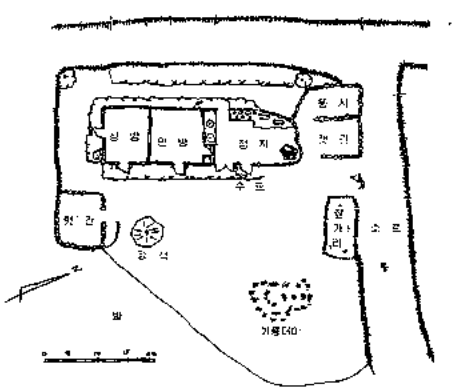


그림 1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 751權五興씨댁

이것의 평면은 긴네모꼴의 긴변을 정면으로 삼는다. 평면의 간살이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面을 셋으로 나누어서 오른쪽부터 부엌, 안방, 그리고 웃방이 일열로 배열해 있다. 안방과 웃방 앞에서 서까래를 약간 길게 뽑아 토방을 두었을 뿐, 앞쪽에 퇴간을 이어내지 않았기 때문에「맞걸이 3칸집」이라고 한다. 부엌은 3칸집의 오른쪽 간살로서 여기에 옆으로 퇴칸문을 달아내고 거기에 측벽을 밖으로 더욱 내쌓아 공간을 크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자기가 속해있던 大家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스로 취사생활을 하게 되자 더 넓은 부엌공간이 필요해서 부엌을 증축했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가운데 간살인 안방의 형태는 바른 네모꼴이고, 왼쪽 간살인 웃방은 전면의 길이가 안방보다는 약간 짧다.

이런집은 거의 모든 지방에 걸쳐 널리 분포하지만 그 숫자는 아주 드물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이 집보다 더욱 간단한 형태는 부엌과 방하나로 구성되고 곁에 눈썹지붕을 붙여서 연료창고나 외양간, 뒷간등으로 이용하는 2칸집인데, 이런 類의 집은 거의 사라졌고 다만 남부지방의 내륙 산간에서나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다.

(2) 3칸 一字퇴집 (I)

3칸 一字퇴집(工)은, 구조적으로는 전퇴(前槪)집이지만, 앞퇴의 가운데 간살만 前面으로 개방하여 뜨럭(토방)을 만든 집을 말한다. 이때 역시 一字 모양의 헛간채가 ㄱ字나 二(두이)字 형태로 배치되기도 하며, 구조는 대부분 맞걸이 3량인 3칸집이다. 이런 류의 집은 남부 및 중부 내륙 지방과 일부 해안지방까지 널리 분포한다. 이집의 격리시설인 헛간채는 건축년대가 안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안채는 부속건물 없이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實例로서 음문형씨댁(忠北 槐山郡 青安面 雲谷里 113번지)

긴네모꼴의 안채는 긴변을 마당쪽으로 향하여 東北向(亥坐巳向)으로 앉아 있으며 構造는 無高柱三前槪집이다 평면의 간살이는〔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面을 셋으로 나누어서 왼쪽은 부엌, 가운데는 前面에 뜨럭(토방)과 後面에 안방이 놓이며 오른쪽에는 웃방이 배치되어 있다.

부엌은 間을 길게 해서 공간을 크게 이용하며 한칸 반 크기의 긴네모꼴이다. 뜨럭은 前面이 개방되어 있으며 부엌과 웃방의 前面 선에서 후퇴하여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안방은 크기가 한칸이며 바른네모꼴에 가까운 모양이고 웃방은 한칸 반 크기의 긴네모꼴이다. 이 집에서는 이 방을 사랑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방은 庫房 혹은 웃방 ㅜ사랑방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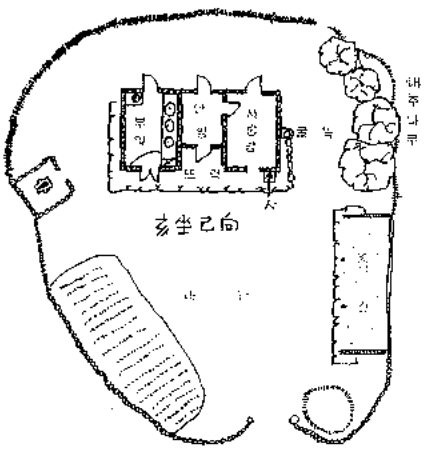


그림2 槐山郡 靑安面 雲谷里 113 윤문형씨댁

헛간채는 안채의 오른쪽 모서리에 마당을 향해서 ㄱ字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平面의 간살이는 모두 헛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퇴가 없는 맞절이 三間의 구조이다. 벽의 前面은 개방되었고 바깥벽은 흙벽이며 안벽은 간이 형식으로 되어있다.

안채와 헛간채의 앞에는 54尺×46. 5尺(가로×세로) 크기의 마당이 놓여 있다. 마당과 안채, 사랑채 뒤로는 싸리울을 둘러쳤고 마당 前面 오른쪽에는 문없는 入口를 만들었다. 마당 왼쪽의 안채 모서리 쪽에는 잿간을 설치했고 그 앞에는 텃밭을 배치했으며 안채 오른쪽 울타리 곁에는 대추나무를 심었다.

이런 類의 집은 그 평면의 변화가 다양하므로 다음에 이와 같은 집들을 설명하겠지만, 여기 설명에서 빠진 집도 많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

(3) 三間 一字퇴집(II)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집이다. 아주 빈한한 사람들이 살거나, 6.25 후에 임시로 축조한 소농계층이 사는 이 집은 전국에 散在해 있다. 그實例로서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3리에 있는 金福萬氏宅을 들겠다.

이 집은 긴네모꼴 평면의 긴변이 前面으로 向하여 있고 방위는 동남에서 약간 남으로 기울어져 있다. 안방과 웃방은 통나무를 횡으로 쌓은 귀틀집이고 부엌과 전퇴는 三梁집으로 처리한 특징있는 架構式 구조이다.

평면의 간살이는(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왼쪽 간살은 앞퇴를 한칸 크기의 부엌을 만들고 가운데는 한칸 크기의 안방이 되며 오른쪽에는 역시 한칸 크기의 웃방이 설치된다. 안방과 웃방 앞의 퇴는 토방(이 지방에서는 처막이라 부른다)이 되어 앞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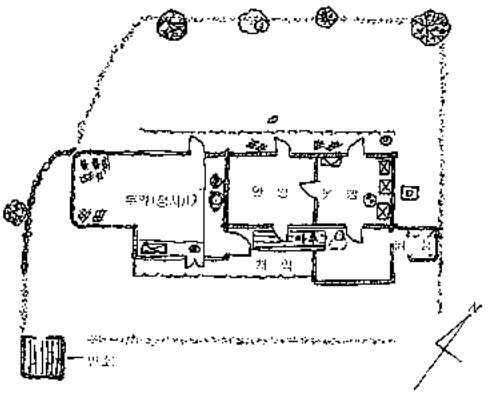


그림3 정선군 북면 억량3리 김만복씨댁

부엌은 큰 한칸 크기의 바른네모꼴 공간이다. 그래도 공간이 부족했던지 왼쪽 측벽에 가로8尺, 세로9尺 크기의 나뭇간을 덧달아서 크게 쓰고 있다. 이처럼 부엌 공간을 더 크게 증축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땔감의 열량이 점차 낮아진 것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나뭇간의 공간이 커져야 되는 필요성 때문인 듯하다. 또한 이 집은 전에 솔거노비의 살림채였으므로 취사시설이 불필요하였으나 점차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가면서 취사공간을 확보해 나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뚜막은 안방과 뜨럭쪽에 설치되었고 토단은 나뭇간을 제외한 二面에 시설되었다.

웃방은 한칸 크기의 바른네모꼴이고 안방은 이것보다 약간 가로로 긴네모꼴이다. 이 집은 현재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각방에 세들어 살고 있으므로 웃방은 따로 솥을 걸어 놓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방이라기 보다는 사랑방에 가까우나 이 집 사람들은 웃방이라고 부르고 있다. 안방과 웃방의 토방은 마루가 없고 앞이 개방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이것을 처막이라고 한다. 안방 앞에도 조그만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 듯 마루밑에 안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그대로 있었다. 웃방 앞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방이 살림을 따로 하므로, 우드기를 둘러쳐서 출입은 부엌의 반대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우드기라고 하는 것은 짚으로 만드는 것이 常例인데 이 집에서는 판자로 둘러치고 있었다. 뜨럭은 안방 벽에서부터 7.15尺이 내밀었으며 우드기는 이 처마 끝 밖으로 내밀고 있다.

이 집은 농가가 아니고 품팔이로 벌어 먹는 사람들의 집이기 때문에 마당이 몹시 작다. 마당 앞에 텃밭이 만들

어졌고 마당과의 경계는 싸리울이 둘러진 것으로 봐서 필요없는 마당을 줄이고 텃밭을 키운 것같다. 마당 앞의 부엌쪽으로 변소가 임시건물처럼 만들어졌고 웃방 동쪽으로는 닭장이 설치되어 있다. 변소는 판자벽에 박공지붕으로 된 단칸집이다. 이 집 뒤에는 앞마당과 울담으로 막혀져서 이 지방의 특색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뒤안이 있다. 즉, 앞마당에서는 직접 뒤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부엌을 통해서 들어 가게끔 되어 있어서 뒤안의 機密性이 보장되고 있다. 정지간 앞에 있는 조그만 밭에는 울을 둘러서 가축의 침입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이 텃밭을 울로 둘러쳐서 구획짓는 것도 이 지방의 특색중의 하나이다.

이 집은 동네에서 이 집을 축조한 연대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집이다. 이런 類의 집은 極小農의 주택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는데 이 집은 귀틀집으로 되어 있어서 또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4) 三間一字 퇴집(III)

이런 류의 세번 째 예로서「韓漢植」씨 宅(경북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을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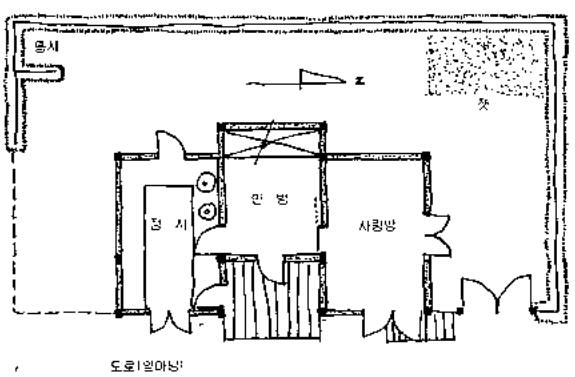


그림4 영주군 부석면 소천리 한한식씨댁

평면은 긴네모꼴인데 긴변을 前면으로 삼는다. 평면의 간살이는[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面을 세칸으로 나누어서 왼쪽 간살은 부엌으로, 가운데 간살은 앞부분을 퇴마루로 뒷부분은 안방으로 오른쪽 간살은 사랑방으로 하고 있다. 부엌은 칸반 크기의 긴네모꼴이고 마루는 가운데 간살의 앞퇴에 놓였는데 건물의 앞벽보다 2尺3寸 앞으로 내밀어 만들었으며 앞쪽으로 개방되어 있다. 안방은 가운데 간살의 뒷부분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건물보다 2尺2寸을 뒤로 빼내어 만들었으며 이 때 달아낸 부분은 收藏空間으로 利用하고 있다. 사랑방은 집의 오른쪽 간살로서 부엌처럼 앞퇴까지를 모두 利用한다. 사랑문앞에는 幅 2尺정도의 쪽 마루가 한쪽에만 설치되었다.

이 집은 現在 길에 面하여 있으므로 앞마당은 없고 길이 마당같은 행세를 하여 실제 그렇게 利用되고 있다. 사랑방 오른 쪽에는 사립이 끝에 면하여 나있고 집의 오른쪽과 뒤쪽에 뒤안이 만들어져 있다. 뒤안의 왼쪽 후내진 곳에는 통시(변소)가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 뒤는 재를 모아두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 집의 方向은 戌坐辰向이다. 이런 집의 形態는 南部地方에 널리 分布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다.

3. 도장형

도장형 집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악지방에 분포한다. 앞의 외통형집과 그 평면구성은 같으나 살림방인 웃방이 앞뒤로 나뉘어져 사랑방이나 도장방이 된다. 즉, 웃방의 접대기능과 수장기능이 각각 필요하거나 강조되는 공간으로 분화된 것으로서 이 점에서 외통형집과의 다른 점이 발견된다. 평면기둥의 배열과 그 간격은 외통형과 같다.

(1) 一字도장집(I)

一字도장집이란「三間一字도장집」의 준말이다. 이런 類型의 집에는 앞서 말한(三間)一字퇴집의 웃방(혹은 사랑방이라고도 불리운다)의 뒷쪽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도장이 배치되어 있다. 웃방이란 원래 예비공간으로서 취침기능과 동시에 수장(收藏)기능도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기능이 독립해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던 계층에서 약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층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의 실례로서 김수열씨댁(강원도 명주군 사천면 진리 1구 4번지)을 들기로 하겠다.

이 집은 맞걸이 三間집인데도 불구하고 전퇴가 설치된 집과 같은 평면을 보이고 있다. 이 지방에 아주 드물게 분포하는 이러한 집은 경북 영주 지방의 3칸집과 간살이가 같고(구조는 다르다) 충북 산간지방의 3칸집의 간살이와 비슷하다. 남에서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癸坐丁向의 방향을 갖고 있는 이 집은 긴네모꼴의 긴변이 前面으로 向해 있다. 고주나 퇴간 없이 평주에 3량만 걸친 맞걸이 3량의 구조를 가진 이 집의 평면 간살이는[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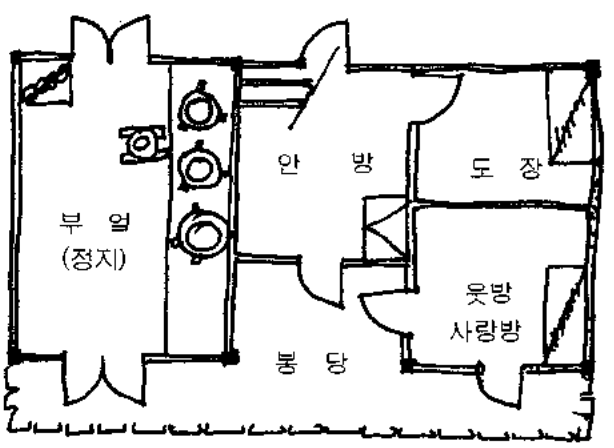


그림5 명주군 사천면 사천진리 1구 4번지 김수열씨댁

前面을 셋으로 나누어 왼쪽은 부엌, 가운데는 앞쪽에는 봉당을, 그리고 뒤쪽에는 안방을 놓았으며 오른쪽은 앞쪽에 사랑방(웃방이라고도 부름)과 뒷쪽에 도장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

긴네모꼴의 부엌은 여느 지방의 전퇴 좌태를 개방한 크기와 거의 맞먹는 정도의 공간이다. 봉당은 남부지방의 토방과 거의 같은 것인데 앞쪽은 다른 지방에서나 마찬가지로 개방하고 있고 기타부엌, 안방 및 사랑과의 경계에는 벽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봉당 앞은 토방에 연결되는데 이것은 부엌 앞에서부터 사랑방 앞까지 계속된다. 뜰 앞에는 뜰돌 없이 바로 흙으로 끝을 맺고 있다. 안방의 전면 반과 봉당 옆에 설치되는 사랑방과 안방은 각각 긴네모꼴이다. 사랑방을 웃방이라고 부르기에 곤란한 점은 샛문이 안방과의 사이에 난것이 아니고 봉당과의 사이에 난 것이다. 도장은 사랑방 뒤에 만들어지며 긴네모꼴이다. 도장은 고방과 같은 용도이므로 문은 안방쪽에만 난다. 도장은 바닥에 구들을 놓았을 때 그렇게 부르고 고방은 마루를 깐 것을 말한다.

이 집은 전형적인 어부의 집이었으므로 농촌에서 필수적인 헛간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당 맞은 편에 비스듬히 안채를 향해서(北向)부속사가 한 채 있는데 여기에 변소간과 돼지우리를 설치해 두었다. 사다리꼴의 이 집 마당을 통해서 마을의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부엌 앞에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회모르탈로 샘터가 네모꼴로 마련되었으며 앞쪽으로는 하수도로 만들어졌다. 부엌 앞 왼쪽에는 텃밭이 있었는데 역시 전형적인 魚家인지라 남의 땅을 빌어 쓰는 중이었다. 이 집 뒤에는 부엌의 왼쪽끝에서 도장의 오른쪽 끝까지 블록 담장을 쌓아서 뒤안을 만들었다.

이 집은 폐 오래된 집으로서 현재 73세의 할머니가 30년 전에 이사해 온 집인데, 이 마을이 생길 때부터 지어진 집이라는 말이 노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런 집은 이 지방에서 썩 드물 뿐만 아니라 전국적로 봐도 이와 꼭 같은 집은 없고 단지 충북(안채가 3칸이고 거기에 퇴사랑이 있다)이나 경북(3칸 퇴집)지방에 이와 비슷한 간살이를 가진 집들이 분포한다. 이러한 집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어민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一字도장집(II)

이 집은 앞에서 예를 든 김수열씨의 집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칸퇴집의 안방 앞에 봉당이 놓이는 것임에 비해 이 집에는 봉당이 아예 없고 부엌 옆에 외양간이 시설된다는 점이 앞의 예와 다르다. 이런 집의 실례로서 김내인씨댁(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 2리;1976년 11월조사)을 들겠다. 긴네모꼴의 이 집은 正東向으로 앉아 있다. 보통 이런 집인 경우 앞퇴를 단 4량집으로 처리하는 것임에 반해 이집에는 앞퇴가 없는 겹집 형식의 3량집 구조를 갖고 있다. 즉, 3평주3량집 구조이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의 간살이는 전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오른쪽에는 칸반×칸반 크기의 부엌을 두고 가운데에는 역시 칸반×칸반 크기의 안방을 배치한다. 왼쪽에는 뒤쪽에 반칸 크기의 도장을 두고 앞쪽에는 한칸 크기의 사랑방이 시설된다. 이 집은 역시 영동지방의 특색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서 앞퇴는 설치되지 않는다. 또한 부엌 오른쪽 옆으로는 반칸 크기의 마굿간을 덧달았고, 부엌과의 사이에는 구유를 두어서 직접 먹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구 앞쪽, 부엌의 오른쪽 옆에는 처마 밑에 판자를 둘려쳐서 소벅이를 넣어 두는 깍지우리를 시설했다. 이것은 앞에 개방되어 있어서 부엌 대문을 통해 물건을 꺼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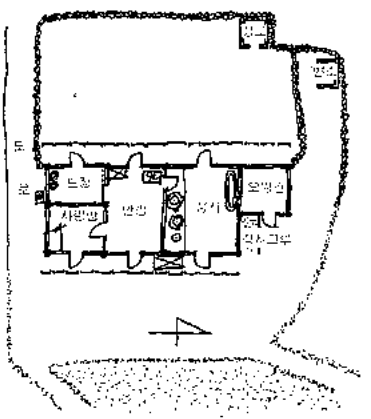


그림6 정선군 북면 여량리 김내인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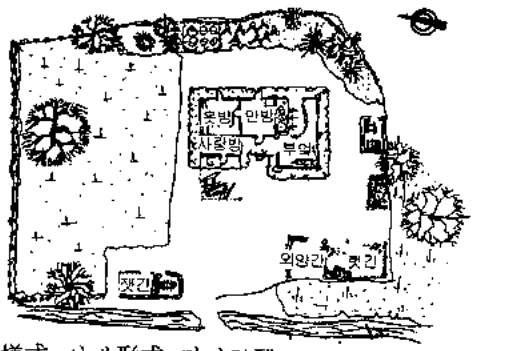
사랑방 뒤에있는 도장은 영동지방의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안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바닥에는 자리를 깔고 있는데 이것은 안방이나 사랑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집은 퇴가 없고 안방과 사랑방 및 부엌 앞에는 처마 안으로 조그만 토단이 돌아가며 이곳에서는 이것을(뜰팡)이라고 부른다. 앞마당은 영동지방의 다른 가난한 집들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없으며 도로에 바로 연결된다. 긴네모꼴의 뒤안은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도록 담장(물섶)이 쳐져 있다. 뒤안 한쪽 구석에는 조그만 창고가 있고 부엌 오른쪽 뒤로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 변소는 뒤꼍에서 들어갈 수 없으며 단지 앞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집은 대단히 오래된 집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여량리 金福萬씨댁과 쌍벽을 이루는 집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집은 영동지방의 가난하고 오래된 집에서 가끔 볼 수 있다.

(3) 一字사랑방집(I)

이 집은 앞의 一字집과 같으나 뒷쪽으로 놓이던 수장공

간으로서의 도장이 앞쪽으로 놓이고 대신 방이름을 사랑방이라고 부른다. 그 실례로서 雲谷里 1구 150, 김재욱씨 댁을 든다. 도면삽입이 집의 안채는 서남향이고 그 앞에 앞마당이 놓이며 출입구는 안채 맞은편에 사립문 없이 설치되었다. 안채는 一字型인데 3칸 전퇴집으로서 오른쪽에 부엌을 설치하고 중앙에 안방을 놓으며 왼편에는 웃방을 배치한다.



中世樣式 안채形式 퇴사랑型
김재욱씨댁(운곡리 1구 150)

부엌은 한칸 크기에 전퇴를 개방하고 앞과 오른쪽을덧달아서 크게 쓰며 안방과 웃방은 각각 한칸이다. (여기서 한칸의 길이는 대략 2.6m이다)웃방앞의 전퇴에는 반칸 크기의 사랑방을 만들었는데 그앞에는지붕만을 덧달아서 사랑부엌을 만들었다.

부엌의 오른쪽 한칸 거리에는 한칸 크기의 안변소가 있으며 그 앞에는 짚가리가 설치된다. 마당 오른쪽 앞에는 3칸 크기의 헛간이 만들어지며 전퇴가 없는 맞걸이(세마루)집인데 오른쪽 그 칸은 헛칸이고 왼쪽은 외양간이다. 사립문 옆에는 두칸 크기로 사랑 변소와 잿간이 배치된다. 집안의 왼쪽 옆에는 커다란 텃밭이 만들어지며 안채 뒤에는 딸기밭이 있고, 그안쪽 구석에는 장독대가 놓여진다. 집 주위에는 감나무 52그루와 은행나무 한그루가 심어져 있다.

(4) 一字사랑방집(II)

이 집은 앞의 一字 사랑방집(I)과 같으나 전자의 경우 부엌은 전후 2칸이고 수장공간으로 쓰이는 사랑방앞부뚜막 위에는 눈썹지붕을 달아서 거의 양통집에 가까운 모양을 띠고 있는 반면, 이 집은 분명한 3칸 전우(前右)퇴집에 비슷한 공간 배열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 실례로서 괴산의 김재영씨(괴산군 청안면 운곡리 1구)댁을 들기로 한다.

이 집은 3칸 一字 前右퇴집으로 긴네모꼴 모양이고 역시 긴 변쪽을 앞마당으로 삼는다. 구조는 一高柱 平四樑집으로서 흙벽돌 방위는 寅坐申向 집으로서 서남향이다. 간살이는 가운데 뒤쪽 한칸의 크기는 2.6m×2.6m 안방으로 하고 그 왼쪽 옆 한칸에는 웃방을 배치한다. 웃방 앞의 퇴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장공간인 사랑방이 놓이고 안방 앞퇴에는 마루가 깔린다. 오른쪽 간살은 칸반 크기의 부엌이 배열되고 그 왼쪽 옆에는 뒤쪽으로 반칸 크기의 광이 시설되며 앞의 조그만 퇴에는 나뭇간이 된다.

안방과 웃방과 바른네모꼴 모양이고 사이에 샛물이 있다. 가운데 있는(퇴)마루는 전면으로 개방되고 안방쪽으로 출입문이있지만, 사랑방에는 사면이 막아져 있고 웃방이나 마루쪽에 출입문이 없으며 그 반대쪽인 앞쪽과 측벽쪽에만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기능은 도장의 기능과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뭇잎은 부엌쪽이 개방되어서 부엌 공간이 ㄱ字 모양으로 나있고 광은 사면이 막아져 있으며 부엌쪽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부엌광은 중부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서 큰 특색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랑방이 앞의 도장과 다른 점은 도장집이 자기 집안의 경제생활을 중요시한 반면 이 집에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한 점이다.

집 앞의 앞마당은 도로에 바로 면해 있고 울타리나 대문 시설은 없다. 앞마당은 거꾸로 세모꼴 모양으로서 밑변의 길이는 12.1m, 높이는 7.5m 정도이다. 이 마당의 서쪽 끝에는 헛간채가 놓이는데 헛간채는 맞걸이 3칸집으로서 오른쪽 1칸은 전면을 개방했고 가운데는 1칸반 크기의 돼지우리로 쓰고 있으며 마지막 반칸에 잿간과 변소를 겸용하여 배열하고 있다. 마당의 도로쪽에는 가운데를 빼놓고 양쪽으로 큰 거름더미를 만들어 놓고 있다.

집 뒤에는 부엌쪽으로 장독대가 놓이며 웃방쪽뒤로는 텃밭이 만들어져 있다. 부엌광 옆에도 몇그루의 조그만 나무가 있다. 이 집은 요즈음에 흙벽돌로 지은 것이다.

建築士의 建築創作 風土 改善策에 관한 研究

梁 元 永

제1장 序 論

제1절 研究目的

建築士는 하나의 건축물을 創作하기 위하여 精誠과 열의를 다하고 鋭智와 能力을 다 하여야 한다.

建築士는 創作人이요, 芸術人이요, 科学者여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사는 創作하는 風土를 갖지 못하였다.

各種 法規와 制度속에서 허덕이고 現場監理業務에 戦戦긍긍하고 있다.

감리란 設計者의 意図대로 施工이 되는지의 与否를 確認하는 行為일 뿐이다.

建築士의 任務는 現場監理에 앞서 創作이 干先하여야 한다.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위한다면 建築士에게 研究하는 風土를 주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나라 建築発展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것이다.

제2절 研究方法 및 範圍

本 論文의 研究는 建築 研究室의 業務実態를 調査하고 建築設計의 受任에서 建築竣工에 이르는 諸般 問題点을 分析 検討하여 그 改善点을 指摘하고 改善方案을 創出하여 건축사가 本然의 研究業務에 精進할 수 있는 건축創作風土를 造成하고자 한다.

장래 예측을 통한 業務量과 建築士의 受任態勢를 確立하는데 力点을 두었다.

제2장 建築士 業務의 一般事項

제1절 建築 上 建築士 業務

建築法 第六条 第一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는 당해 工事를 監理함에 있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処分에 違反된 事項을 発見한 때에는 이를 是正하도록 建築主와 工事施工者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不応할 때에는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市長, 郡守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建築法 第七条 第一項

……중략…… 제6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를 定한 建築工事의 着手 또는 完了에 관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工事監理者가 申告書에 서명하여야 한다.

위의 두 조항은 違法建築物을 発見時는 建築士가 建築主와 施工者를 啓導하고 不応時는 지체없이 市長 郡守에게 報告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工事着工 申告書에는 監理者가 建築物이 遵法되게 施工이 되었다는 確認 捺印을 하여 報告 도록 規定하고 있다.

제2절 建築士法上 建築士의 業務

建築士法 제19조 (業務内容)

1. 建築士는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에 관한 業務를

行한다.

建築士法 第20条(業務上의 誠実등 業務)

2. 建築士는 誠実히 業務를 受行하여야 하며 建築物의 美観, 機能 및 構造上 支障이 없도록 設計하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

제 2 항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함에 있어서 工事가 設計図書대로 実施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즉시 그 工事 施工者에게 注意를 주어야 하며 工事施工者가 그 注意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建築主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제 3 항 建築士는 工事監理를 完了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結果를 書面으로 建築主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建築士는 誠実하게 設計図書를 作成함과 아울러 現場監理도 철저히 하기를 規定하고 있다.

제 3 절 建築士의 業務量

1969年도 서울特別市内 建築士 수는 443名이었다. 総許可棟数 31,857件, 延面積 4,100,246M² 를 設計하였고, 建築士 1人当 71.9件 9,255M² 를 設計하였다. 8年後 1977年 1년동안 建築士 746名이 総 39,447件, 延面積 9,846,992M² 를 設計하였고, 1人当 52.8件 설계에 延面積 13,199M² 씩 처리하였다.

한 사람의 建築士가 1年間 53건의 建築物을 計画하고 設計하여 監理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建築物의 質的問題를 凝心치 않을 수 없는 것이나, 社会発展에 比例하여 暴注하는 建築意慾은 그 누구도 막지못할 自然的인 現状이며 過渡期的인 現状이라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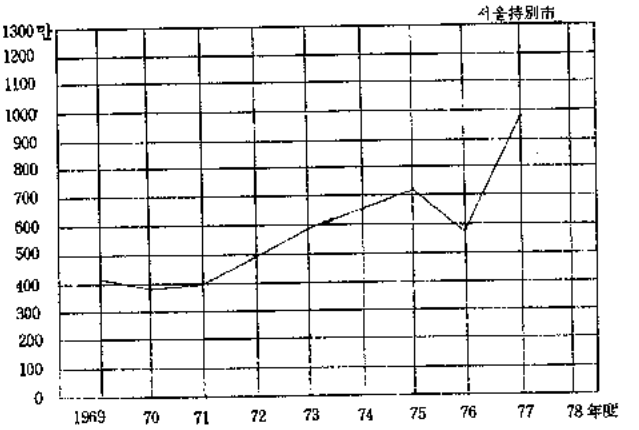
表1에서 指摘하듯이 建築許可 棟数의 増加率은 別変動이 없으나 延面積의 増加率은 약 2배를 넘어 建築物이 大形化하고 있음을 証明하여 주고 있다.

또한 建築士의 建築許可 件数도 72件에서 53件으로 줄어들어 年間 業務건수로 보아 건축물의 質的向上이 조금씩 改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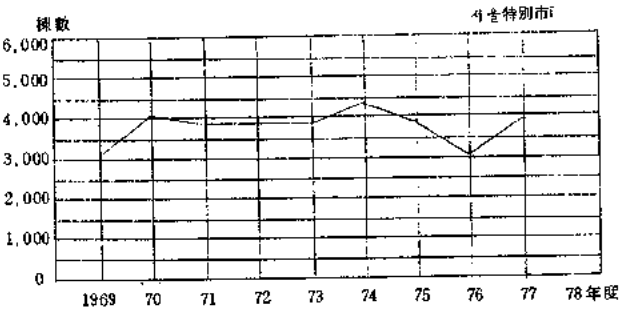
〈表1〉 1969～1977 設計業務実積

年度別	建築士数	許可件数	許可面積	1人当 許可件数	서울시 1人当 許可面積
1969	443人	31,857棟	4,100,246.66m²	71.9	9,255.63m²
1970	483人	40,412	3,972,987.53	83.66	8,225.64
1971	537人	38,283	4,076,062.72	71.29	7,590.43
1972	불명	불명	불명	불명	불명
1973	573人	39,036	5,911,484.57	68.12	10,316.72
1974	628人	44,040	6,536,214.96	70.13	10,407.98
1975	736人	39,438	7,241,091.15	53.58	9,865.24
1976	735人	30,772	5,951,404.97	41.86	8,097.14
1977	746人	39,447	9,846,992	52.87	13,199.72

〈表2〉 1969～1977建築許可 面積 変動表 (単位：万m²)



〈表3〉 1969～1977建築許可 棟数 変動表 (単位：棟数)



제 4 절 監 理 制 度

建築士法 제 2 조 4 項에 工事監理의 定義를 내리고 있다. 工事監理라 함은 工事가 設計図書대로 実施되였는지 与否의 確認과 設計図書에 表示되어 있지 아니한 事項에 対한 施工方法의 指導 및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을 確認하는 行為를 말한다. 라고 表記되어 있다.

建築士法 第19条(業務内容)에서 제20조(業務上의 誠実等 業務) 等에서도 建築士의 工事監理義務와 誠実義務, 美観, 機能, 構造上 支障이 없도록 設計하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는 建築士로서 너무나 당연한 義務規定을 指摘하여 놓았다.

그러나 建築法 第42条2 項(違反建築物의 設計者 等에 対한 措置)에서는 다음과 같이 建築士의 処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市長, 郡守는 제42조, 제 1 항, 제 1 호의 規定에 의하여 違反建築物에 対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建築物의 設計者, 工事監理者, 工事施工者의 名称과 기타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建設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建設部長官은 제 1 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을 받은 때에는 당해設計者, 工事監理者, 工事施工者에 対하여 建築士法 또는 建設業法의 規定에 의한 免許 및 登録의 취소나 営業停止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工

事監理 責任限界를 建築主에게 報告하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建設部에 報告하여 免許登錄의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行政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參考로 1977年度 서울市內 建築士의 行政懲戒事項을살펴보면 總 建築士數 764名中 343名이 1회이상 懲戒받은 바 있고 78年度 11月 現在 總建築士數 731名中 372名이 行政조치를 당한바 있다.

이러한 불미스런 實積을 감안할 때 工事監理制度의 問題点을 硏究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工事監理業務의 限界点과 建築監理者의 責任구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在의 建築士는 建築創作에 힘쓰는 일보다 建築行政의 요식 行為 또는 具備図書作成에 급급하게 되고 現場違法事項 発生与否에 항상 전전긍긍하여야 하는 딱한 사정에 놓여 있다.

아주 적은 住宅이라 할지라도 建築士가 設計를 受任하여 竣工까지의 課程에 現場検査 回数가 다음과 같이 実施된다.

제 1 차 現場検査 …… 計劃設計作成直前
제 2 차 現場検査 …… 수평 규준틀 설치시
제 3 차 現場検査 …… 着工 申告書 提出直前
제 4 차 現場検査 …… 竣工検査 申請書 提出直前

住宅이 아닌 一般 특수 建築物 혹은 一定規模 이상의 建築物인 경우는 위의 現場検査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 実施된다.

제 5 차 現場検査 …… 기초中間検査 申請書 提出直前
제 6 차 現場検査 …… 매 15日마다 工程報告 提出直前
제 7 차 現場検査 …… 옥상 中間検査 申請書 提出直前

一般的으로 住宅을 제외한 모든 建築物은 中間検査를 받아야하는 建築物이며 〈表－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建築面積의 약 13%를 감리건축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77年度 서울市內建築士 1人当 平均 現場 調査回数는 다음과 같이 計算된다.

住居用建築物 : 총33,423件÷746人＝44.8件
44.8件 × 4回＝179.2回

住宅建築許可改善方案実施要領(국무총리 지시 각서 제 8 호)에 의거 連帶建築士 2人의 現場監理도 겸해야 하므로, 179.2回× 3人分＝537.6回

非住居用建築物 : 총5,042件÷746人＝6.75件
6.75件×최소 7 回＝47.3件

로, 住居用 537.6回+非住居用 47.3回＝584.9回

建築士 1人当 1977年度 1年間 584.9回의 現場調査를 하였다는 計算이 나온다.

그러면 1年間 365日－(공휴일 52주＋국경일 13日)＝300日

총 584.9回÷300日＝1.95回

즉, 1日 2回의 現場調査를 実施하였다는 결과가 나온다.

工事監理를 위한 1回 出張時間은, 往復交通 2時間＋現場監理対話 1時間＝3時間

(表14앙케이트 調査 結果 参照)

即, 建築士는 매일 6시간을 現場監理에 임해야 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表4〉 용도별 建築許可 変動表

(단위 : 棟數)

연도별	住 居	商 業	工 業	기 타	計	비주거용 계
1969	22,267	2,823	713	887	26,690	4,423
1970	30,909	2,451	530	931	34,821	3,894
1971	27,877	2,731	797	1,147	32,546	4,669
1972	불 명	불 명	불 명	불 명	불 명	불 명
1973	29,786	2,312	1,256	732	34,086	4,300
1974	35,848	3,066	974	822	40,710	4,862
1975	29,465	4,010	922	1,058	35,455	5,990
1976	24,830	3,254	714	760	29,558	5,042
1977	33,423	3,674	257	1,111	38,465	5,042

〈表5〉 構造別 建築許可 変動表

(단위 : 棟數)

연도별	철근, 철골	조 적	목 조	기 타	계	비 고
1969	886	25,800	4		26,690	
1970	338	34,480	3		34,821	
1971	954	31,475	117		32,546	
1972	불 명	불 명	불 명		불 평	
1973	697	33,357	32		34,086	
1974	1,061	39,687	17		40,765	
1975	991	34,458	6		35,455	
1976	1,585	27,954	19		29,558	
11977	1,757	36,617	91		38,465	

이상과 같은 制度하에서도 違法建築物発生은 상당량에 이르러 年間 建築士 징계件数가 全体会員의 46%에 이르고 있다.

위와같은 結果는 建築士가 現場監理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建築士가 違法建築物의 建築主를 고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도 거의 고발사항이 없다는 사실은 고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 原因을 분석하기 위하여 建築士 및 建築士業務의 一般事項도 겸하여 조사하였다.

調査 槪要

1. 調査対象者選定

調査対象者選定은 서울市内에 산재한 建築士中一級 50名, 2級 50名을 選定하였다.

2. 調査者 : 本 研究者外 3名

3. 調査期間 : 1978. 11. 16부터 1978. 11. 22까지

4. 調査方法 : 本 研究者의 調査研究目的을 설명하고 案内 書信과 함께 調査表를 배부한 후 약 3日後에 회수하였다. 총100個所中 44個所에서 응답을 얻었다.

5. 調査 내용

(1)77年度, 78年度 業務量

(2)계절에 따른 設計許可의 되량

(3)연면적 165m² 기준 住宅設計期間

(4)許可申請에서 許可까지의 소요일

(5)建築主 設計受任 動機

(6)3人連署制度의 찬성여부

(7)連帯建築士의 現場監理를 못하는 이유

(9)小形建築物 監理費 수령여부

(10)工事監理 現場出張 所要時間

(11)위법建築物 発生時 建築主 고발여부

(12)고발하지 못하는 이유

(13)3人連署制度로 인한 행정징계 경험여부

(14)小形建築物 監理団 구성찬반여부

(15)監理団 구성이 되면 감리단 입단용의 여부

(16)기타 건축 행정에 관한 高見

建築主에 대한 調査개요

1.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은 永登浦区庁, 관악区庁等 3個区庁 관내 建築主 50名을 선정하였다.

2. 調査者 : 本 研究者外 3人

3. 調査期間 : 1978. 11. 16부터 1978. 11. 22

4. 調査方法 : 本 研究者의 調査研究目的을 설명하고 案内 書信과 함께 調査表를 배부한 후 약 1주일후 회수하였다.

총 50건중 36명으로 부터 응답을 얻었다.

5. 調査内容 :

(1)설계사무소를 선택하게 되는 경위

(2)건축허가 과정에 각종 구비서류 준비과정 난관여부

(3)공사과정에서 위법공사를 하게되는 동기

(4)만일 담당 建築士가 아닌 타기관(건축물 공동감리단)에서 建築物 監理를 하게 되고 준공검사 신청도 감리단이 위임맡게 된다면 위법행위여부

(5)준공시 구비서류 준비과정 난관여부

6. 分析方法 : 대부분의 위법건축물이 小形 建築物에서 発生함으로 주로 서울시 외곽지대에서 住宅建設業을 하는 建築主를 선택하였으며 응답내용의 문제점을 비교 통계하였다.

위와 같은 앙케이트 조사에서 건축사 업무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77年度 78年度 業務量

〈表6〉

(單位 : 棟) 1급-14名 2급-30名(設問대상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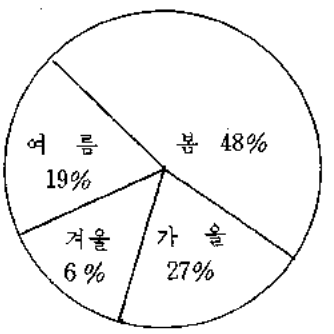
年 度 別	一級建築士	二級建築士	계
77年度	340	1,821	2,161
78年度	281	1,464	1,745

一級建築士는 業務量은 적으나 大形建築物을처리하게 되고 二級建築士는 業務量은 많으나 小形建築物을 受任処理하였다.

季節에 따른 業務量

年間 業務量을 100%로 본 계절별 業務量

〈表7〉



단, 봄 —3, 4, 5월
여름—6, 7, 8월
가을—9, 10, 11월
겨울—12, 1, 2월

建築士의 業務量은 年中 一定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에 집중됨으로 3계절은 아주 나쁜 시기이나 겨울철에는 대부분 한가한 時間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다. 許可申請에서 許可까지의 所要日

〈表8〉 (日数)

分 分	所 要 日	비 고
住居専用建築物	평균3~5	
비住居用建築物	평균4~15	

住宅建築許可 절차改善方案(国務総理 指示覚書 제8호)에 의하면 建築許可 申請検討 보고서만에 의거 8근무時間 以内에 許可처분하고 建築士 및 建築主에게 許可通知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建築職 公務員의 業務量 폭주로 사실 実行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연구자 任意로 調査한 통계이나 建築職 公務員 1人이 1年間 331건의 建築許可를 처리하며 또한 현장관리와 준공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建築士의 평균 業務量 53件에 비하여 무려 6배에 달하는 많은 량이다. 建築士의 監理 의무와 建築職 公務員의 現

場감독 의무의 함수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한다.

〈表9〉 78년도 3개 구청 建築許可 事項 및 建築職 公務員 1人当처리현황

1968. 1～1978. 12. 8. 현재

구분 \ 구청별	영등포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계	비 고
주택연서	2,238건	3,054건	4,423건	9,715건	
비주거용건축물	520건	650건	1,071건	2,196건	
소 계	2,758건	3,659 건	5,494건	11,911건	
건축직공무원수	11명	10명	15명	36명	불명확
공무원1인당 처리건수	251건	366건	366건	331건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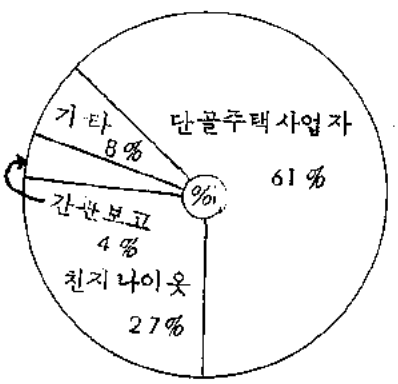
라. 建築主 設計 受任동기

대부분의 建築設計 의뢰가 단골 住宅事業者나 친지, 이웃을 通하여 受任됨을 알 수 있다.

즉, 인과 관계로 얽힌 建築士와 建築主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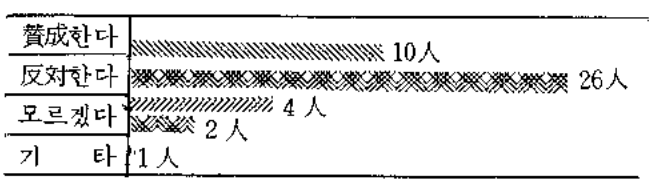
위와 같은 사항에서 違法建築物이 発生時 建築士가 주저없이 違法建築物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法」이전의 문제라 생각된다.

〈表10〉



마. 三人 연서 제도의 贊反여부

〈表11〉



응답자수 44명중 1, 2급부분 1급, 2급 1급 건축사인 경우 3人 연서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바. 연대 建築士의 現場監理실시 여부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실상 타 建築士의 現場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할 수도 없다.

타 建築士의 現場 状況을 모르고 어떻게 監理할것인가.

列 現場位置, 設計図面, 現場의 특수한 조건等, 自信의 現場관리도 철저히 하기 어려운 여건속에서 타建築士의 現場管理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表 12

설 문	응답자수	%	고 비
監理하고 있다.	1	3	
하고 있지 않다.	35	79	
必要에 따라 한다.	8	18	

表. 13

설 문	응답자수	%
監理費를 받는다.	0	0
監理費를 받지 못한다.	41	93
경우에 따라 받는다.	3	7

사. 小形建築物의 감리비 수령여부

現在 監理費는 전체 設計費의 20%로 策定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工事監理를 建築士가 施行할경우 20%의 監理費로 장기적인 工事기간에 충실한 監理를 할 수 있는 경비가 되는지가 더욱 의심스럽다.

設計기간과 監理期間의 時間的 차이는 1대10에 비례라 할 정도인데 보수율은 反対로 監理費의 20%인 것이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建築士가 監理에 소홀해지고 監理의무를 경시하게 된다고 본다.

(왕복 교통時間+現場監理対話時 평균)

〈表14〉 응답자 44명중

시간별	분 석 결 과
1시간	4人
2시간	6人 10人
3시간	8人 13人
4시간	3人

1급 2급

〈表15〉 응답자 44名中

기 타	1人
고발한다	
고발 안한다	40人
시정책을 찾는다	3人

아. 工事監理 現場出張時間

(왕복 교통時間 + 現場監理対話時間 평균)

자. 違法建築物 発生時 建築主 고발 与否

違法建築物의 違法業項을 검토하여 보면 대부분 아래 몇가지 종류에 국한되고 있다.

(1) 진북, 진남方向의 所定거리 미 확보

(2)外部

(2) 外部계단 設置(1층 혹은 2층을 임대할 目的)

(3) 別棟 변소 設置(임대자를 위한 別途변소)

(4) 地下室 높이기(건물을 크게 보이기 위함과 방드리기)

(5) 장독대 혹은 연탄창고 무단설치(허가를 안해 줌으로)

위의 事項中 1項, 4項을 제외한 위법사항은 우리나라 庶民住宅事情으로는 어쩔수 없는 現実이라 하겠다.

서울 外廓地坐에 소재한 단독住宅의 경우 임대(셋방)하지 않은 建築物이 몇棟이나 되겠는가 또한 서울市民의 40%이상이 무주택자인데 임대를 금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外観상 지나친 矢陷이 없는한 재고하여야 할 점이다.

이러한 違法事項을 建築士가 義務的으로 고발한다면 대부분의 建築物이 違法建築物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表16〉

인과 길계를 고려하여	24人
시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16人
경미한 위법임으로	4人
기 타	

차.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

고. 本 研究者가 調査한 바로는 1978. 11월(11개 월간) 現在영등포구청 약 2,700여건, 강서구청 약 3,800여건, 관악구청 약 5,500여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준공처리되고 있으나 違法建築物 告発建築士는 불과 몇名에 지나지 않으며 몇건의 告発事項도 建築士와 建築主의 軋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전하고 있다.

카. 連署制度 이후 行政懲戒 경험유무

〈表17〉

급 별	응답자수	회수	월수
1급	14	6	10
1 급	30	17	28

타. 監理業務 별도分離 賛反 与否

〈表18〉

급별	賛 成	反 対	감리단이 단용의 여부	모르겠다 (감리단 분리)
1급	6	2	2	6
2급	26	4	9	0

〈참고자료〉

1977년 5月中 강서구 관내 建築士 친목회에서는 違法建築物의 発生을 막고 회원 상호간의 不信을 해소하고 建築行政의 효율적인 改善을 目的으로 가칭 강서구 建築士 監理단을 結成하여 시행키로 議決한바 있다.

監理단을 構成하면 아래와 같은 이점과 개선점이 있으나 地域的인 実行에서 오는 設計業務의 감소현상을 염려하여 부득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違法建築物이 小住宅 혹은 小形 建築物에서 発生하므로 一定한 규모 이하의 建築物의 監理를 別度区分하여 実施해 보자는 의도였다.

監理단 구성으로 改善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建築士의 設計 창작 풍토를 改善할 수 있다.
2. 違法建築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3. 市民의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다.
4. 監理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5. 建築物의 質的 향상을 기할 수 있다.
6. 3人連署制度의 不合理점을 改善하고 폐지할 수도 있다.
7. 建築公務員의 業務量을 대폭 줄일 수 있다.
8. 부조리의 온상을 제거하고 명랑行政을 기할 수 있다.

正會員 계속

'79適用 建築工事 標準 품셈 改正·補完 內容

李 聖 国

1. 序論

품셈이란 人力 또는 機械를 利用하여 一定한 建築物 및 그 附屬施設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단위당 労動力, 機械의 能率 및 材料를 数量으로 表示한 것이며, 原来 품셈의 뜻은 作業量에 대한 労動의 比를 数値로 나타낸 것이다.

건축공사표준품셈은 国家, 地方自治団体, 政府 投資機関 및 위 機関의 監督과 承認을 要하는 機関에서 施行하는 各種 建設工事의 適正 工事費 算出을 図謀하고 建築工事의 質的向上을 위하여 設計에 대한 일반적인 基準을 정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標準품셈은 建設工事중 가장 代表的이고 보편적인 工種 및 工法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므로 新工法 및 新資材의 開発이 있을시 그 適用與否等 제반 與件을 보아 위 目的에 符合되도록 研究하여 改正·補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現行 標準품셈중 実際품과 相異한 内容이 있는지? 適用의 正確을 기하기 위하여 解説의 修正 및 追加가 必要한지? 를 検討하여 補完해 나가야 할 것이다

当部에서는 毎年 官界機関 및 関係団体에 提出된 품셈 資料를 研究 및 実査를 통하여 妥当性을 検討한 후 各部處의 関係官으로 構成된 審議委員会에서 審議를 거쳐 改正·補完 하고 있다.

아래에 収録된 内容은 '79年度 부터 適用될 建築工事 標準품셈의 改正·補完 内容이며 見積業務에 活用키 바란다.

2. 改正·補完内容

○1－20 시멘트 空袋 및 空드럼과 発生材

改正前: 시멘트 空袋의 控除率 90%, 空드럼 100%이며 価格은 시중도매 価格.

現行: 시멘트 空袋의 控除率 50%, 空드럼 控除率을 90%로 내리고 備考란의 시중도매価格은 削除.

事由로는 現場에서의 空袋 및 空드럼의 回収率이 現行 控除率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実情이므로 이를 現実化 하고 価格란을 削除하여 弾力性있는 품셈 適用을 可能케 할려고 함.

○1－27 使用料

改正前: 가. 契約에 따른 特許使用料와 技術者等에 대한 費用을 計上할 수 있다.

나. 工事 使用에 必要한 用水 및 電力使用料等은 実情에 따라 計上할 수 있다.

現行: 가. 契約에 따른 特許料, 技術料等에 대한 費用을 計上할 수 있다.

나. 工事費에 必要한 役務費 중 電力費, 수도광열費, 運搬費, 機械経費 試験検査費等을 計上할 수 있다.

根拠 및 事由는 会計例規 変更에 따른 案으로서 会計例規와 統一을 기하고자 함.

○1－30 기타 一般事項

改正前: 工事의 規模와 性質에 따라 그 地勢別 割増율 할 수 있다.

現行: 山岳地, 島嶼地区와 기타 現場의 與件上 工事의 進行에 障碍가 있다고 判断될 경우 품을 10~50% 割増할 수 있다.

事由는 품셈의 単一化와 設計者에게 裁量権을 附与하여 実情에 따라 융통성 있게 適用할 수 있도록 함.

○1－33 保険料 및 기타

改正前: (産災保険料) 産災保険料는 제잡비(제잡比率)에 包含한 것이며 設計時 제잡비 난에 明示한다.

現行: 間接労務費, 雑費, 産災保険料 및 其他 이와 類似한 事項은 財務部 会計 例規에 따른다.

根拠 및 事由는 会計例規 変更에 따른 案으로서 会計例規와 統一을 기하고자 함.

○1－35 設計書의 作成

改正前: 原 設計書에서 重機使用 및 雑費 計算書를 作成하도록 되어 있음.

現行: 原 設計書에서 重機使用 및 雑費 計算書를 削除.

根拠 및 事由는 財務部 会計例規 1201－04－80 原価計算에 의한 作成 準則 第17條에 의거 重機雑費는 建設工事 제잡비에 包含되므로 重機使用 및 雑費 計算書를 削除함

○ 一般事項(1－35設計書 作成)

現行: 바. 設計書 作成時 一般示方書, 特記示方書를 필히 作成하여 品質管理에 力点을 두도록 한다.

事由는 建築物의 質向上을 위하여 一般示方書 및 特記示方書 作成을 強調한 것으로서 新設 事項 임.

○ 3 - 8 建築物의 保養

改正前 : 가마니 養生時 保養面積 1 m² 当 가마니는 0.12枚로 計上되어 있으며 保養時 撒水품이 없음.

現行 : 가마니 養生에서 撒水품을 保養面積 1 m² 当 0.004人을 挿入하고 注記에 "가마니는 新品을 基準으로 한 것이다"를 挿入.

事由는 養生用 가마니의 狀態를 定義해줌으로 適用上 便宜를 주고 養生時 必要한 撒水품을 追加 함.

○ 3 - 10 建築物의 現場整理

改正前 : 철근콘크리트 및 木造의 現場整理품은 있으나 清掃에 必要한 消耗품에 대한 事項이 없음.

現行 : 解說에 "清掃用 消耗품은 別除로 計上할 수 있다"를 挿入.

事由로는 現場整理 清掃품은 있으나 消耗품에 대한 事項이 없으므로 消耗품을 計上할 수 있게 注記를 붙여 合理化를 시켰음.

○ 4 - 2 가. 人力

改正前 :

種別 \ 길이	0 - 1	1 - 2	2 - 3
보통土砂	0.15人	0.19人	0.24人
粘質土砂	0.20人	0.26人	0.33人
고사粘土및 자갈섞인土砂	0.38人	0.49人	0.63人
호박돌 섞인 土砂	0.54人	0.70人	0.91人

現行 :

種別 \ 길이	0 - 1	1 - 2	2 - 3
보통土砂	0.21人	0.28人	0.35人
粘質土砂	0.25	0 34	0.43
고사粘土 및 자갈섞인土砂	0.33	0.44	0.55
호박돌 섞인 土砂	0.59	0.79	0.99

事由는 人力터파기에서 품의 過小策定으로 実際와 맞지 않으므로 품의 合理化를 기한 것임.

○ 4 - 2 터파기〔나. 機械使用(岩盤)〕

改正前 : 岩盤굴착時 火藥工이 必要한데 特別人夫를 適用하고 있음.

現行 : 特別人夫를 火藥工으로 대체.

事由는 火藥을 使用하여 굴착하므로 工事場의 安全上 人夫를 火藥工으로 대체 함.

○ 6 - 1 콘크리트(2)

改正前 : 独立굴뚝은 품을 10m~50m 까지 50% 比例的으로 加算한다.

現行 : 独立굴뚝, 高架水槽, 싸이로 및 이에 준하는 構造物은 품을 10m~50m까지 比例的으로 加算하고 特殊비계공을 適用한다.

根拠 및 事由로는 '78年 하반기 政府労賃単価에 15m以上은 特殊비계공을 適用한다는 項이 있으며 싸이로, 高架水槽 等도 独立굴뚝과 工程上의 難易度를 같게 보아 이를 追加 함.

○ 8 - 3 벽돌 小運搬

改正前 : 小運搬 품은 尺当 0.2人이 比例的으로 加算하여지고 있으며 4尺 까지만 制定되어 있으므로 5尺의 適用이 곤란 함.

現行 : 5尺의 運搬품을 挿入, 5尺의 경우 標準型 1.2人, 既存型 1.4人을 追加.

事由는 5尺의 小運搬품 計上이 곤란하며 6尺 以上은 機械에 의한 運搬이 一般的이므로 5尺만을 追加 함.

○16 - 9 활석면 모르터

新設事項으로써 建築工事에 現在 使用되고 있는 材料로서 품셈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新設 함.

나. 활석면 모르터 바름

바탕別 \ 区分		바름두께(容積比) 초벌(mm)	재벌(mm)	정벌(mm)	시멘트(kg) 초벌+정벌	초벌+재벌+정벌	모래(m²) 초벌+정벌	초벌+재벌+정벌	활석면(kg) 초벌+정벌	초벌+재벌+정벌
콘크리트 및 벽돌붙록 바탕	内壁	7 (1 : 3 : 1)	7 (1 : 3 : 1)	4 (1 : 3 : 1)	4.10	6.71	0.0089	0.145	1 23	2.02
	天井	6 (1 : 3 : 1)	6 (1 : 3 : 1)	3 (1 : 3 : 1)	3.36	5.60	0.0073	0,012	1.01	1.68
	外壁	9 (1 : 3 : 1)	9 (1 : 3 : 1)	6 (1 : 3 : 1)	5.60	8.95	00193	0.0193	1.68	2.69
나무졸대 및 메탈라스 바탕	内壁	7 졸대 및 라스두께보다 2mm 더 두	7 (1 : 3 : 1)	4 (1 : 3 : 1)	1.49	4.40	0.0032	0.0089	0.45	1.0
	天井		6 (1 : 3 : 1)	3 (1 : 3 : 1)	1.12	3.36	0.0024	0.0073	0.34	1.01
	外壁		9 (1 : 3 : 1)	6 (1 : 3 : 1)	2.24	5.60	0.0048	0.0121	0.67	1.68

가. 활석면 모르터 配合

配合	시멘트	모레	활석면	인부
(容積比)	kg	m^3	kg	인
1 : 3 : 1	375	0.805	112	1.0

1. 材料의 할증율이 加算되어 있다. 2. 本품에는 機具 손료 및 小運搬품이 包含되어 있다.

1. 材料의 割增率은 壁·天井 15%, 나무졸대 바탕 20%를 別度 加算한다.

2. 나무졸대 바탕의 초벌에 使用되는 材料는 別度 加算한다.

다. 활석면 모르터 바름 m^2当)

바탕別	바르기場所別	바르기두께	미장工	인부	備考
콘크리트 및 벽돌블록	壁	초벌	0.03	0.03	2回바르기로 할 때는 초벌과 정벌 바르기로 한다.
		재벌	0.05	005	
		정벌	0.05	0.05	
	天井 및 채양	초벌	0.04	0.04	〃
		재벌	0.06	0.06	
		정벌	0.06	0.06	
나무졸대 및 메탈라스	壁	3회바르기	0.15	0.15	
	天井	3회바르기	2.20	2.20	

1. 비빔공(활석면 모르터의 비빔인부)은 別度 加算한다.
2. 機具損料 및 小運搬품이 包含되어 있다.
3. 바탕의 폭 30cm以下이거나 圓柱바름面일 때는 本表 품을 30%까지 加算한다.
4. 外壁은 높이에 따라 다음割增率에 의한 품을 加算할 수 있으며, 19尺 以上은 매 3尺마다 4%씩 加算할 수있다.

尺別 / 区分	地下尺및地上 1, 2, 3尺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미장공	○	5%	8%	12%	16%	20%
인부	○	5%	8%	12%	16%	20%

〔解說〕

尺의 区分을 할 수 없는 경우, 建築物의 1個尺의 尺高를 3.6m를 基準하여 尺高를 換算한다.

라. 쇠흙손 마감

区分	単位	数量
미장공	인	0.05

1. 別度 마감이 必要없을 때에 쇠흙 손 끝내기의 품이다.
2. 機具損料가 包含된 것이다.

○15－6 雜鉄物 製作 設置

改正前 : 形状이 複雜하거나 박형강의 경우 改正前의 품 및 材料量으로서는 作業 遂行이 곤란 함.

現行 : "形状이 複雜하거나 軽量鉄材일 경우에는 품 및 材料量을 別度 計上할 수 있다"라고 解說을 달음.

事由는 軽量鉄材일 때나 形状이 複雜할 때는 適用이 곤란하여 材料 및 工事의 難易에 따라 設計者에게 裁量権을 주어 품의 適正化를 기하기 위함.

○17－2 가. 鋼製窓戸 달기

改正前 :

区分	種別	샷시공(인)
窓	붙박이, 회전	0.2~0.55
窓	미들창, 미서기	0.3~0.77
문	오르내리미닫이	0.5~0.98
샷터(shutter)		0.5~0.98

現行 : (짝当)

区分	種別	샷시공(인)
窓	붙박이	0.3~0.5
	회전 미들窓	0.4~0.6
	쌍여닫이	0.8~1.2
	미서기	0.9~1.3
	오르내리	1.0~1.5
門	외여닫이 (후랏쉬)	1.0~1.6
	쌍여닫이 (후랏쉬)	1.5~3.0
	미서기	1.5~3.5
	샷터 (장치포함)	4 ~ 8

앵커보울트 設置 및 콘크리트 까기품은 個所当 石工 0.1~0.15인을 計上할 수 있다.

(解說)

窓問 및 샷터의 크기에따라 本품의 範囲内에서 加減 한다.

事由는 窓의 分類가 不合理하게 되어 있어 合理的인 分類를 한 것임.

○17－2 나. 알루미늄 窓戸

알루미늄 窓戸는 現在 窓戸工事에서 많이 使用되고 있으나 本 품셈에 制定되어 있지 않음으로 新設하였음

(짝当)

区分	種別	샷시공(인)
窓	붙박이	0.21~0.32
	회전미들창	0.26~0.40
	양여닫이	0.55~0.83
	미서기	0.69~0.91
	오르내리	0.73~0.94
門	여미닫이	0.7~ 1.4

앵커보울트 設置 및 콘크리트 까기 품은 個所当 石工 0.1~0.15人을 計上할 수 있다.

건축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연구

(방화재료 및 내화구조를 중심으로)

5－5 우리나라에서 적용 또는 이용 가능한 품목추출

국내외의 난연성재료, 방화문 및 내화구조등의 실례에 따른 국내에서의 적용 또는 이용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재료

벽돌, 철광, 회, 콘크리트, 모르터, 기와, 석면판류, 알미늄판류 유리, 목모시멘트판, 석고보오드류, 난연합판류, 벽장재료(벽지류), 난연성 플라스틱판유, 경질 목편 시멘트판류

(2) 방화, 내화구조의 적용 가능성

각구조부별로 내화구조 및 내화시간의 지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규상의 문제점을 고려 하여야 한다고 보겠다. 방화재료에 대한 지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품질검사 및 기준의 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건축재료의 품질기준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순위별)

① 불연재료의 지정
② 준불연재료의 지정
③ 난연재료의 지정
④ 방화문
⑤ 스레트 기와
⑥ 합성수지 위생기구
⑦ 합성수지 창호
⑧ 고압벽돌
⑨ 내화구조의 지정

이상 (3)에서 수출한 품목에 대하여 K, S로 지정된 것은 다음 과 같다.

6. 방화재료 및 기타 건축재료의 품질 기준안 작성

건축재료의 품질규정에 관한 법적 근거

건축재의 품질규정에 건축법 제25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기준을 지정한다.

6－1 불연재료

건축법 제2조11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터, 회 이외의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KS F 2271)의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난연성의 급별에서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을 불연재료로 지정한다.

6－2 준불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 9항에서 규정한 목모시멘트판, 석고보오드 이외의 기타재료에 대해서는 한국공업규격(KS F 2271)의 건축물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난연성의 급별에서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을 준불연재로 지정한다.

6－3 난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 10항에서 규정한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이외의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한국공업규격(KS F 2271)의 건축물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난연성의 급별에서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난연재료로 지정한다.

6－4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

건축법 제2조 9호와 제2조 10호와 건축법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규정한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의 내화성능 및 방화성능에 대하여는

추출된 품목의 K－S규정 및 내용

품 목	KS규정	내 용	비 치	구 입
방 화 문				
벽 돌	L－3101	시멘트 벽돌		
	L－3102	내화벽돌의 형상 및 치수		
	L－3103	평노형 ㅣ'열실 내화 벽돌의 형상 및 치수		
	L－3104	표준형 내화 벽돌의 치수검사방법		
	L－3105	표준형이 아닌 내화 벽돌의 치수 검사 방법		
	L－3110	내화 벽돌의 적임 강도 시험 방법		
	L－3111	내화 벽돌의 치수 측정		
	L－3112	내화 벽돌의 뒤틀림 측정 방법		
	L－3113	내화 벽돌의 내화도 시험 방법		
	L－3114	내화 벽돌의 기공률, 흡수율 및 비중 측정 방법		
	L－3115	내화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L－3116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		
	L－3117	내화벽돌의 잔존서 팽창 수축률 시험 방법		
	L－3118	내화벽돌의 오오토클레이브 시험 방법		
	L－3119	내화벽돌의 하중 연화점 시험 방법		
	L－3120	내화벽돌의 화학 분석 방법		
	L－3121	내화 단열 벽돌의 열전도 측정		
	L－3122	탄소질 벽돌의 재가열 시험 방법		
	L－3123	염기성 내화물의 수화도 시험 방법		
	L－3124	점토질 내화 벽돌의 작업상 자수 측정 방법		
	L－3201	내화 점토질 벽돌		
	L－3204	규석 벽돌		
	L－3205	고 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L－3206	크롬마그네시아질 내화 벽돌의 분류		
	L－3207	코오크스 가마용 규석 벽돌		
	L－3301	내화 단연 벽돌		
	L－3302	내화 단열 벽돌의 형상 및 치수		
	L－3303	내화 단열 벽돌의 재가열 수축률 시험 방법		
	L－3304	내화 단열 벽돌의 비중 및 기공률 측정방법		
	L－3305	내화 단열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L－3307	내화 단열 벽돌의 열간 선팽창 수축률 시험 방법		
	L－3308	화학 공업용 내산 벽돌		
	L 3309－	크롬 벽돌		
	L－3310	마그네시아 벽돌		
	L－3311	펄프 증해조용 내산 내열 벽돌		
	L－4201	보통 벽돌		
철 망	*철 선			
	D－3552			
회	L－0002	석회 분야의 표준 용어		
	E－2801	석회석 광량 계산 기준		
	E－3071	석회석 화학 분석 방법		
	L－0009	석회 소성용 선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L－9004	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콘크리트	F-2442	제품의 체적 변화			
몰탈	L-5104	모르터의 인장강도			
	L-5105	모르터의 압축강도			
석연판	F-4710	석연 보온통 기와			
	F-4709	석연 보온판			
	L-5116	석연 시멘트관			
	L-5115	석연 시멘트 평판			
	L-5311	석연판			
알루미늄	F-4506	알루미늄 창호			
	D-6701	판·원판			
유리	L-2006	유리(一망)			
	L-2005	유리(무늬一)			
	L-9102				
	F-4903	유리 블록			
목모 시멘트판	L-2504	유리의 연화점 시험			
	F-4702	석고판 방법			
석고보오드	F-3504	석고판			
	F-3505	석고 라스판			
	L-9003	석고의 화학 분석 방법			
난연합판					
난연 프라스틱판					
스레트 기와					
합성 수지창호					
고압벽돌					
고압블록					
플라스틱 위생기구	G-3210	플라스틱 세척용기			
	L-1551	위생도기			

한국공업규격(KS F 2256)건축물 불연구조부분의 방화시험방법

한국공업규격(KS F 2257)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

한국공업규격(KS F 2258)건축물 복조부분의 방화시험 방법

한국공업규격(KS F 2269)지붕의 방화시험방법

을 적용하여 내화 및 방화성능을 지정한다.

6-5 방화문

건축법 제94조 1항1호에 방종방화문의 규정과 건축법 제94조 1항1호에서 을종방화문이 규정되고 있으며 방화문의 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공업규격(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을 적용하여 방화문의 성능을 지정 한다.

6-6 스레트기와(KS비배성)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시멘트와 석면을 주 원료로 하여 압축 성형한 스레트 기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원료 및 제조

2-1 스레트 기와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시멘트로 하고 석면은 KSE 3803(석면)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스레트 기와의 시멘트와 석면의 표준 배합비는 80:20 중량비 (1)로 하고 대용 섬유를 사용하는 경우 전중량의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3 스레트 기와의 제조에 있어서는 성형에 필요한 압력을 가한 후 제판 후에는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주(1)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하고 석면은 6급의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외의 경우는 제품이 4에

규정한 품질이 되도록 배합율을 정한다.

2－4 제품의 질을 나쁘게 하거나, 제품에 접하는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착색 재료,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도 좋다.

3. 형상 및 크기

스레트 기와의 크기 및 허용치는 표 1 에 표시한 것으로 한다. 표면 및 이면의 모양은 제한하지 않는다.

표 1. (단위 : mm)

명 칭	길 이		폭		두 께	
	치수	허용치	치수	허용치	치수	허용치
스레트기와	105	±1	54	±1	6	±0.5

비고 : 두께는 단면에 대한 주요 부분의 두께를 말한다. 다만, 어떤 부분의 두께도 6 mm이상으로 한다.

4. 품질

4－1 스레트 기와에는 심한 흠, 귀나감, 금, 밀착부족, 뒤틀림 또는 굽힘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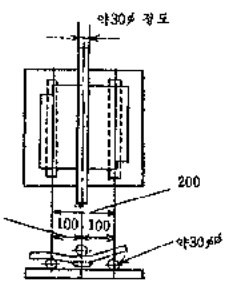
4－2 스레트 기와는 표 2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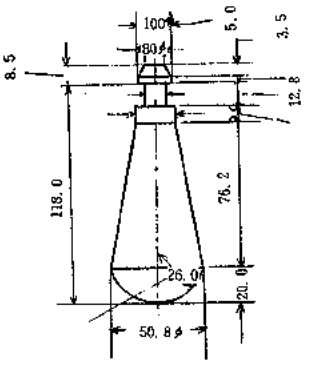
휨 파괴 하중 (kg/cm²)	흡수율(%)	충격시험에서 추를 떨어뜨릴 때의 높이(cm)
120 이상	21이하	50

5. 시험방법

5－1 휨 시험 : 시험체는 기건상태로 한 것을 그림 1 과 같이 폭 방향으로 20cm의 간격을 두어 받침대의 표면을 위로 하여 밀착시켜 놓는다. 받침막대는 지름 약 30mm의 원형강을 놓고 매초 5～10kg정도씩 균일하게 하중을 가한다.



그 림 1.



그 림 2.

5－2 충격시험 : 시험판은 기건상태로 하여 이틀 6. 1 시험에 따라 올려놓고 그 중앙 위에서 산정에 중량 1 kg의 가지모양 추(그림 2)를 표 2 에 표시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금, 떨어져 나감, 구멍뚫림, 갈라짐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

5－3 흡수시험 : 시험체는 길이 10cm, 나비10cm로 하여 이를 15～25℃의 맑은 물 속에 담그어 약 24시간 지난 후에 꺼내고 각 면을 잘 닦고 즉시 평량한 때의 중량을 흡수 중량으로 한다. 다음 공기 건조기속에 넣어 그 온도를 약 100℃로 유지하여 약 24시간 말린 후 꺼내어 데시케이터에 넣어 상온으로 식힌 다음 평량한 중량을 건조중량으로 한다.

흡수율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흡수율}(\%) = \frac{\text{흡수중량} - \text{건조중량}}{\text{건조중량}} \times 100$$

6. 검사

5. 1～5. 3의 시험은 500장 또는 그 끝수를 1 검사로트로하고 각 로트에서 3 장의 제품을 랜덤하게 시료를 뽑아서 시험한다. 이때 3 장이 모두 합격하여야 합격으로 한다.

7. 표시

시멘트 1 장마다 제조공사명 또는 그의 약호와 성형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6. 7 고압 벽돌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모래와 생석회를 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하여 제조된 무공 및 유공 고압 벽돌(이하 고압 벽돌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명칭

고압 벽돌은 다음 3 종류로 구분한다.

(1) A형 무공 고압 벽돌
(2) B형 무공 고압 벽돌
(3) C형 무공 고압 벽돌
(4) D형 무공고압 벽돌

3. 재료 및 제조방법

3－1 생석회는 CaO 92%이상, MgO 5 %이하이어야 하며, 그 입도는 0. 09 mm 정도가 되어야 한다.

3－2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질 및 얇거나 또는 가느다란 석연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그 성분구성에 있어 SiO_2 80 %이상, 입도는 0. 063～4 mm가 되어야 한다.

3－3 원료의 혼합비는 모래 : 생석회 중량비 93 : 7 로 배합하며 소요강도에 따라 혼합비율은 다소 조정할 수 있다.

3－4 성형시는 140～ 170kg/㎠의 압력을 가한 후 고압증기로에서 5～8시간 동안 양생하여야 한다.

4. 치수 및 허용치

고압벽돌의 치수 및 그 허용치는 표1과 같다.

표1. (단위 : mm)

종 류	치 수			허용치
	길 이	폭	두 께	
A무공 고압 벽돌	240	115	71	
B 무공 고압 벽돌	240	91	71	＋3
C 무공 고압 벽돌	210	100	60	－2
D 무공 고압 벽돌	240	115	113	

5. 품질

5－1 고압 벽돌에는 눈에 띄이는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

5－2 고압 벽돌의 압축강도는 75～300kg/㎠ 이어야 한다.

5－3 고압 벽돌의 흡수율은 7～16%내에 있어야 한다.

6. 시험

6－1 압축시험 : 시험체의 캡핑 (1)은 가압 양면이 평행이 되도록 얇고, 평평하게 실시하고, 그 후 2시간 이상 맑은 물 속에 넣어서 포화상태로 하여 곧 시험한다. 이때 압축 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그 전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가압에는 중앙에 구절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쓰고, 1㎠당 매초 2kg의 속도로 가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전 단면적(1)에 대한 압축강도(kg/㎠)} = \frac{\text{파괴하중}}{\text{전압기면적}}$$

주(1) : 캡핑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터르 사용하나 급한 경우에는 시멘트에 적량의 소석고를 혼합하든지, 소석고만으로 사용하여도 좋다.

비고 : 캡핑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압축강도는 5.2값 이상이어야 한다.

6－2 흡수량 시험 : 시험체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 후 함량이 될 때까지 시료를 105±5℃의 온도에서 건조시키고, 15～25℃의 물 속에서 24시간 동안 침수시킨 후, 다시 꺼내어 시료를 흡수성이 큰 천위에 놓고 표면에 붙어있는 물기를 전부 없앤 즉시 측정한 때의 중량을 흡수중량으로 하고 이것을 공기 건조기후의 중량을 건조중량으로 한다. 흡수율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흡수율(\%)} = \frac{\text{흡수중량} - \text{건조중량}}{\text{건조중량}} \times 100$$

7. 검사

7－1 검사는 치수, 겉모양, 압축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하며 4 및 5.2, 5.3에 합격하여야 한다.

7－2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며 4일 5.1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7－3 치수 및 압축강도의 검사는 호징을 달리할 때마다 10000개 또는 그 단수를 1 무더기로 하고 1 무더기에 대하여 무작위로 5개의 샘플링하여 압축시험을 하고 그 시료가 전부 5.2의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1 무더기를 전부 합격으로 하며, 1개라도 불합격하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8. 표시

고압 벽돌은 1개마다 종별 또는 제조자명 또는 그의 약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 창호
Plastics sash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창호류(이하 창호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창호류의 종류는 표1과 같다.

표1. 창호의 종류

	창 (W)	문 (D)
S	미 서 기	미 서 기
S F	미 닫 이	미 닫 이
F	붙 박 이	붙 박 이

3. 치수

3－1 창호

(1) 창호의치수는 공칭치수로 표2와 같으며 측정방법은 문틀의 조정면과 틈을 포함한 모듈울선 사이의 크기로 한다.

(2) 공칭치수는 너비(W), 높이(H)로 표시하고 제작치수는 KSF 1509(건축부품의 치수 정하기) 및 KSF 1515(창호부품설치용 개구부의 표준 모듈울치수)에 따라 결정하며, 높이, 너비의 허용차는 ±2mm, 창문틀 대변의 안목 치수의 허용차를 2mm이하로 한다.

4. 재 료

4－1 틀 재

틀재 및 창짝 문짝재의 종류는 표3 및 표4 와 같다.

4－2 철 문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철물은 그 성능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모양을 가져야 한다.

4-3 창, 문의 기능

창과 문은 설치완료후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 창호의 크기(공칭치수) (단위 : mm)

넓이 \ 너비	400	600	1200	1500	1800	2100	2400	2700	3000	3600
600	○	○	○	○						
800		○	○	○	○					
1000		○	○	○	○					
1200			○	○	○	○				
1400				○	○	○				
1600				○	○	○				
1800				○	○	○	○	○	○	
2000					○	○	○	○	○	
2200						○	○	○	○	
2400						○	○	○	○	○
2600							○	○	○	○
2800							○	○	○	○

표 3. 창 호 틀 재

너비	70	90 (mm)
기호 종류	창 틀	창 울 거 미
	윗 틀 재	윗 막 이
S	밑 틀 재	중 막 이
S F	중 간 틀 재	밑 막 이
F	선 틀 재	선 대
	중 간 선 대	여 임 대

표 4. 문 틀 문 짝

너 비	70	90 (mm)
종 류	문 틀	문 울 거 미
	윗 틀 재	윗 막 이
	밑 틀 재	중 막 이
	중 간 틀 재	밑 막 이
	선 틀 재	선 대
	중 간 선 대	여 임 대

표 5. 기재의 품질

항 목	결 과
선 팽 창 계 수	차에 10℃m/0.8mm이하
인 장 강 도	470 kg/cm² 이상
굴 곡 강 도	800 kg/cm² 이상
충 격 강 도	(−40°C ~ +23°C) 파괴되지 않음

5. 품 질

5-1 재료의 품질

기재의 품질은 KSM 3155(경질염화비닐 콤 파운드)에 의한 시험결과 KSM 3065(경질플라스틱의 하중변형온도 시험)규에서 표5와 같아야 한다.

표6. 재 료 두 께

종 류	두 께	허 용 치
틀 재	2.5mm	±0.3
울 거 미	2.0mm	±0.3

5-2 형상 및 치수

(1)재료 단면형상과 치수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은 것으로 하고 두께는 표 6과 같아야 한다.

(2)바람막이 모막이등 기타부재는 서로 교합하여 원형을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기타 특수한 용도에 쓰이는 것은 주문자에 의하여 제작할 수 있다.

6. 가공 및 조립방법

(1)모서리, 기타 재료의 접합은 가열기계접착으로 하고 틀재 및 거미의 모서리 기타 조립 접착한 보임부분을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2)틀재 및 울거미재는 비뜸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3)기밀재 작은나사 및 고리는 성능이 높은 것으로 완전히 접착 고정시킨다.

(4)틀재 및 울거미재의 보임부분에는 험집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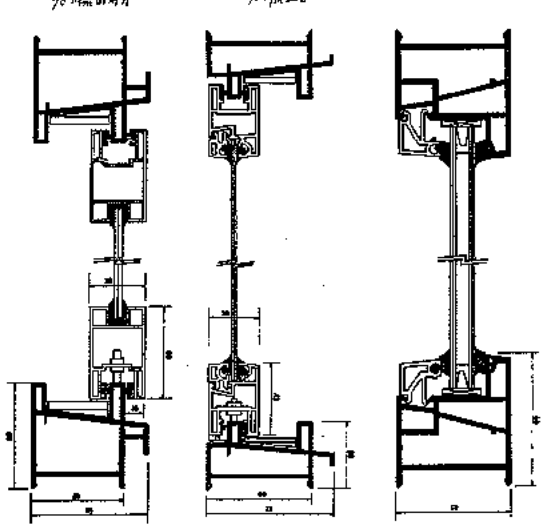
7. 검 사

창호류의 겉모양 치수 품질에 대한 검사는 실재의 사용제품에서 샘플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8. 포장 및 표시

재품은 포장하여 출하고 제조자명 또는 약호 공칭치수 틀재의 넓이 종류 등을 기재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9 합성수지 위생기구(Sanitary wares)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에 사용하는 위생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 류

기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기호는 KSL 1551에 준한다)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세척용탱크, 욕조 주방용싱크 소재용싱크 세면화장대

3. 재 료

3-1 사용재료의 종류

(1)수지계 인조석

주로 불포화 포리에스텔과 석질골재등을 사용하여 성형한 것으로 한다.

(2)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KSF 4802(유리섬유강화 포리에스텔 골판)에 규정한 재료로서 성형한 것으로 한다.

(3)아크릴수지

일반 메타크릴 수지 또는 성형재료를 사용하거나 유리섬유강화 포리에스텔 수지로 보강한 것으로 한다.

4. 품 질

4-1 외 관

변형 균열 흠집이 있어서는 안되며 광택이 균일하고 단색인 경우에는 색조가 균일하여야 한다.

4-2 치수 및 형상

치수는 KSL 1551(위생도기)에 같아야 하며 이에 기재되지 않는 치수형상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안 의장에 따르되 사용상의 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5. 성 능

성능은 6에 규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여부에 판정한다.

6. 시 험

6-1 수지계 인조석시험

시험편은 제품에서 100×100㎜의 것을 채취하거나 생산조건과 같은 조건으로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1)급냉시험

시험체를 가열한 로에 1시간동안 둔뒤에 수중에 침적시켜 급냉시켜 적색잉크(농도 1%, 적색 아니링염료액)에 침적하여 균열의 유무를 조사한다. 가열온도와 물과의 온도차는 110deg 이상으로 한다.

(2)내불등시험

불등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험체를 시험탱크에 수침되게 설치하고 시험중 온수가 90°C이상 유지되게끔하여 실트와이야식 전열기등으로 끓인다.

②시험시간은 8시간 불등후 14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한다. 이를 1사이클로 하여 12사이클 반복한다.

③12사이클 완료한뒤 시험체의 표면 균열 변색 퇴색 거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

(3)내염산시험

시험체에 농도 3.0%의 염산 약 1㎖를 떨어뜨려 60분후에 균열 변색등을 조사하고바콜경도계로서 시험체에 10개이상의 경도를 측정하고 그 평균치가 30이상이어야 한다.

6-2 유리섬유강화 프라스틱시험 및 아크릴수지시험

100×100㎜의 시험편을 제품으로 부터 채취하거나 생산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시험체를 만들어 시험한다.

시험은

시험내용은 6-1의 (1)(2)(3) 과 같게 한다.

7. 검 사

기재의 품질은 KSM 3155(경질염화비닐 콤파운드)에 의한 시험내용과 같이하여 표1과 같은 품질이 되어야 하며 6(시험)에 규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표1. 기재의 품질기준

항 목	결 과
인 장 강 도	600kg/㎠ 이상
굴 곡 강 도	1000kg/㎠ 이상
충 격 강 도	8이상

8. 표 시

설치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다음과같은 내용을 표시한다.

(1)소지 또는 기재

(2)제조업자명 또는 약호, 종류의 기호(KSL 1551과 같음)

(3)제조년월일

7. 결 론

본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재료의 품질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료자체의 성능표시 및 용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으며 균질성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생산회사의 광고와 선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사제도의 강화와 불량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이 바람직하다.

2. 법규상의 문제점

건축재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관계법규의 보완과 품질관리, 검사에 대한 규정의 확립이 요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시설보완, 실험기기의 보완, 전문가의 연구와 인적구성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방화재료 및 내화구조의 지정

우수건축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생산업체별로 관계당국이 그 품질을 보장하는 지정제도의 강화가 바람직하다.

4. 품질기준의 제정

건축재료의 품질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품질의 기준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제품을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 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住宅建設 基準에 関한制定

建設部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1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依據 住宅建設에 使用되는 마감材料를 品質과 価格面에서 平準化하고, 規格化된 窓戶의 使用을 義務化시키는 等 適正한 施設을 갖춘 住宅을 建設供給케 함으로서 住宅建設 業者間의 建築工事費의 隔差를 줄이고, 지나치게 高級이거나 低質인 住宅을 建設할 수 없도록 하기 為한 措置로서 「住宅建設基準에 関한 規則」을 制定, 1979년 4월 21일 자로 公布하여 1個月後施行토록 하였다.

同規則의 主要骨子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內部마감 材料의 平準化(第11條)

專用面積 25坪以下의 住宅은 各室 部位別로 2－3種의 材料中에서 选択하여 使用하도록 義務化

※ 規則 別表4 參照

2 2. 窓門및 落水口(Roof Drain)은 建設部長官이 定하여 公告하는 規格대로 製作된것만을 使用토록 義務化함으로서 大量工場生産이 可能(価格의 低廉化誘導)토록 함. (第10條)

※ 同規則 公布 6個月 經過後부터 適用

3. 熱量使用計器(Cdlorie meter)設置義務化(第12條)

現在까지 中央集中式 暖房方式으로 建築된 아파트는暖房面積에 따라 暖房費를 負担하고 있으므로 油類節約에 對하여 入住者들은 無関心하거나 더우면 窓門을 열어놓는例까지 있는것이 現実情이므로 電気料 水道料의 경우와 같이 熱量을 使用한 만큼 暖房費를 負担하게 함으로서 油類를 節約하기 為하여 中央集中式 暖房方式으로 建築하는 共同住宅에는 世帯別로 熱量使用計器를 設置토록 義務化하였음.

※ 同規則公布 6月 經過後부터 適用

4. 專用面積 35坪以下의 住宅에는 浴室 1個만을 設置토록 規制(第5條 第2項)

5. 複道 및 階段의 有效幅 및 段높이 等을 適正水準으로 建築토록 規制(第6條)

※ 規則 別表 2 參照

6. 室의 크기規制(第5條 第1項)

室의 面積이 지나치게 넓거나 좁게 建築할 수 없도록함.

例 : 침실→最小 5.7 m^2 最大 : 20 m^2

※ 規則別表1 參照

7. 規則中 第2乃至 第4條 第7條 및 第9條는 現行住宅建設促進法 施行規則에 規定되었던 것을 一部補完한 것임.

添付 2. 住宅建設基準에 関한 規則 (기 송부)

1. 熱使用計器設置에 따른 油類節約効果

첨부1

<u>熱使用計器設置에 따른 油類節約效果</u>(방카C 油基準)

1. 坪當 1日 暖房油類所要量 : 0.549~0.66 ℓ

※平均 : 0.63 ℓ……(A)

2. 計器設置後 坪當 1日 油類所要量

○20% 節約 推定時 : 0.504 ℓ……(A)

3. 坪當 1日 節約量(A－B) : 0.126 ℓ

4. 年間節約可能 油類量(30坪 1世帯, 4個月 暖房基準)

○油類量 : 453.6 ℓ(252드럼)

○節約金額 : 25765원.

※ ℓ당 56.80원 基準

5. 年間計器 35.000台를 設置할 경우

○ 年間節約可能油類量 : 15.876千 ℓ

○ 〃 金 額 : 901.756千원

建設部 住宅局 技術指導課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 라 한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지)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재개발사업지구 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에 건설하는 주택, 외국의 차관자금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국방 기타 국가의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건설하는 주택의 대지와 아파트 지구안에 있는 대지로서 건설부장관이 주변환경이란 도시미관상 주택의 대지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독주택의 대지 : 8미터
2. 연립주택의 대지 : 10미터
3. 아파트의 대지50미터

제3조(건축물의 배치)①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120미터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전면 또는 후면에 있는 공동주택까지의 거리의 4배이하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의 측면 외벽으로부터 다른 건축물의 측면외벽까지의 거리는 두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높이는 5분의 1이상이고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시설등의 제한)① 공동주택에는 주거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과 주차시설 옥내집회소·관리업무용의 시설 및 체육시설(지하층에 한한다)이외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관리업무용의 시설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을 제외하고는이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지의 조건과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거시설의 주거편익에 직접 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단위평면계획)① 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단위평면계획은 별표 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전용면적 11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에는 세대당 또는 호당 2실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복도 및 계단의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의 복도 및 계단(비상 계단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벽체의 구조)공동주택의 인접세대와의 사잇벽은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이중벽 쌓기로 하거나 흡음재를 사용하여 방음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동등이상의 차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사잇벽의 두께를 25센치미터로 이하로 할 수 있다.

제8조(난간의 구조)장독대 또는 가사용품의 저장소로 사용할 발코니의 난간은 높이 1.1미터 이상이고 장독대 등을 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진개수거 시설)①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다스트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식인 경우에는 같은 층에 있는 2세대당 1. 개소이상이어야 한다.
2. 복도식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3세대당 1. 개소 이상으로 하되, 각세대의 현관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위치에 1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스트슈트는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다스트슈트의 상단부에는 동력·태양열에너지 또는 풍력으로 작동하는 악취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창. 문 및 낙수구의 규격등)주택의 창 및 문과 평지붕에 설치하는 낙수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마감재료) ① 주택의 각부위별 마감재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주택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건축사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
3. 조립식공법 기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공법으로 건축하는 주택

제12조(열사용량계기의 설치)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난방열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1979년 5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197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제 2 항을 삭제 한다.
2. 제19조중 제 3 항 내지 제 8 항을 각각 제 4 항 내지제 9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2 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할 주택건설사업비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3. 〔별표 1〕의 본표를 삭제하고〔부표 1〕을〔별표 1〕로 한다.
4. 별표 4〕의 복리시설중"오물 및 진개의 수거 시설"란을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의 건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단위 평면계획기준

거 실	기 준
실 명 (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실의 면적은 13평방미터 이상으로한다 다만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10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최소폭은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침 실	1. 1실의 면적은 5. 7평방미터이상. 20평방미터 이하로 한다. 2. 최소폭은 2.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 엌	1실의 면적은 4. 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욕 실 (변소겸용)	1실의 면적은 3. 2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 의한 유니트 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 소	1실의 면적은 1. 5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현 관	폭은 1. 4미터 이상으로 한다.
발 코 니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효폭은 1.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창 고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실 또는 1개소의 면적은 3. 0평방미터 미만으로 한다.
기 타	설계도에 따른다.

〔별표 2〕 복도 및 계단의 기준

구 분	기 준
계단의 유효폭	1. 2미터 이상
계단의 단너비	26 센티미터 이상
계단의 단높이	18 센티미터 이하
계단참의 유효폭	1. 3미터 이상이고 계단의 유효폭 이상
복도의 유효폭	1. 4미터 이상

〔별표 3〕 다스트슈트의 규격 및 마감등의 기준

구 분		(마감규격(밀리미터) 폭	길 이	높 이	마 감 등
슈 트	5층이하의 주 택	500이상	600이상		내부면은 진개가 걸리지 아니 하도록평탄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6층이상의 주 택	600이상	700이상		
저장소	5층이하의 주 택	1,400이상	2,000이상	1,200	벽과 바닥은 방수처리 및 청소용 급배수 설비를 하 여야 한다.
	6층이상의 주 택	1,400이상	3,000이상	1,200이상	
진 개	투 입 구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 의하거나 기타의 공법으로 악취가 주거내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가밀하게 시공하여야한다.

〔별표4〕내 부 마 감 재 료

다음 표의 재료중에서 선택한다. 다만 품질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는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실 별	부 위	마 감 재 료
현 관	천 정	난연성보드류(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의무화된 경우에 한함 합판또는 평스레트위 벽지 바름 모르터의 페인트 칠. 다만, 거실의 천정과 연속된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 칠 다만, 거실과의 사이에 칸막이 벽이 없는 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걸레받이	합성수지제품 모르터위 페인트칠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인조석, 현장갈기 아스타일 붙이기
거 실	천 정	난연성 보드류 합판 또는 평스레트 위 벽지바름 모르터위 페인트 또는 벽지 바름
	벽 체	모르터위 벽지바름. 모모르터위 페인트칠
	절레받이	목재널판 합성수지
	바 닥	무늬목 후로링보드 아스타일류 붙이기 모르터 마감(준공후 입주자 부담으로 비닐제품 또는 카페트 깔기)
침 실	천 정	합판 또는 평스레트위 천정지 바름 모르터의 벽지바름
	걸레받이	목재널판(입식침실에 한함) 굽도리 돌림
	바 닥	모르터위 장판지 모르터마감(준공후 입주자 부담으로 비닐제품 또는 카페트 깔기).
부 엌	천 정	평스레트위 페인트칠 모르터위 페인트칠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겸용인경우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벽 체	징두리벽 : 벽타일 붙이기 모르터위 페인트칠 벽타일 붙이기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겸용인경우 에는 거실에 준할 수 있다.
	걸레받이	식당부분은 거실에 준함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아스타일류 붙이기 다만, 식당겸용 또는 거실겸용인경우 식당부분은 거실에 준할 수 있다.
욕 실 및 변 소	천 정	평스레트(알미늄 고정못을 사용하이여 시공한다)위 페인트칠.
		선라이트
	벽 체	벽타일 붙이기. 모르터위 페인트칠(징두리벽을 제외함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계단실 및 복 도	천 정	모르터위 페인트 칠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 칠
	걸레받이	합성수지 제품 모르터위 페인트 칠
	디 딤 판	인조석 현장갈기 모르터 마감
다용도실	천 정	모르터위 페인트칠
	벽 체	모르터위 페인트칠
	걸레받이	모르터와 페인트칠 합성수지
	바 닥	바닥용 타일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인조석 현장갈기
발코니	천 정	모르터위 페인트 칠 합성수지
	바 닥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인조석 현장갈기
발코니	천 정	모르터위 페인트칠 세물치장 콘그리트의 페인트칠
	걸레받이	모르터위 페인트칠
	바 닥	인조석 현장갈기 바닥용 타일 붙이기. 모르터 마감. 하드너 마감

* 주) 1. 천정 및 벽체(걸레받이를 포함한다)의 모르터는 석고프라스타로 갈음 할 수 있다.

2. 욕실 및 변소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정하 여 공고하는 표준상세도에 의하여 유니트 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會員作品 原稿作成要領

※ 본지에 게재된 귀하의 設計作品은 본지와 더불어 永久保存되는 귀중한 資料가 되며,또한 본지에 게재된 作品만이 자동적으로 本協会 建築賞의 候補作品이 됩니다.

(1) 구비도서 및 작성요령

① 図面

配置図：대지가 소규모인때는 평면도에 겸한다. 대규모인 경우는 별도작성(인쇄 크기의 2배정도 크기)

平面図：1층평면・기준층평면……일반적인 경우

각층평면(지하층포함)……특수한 경우에 추가

断面図：주요 규준단면…… 단순한 경우는 생략

② 作成要領

1. 백지(트레싱지 또는 켄트지)에 검정색으로 잉킹한다.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모자이크 타일신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은 생략 연필선은 지운다.
2. 室名과 縮尺표시는 연필로 기입한다.
3. 방위표시는 잉킹한다
4. 平面図, 断面図의 縮尺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규모(주택등)……1/50～1/100

중규모……1/100～1/200

대규모……1/200～1/300

(2) 寫眞

作品写眞：全景, 内部, 詳細 各 2～3점씩.

(흑백) ：全景写眞은 촬영 불가능한 특수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透視図로 대신 할수 있다. 다만 연필 작도는 불가.

設計者写眞：자연스러운 포－즈로 한다. 사진 뒷면에는 그 명칭을 명기할 것.

(3) 建築物概要 및 設計説明

建築物 概要

① 建築物名：

② 所 在 地：

③ 設 計 者：担当 / 事務所名 별도 기입

④ 施 工 者：

⑤ 規　　模：垈地面積 / 建築面積 / 基準層面積 / 延面積 / 地上層数 / 地下層数 / 層높이 / 建築物높이 기타施設規模(例・病床数, 客室数, 座席数등)

⑥ 構　　造：主体構造 / 柱스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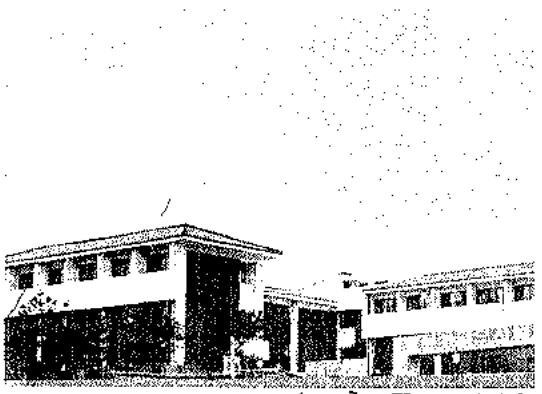
⑦ 設　　備：난방, 空調 / 衛生 / 電気 기타

⑧ 工　　期：197　.　.　.～19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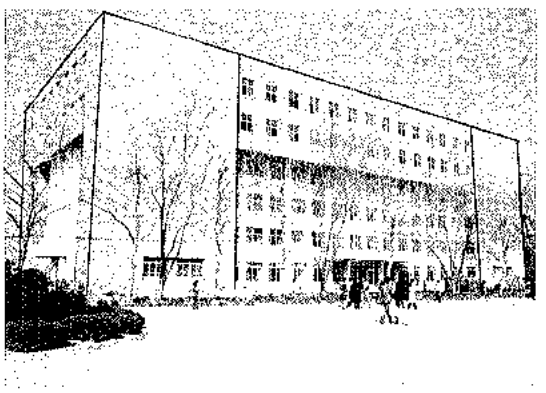
⑨ 工 事 費：

設計説明

기재내용：계획과정과 계획방침 특기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200자×2～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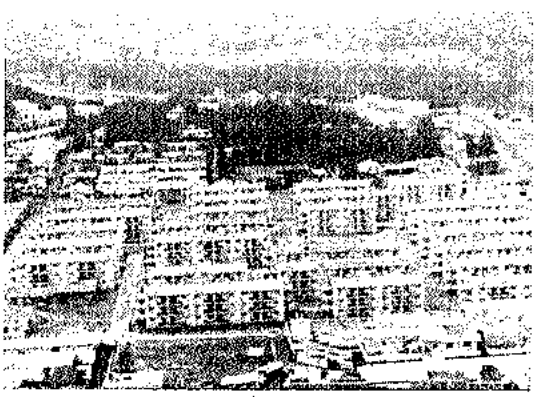


李 永 熙 희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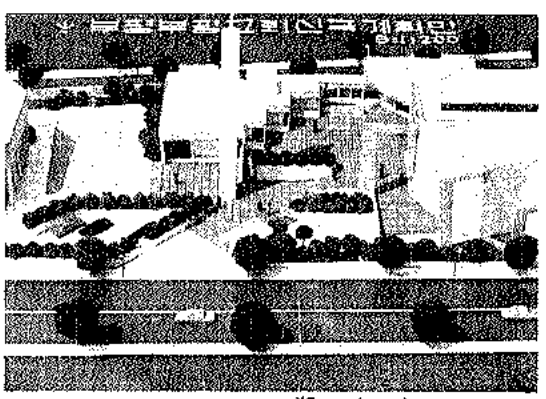


車 東 明 차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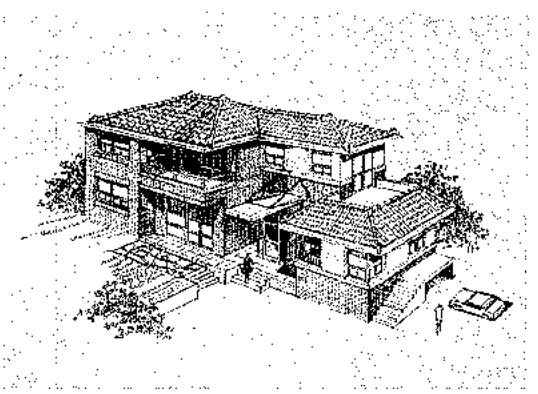
洪 淳 寅 대우건축



李 文 雨 한국환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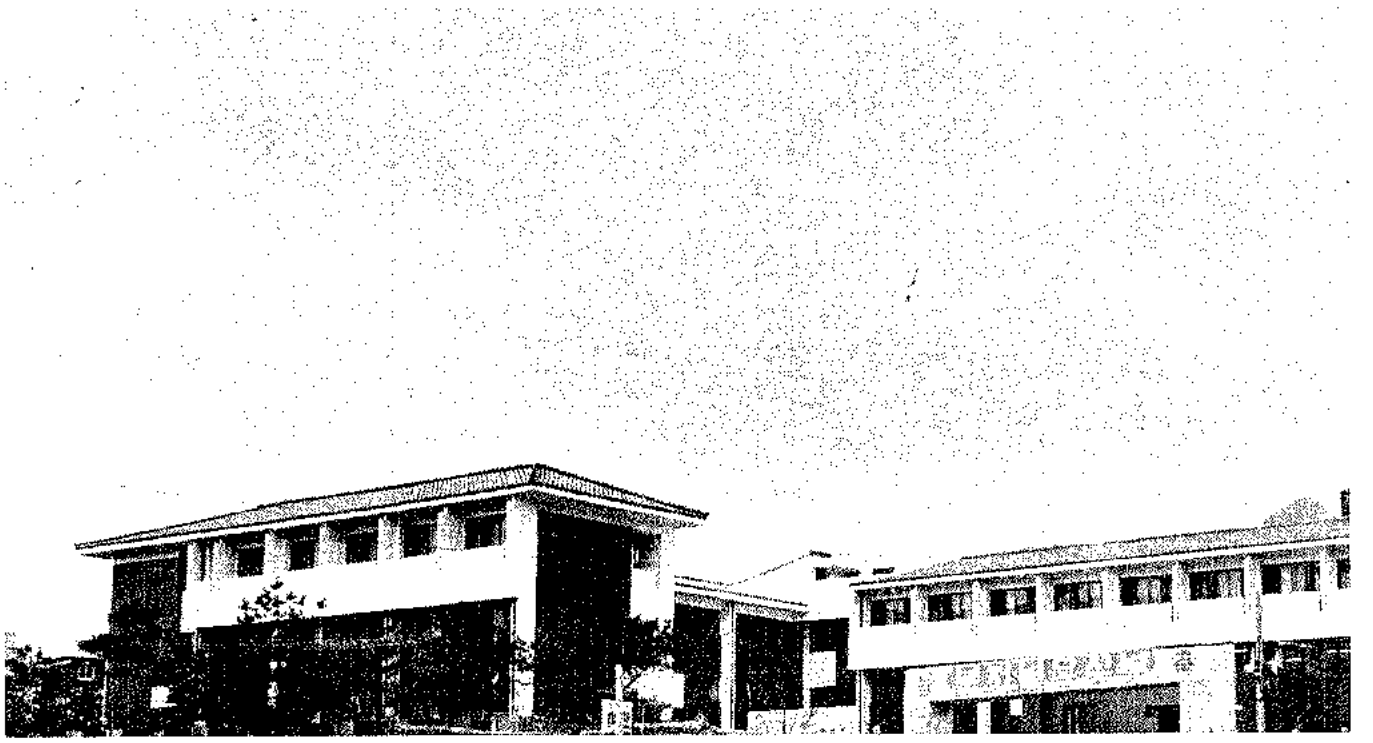


鄭 時 春 정주건축



尹 汝 旭 국림건축

제일은행 행원 합숙소 및 연수원



전 경

설계개요 :

우이동 그린파-크 조금 못가서 큰 길로 부터 5.0m 가 높은 구릉지에 나무와 산이 보이며 주위에 무질서한 주택의 지붕과 인접한 버스 종점의 소음만 없다면 모처럼 나의 눈을 시원하게 해 줄수 있는 자연이다.

대지를 둘러보면서 저 병풍처럼 둘러 싸인 도봉산의 Sky-line과 세워질 건물의 선, 요철 부분들은 무언가 친숙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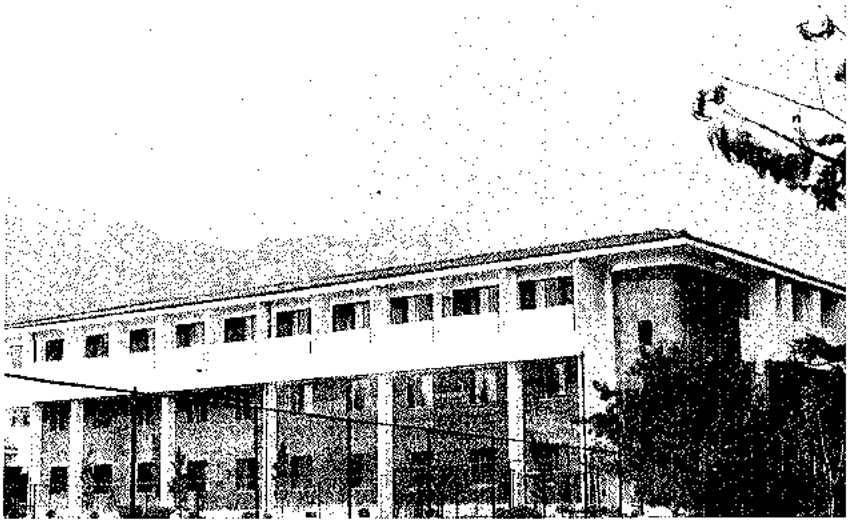
본 건물이 수용해야 할 기능은 독신행원 150명의 상주 기숙시설과 연수시설(동시 합숙50인)및 운동시설로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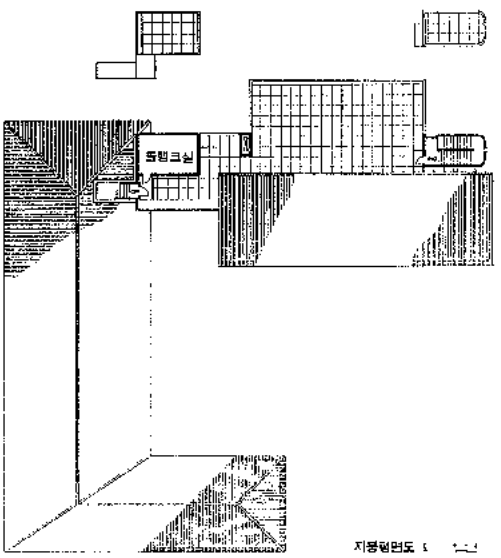
도로 조건으로 보아 외부에서의 진입은 도선사 입구 도로에서 유도함이 필연적이었으며 대문을 들어서 "ㄷ" 자형의 건물로 둘러 싸인 중정을 통해 독신자 숙소 및 연수시설의 기능을 좌우로 구분 유도하고 그 일우에 식당, 강당,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1개의 건물로 연결함으로서 자연스운 동선의 흐름을 시도 했다.

대지가 좀 더 넓었다면 2층 건물로 좀 더 펼치고 1층 일부를 빼로 되로 구성, 운동장과 자연스런 연결을 했음이 좋았다는 아쉬움이있으나 어쩔수 없었으며 외부 재료는 붉은색 스패니쉬 기와, 아이보리색 붉은알의 몬타일 그리고 브라운색 외장타일로 구성 텍스추어의 변화있는 통일을 시도하고 3층 부분의 깊숙한 발코나를 돌출시켜 음영에 의한 변화를 염원하였으나 엄연한 자세로 굽어보는 도봉산에 비해 채 정리가 못되고 잡은 세워져 버린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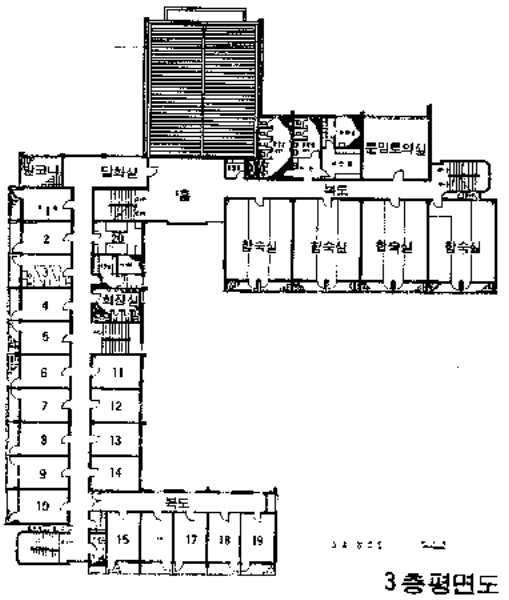
會員作品

설 계 : 이 영 희(회람 건축 설계 사무소)
건물위치 : 서울 도봉구 우이동 도선사 입구
면 적 : 6,085m^2
건축면적 : 1,508m^2
연 면 적 : 4,152m^2
규 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층
준 공 일 : 1979년 1월
주 용 도 : 수용인원 200인 독신자 행원기숙사 및 직원 연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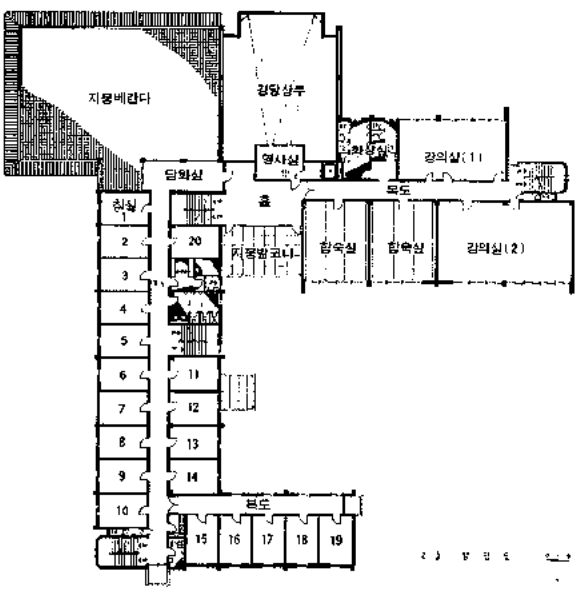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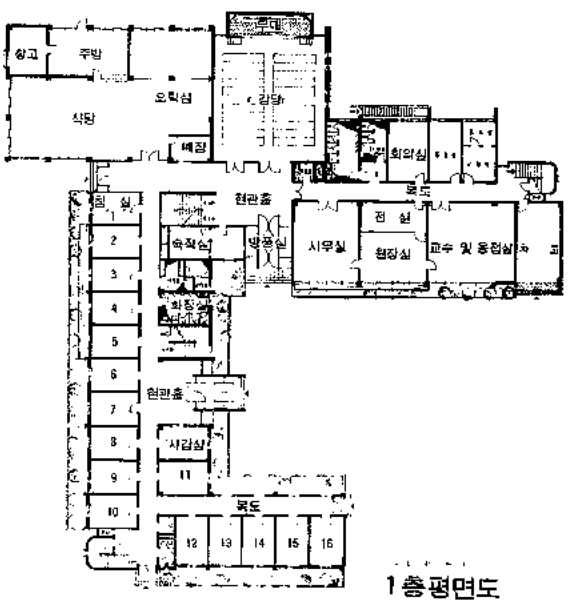
지붕평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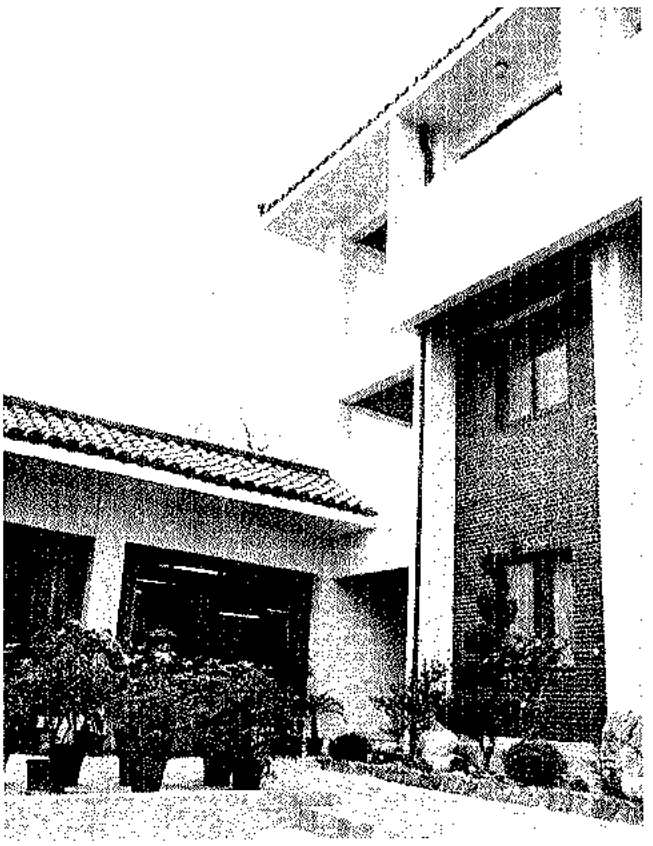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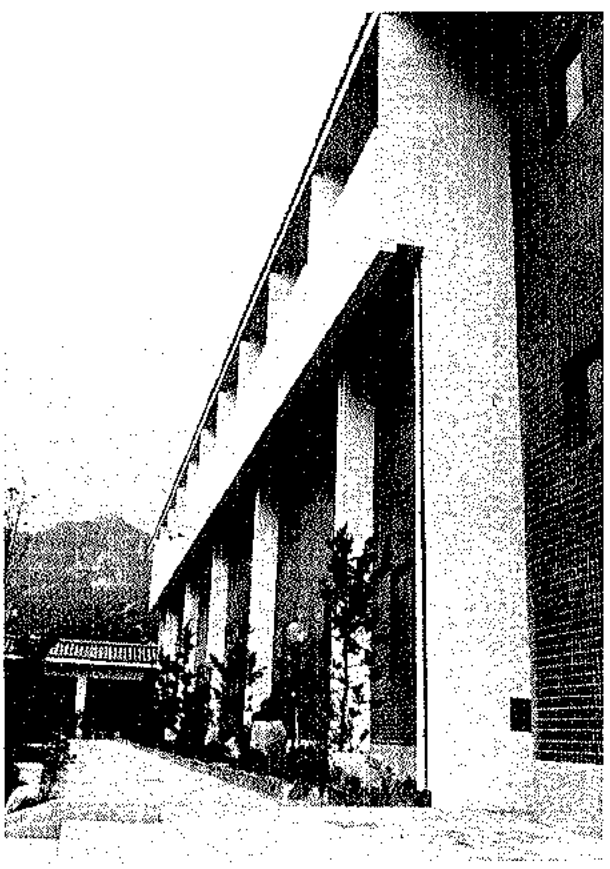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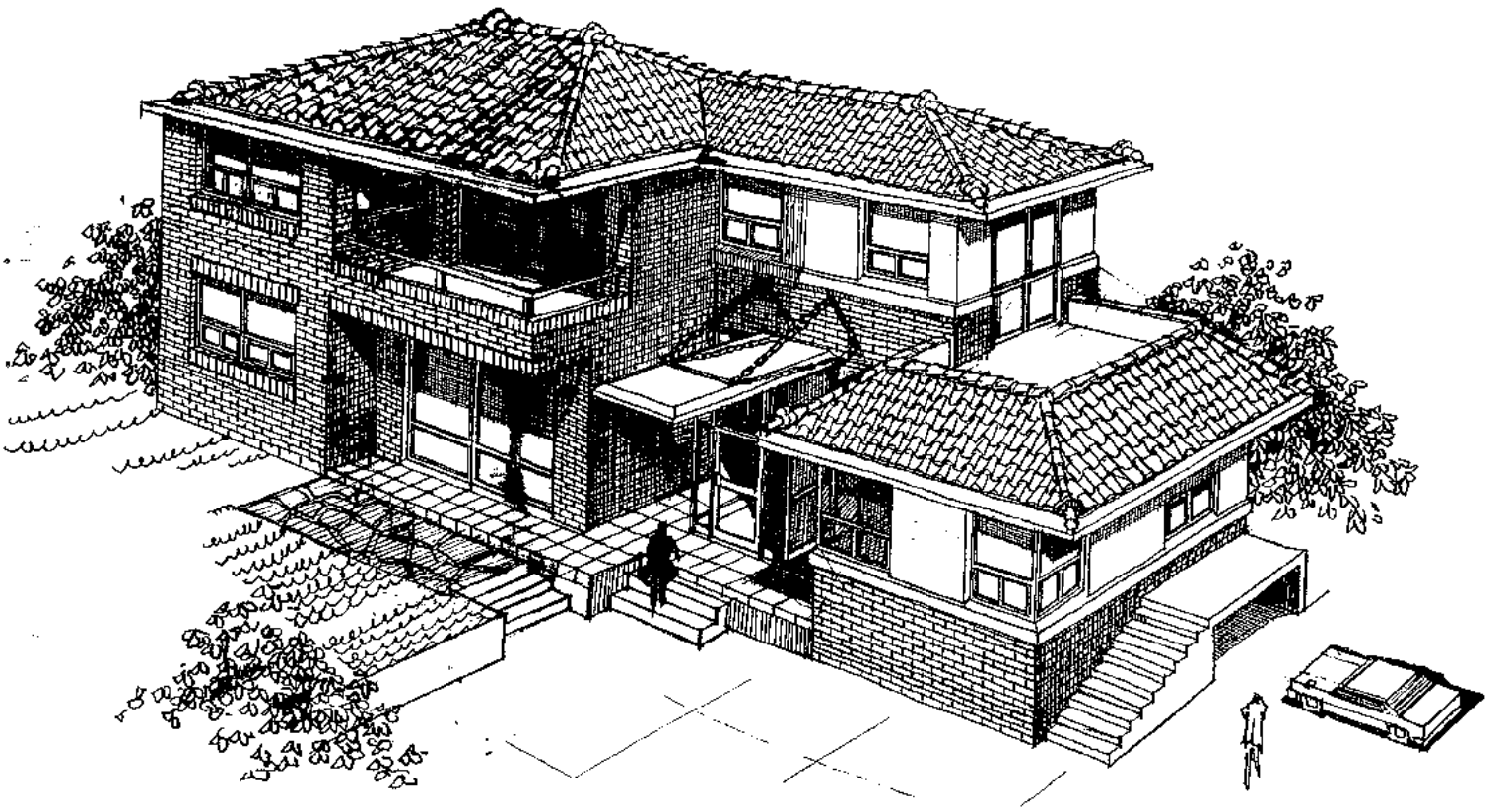
1층평면도

會員作品





會員作品



투 시 도

독산동 이씨댁

설계개요 : 비교적 동서방향으로 길다랗게 대지조건이 갖추어져 모든 방들은 남향을 향하게끔 계획하였으며 내정에 들어서면 시각적으로 지붕과 현관의 ALL GLASS벽과 CANOPY부분을 눈에 띄게 하였고 길다란 건물형태를 모임지붕으로 탈피하려고 애를썼다. 또한 벽중간에 허리띠를 둘려 고전적인 감각도 살려보았다.

설　　계 : 윤 여 욱(국립 건축 설계 사무소)

건축면적 : 98.66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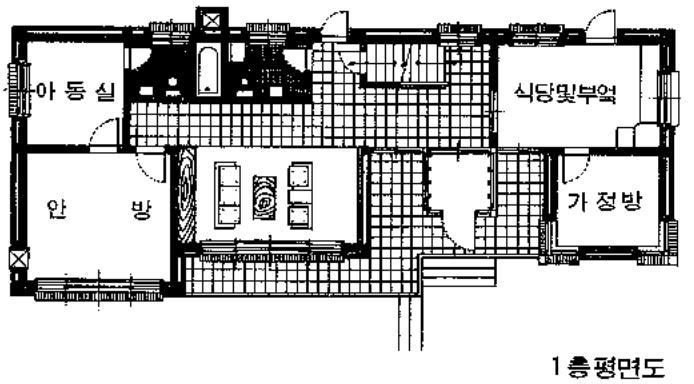
지하 : 45.23 m^2

1 층 : 98.66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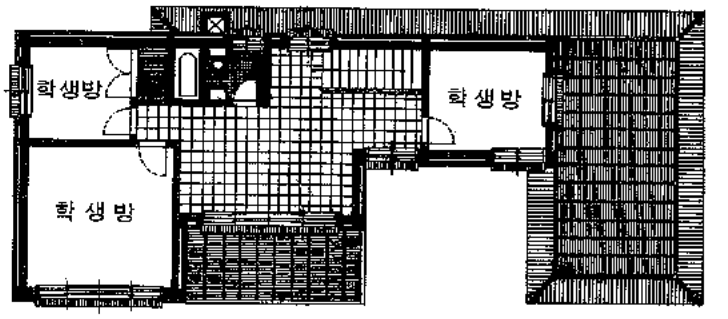
2 층 : 66.34 m^2

TOTAL : 210.23 m^2

구　　조 : 조적조(연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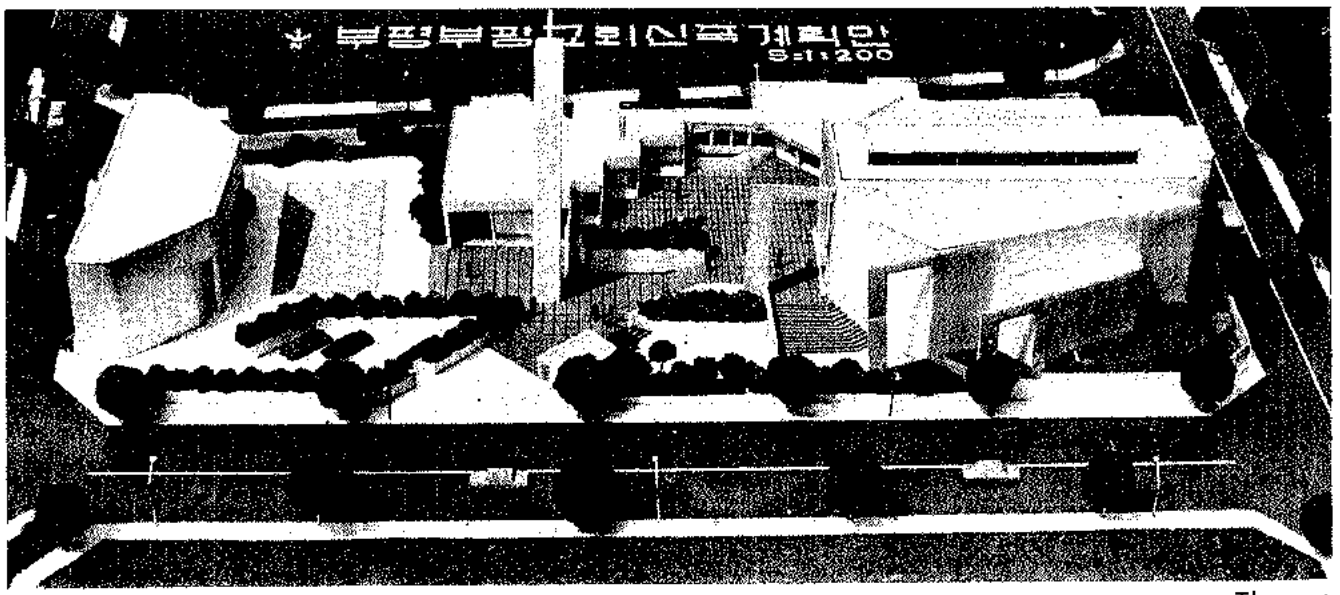


1층평면도



2층평면도

會員作品



전 경

부평 부광감리교회

설계개요 :

부지가 사가지 내의 도로로 둘러쌓인 1개의 부력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황폐해 가는 도시내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위해 본 계획에서는 Site 전체를 교회공원화하여 휴식하면서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구상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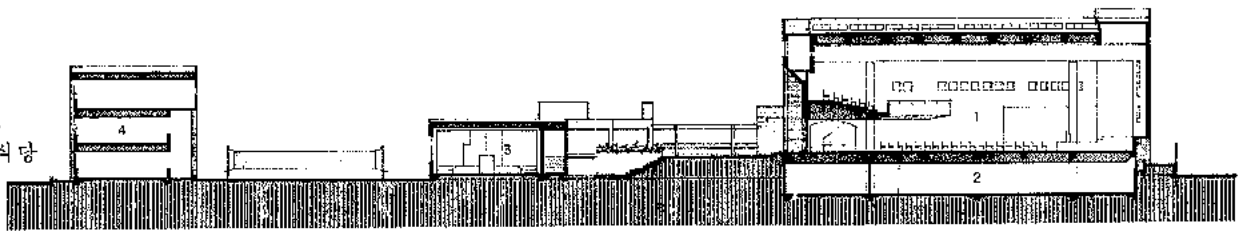
외부의 광장과 녹지는 언제나 휴식의 장소로 제공되고 대예배실은 평일에는 음악과 함께 쉴수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

중앙접회실은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고 교회앞의 운동장은 주민의 어린이 놀이터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와 봉사와 전도의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설 계 : 정 시 춘 (정주 건축)
위 치 : 인천시 북구 부평동
연 면 적 : 2.400 m^2
대지면적 : 3.300 m^2
건축면적 : 1.100 m^2
층 수 :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 R. C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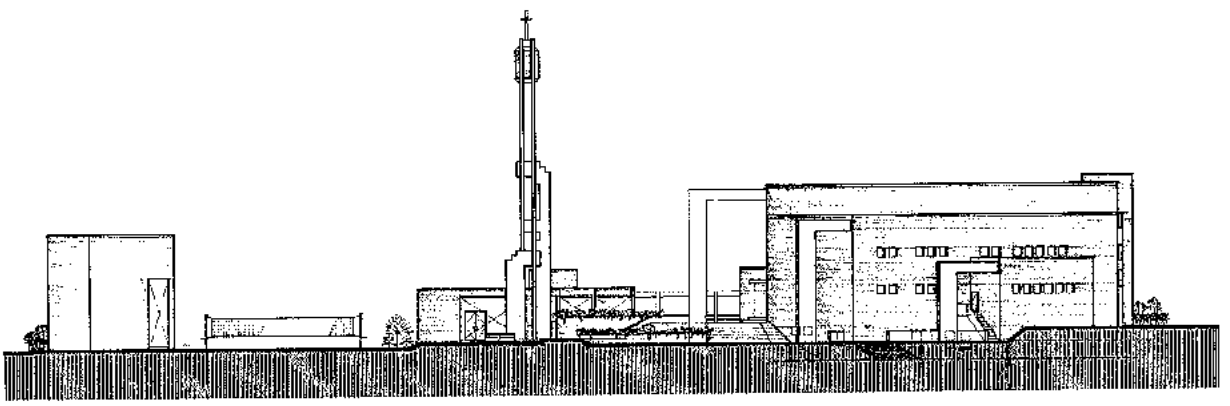
會員作品

① 대 예배실
② 기계실, 식당
③ 집회실
④ 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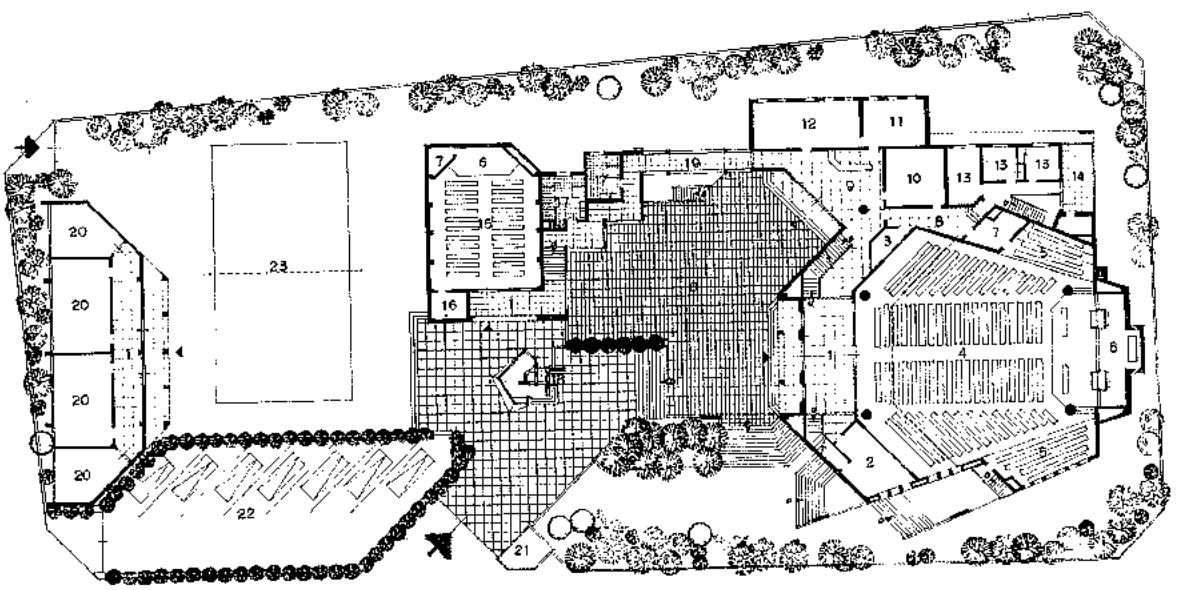


단 면 도

① 전실
② 자모실
③ 음향실
④ 대 예배실
⑤ 성가대
⑥ 강당
⑦ 준비실
⑦
⑧ 복도
⑨ 홀
⑩ 목사실
⑪ 사무실
⑫ 회의실
⑬ 목사관
⑭ 테라스
⑮ 집회실
⑯ 부속실
⑰ 화장실
⑰ 화장실
⑱ 종탑
⑲ 통로
⑳ 교육관
㉑ 안내실
㉒ 주차장
㉓ 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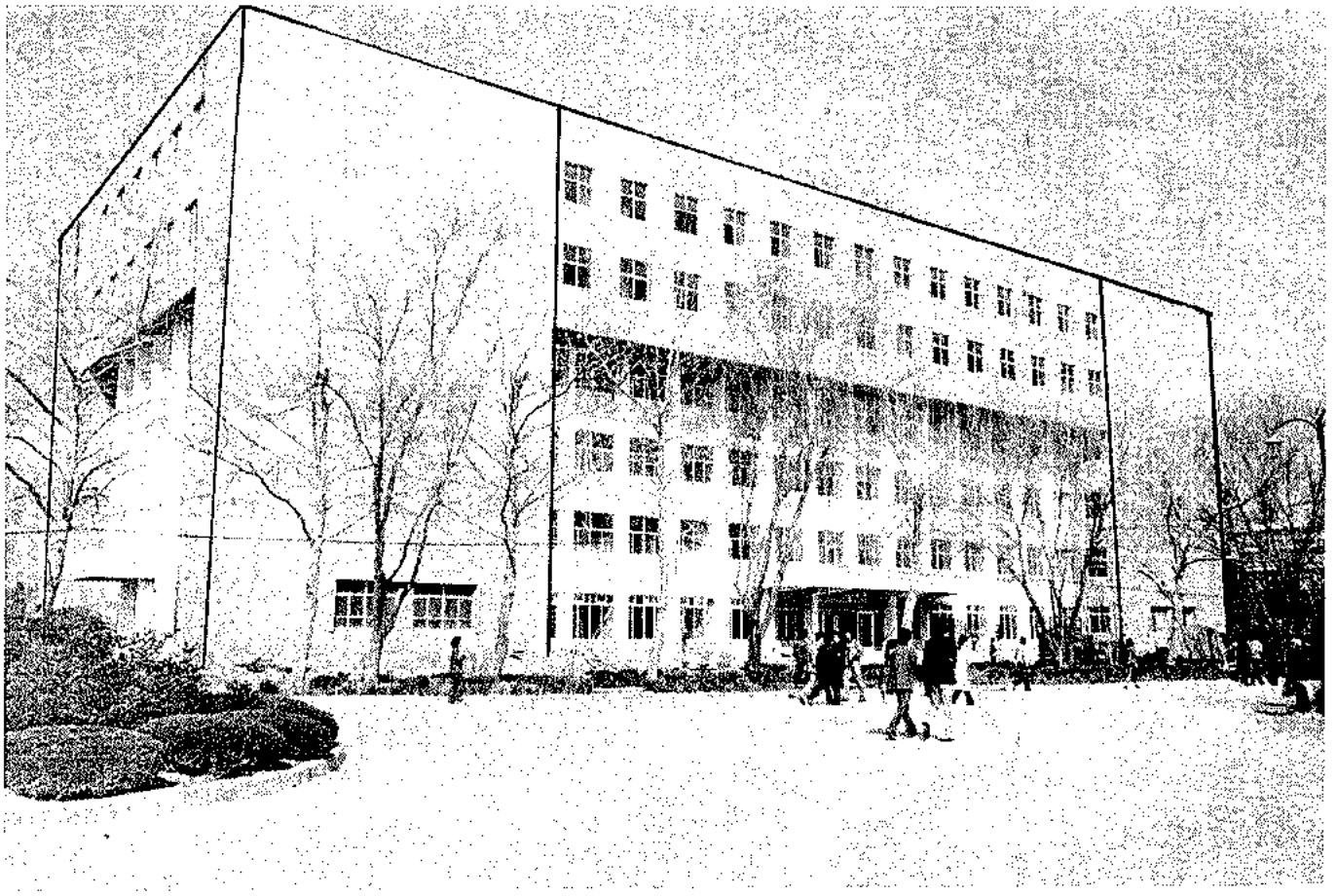


입 면 도



1층평면도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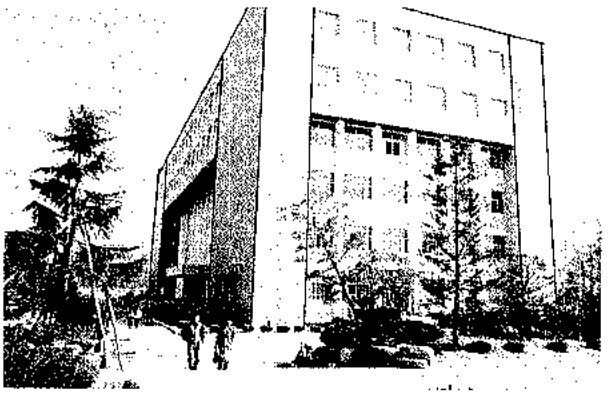
전 경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설계개요 : ELEVATOR 13인승 3 대
냉난방 설비계획
동시 수용 열람석 : 3,000명
시청각 교실 1개 : 550명
서고 장서량 : 50만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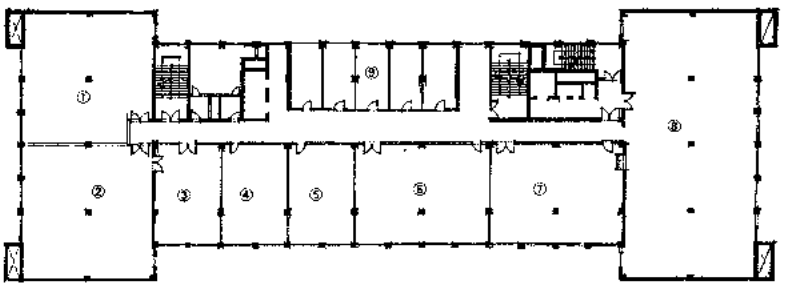
설 계 : 차 동 명(차건축 연구소)
위 치 : 전북 이리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내
건축면적 : 2. 116 m^2
연면전 : 13. 403 m^2
규 모 : 지하 1 층 지상 6 층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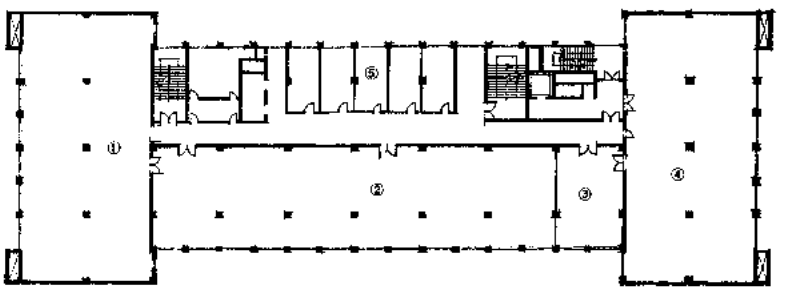
북측면

① 지정 연람실 ⑥ 대학원 연람실
② 지정 연람실 ⑦ 특수자료 연람실
③ 세미나실 ⑧ 서고
④ 연구실 ⑨ 교수 연람실
⑤ 연구실 ⑩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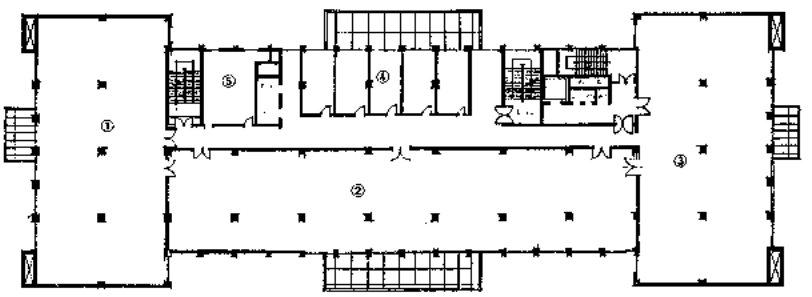
4층평면도

① 참고 도서실
② 정기 간행물실
③ 원불교 대학 문헌자료실
④ 서고
⑤ 교수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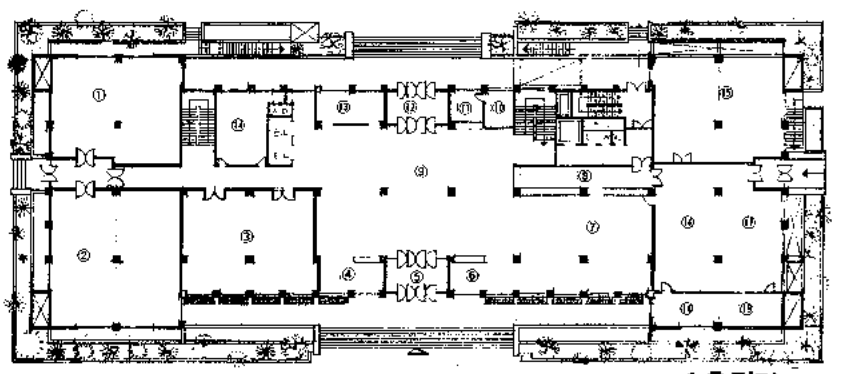
3층평면도

① 연람실
② 지정도서연람실
③ 서고
④ 교수 연구실
⑤ 화장실



2층평면도

① 일반 연람실 ⑪ 수위실
② 일반 연람실 ⑫ 부현관 홀
③ 전시실 ⑬ 휴게실
④ 신문 연람실 ⑭ 화장실
⑤ 주현관 홀 ⑮ 상용서고
⑥ 신문 연람실 ⑯ 정리
⑦ 목록실 ⑰ 관리, 수서
⑧ 중앙 대출실 ⑱ 관장실
⑨ 홀 ⑲ 회의실, 휴게실
⑩ 숙



1층평면도

會員作品

장 성 사 택 단 지

전 경

1. 계획의 특성

본 계획부지는 30년 이상된 노후된 목조사택이 있는 지역으로 광산촌 근로자들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단지내 전체가 순수한 주거지역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부분적으로 무질서하게 상업용 시설이 난립하게 되었으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다시 새로운 순수 주거지역으로 개발 발전시킬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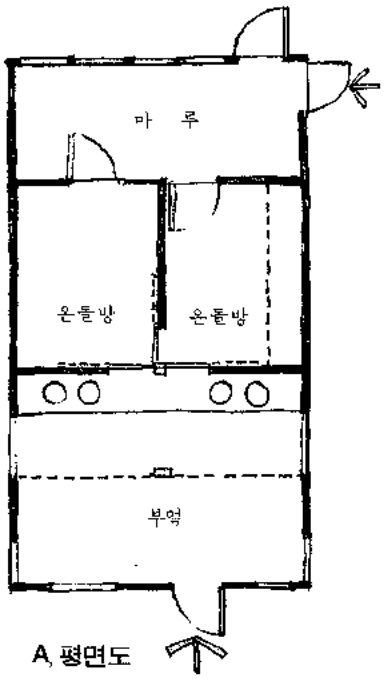
허나, 이 지역은 도시근로자와 광산촌 근로자와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 하며, 아울러 서울 도심지 서민아파트 지역이 아닌만큼 주위환경 여건과의 조화와 휴식공간으로의 사명을 단지 성격상 부여 해 줄수 있는 차분하고 특성있는 주거단지가 되어야 한다.

2.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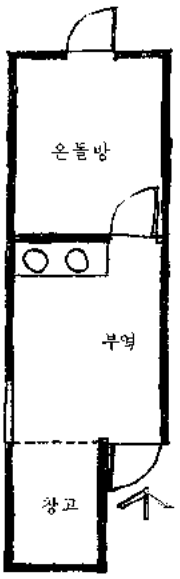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부들의 주거공간이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완성된 사택단지는 자조, 자립하여 건전한 광산 주거단지로서 육성 발전시켜 보다 살기좋고 아름다운 지역환경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복지향상을 이룩하고 아울러 모든 광산 주거단자계획의 지표가 될수있도록 계획하였고 나아가서는 석탄증산을 이룰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설 계 : 이 문 우 (한국환경계획연구소대표)
설계담당 : 최의준 · 안정수 · 권오다
대지위치 :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장성리 159일대
대지면적 : 26,713.50평
건축면적 : (1차) 6,416.84평
연 면 적 : (1차) 18,749.52평 (26동, 396세대)
구 조 : 조적조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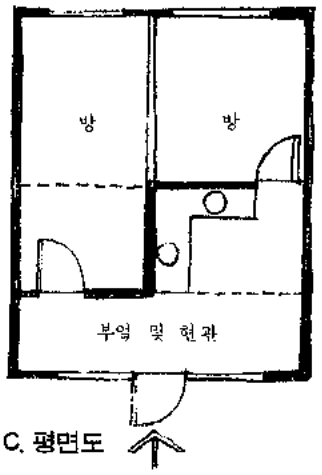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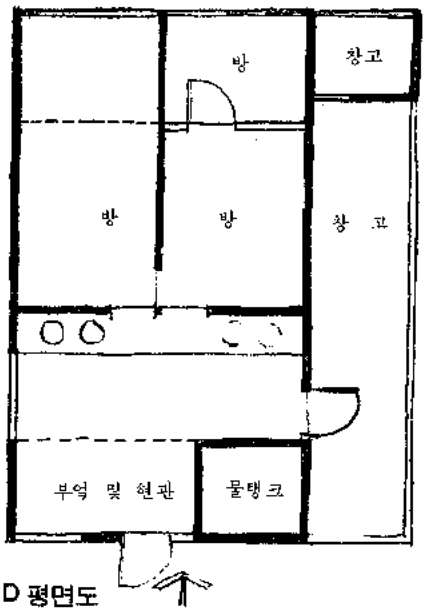
A. 평면도



B.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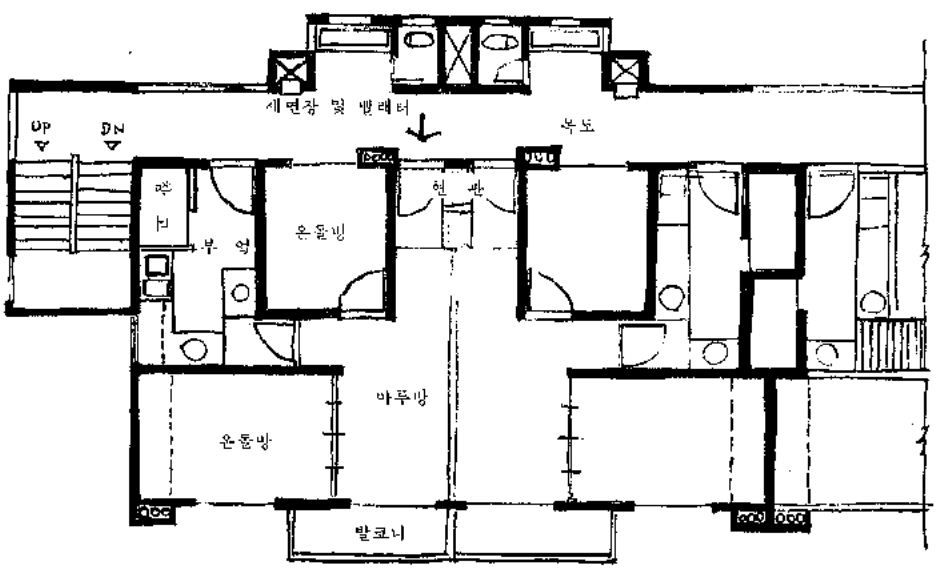
C.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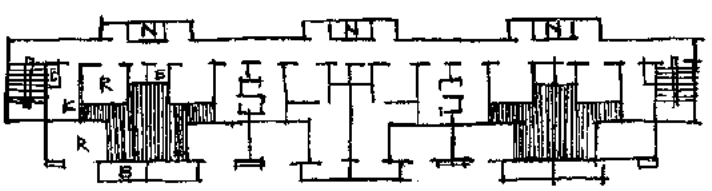
D 평면도

3. 계획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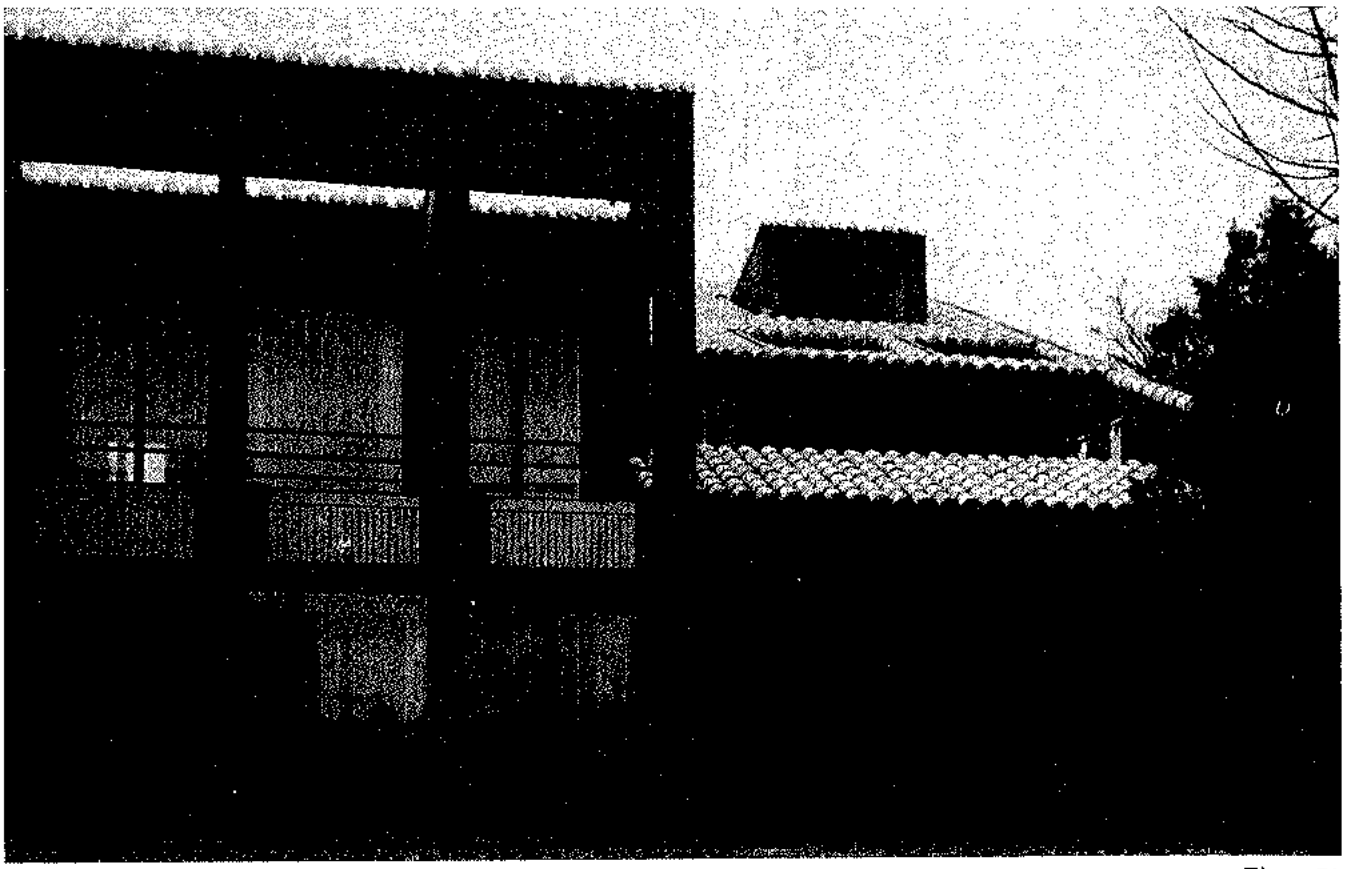
상위권 계획인 국토개발종합계획에 의하고 강릉소권개발계획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택단지가 위치한 장성은 삼척군에 소재한 황지와 철암을 잇는 국토변의 주거중심 집단지로 발전되여, 계획단지는 대한석탄공사의 사택단지로써 최소의 부지안에 최대의 수용능력을 부여하며 주위의 공공시설물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단지내 광부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활을 다 할수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해 주고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대처하여 융통성 있는 평면 계획으로 단위세대의 활용면적을 적절히 증가 할수있도록 함으로서 서기 2,000년대에 공존할 수 있는 주거 중심집단지로 발전시키며 광산내진 상황하의 주거 중심지로도 발전시킬것을 아울러 고려하여 본 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요지표와 계획의 지표를 설정한다.



11평 평복도 형 단위 평면도 6 세대 배치안



會員作品



전 경

합정동이씨댁

설 계 : 홍 순 인
대 우 건 축 연 구 소

건물위치 : 합정동

건축면적 : 총 90. 09m²
2층 62. 5m²
지하층 11. 75m²
계 164. 34m²

대지면적 : 663. 61m²

사용재료 : 외 부 : 적색전돌
발색 알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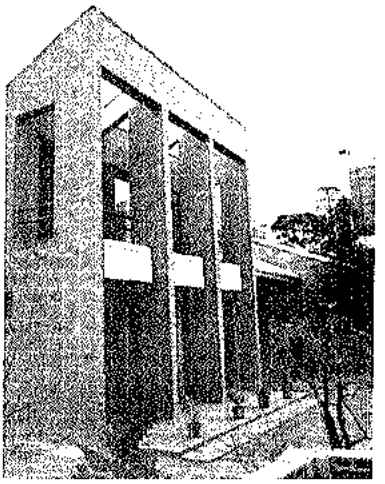
설계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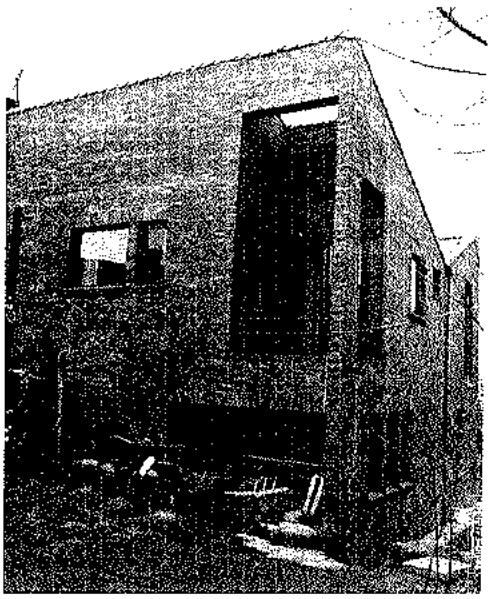
적은 규모의 주택이나 남북으로긴 대지의 덕분으로 비교적 쾌적한 정원을 가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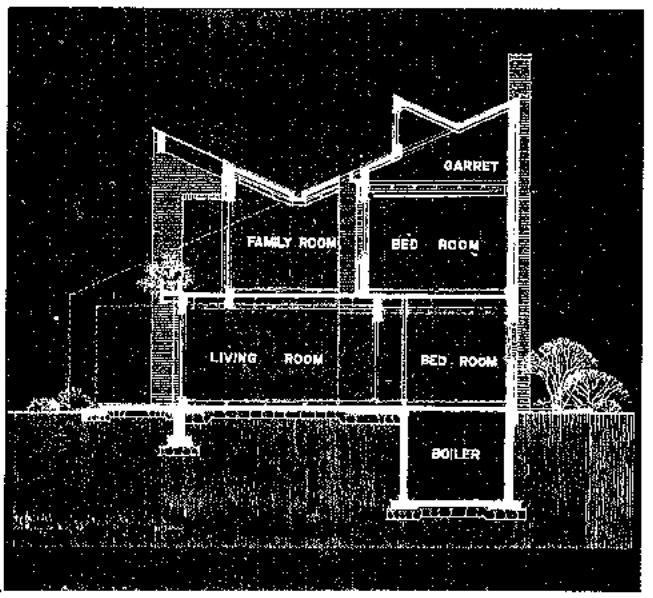
계절따라 넓은 앞마당과 부담없이 거실의 연결이 자유롭게 되도록 거실과 마당을 레벨차없이 디자인했고, 특히 소주택평면에서 범하기 쉬운 거실 프리이버시를 고려하여 현관홀에서 2층으로 직통으로 연결했다.

항상 1층보다 2층의 볼륨이 적어 외관의 상하 이질감을 보통느끼고 있었으나 이번에 그 이질감을 단순화 시켜봄은 의도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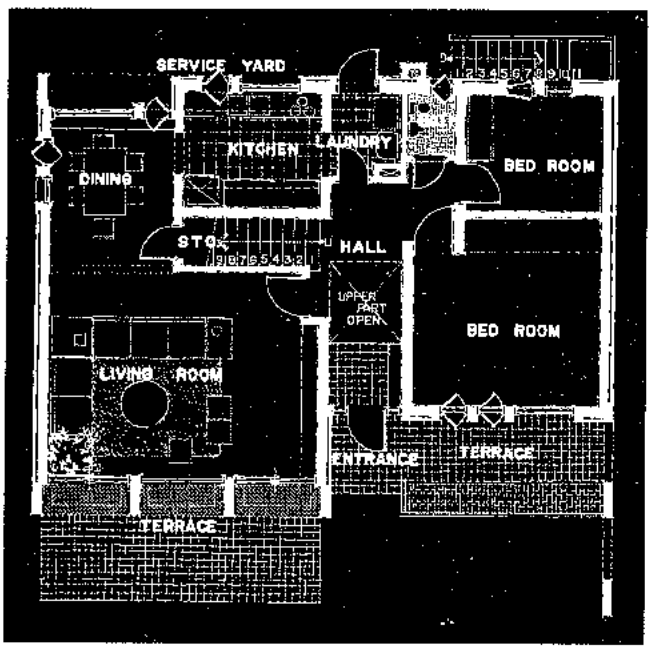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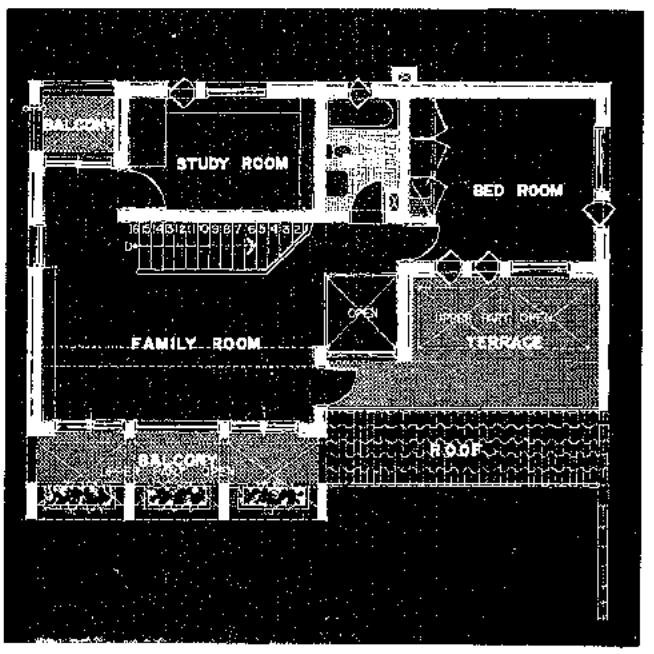




단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會員作品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건축부문 수상작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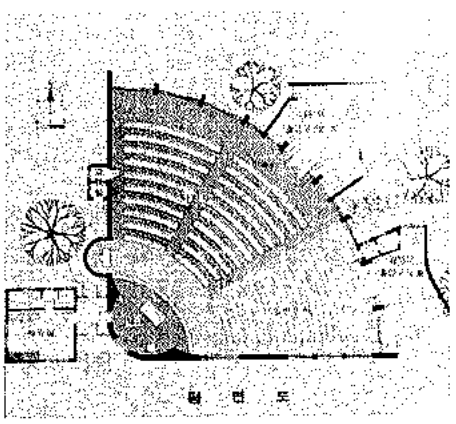
건축기능+지각심리→형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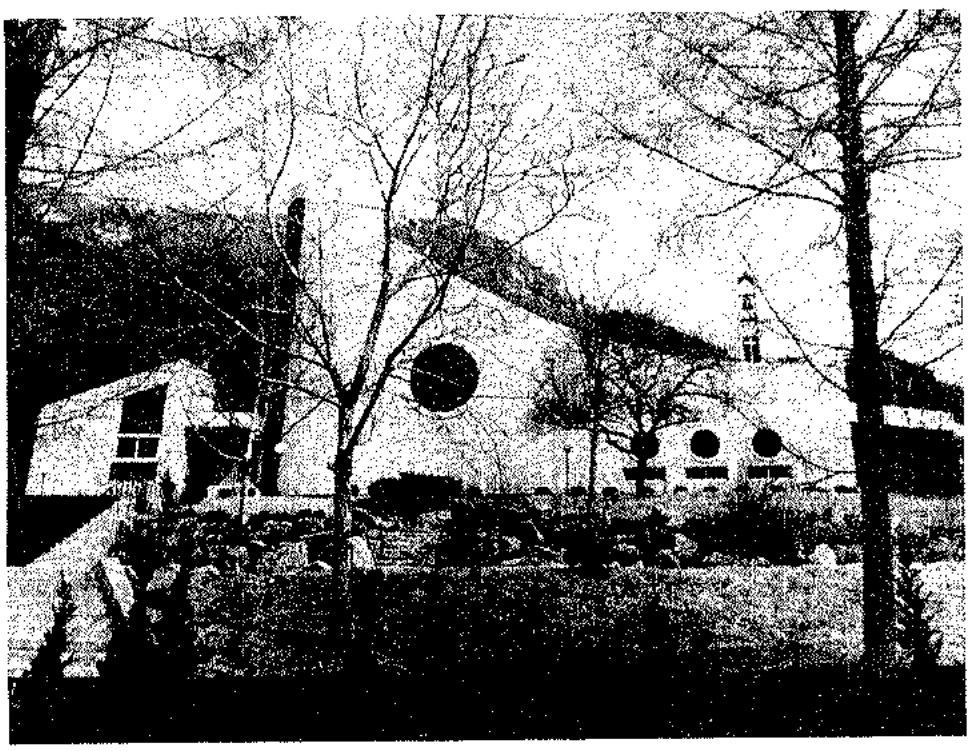
빛과 공간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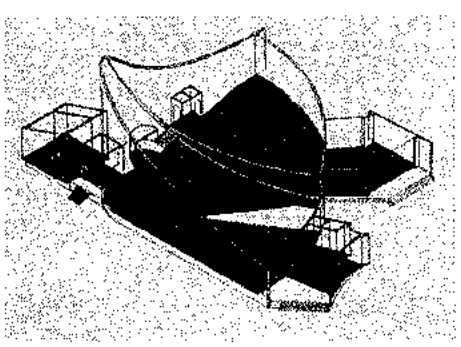
유 희 준 한양공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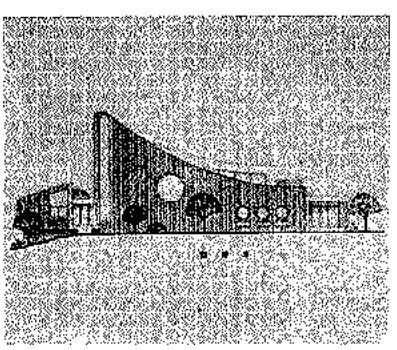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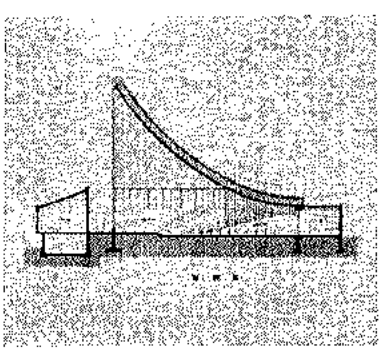
나자로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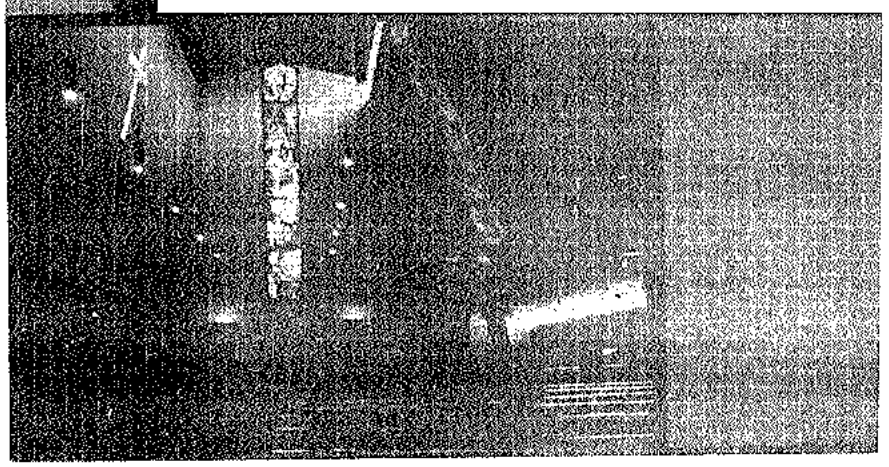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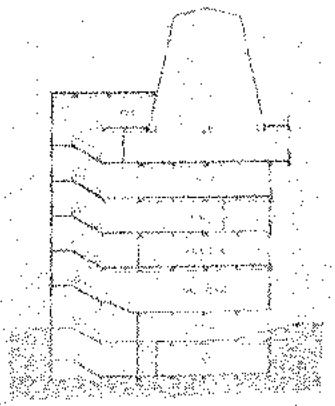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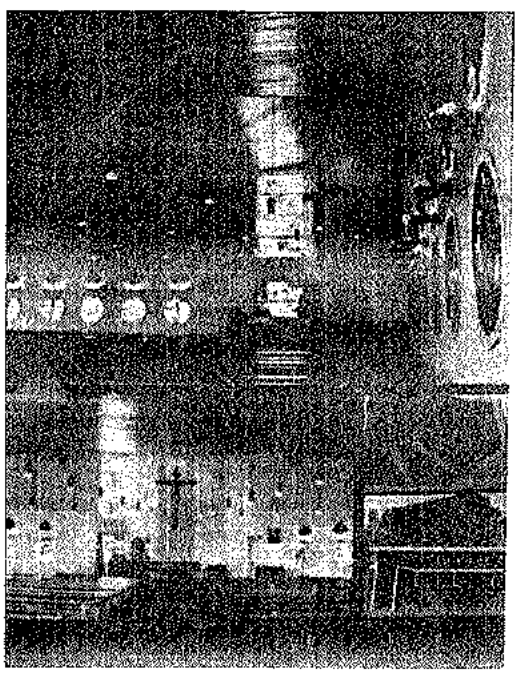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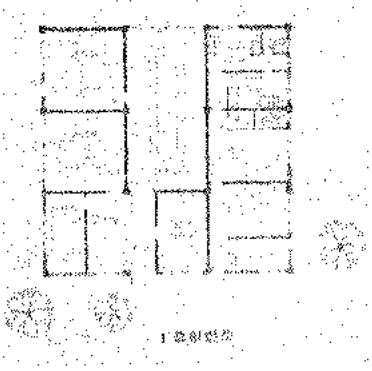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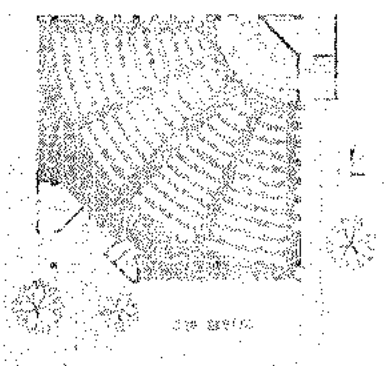
초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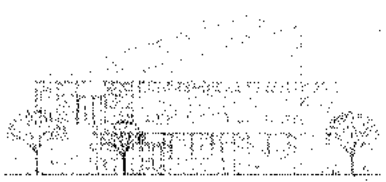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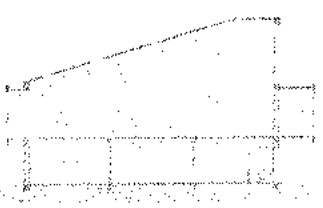
화양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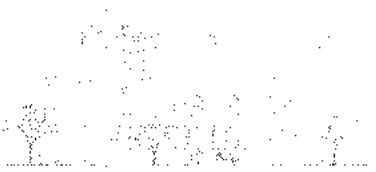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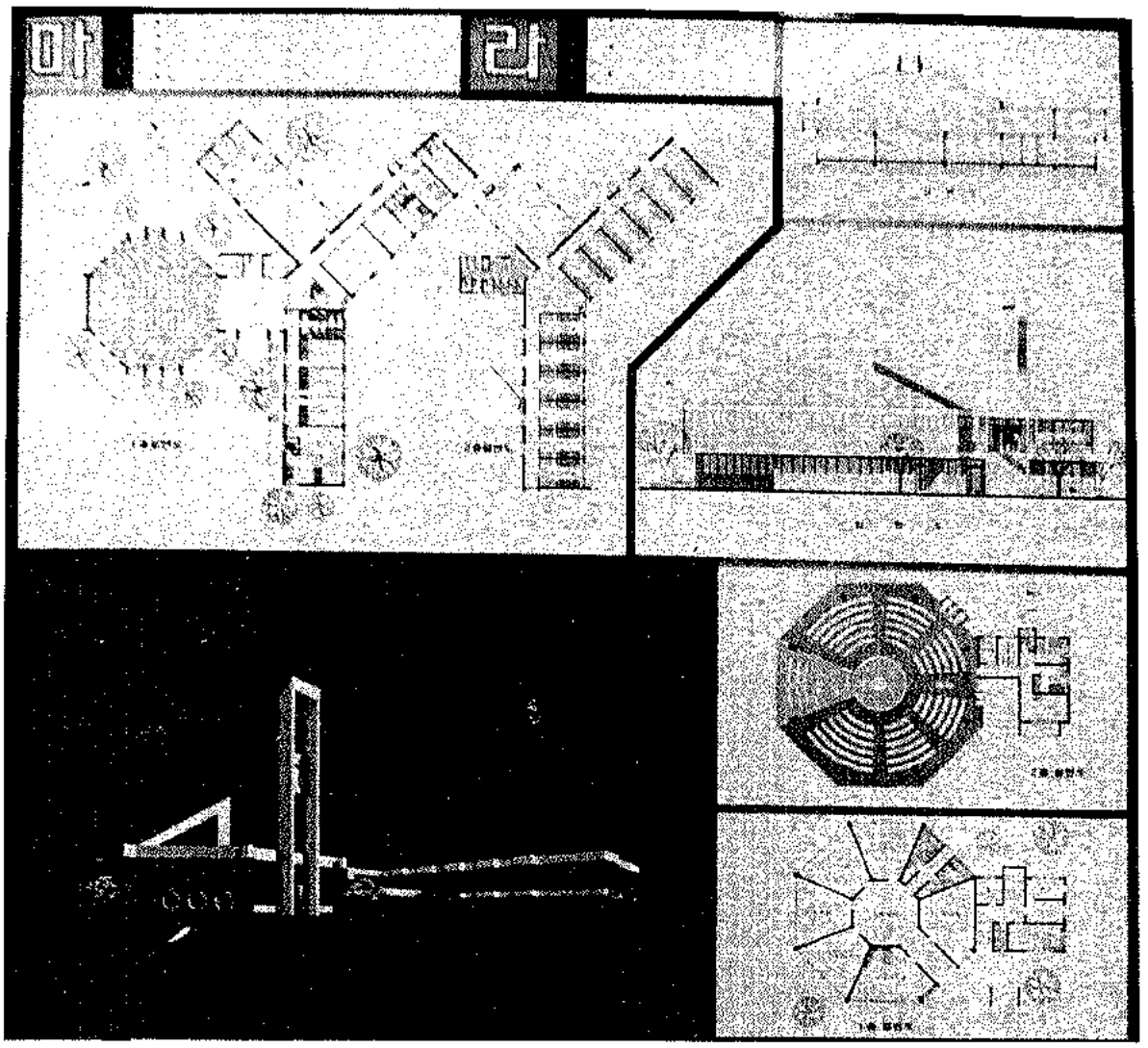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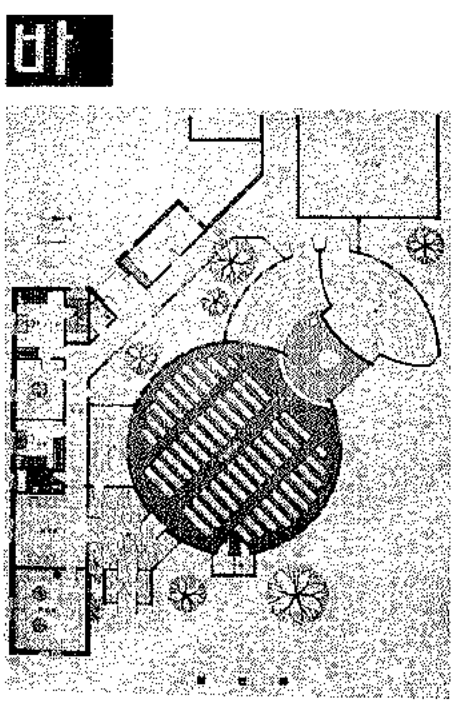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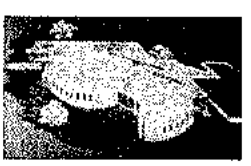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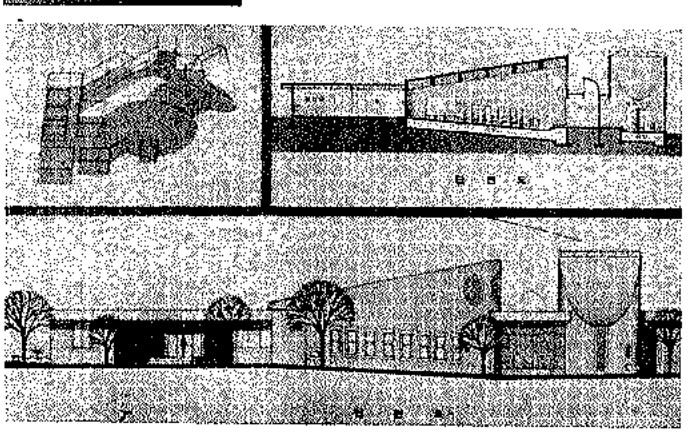
마) 과천수녀원

라) 원주성당





제주수녀원



문화공보부장관상

을지로 재개발 계획

(푸르름 · 태양 · 공간의 도시)

600년전 우리에게 남겨준 조그마한 흙덩이 하나에서도 우리의 자랑스런 수도서울의 역사와 정신을 전하려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마음을 볼수 있다 그것은 계속 이어져 왔고 이어갈 우리의 얼이기도하다。

대대로 물려준 문화유산을 우리는 계승하고 보존해야 하며 역사가 쌓이는 연륜있는 문화유산을 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뻑뻑한 도심환경을 되새겨 보며 슬기롭게 도심해결을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시도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득한 자신과 의도의 시점이 될 것이다。

朴 弘

略 歷

京畿道 安城出生

弘益大 美術学部 建築美術科 卒業(美術学士)

弘益大学校 大学院 建築学科 修了(工学碩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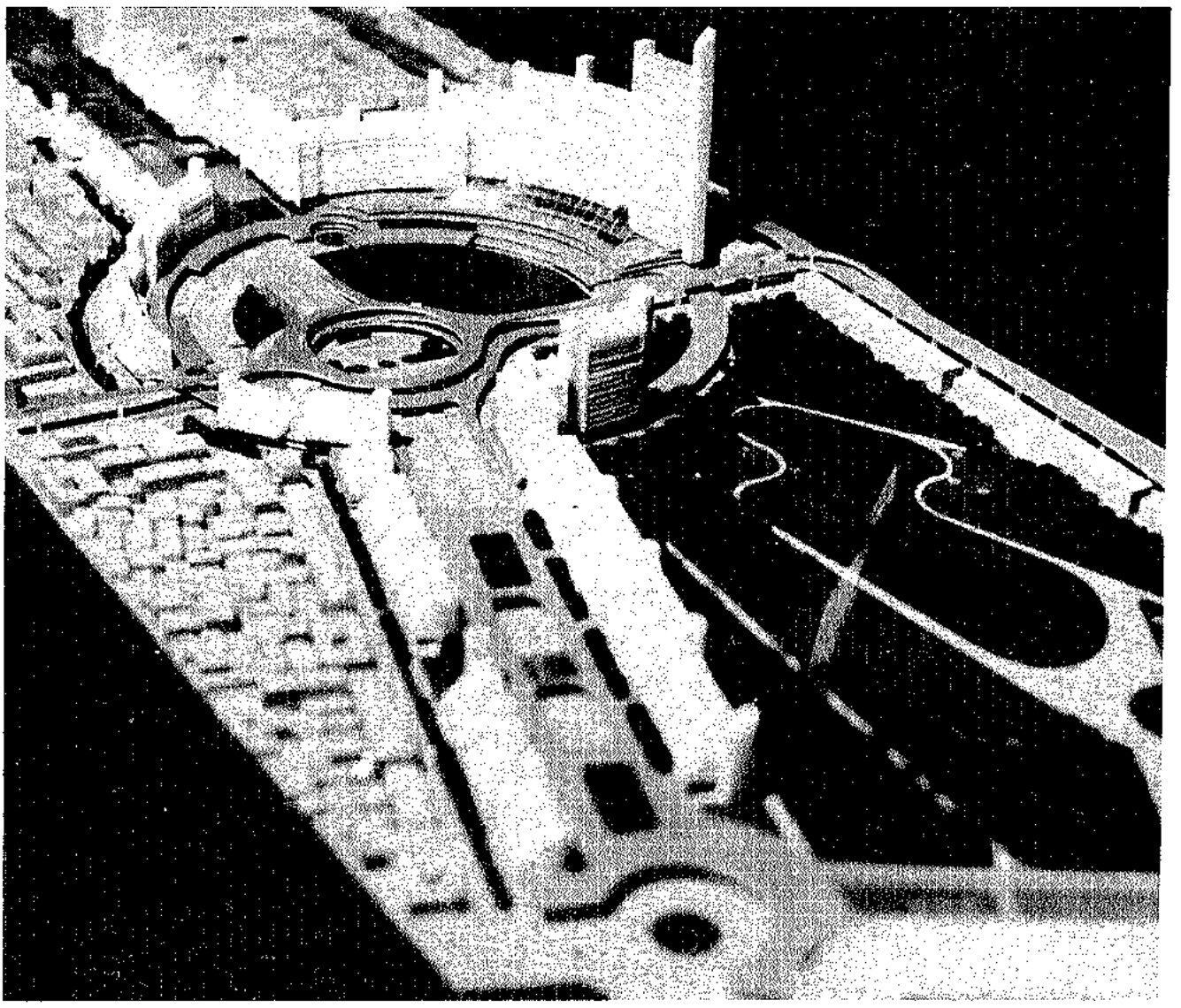
中央大学校 芸術大学

建築美術学科 助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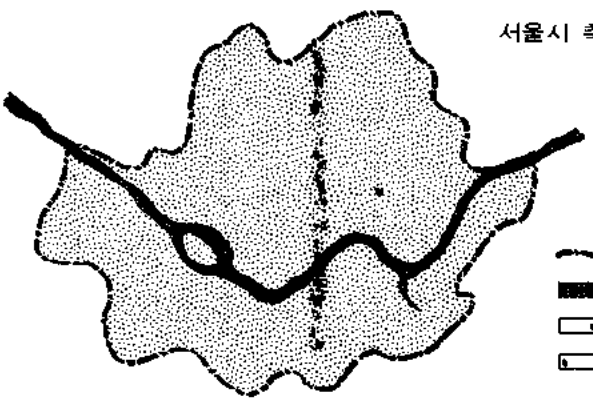
弘益大 建築科 講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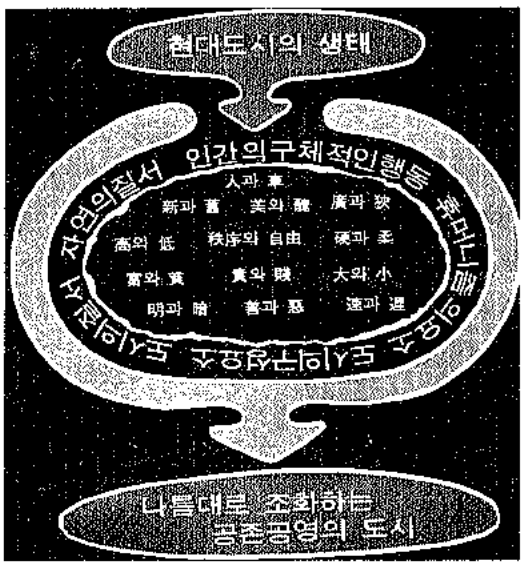
大韓建築学会 正会員

韓国建築家協会 会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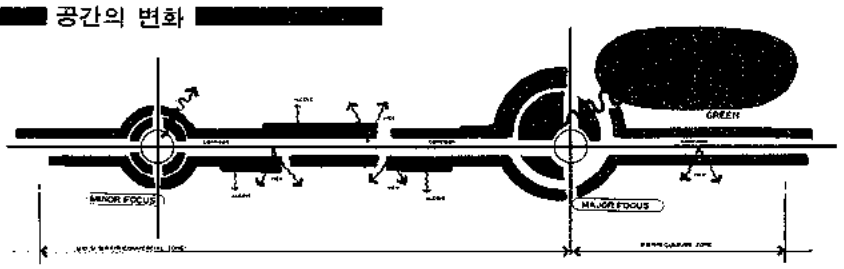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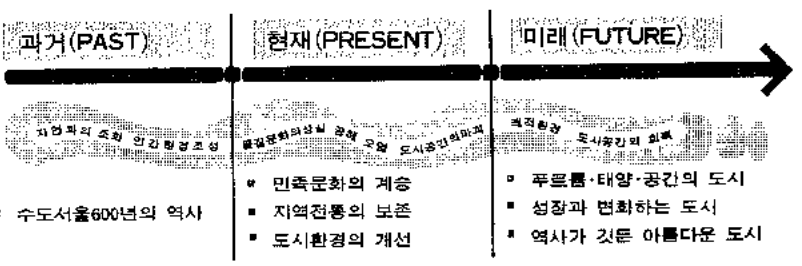
第8回 쌍·파울로 비엔나레展 出品
多多建築十室內硏究所 創立自營(同代表)
美国 IIT와 HIID에서 短期敎授硏修받음
弘益大·国民大 講師, 仁德芸工專敎授 歷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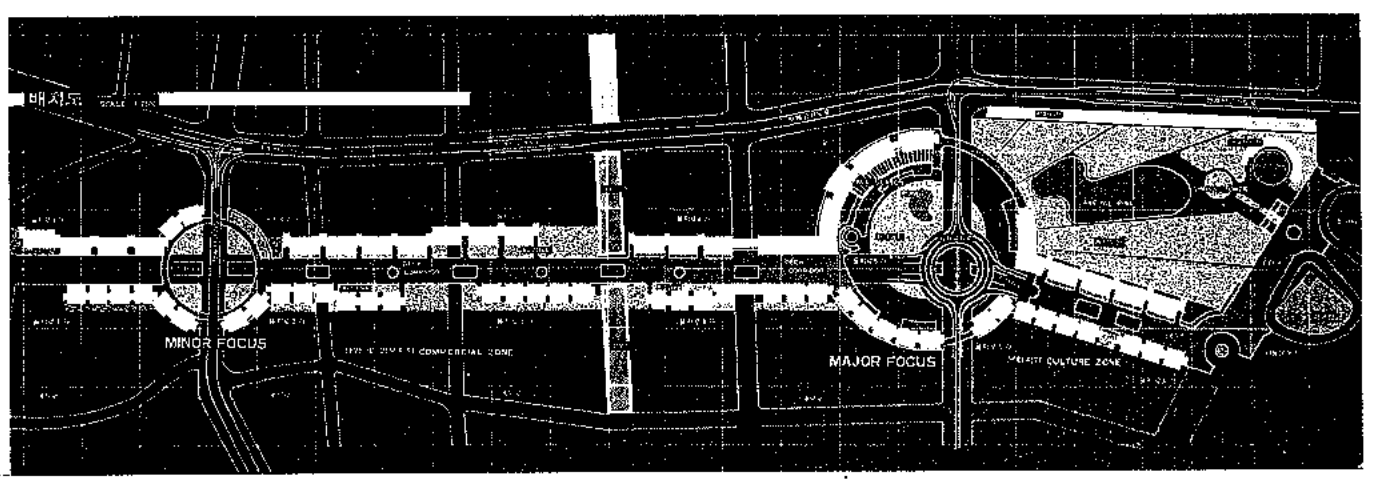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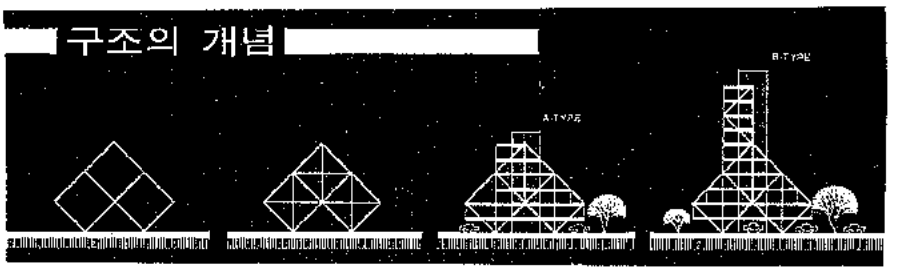
공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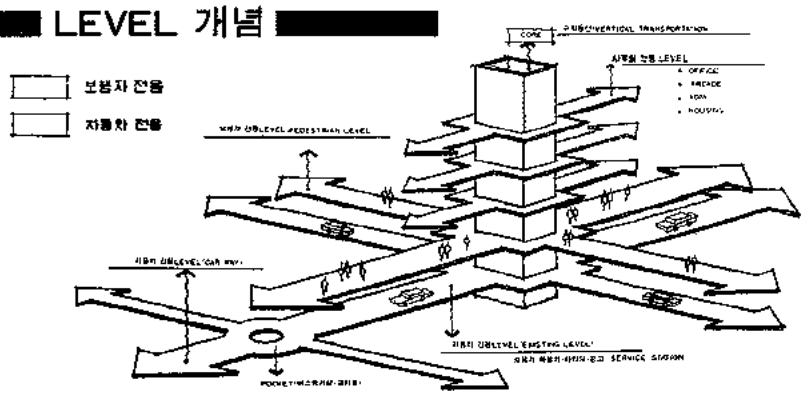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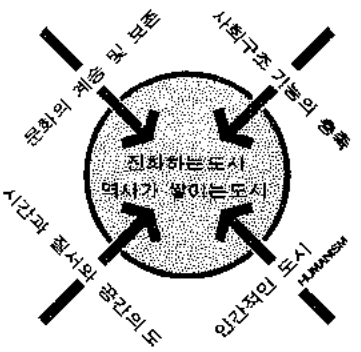
구조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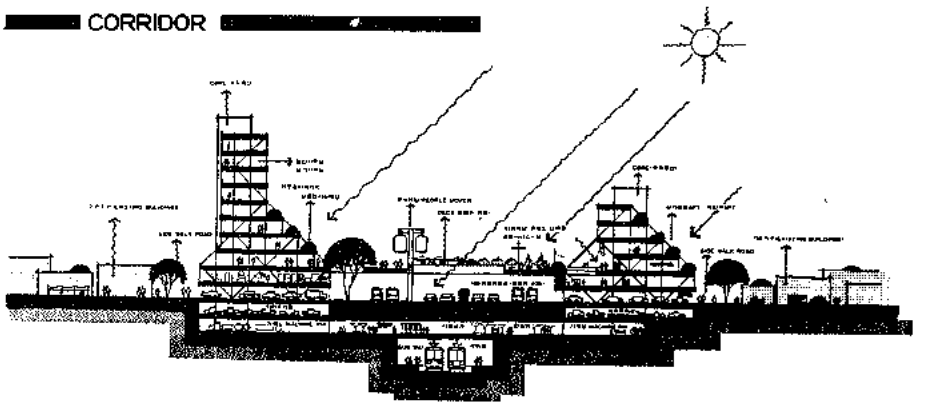
LEVEL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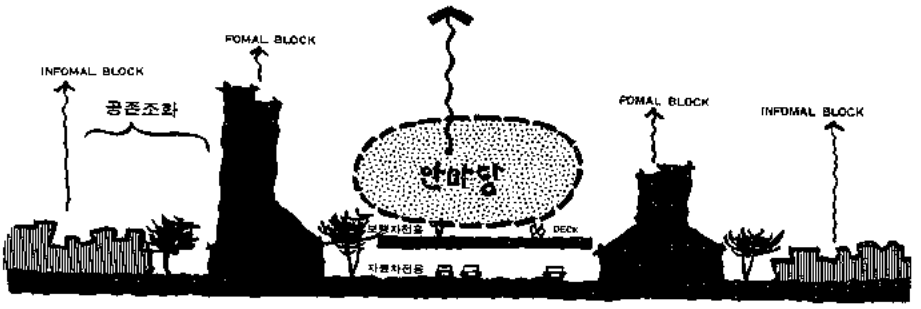
계획의 목표



CORRI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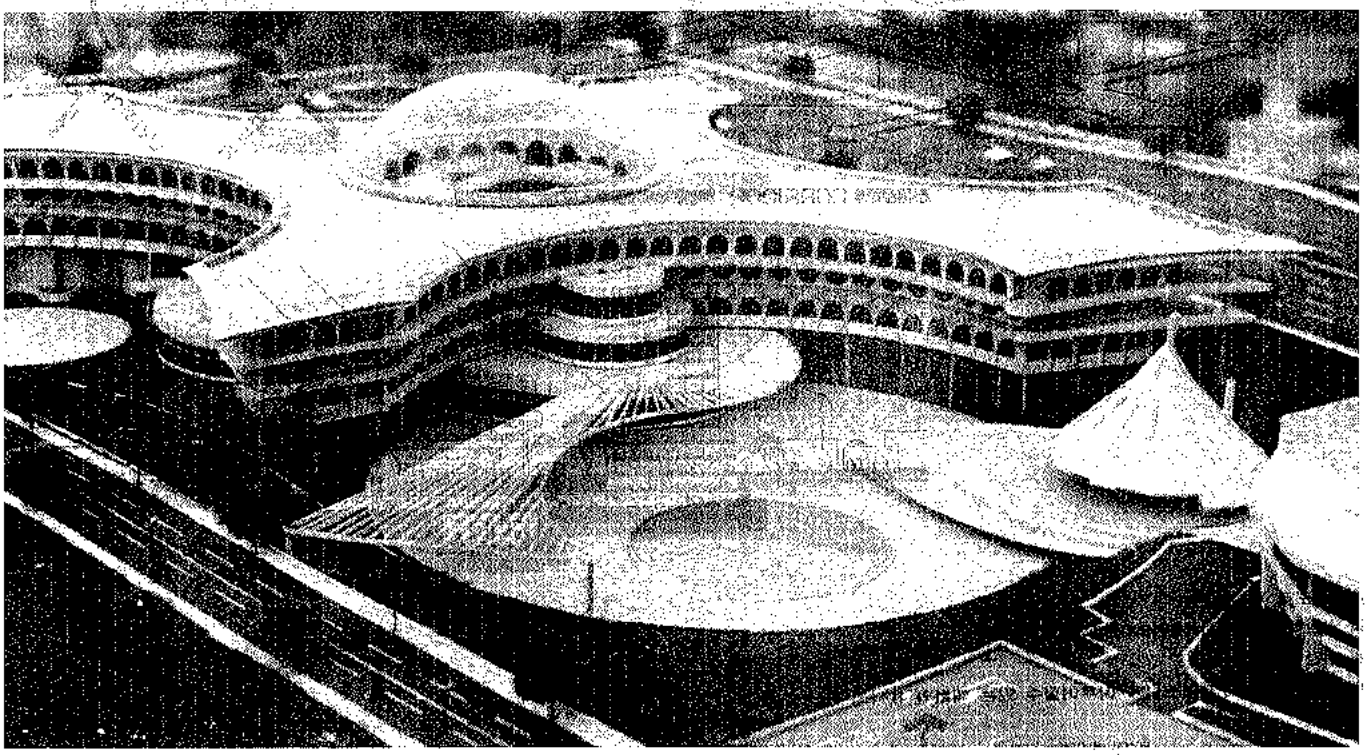
- 차도로 부터의 분리
- 인간적 행위(HAPPENING) 가 일어나는곳
- 인간변화 의 장
- 접근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 있는 대화와 휴식의 장



金重業 建築스케치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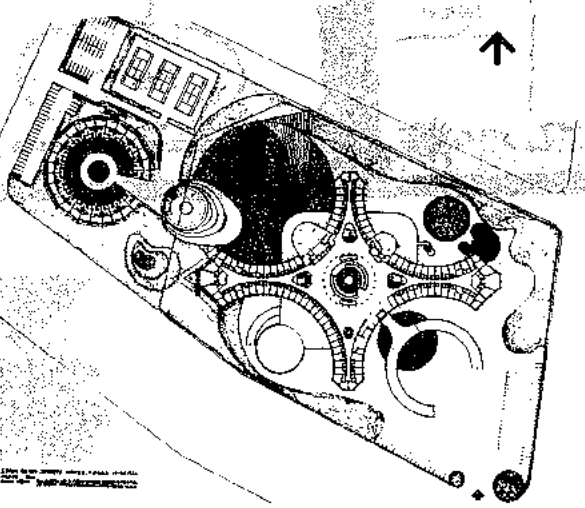
表情과 우리의 章을 찾자

묻혀 생활하다보니 밖이 궁금해서 뛰쳐나가 무엇인가 두리번거린 생활을 오래하며 남의것(建築)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어보려 하였더니 역시, 나의것은 내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 나의 속을 우리들에게 탁 털어놓고 싶은 심산에서 이 스케치전이 마련된것 이라고, 특유의 강렬한 표정을 짓는 김중업씨는 우리의 章을 찾는 작업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한다.



NIGERIA의 大型 스포츠 호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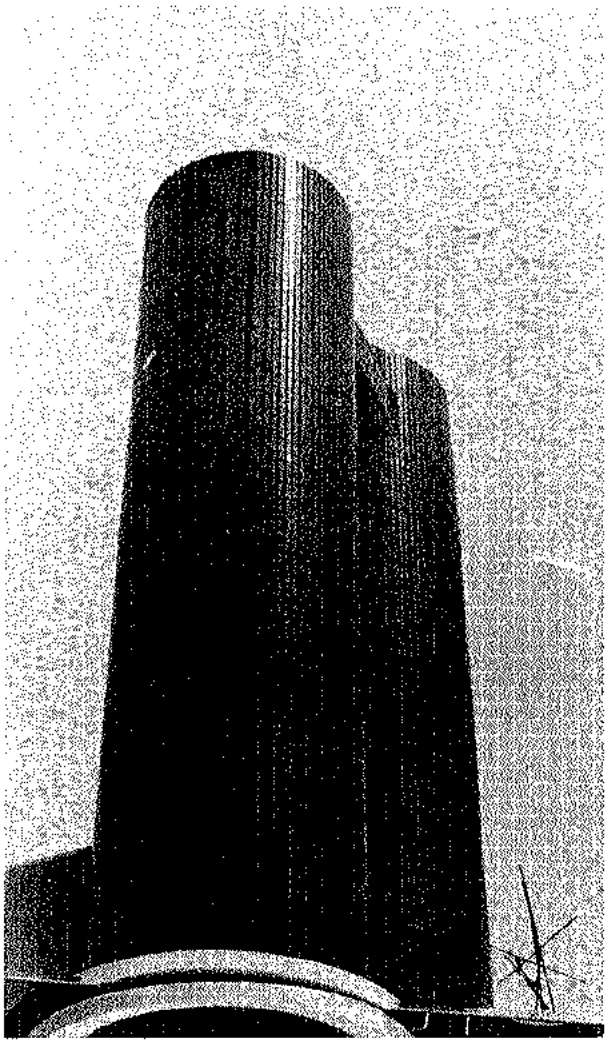


建築이란 社会的 産物이다.
人間과의 対話가 断切된 無表情한 建物들이 建築일수는 없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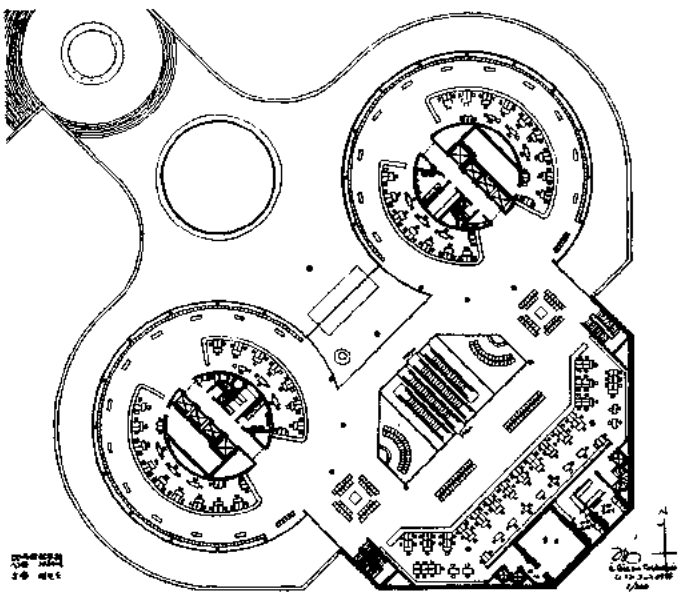
그것은 한낱 文明일 수는 있어도 文化이연은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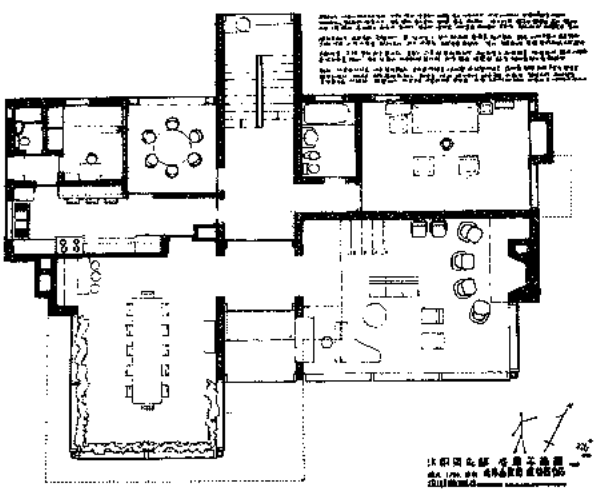
建築하는 이는 끌리거나, 밀려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휘말려서도 더욱 안된다. 열심히 끌고가야하며 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라고……

전시일시 : 1979. 4. 19~4. 23
전시장소 : 서울인사동 漢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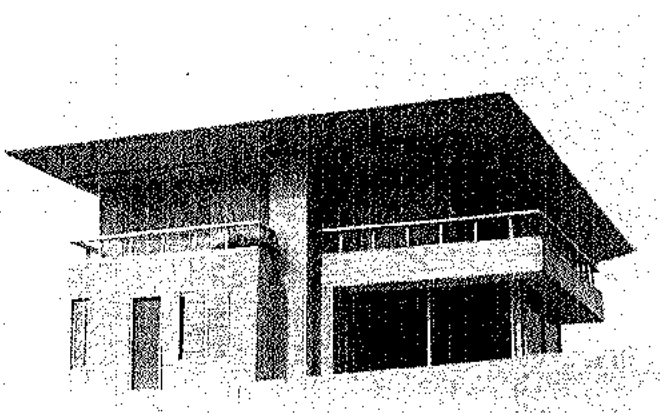


韓国外換銀行本館計劃(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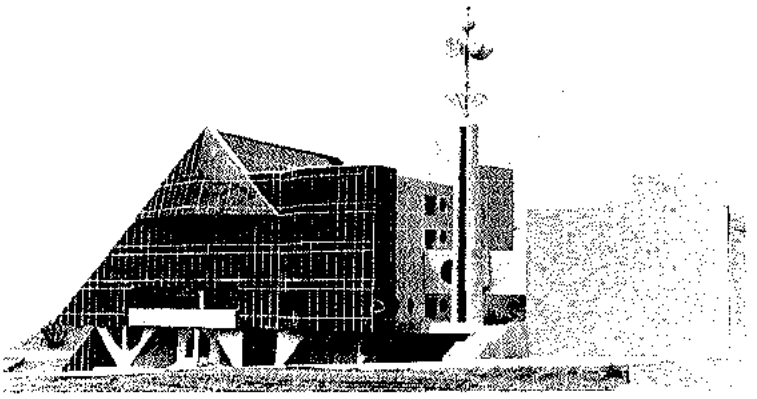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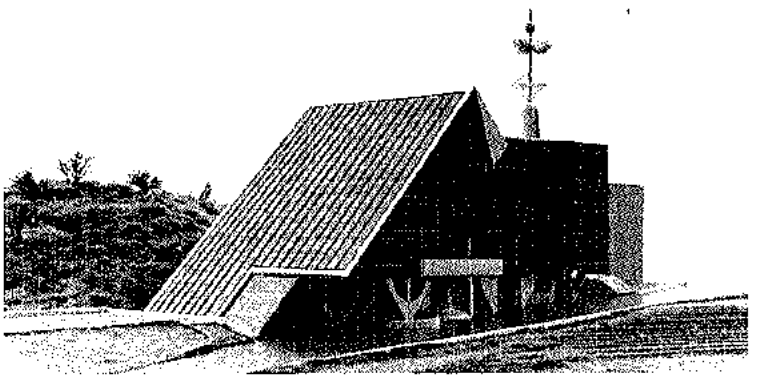
H씨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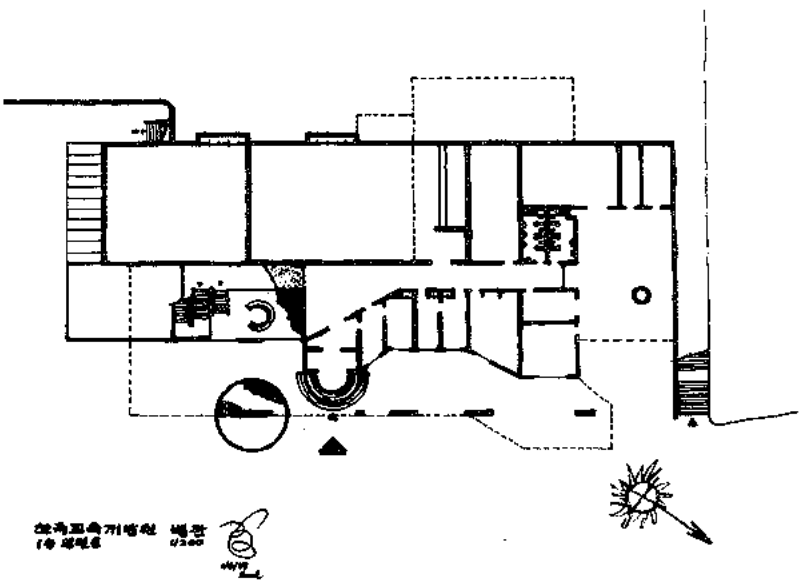
略歷

平壤태생
日本요꼬하마高工卒
프랑스 콜르뷰제建築研究所 4년간研究
프랑스「파리」에서 建築修業
서울工大, 弘益大등 강의
프랑스 몽펠리에大교수(4년)
미국 하버드大 대학원초청교수역임(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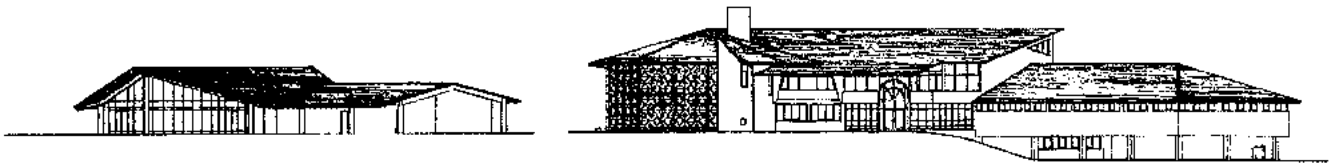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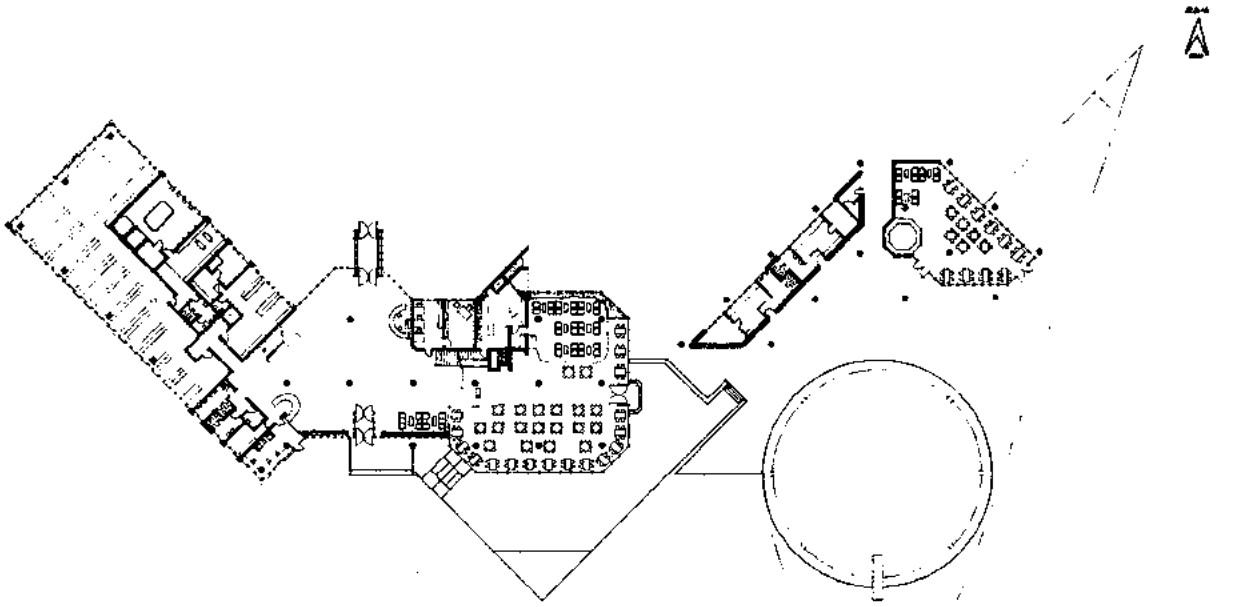


NIGERIA의 大型 스포츠 호텔
韓国外換銀行本館計劃(案)
大韓聖公会会館
H씨住宅
KAL 서귀포 컨트리크럽·하우스
韓国教育開発院別館
其他模型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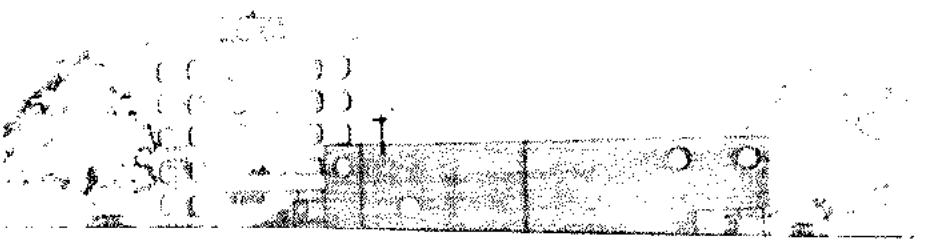


韓国教育開発院別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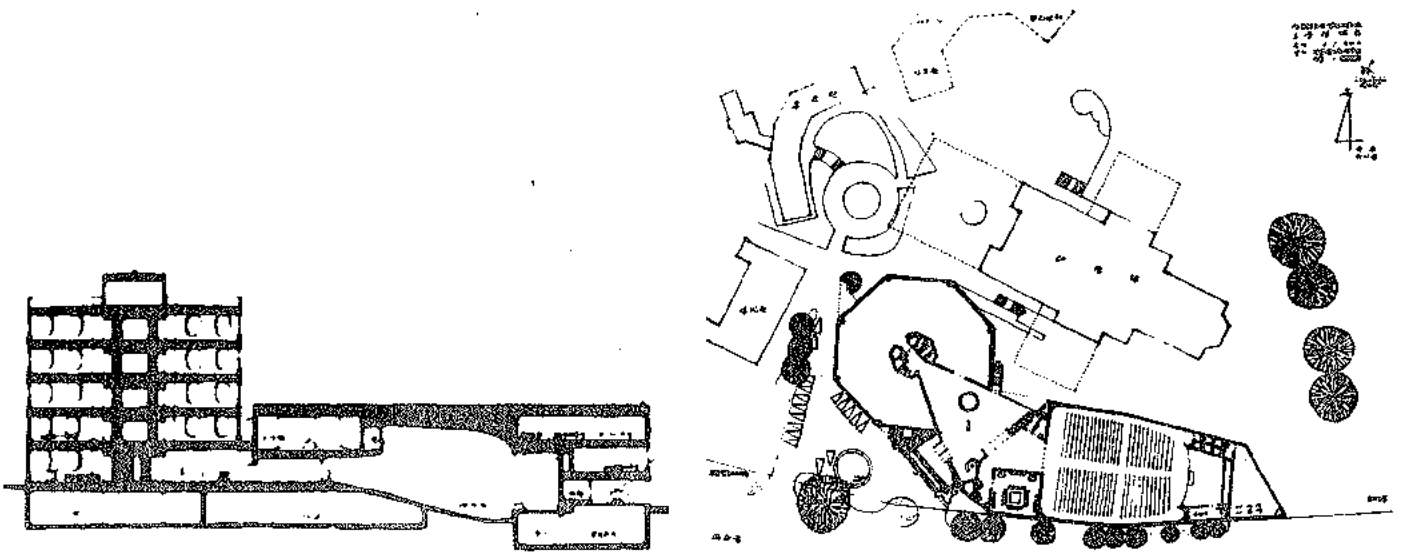




KAL 서귀포 컨트리크럽 · 하우스



大韓聖公会会館



建築月間情報

3, 21～4. 20

이번 호부터 "建築月間情報"의 고정란을 신설하여 建築活動의 資料로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각종 情報媒体로부터 대단히 많은 量의 情報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누구나가 다 일일히 検素,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이것을 有益한 活動資料로 活用 하지 못하는 있는것이 실정이다.

이 "建築月間情報가" 長期的으로 쌓이고 이것을 돌이켜 음미해볼 때, 建築景気의 予測이나 社会発展의 向方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建築에 관한 중요한 사료가 되기도 할것이다.

우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主要日刊紙上의 報道記事를 발췌 요약 하여 정보 발생순으로 정리하였다. 앞으로 대상 정훼매체를 확보하고 요약 정리방법도 계속 연구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이 情報 중, 事実과 다르거나 誤解의 우려가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곧 訂正追補코자 하며, 続者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부분을 발견하시면 本協 出版部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 서울近郊에 새 国際空港 건설 검토 朱安·牙山湾 일대가 有力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金浦空港은 서울도심에 너무 인접하여, 인구집중과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작년 하반기부터 특별작업반을 구성, 空港의 운영과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의 해안지역(朱安이나 牙山湾일대)에 새 공항을 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한다.

현재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金浦空港은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만, 확장된 후에도 연간 출입승객 400～450만 밖에 수용할 수 없어, 84년에는 만원이 될것으로 전망돼, 80년 후반에는 새空港 건설이 불가피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경제, 3/21)

□ 4개 法院庁舎 江南 이전계획 확정—— 大法院

大法院은 22일, 서울高法 등 서울都心에 있는 4개 法院과 司法研修院 등의 江南이전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大法院·法院行政処의 건물은 현 법원청사에 그대로 두고, 총예산 134억원을 투입, 금년부터 83년까지 서울高法·서울民事地法·서울刑事地法·家庭法院과 司法研修院을 서울 江南区 瑞草洞 종합터미날옆 대지 30,371평에 이전토록 되어 있다.(서울경제 3/22)

□ 農村住宅改良事業 희망農家에만 추진, 내무부 당초방안 완화

내무부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당초 목표인 5만동에 구애되지 않고 자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개량을 희망하지 않는 농가, 개량시기를 미루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량 대상에서 제외시켜 추진키로 했다. (서울 경제 3/22)

□ 서울 大気汚染 갈수록 심각

연세대 공해연구소가 26일 서울시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大気汚染度가 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치인 0.06ppm을 넘는 날이 75년에는 6.25 일이었으나 80년에는 80.8일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며, 오염물 배출량도 80년에는 1Km²당 1,007t으로 추정. 오염물질 배출 원인을 분석하면 현재 가장 주된 원인인 난방시설로 인한 오염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과 공해업소로 인한 오염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80년의 원인별 비율은 난방시설 34.3%, 차량 33.2%, 공해업소 25.2% 화력발전소 7.0% 등이 될것이라고. (동아3/26)

□ 不急工事 30% 減縮, 4월 집행분 5～6월로 연기 —— 정부

정부는 소비절약과 주요 건축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착공키로한 3만 여건의 각종 정부공사중, 不要不急한 工事는 年間事業物量의 30%를 축소하고 종래 4월중에 집중되었던 工事発注를 5월말에서 6월초로 늦춰 집행할 계획이다. 이 조치의 대상에는, 半月工業都市 건설

을 비롯 정부 제2종합청사를 포함한 果川都市건설, 忠州댐 건설, 일부 工団의 부대시설, 溫山工業基地 조성 등과 聚落構造改善事業 및 政府와 公共機関의 新築 社屋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제, 3/30)

□ 1979년도 建設業体 都給順位 발급

건설부가 31일 발표한,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순위 중, 1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 4/1)

79 순위	78 순위	상 호	79 순위	78 순위	상 호
1	1	現代建設(株)	6	6	美隆建設(極)
2	3	大林産業(株)	7	5	極東建設(株)
3	2	東亜建設産業(株)	8	10	大宇開発(株)
4	7	漢陽住宅(株)	9	8	進興企業(株)
5	4	三換企業(株29)	10	29	라이프住宅開発(株)

□ 工場用地 面積制限, 초과분는 重課税

정부는 企業이 지나치게 많은 工場用地를 점유 하는것을 막기 위해 400개 업종별로 工場의 기준 면적율을제정 고시하고, 기준 초과시에는 非業務用地土로 간주 重課税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일부터 신축 공장에 적용하고, 기존 공장은 80년 4월부터 실시하되, 이전촉진지역 및 工団内 공장은 적용 제외된다. 工場垈地面積이 3,000m^2, 건축면적이 1,000m^2이 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자(증설 경우는 기존 및 증설분 합계)는 事前에 市道知事에 신고하여 工場立地基準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工場立地基準은 ① 기준공장 면적율(공장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業種에 따라 5%~40%로 규정하고, ② 緑地등 環境施設面積率도 별도로 책정, 垈地面積이 3,000~1000,0m^2 공장은 緑地面積率을 10,000m^2이 상인 공장은 20%이 상으로 하되 緑地를 포함한 環境施設面積을 일률적으로 25% 이상 확보토록 했다. (동아 4/2)

□ 작년 지은 아파트 不実満発, 천장서 물새고 하수구 막혀 등.

작년에 지은 많은 아파트들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천장서 물새고 하수구가 막히며 심지어 문짝이 맞지않아 入住者들이 内装을 완전히 다시 해야 하는 등 막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모델 하우스와는 전혀 다르게 지어놓고 시치미를 떼고있는 실정이다.

최근 2~3년 동안에 분양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이렇게 부실한 것은 ①建資材波動 등으로 不良建資材를 마구 사용한데다 ② 中東建設進出로 技能工이 크게 부족하고 ③ 建設業者들이 경비 절약을 위해 내장공사는 물론 2~3차례씩 릴레이식으로 군소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중앙, 4/3)

□ 내년도 정부 건설공사가 단가 28% 인상 —— 경제기획원

3일 경제기획원이 각부처에 시달한 「80년도 예산편성기준」따르면 내년도 정부건설공사비 단가 인상율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건설공사비가 지난 1월 현재 실제보다 15% 낮은 선이고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13%를 참작한 것이다. 내년 1월까지 상승 전망은 資材費 10%, 人件費, 20%로 추산했다. (중앙 4/3)

□ 아파트容積率 180%로 줄여, 共同住宅事業承認基準 일부변경 —— 서울

서울시는 7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사업승인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건폐율 : 아파트는 종전과 같으며(5층 이하 20%, 6층 이상 18%), 연립주택은 40%에서 30%로.

용적율 : 아파트는 200%에서 180%로, 연립주택은 종전(100%)과 같다.

층수 : 아파트는 제한이 없던것을 10층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적정 층수는 종합조정하도록 하고, 연립주택은 2층까지에서 3층까지로.

동간거리 : 1.2배에서 1.25배 이상으로. (서울경제, 4/8)

□ 제2 政府庁舎 起工, 果川에 7만평, 내년까지 経済部処 이전계획

10일 기공된 제2 정부청사는 首都圏 인구소산과 부족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서, 1단계로 249억원을 투입, 垈地 7만평에 연건평 2만2천평 규모의 청사 1, 2동과 지하공용시설(SUNKEN) 안내소 관리소 등 건물 5동을 80년까지 완공, 경제부처를 이전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4/10)

□ 서울 都心再開発地区 15층 이하로, 고층화계획수정

서울시는 6개 都心再開発地区에 20~30층의 고층건축물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건설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都心圏 交通難 완화문제와 관련하여 신축건축물의 높이를 대폭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당국은 건설부로부터 고도제한 세부사항이 결정되는대로 앞으로 추진할 모든 再開発事業計劃을 수정할 방침으로 있으나, 15층 이하로 제한될 경우, 사업주들이 投資効果등을 감안 비싼 대지에 작은 건물의 건축을 기피할 것으로 보여 층수를 낮추 는데 따른 별도의 보완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都心再開発事業에 큰 차질이 빚어질것을 우려 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시행토록한 都心再開発事業地区는 다음과 같다.

① 陽洞 제 7 지구(大宇開発), 대지 5,642평, 지상25층, 지하 3 층, 연면적 24,000평의 호텔 건축. ② 西大門제14지구(商工会議所)대지 3,459평, 지상18층, 지하 3 층, 연면적 18,763평의 사옥 신축, ③ 西小門 제 4 지구 (大旺興業), 대지 2,166평, 지상20층, 지하 3 층, 연면적 14,515평의 사옥신축. ④ 乙支路 1 街 제 6 지구(東山건축) 대지 1,097평, 지상 25층, 지하 4 층, 연면적 9,835평의 호텔 건축. ⑤ 南大門路 5 街 제 1 지구(延世大), 대지 3,260평, 지상 30층, 지하 5 층, 연면적 25,314평의 사무실건물 신축. ⑥ 乙支路 2 街 제10지구(内外興業), 대지 1,250 평, 지상13층, 지하 4 층, 연면적 9,952평의 사무실 신축. (중앙, 4 / 10)

□ 아파트 모델하우스 규제

건설부는 11일 「見本住宅 建設 및 管理에 관한 処理指針」을 마련 각 시도 및 주택건설회사에 시달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건축자재는 반드시 KS품만으로 의무화하고 시공도 모델하우스와 실제주택이 같아야 하며, 각종 建築資材 電気 및 衛生 煖房機器 등은 메이커 품질 규격 등을 분양승인신청시에 준공검사권자에게 미리 제출케 하므로서 준공검사때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동아, 4 / 11)

□ 慶州 普門観光団地 1次工事 준공

날로 증가하는 외국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慶州에 마련된 普門観光団地는 지난 74년 착공, 4월 6일 1차공사를 준용 개장하였다. 총 3백13만5천평의 단지 안에는 48만평의 호수, 40만평의 골프장과 각각 300실규모의 慶州조선호텔 및 慶州 도큐 호텔, 700석 대회의실이 있는 관광센터, 기타 종합청사, 普門호텔학교 등이 있다. 이 단지는 IBRD(세계은행)차관 2,500만 달러를 포함288억원의 정부예산과 민간자본 115억원 등 모두 407.3억원을 들여 1차공사를 끝낸것이다.

정부는 계속하여 81년까지 24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1,600실 규모의 관광호텔 9개를 추가하고 위락 시설을 확충 국제수준급의 綜合観光休着団地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4 / 11)

□ 그린벨트 불법 개간, 5월부터 집중 단속

정부는 그린벨트의 관리를 강화, 이안에서의 不法 土地変更形質이나 입목벌채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물의를 이르킨 그린벨트안 별장 개축과 불법토지 형질변경을 계기로 고위층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단속은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내무부 국방부·건설부 합동으로 실시된다(중앙, 4 / 12)

□ 올해 都市小公園 135개소 조성키로—— 내무부

내무부가 12일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30개 도시의 주택가에 총 135개소에 달하는 도시 소공원을 52억 9천만을 투입, 새로 조성키로 하였는데, 이 소공원은 200~500평의 어린이 놀이터 규모로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게 된다. (중앙, 4 / 12)

□ 서울 15층이상 3개 건물, 新築工事 잠정 中止令

서울 도심의 人口分散과 交通難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신축건물 고층제한 방침과 관련, 앞으로 실시할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을 수정키로 한 서울시가 이미 도심재개발사업이 착수되어 건축중인 다음 3개 빌딩에 대해서도 지난 3일 잠정적으로 15층 이상 공사의 중지명령을 내렸음이 11일 밝혀졌다.

① 大韓教育保険빌딩(종로 1 가), 77년 10월, 지상22층 지하 3 층 연면적 2만8천여평규모로 착공. 현재 22층까지 골조공사 완료, 공정 75%. 80년 6월 준공예정.

② 大韓火災海上保険빌딩(南倉洞), 78년 6월, 25층, 지하 4 층 연면적 1만5천평규모로 착공. 현재 18층까지 골조공사 완료, 공정 60%. 80년 6월 준공예정.

③ 韓一銀行本店 (南大門路 2 街), 78년 8월, 지상 2 층 규모로 착공. 현재 18층까지 골조공사 완료. 공정 55%. 80년 5월 준공예정.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부가 검토중인 고층건물규제조치가 신축중인 건물에까지 적용될 경우 완공후 철거보다는 현재 공사를 중단하는 편이 사업주의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지시킨것」이라 하였다. (중앙. 4 / 12)

□ 서울都心 高層新築規制 贊反紙上토론

서울시는 20~30층의 고층을 짓도록 이미 사업승인이된 6개 도심 再開発事業計劃을 백지화 하였다. 이와같은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모은다. (중앙. 4 / 16)

政策당국의 立場……불과 9.2km²(278만평)정도인 4大안 都心圈에 대부분의 중요기관,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이 바람에 상주인구 16만인데 540만이 매일 집산한다. 거기다 20~30층짜리에 낮은 건물이 까어스카이 라인이 들쭉 날쭉하는 등 도시 미관이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인구분산 교통난 완화, 도시미관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신축성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제 되어야 할것이다.

康炳基(한양대 도시공학과)도심의

인구분산과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축건물 높이의 제한방침에 근본적으로는 공감한다. 그리고 이번 규제대상이된 건물의 경우 허가당시와 현재와는 都市環境의 悪化등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공사중에 中止令을 내렸다고 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몰아붙일수만은 없을것 같다. 계속 제한할 방침이라면 일률적인 層数制限보다는 容積率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것이다.

金安濟(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심부로 몰리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都市集中機能을 분산시키는 案으로서는 미흡하다. 서울의 경우 道路率은 낮지않으나 幹線道路는 8~10車線으로 지나치게 넓은데 비해 中小路는 거의 없어 交通混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로망 재정비도 문제해결의 키가 될 수 없고, 무엇보다 4大門의 都市再開発에는 보다 계획성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朴容相(大韓商議 이사)……新築中 工事 中止令은 여러가지 큰 손실이다. 정책의 잦은 변경은 経済的 損失뿐 아니라 국민의 信頼度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교통난을 이유로 고층을 규제한다는데에도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며 평면적 확산만이 옳바른 방법인가 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都心을 고층화하여 교통난을 완화하는 외국도 있다. 고층빌딩의 상층부를 아파트로 하고 하층부를 사무실로 하면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 「앞으로 내다보는 결정」이 있어야 겠다.

□ 11층 이상 新築아파트, 10층 이하로 設計変更을 시사 ——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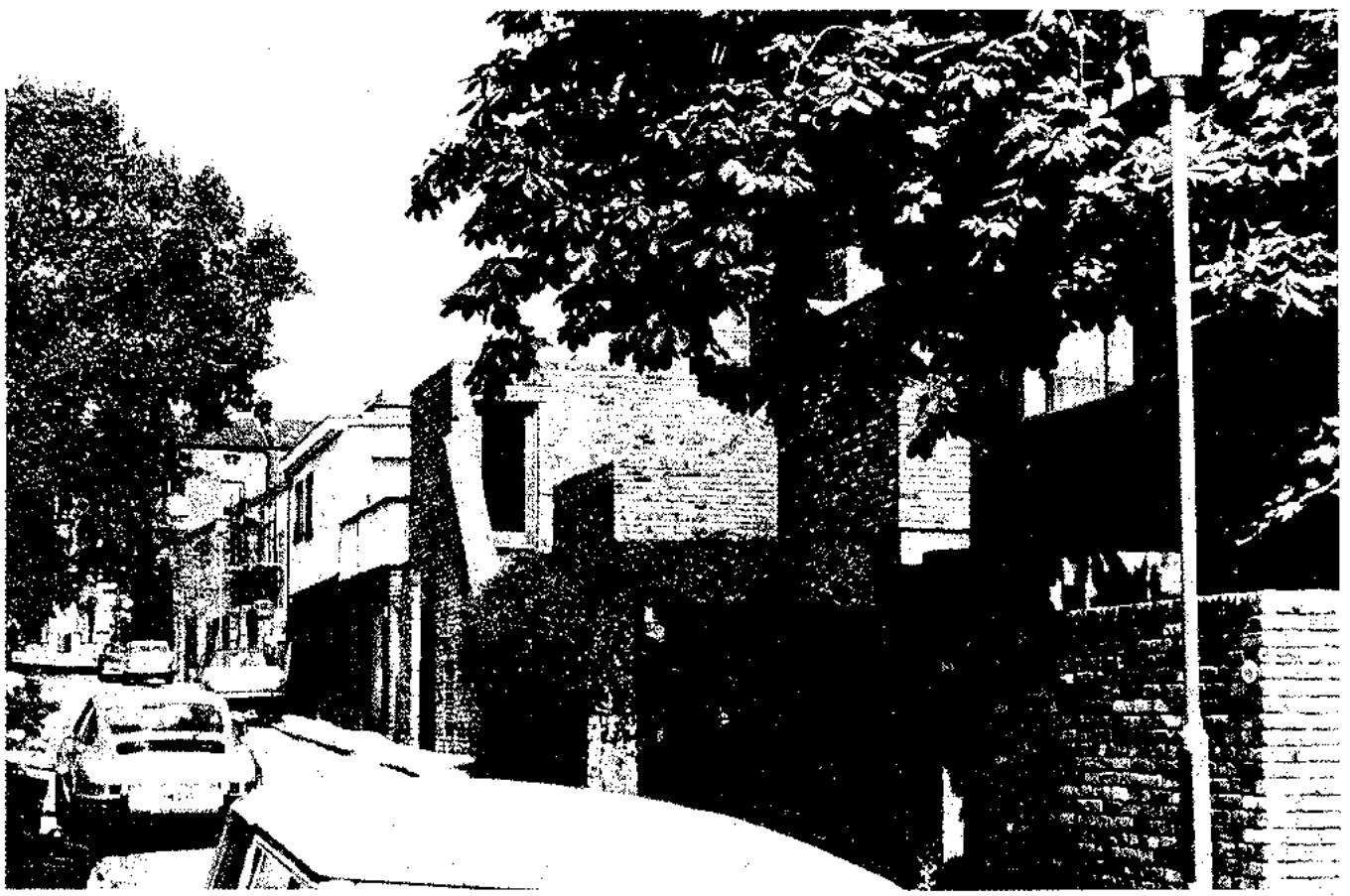
서울시는 18일 신축할 아파트의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키로 결정하고, 올해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서울시에 事業承認中請한 한양주택 등 5개 아파트 건설업체의 신청서를 반려하고 10층 이하로 설계변경토록 지시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江南地域에 12~1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供給施設·通問題·公害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이르킬것에 대비 연초부터 고층화 방지의 원칙을 세우고 검토한 결과 10층 이하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동아. 4 / 18)

□ 서울종합운동장 室内(잠실)体育館 준공, 장충체육관의 2.5배

서울시는 서울종합운동장의 기간시설인 실내체육관을 76년 11월 착공, 2년 5개월 만에 18일 준공하였다. 총공사비 54억원, 7천8백여평 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이 室内体育館은 수용규모 2만(장충 체육관의 2.5배)으로서 563평의 本競技場과 223평의 補助競技場 2개를 갖추고 있다. 경기장 바닥은 미국산 단풍나무로 마감되었고 천정조명은 2000lx, 이와는 별도로 컬러TV방송에도 지장이 없게 5,000lx의 집중조명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주변 4만7천평의 고수부지에는 1만대를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주차장시설이 있다. (서울경제, 4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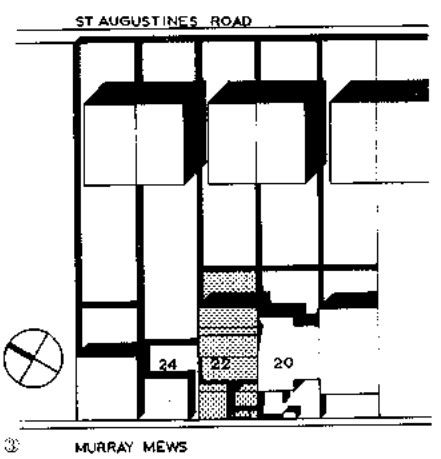
마레이 · 뮤 – 스의 住宅 (영국)
設計 : 톰 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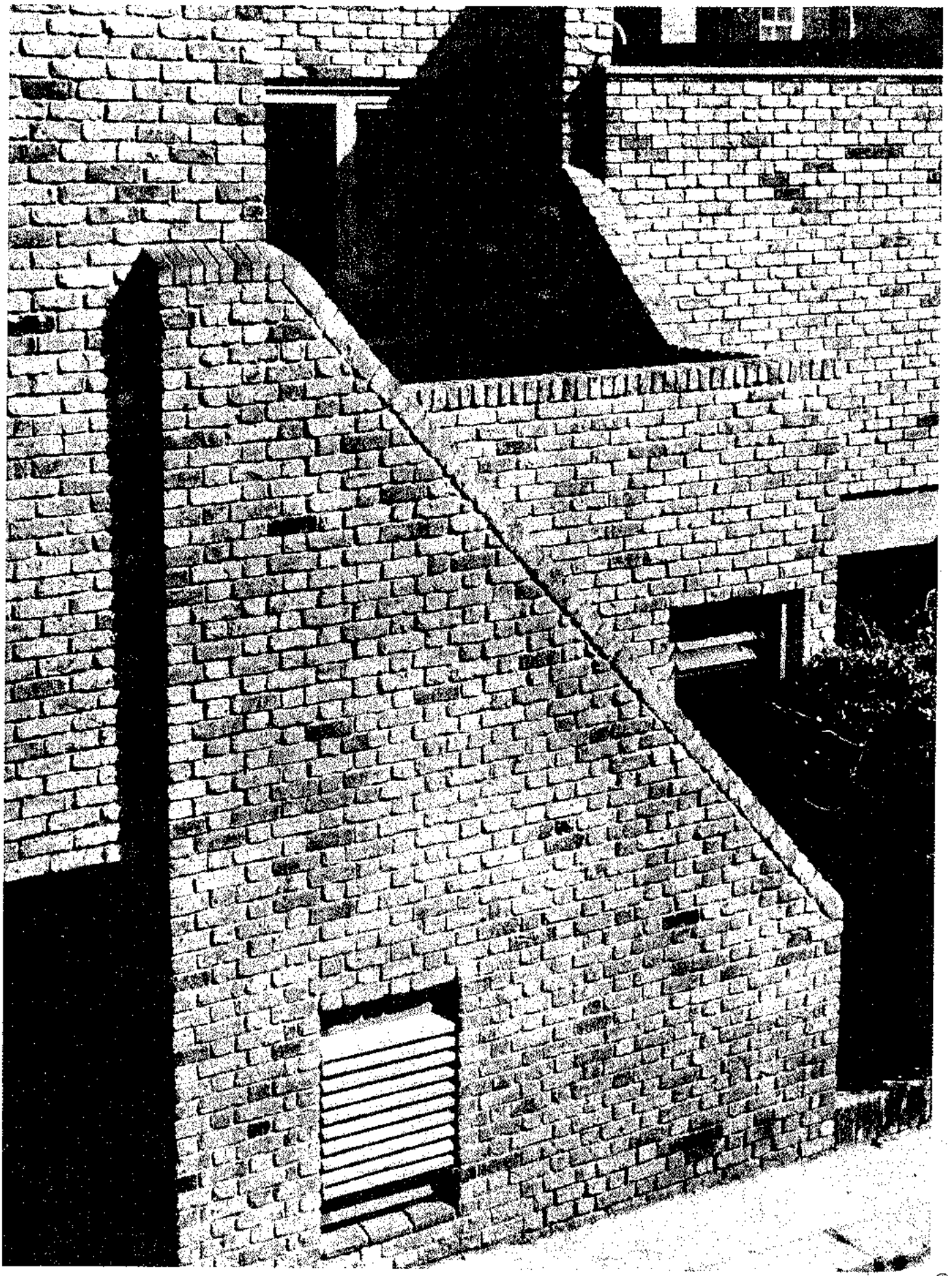
①

①거리에서 바라봄
②뒤에서 봄
③配置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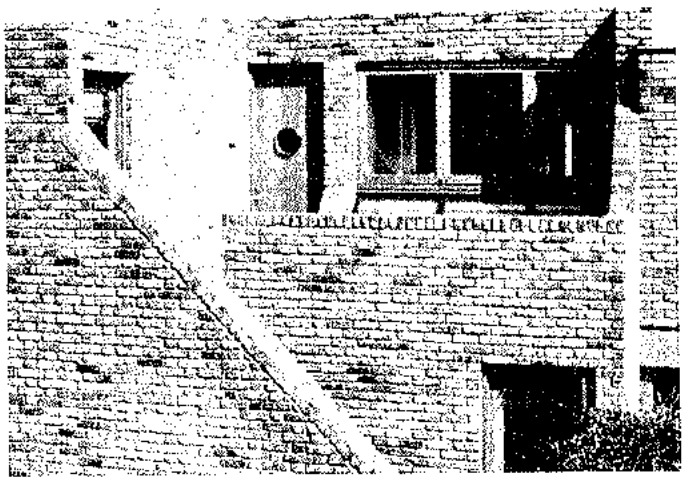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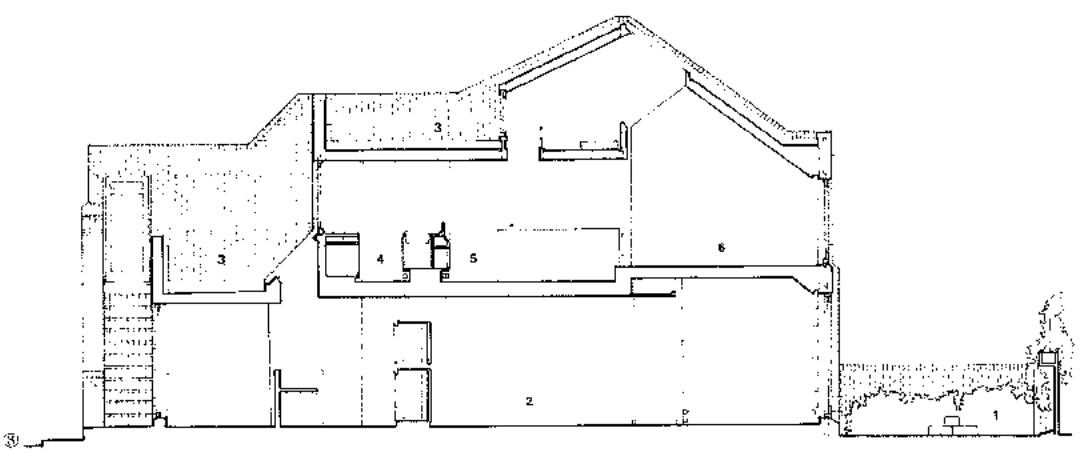


⑤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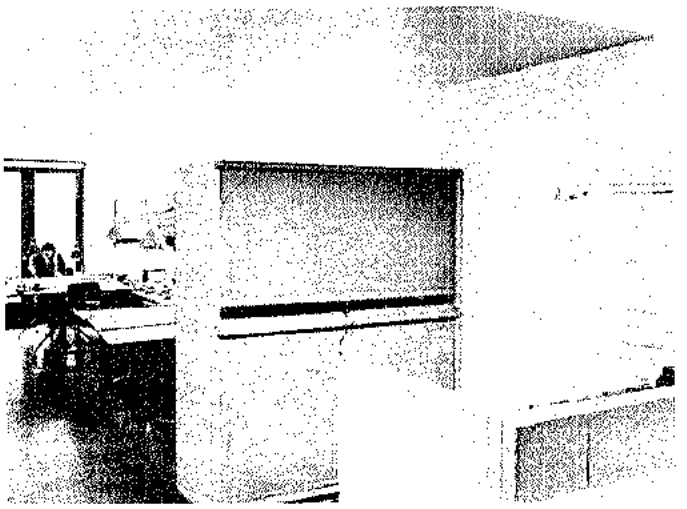
⑤出入口付近을 봄
⑥화사이드
⑦庭園을 봄
⑧断面図
1. 뜰
2. 서재
3. 테라스
4. 주방
5. 식당
6. 거실



⑧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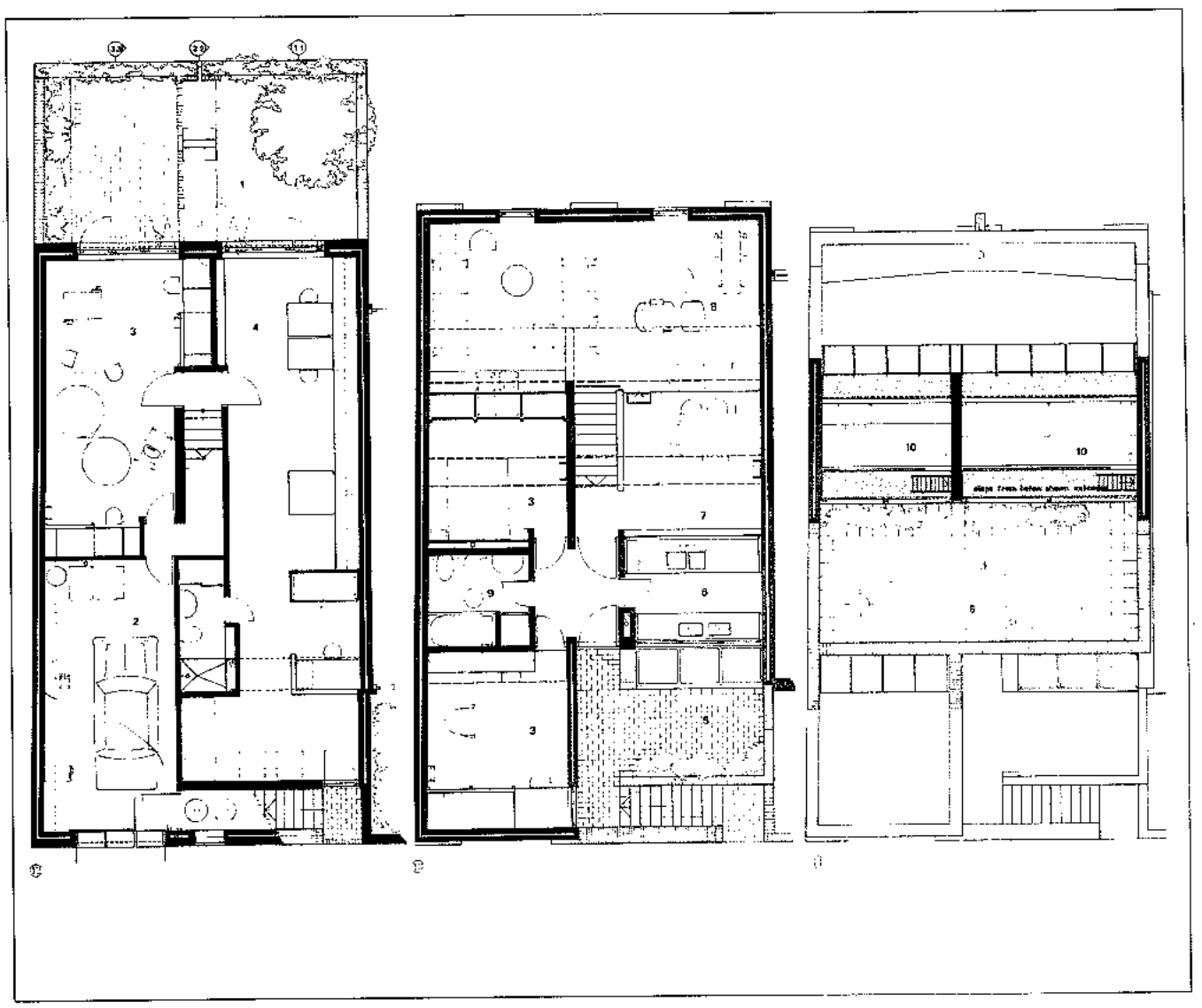
⑩



⑪

⑨거실내부 ⑬2층平面図
⑩주방에서 식당을 본다 ⑭屋上+갸라리平面図
⑪서 재 ⑮주방부분
⑫1층平面図

1. 뜰 3. 침실 5. 테라스 7. 식당 9. 욕실
2. 차고 4. 서재 6. 주방 8. 거실 10 갸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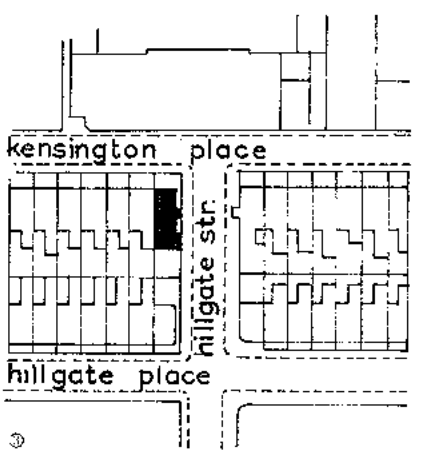
⑫ ⑬ ⑭

켄싱톱 · 푸레이스의 住宅 (영국)
設計 : 톰 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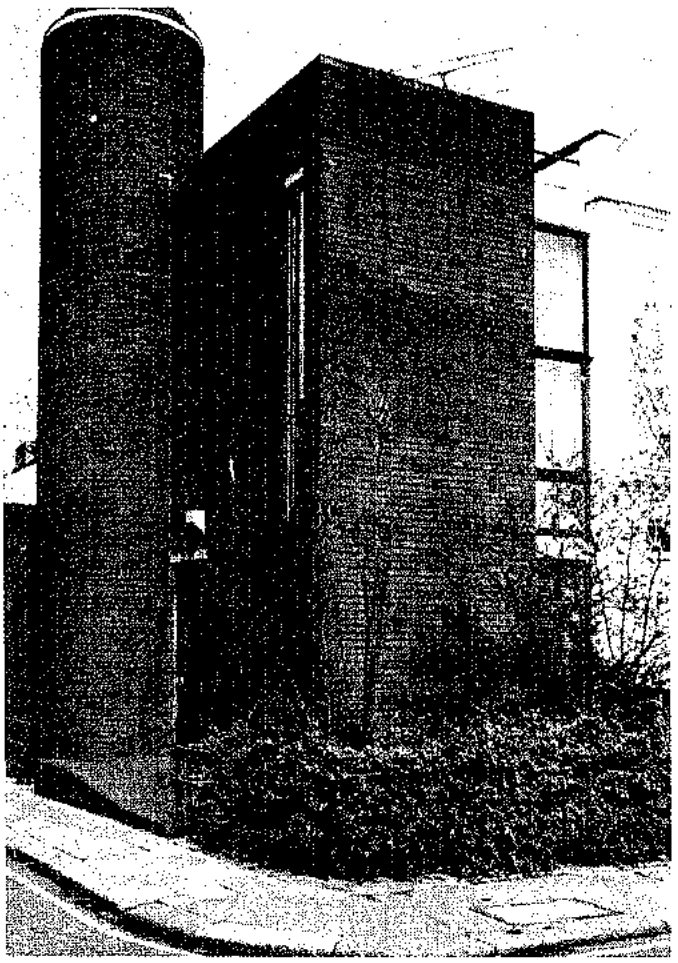
①

①거리에서의 外觀
②화사이드
② ③敷地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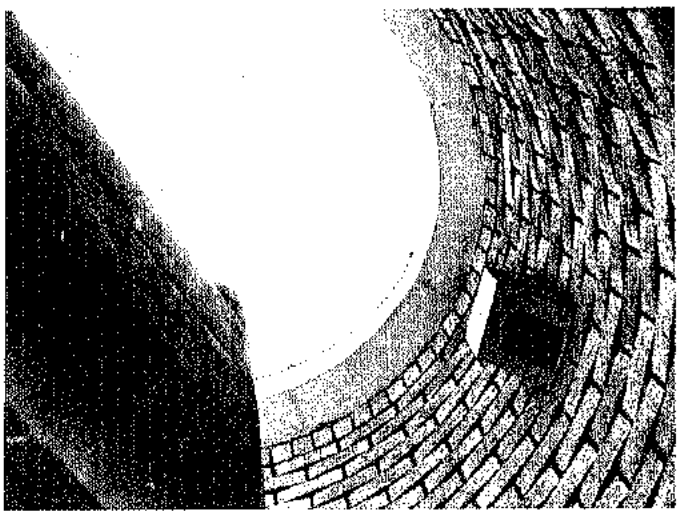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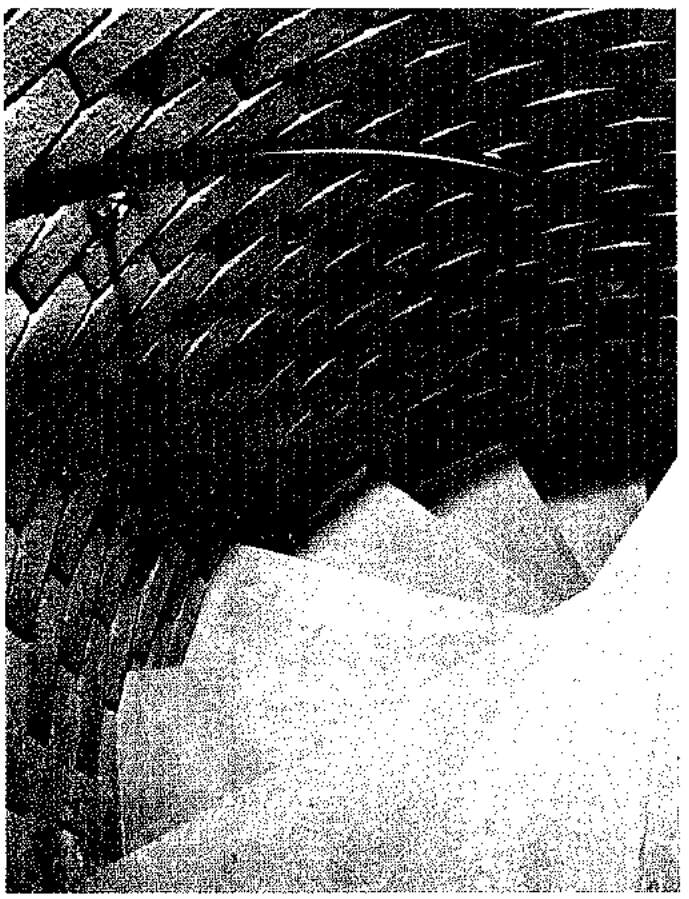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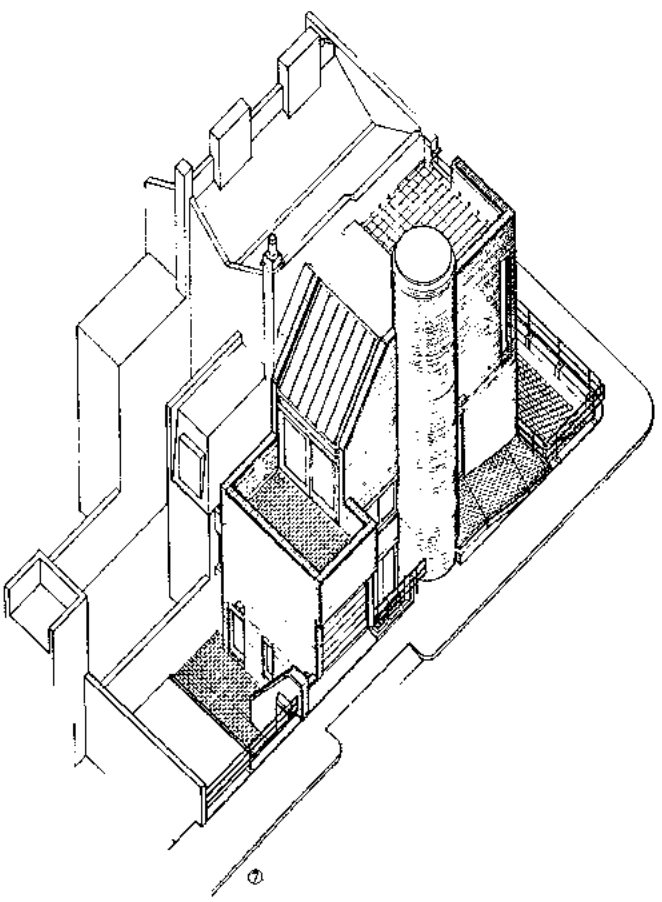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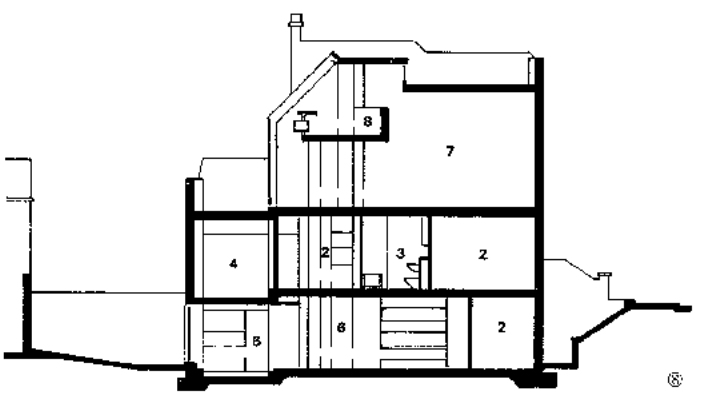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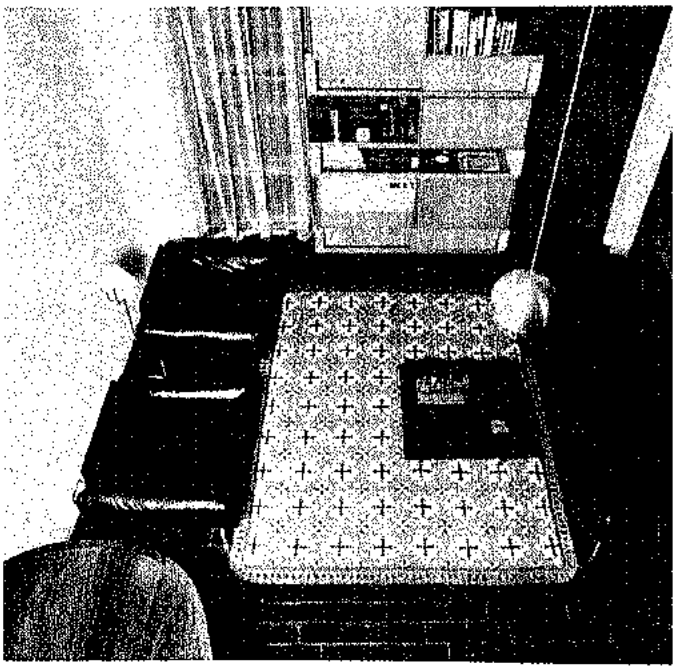


⑦



⑧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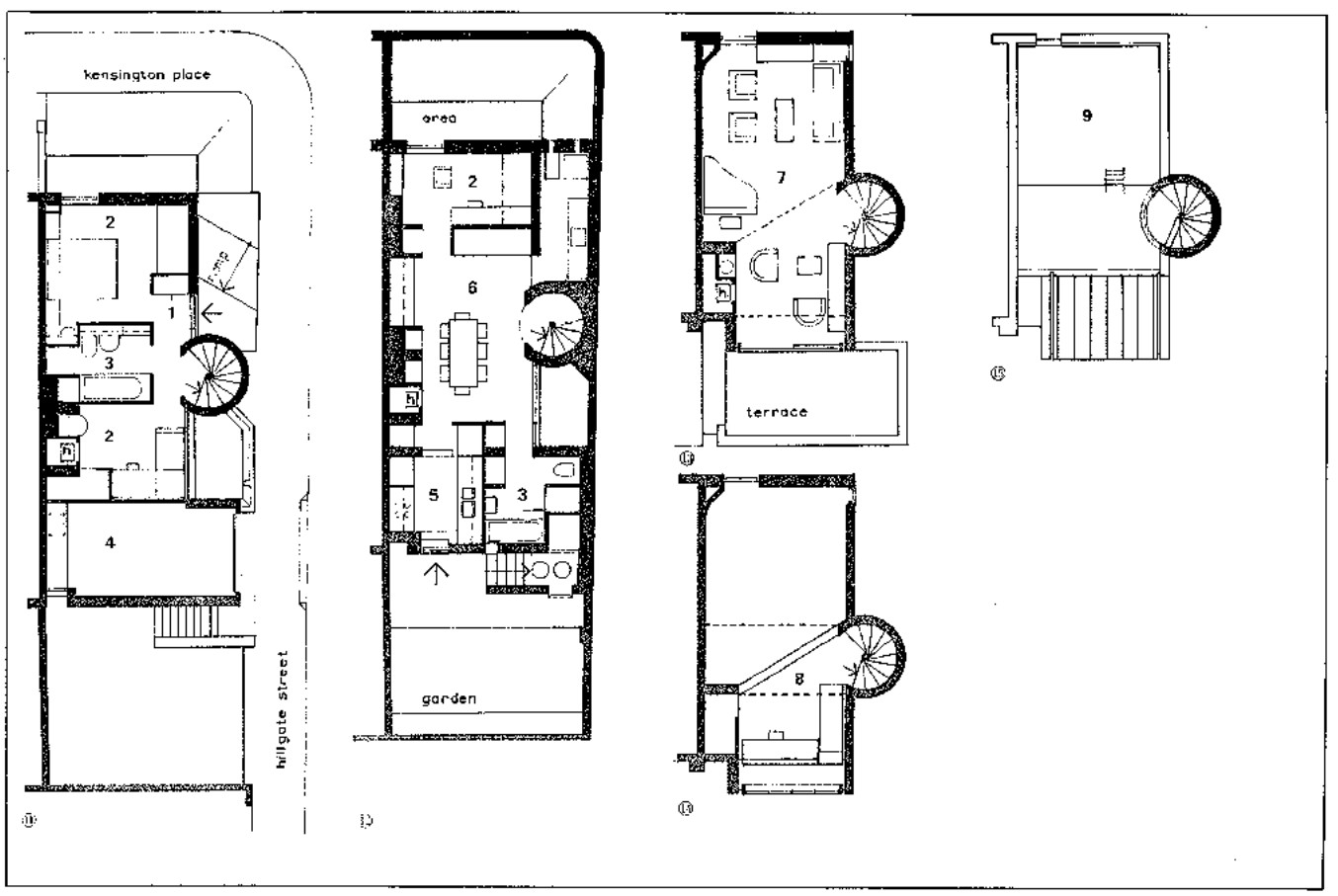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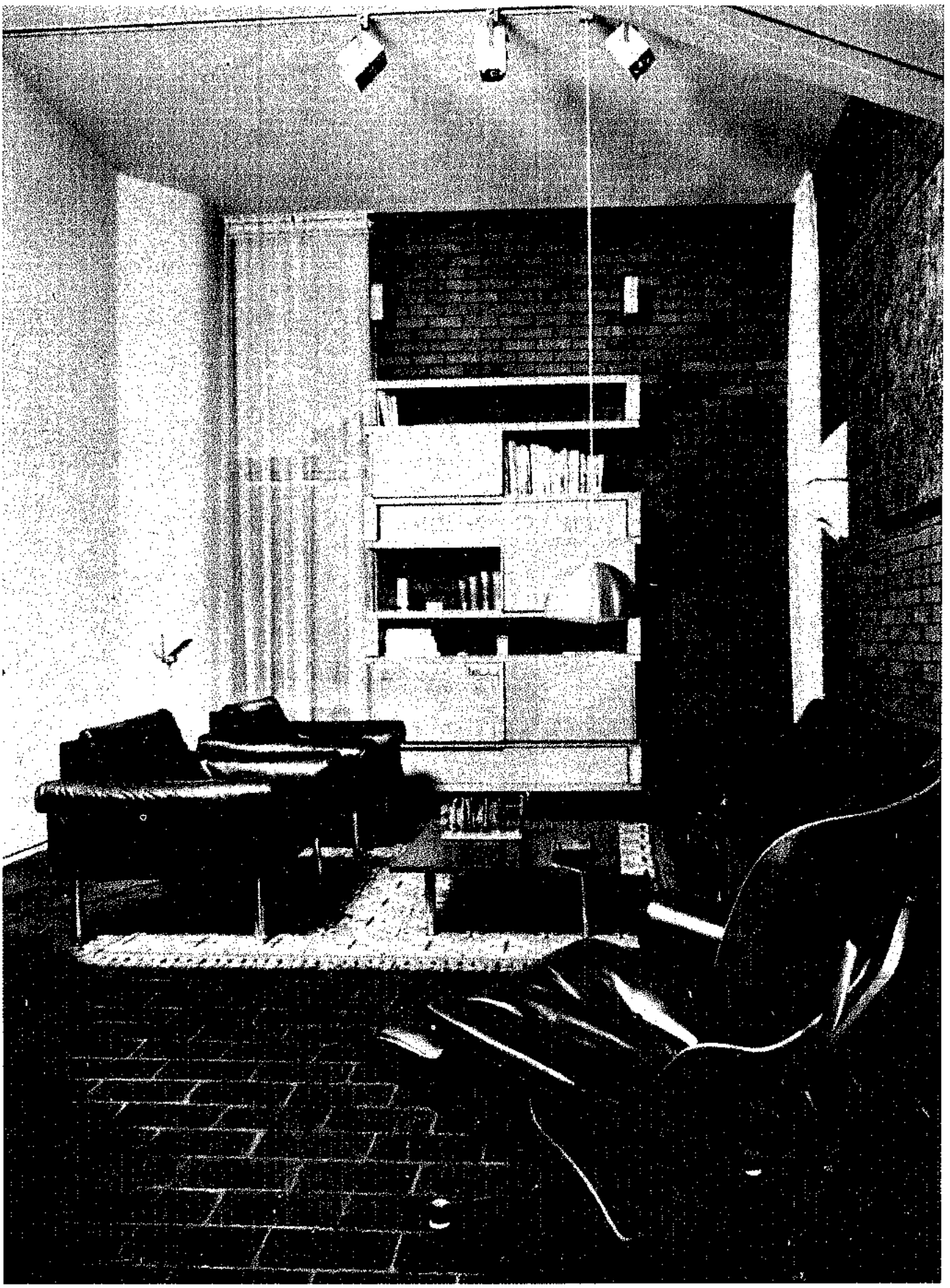
④南쪽에서 바라 봄
⑤계단上部의 유리돔을 쳐다 봄
⑥타선계단
⑦Axonometric図
⑧断面図
⑨거실 및 上部 갸라리에서 서

⑮옥상층平面図
1. 入口
2. 침실
3. 욕실
4. 차고
5. 주방

⑨거실 및上部 갸라리를 봄
⑩갸라리에서 거실을 봄
⑪1층平面図
⑫地층平面図
⑬2층平面図
⑭3층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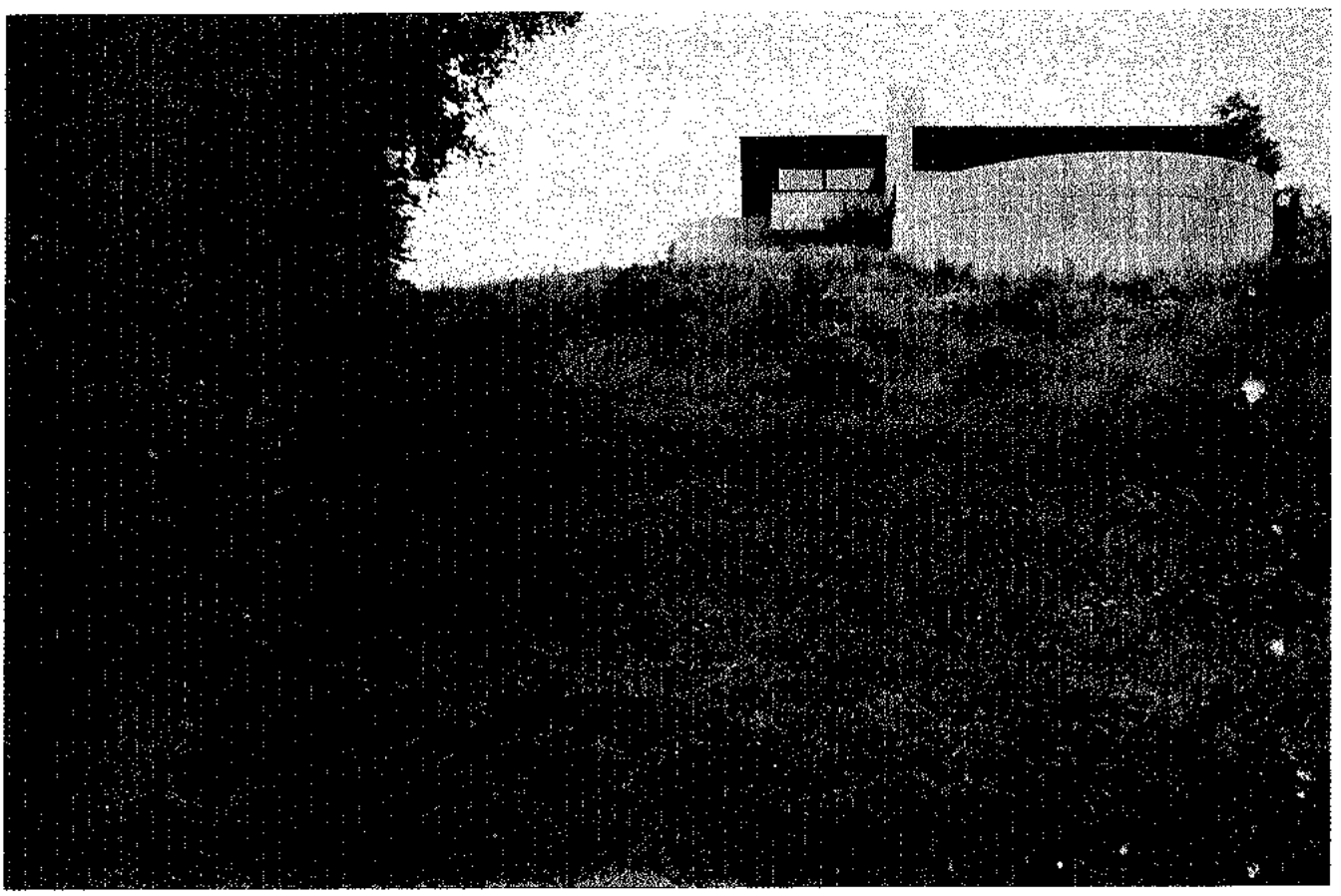
6. 식당
7. 거실
8. 갸라리.1 서재
9. 옥상테라스
10. 거실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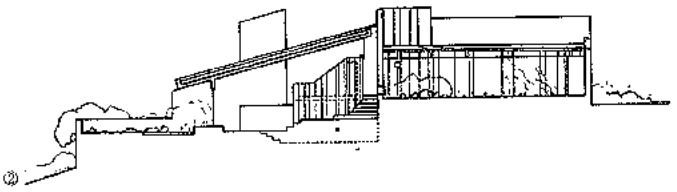
⑯

家族住宅 (덴마크)
設計 : 후리즈＋몰트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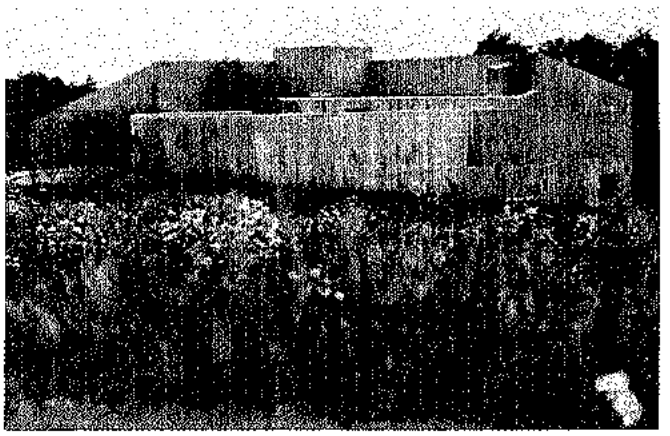


①

①全 景
②断面図
③아푸로－치에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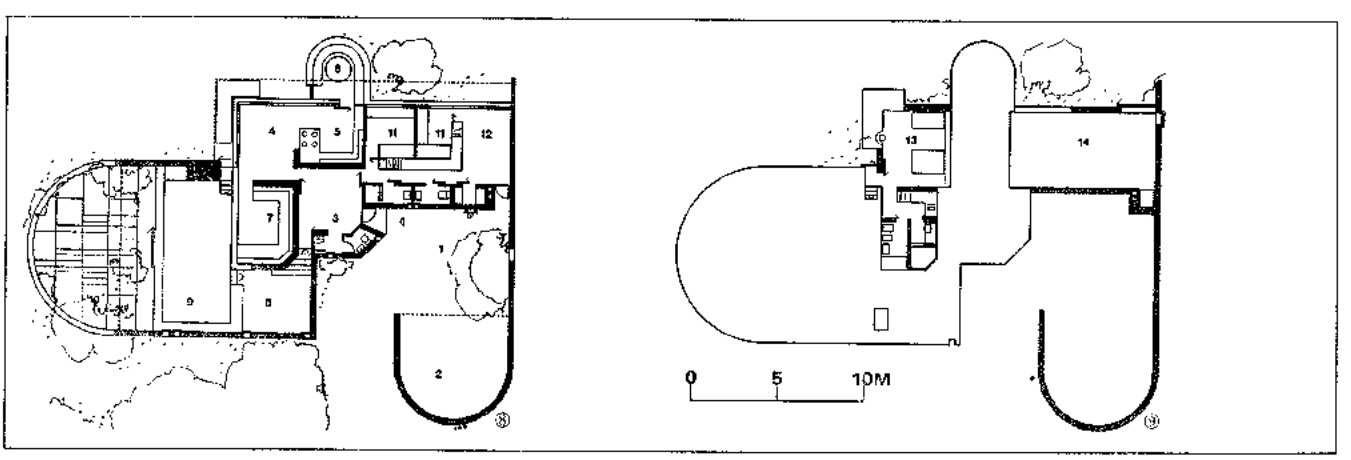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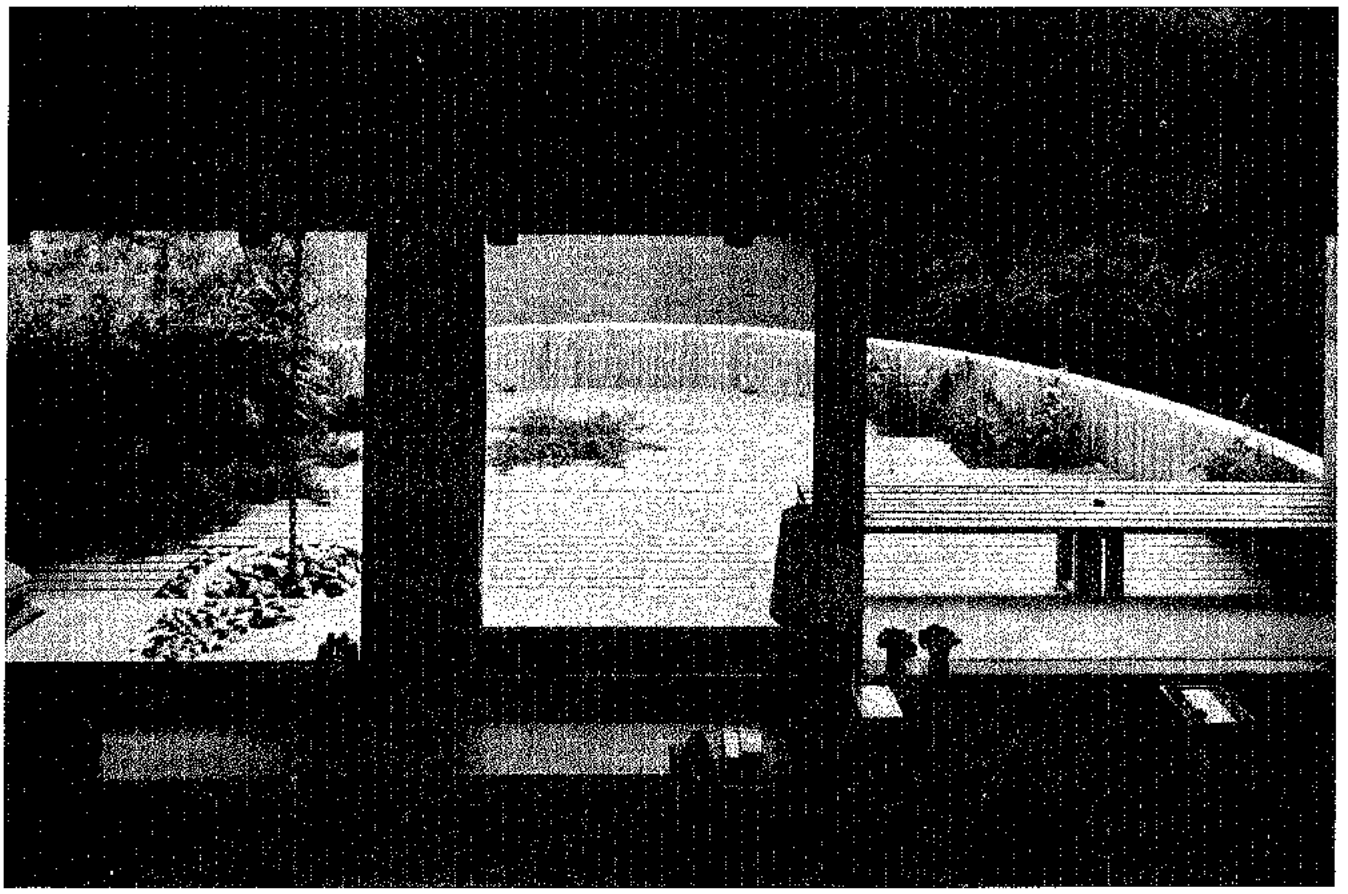


③

④

⑤ ⑥ ⑦





⑩

④屋外 식당에서 테라스 方向을 봄
⑤⑥入口부근
⑦carport옆에서 入口部分을 본다.

3. 홀
4. 식당
5. 주 방
6. 욕와식당
7.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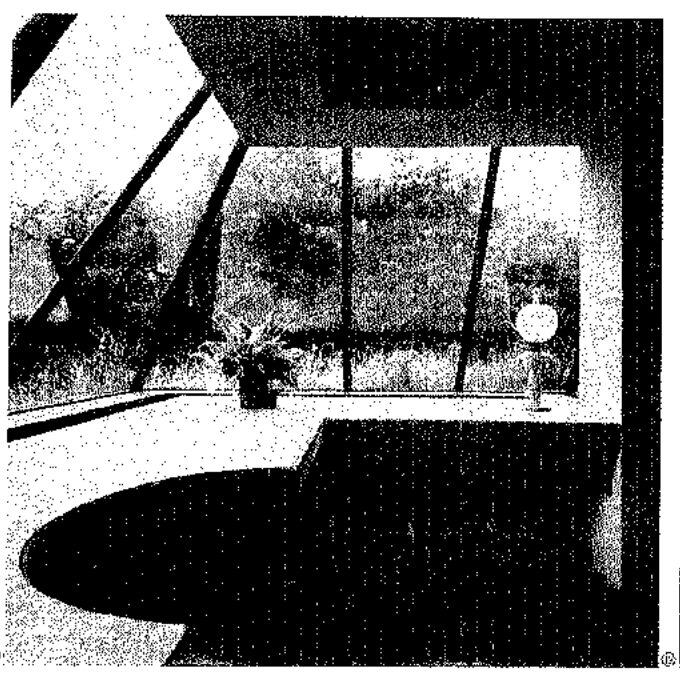
12. 취미실
13. 침실
14. 창고

⑩거실에서 테라스를 봄
⑪침실의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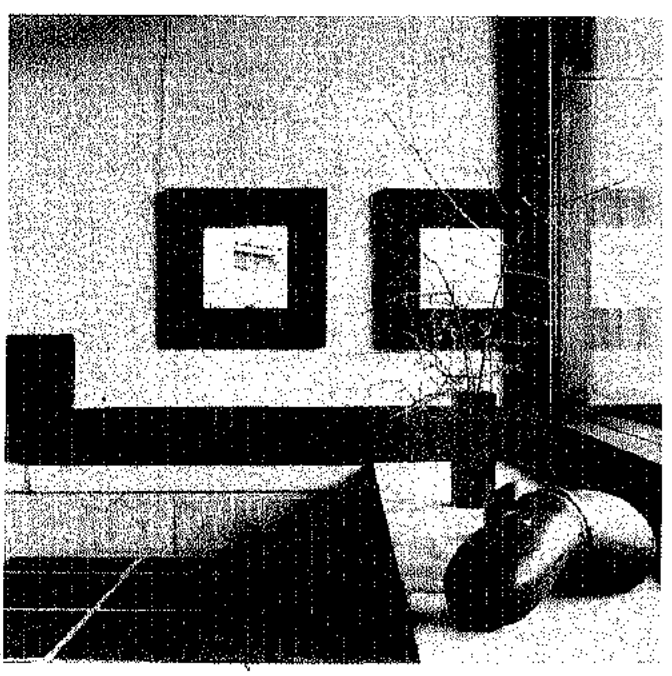
⑧2층平面図
⑨1층平面図
1. 中庭
2. carport

8. 음악실
9. 거실
10. 테라스
11. 거실

⑫거실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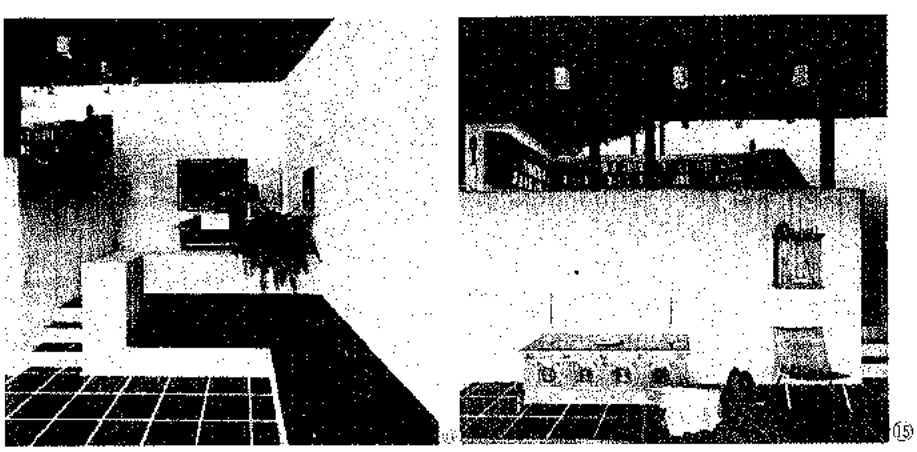


⑪



⑫

⑬



⑮

⑬거실, 난로뒤는 아래층실로의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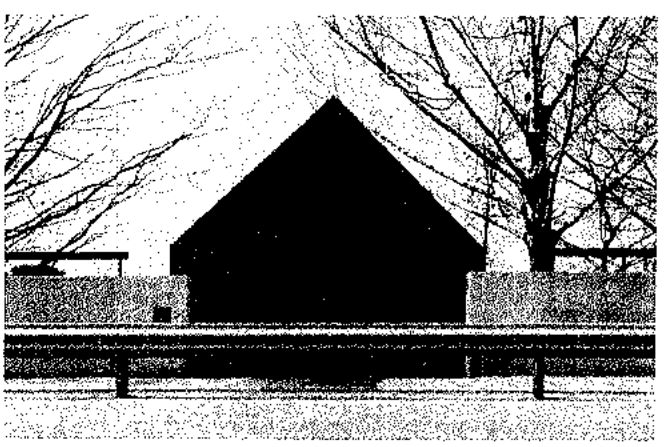
⑭거실에서 서재를 봄

⑮거실에서 음악실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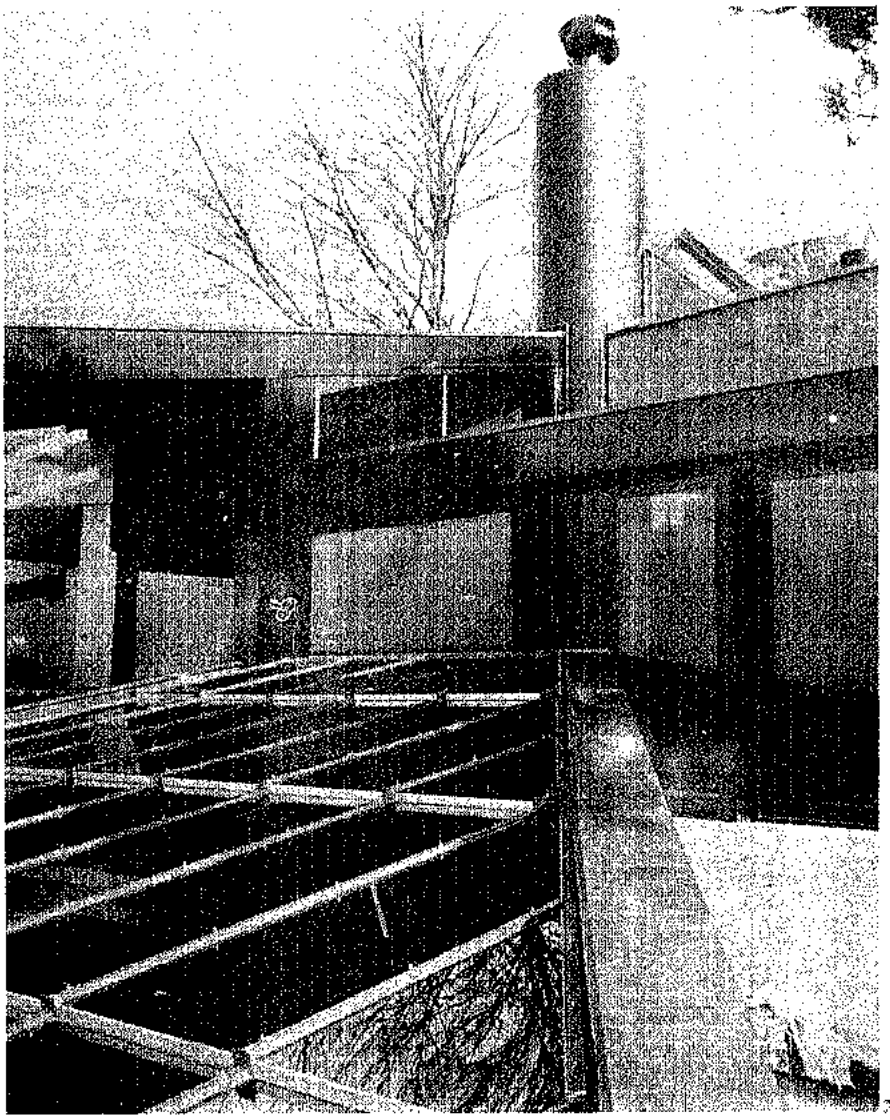
쥬네—붐湖畔의 住宅 (스위스)
設計 : 유스투스 · 다힌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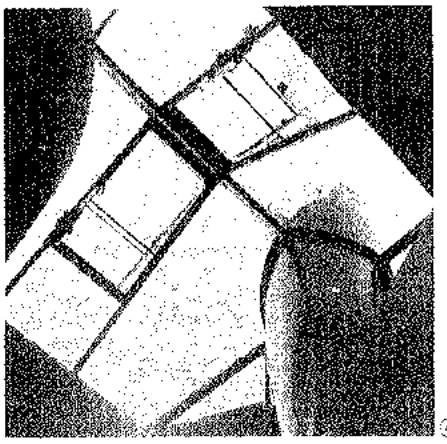
①

①거실前面의 外部空間
③道路에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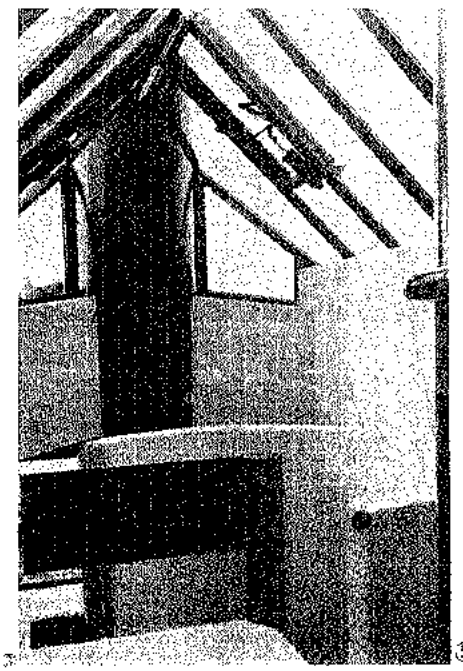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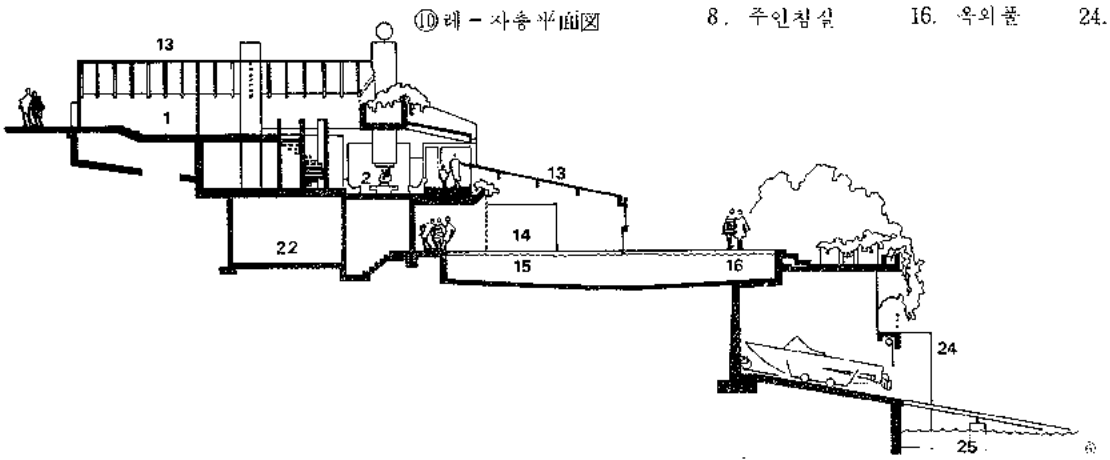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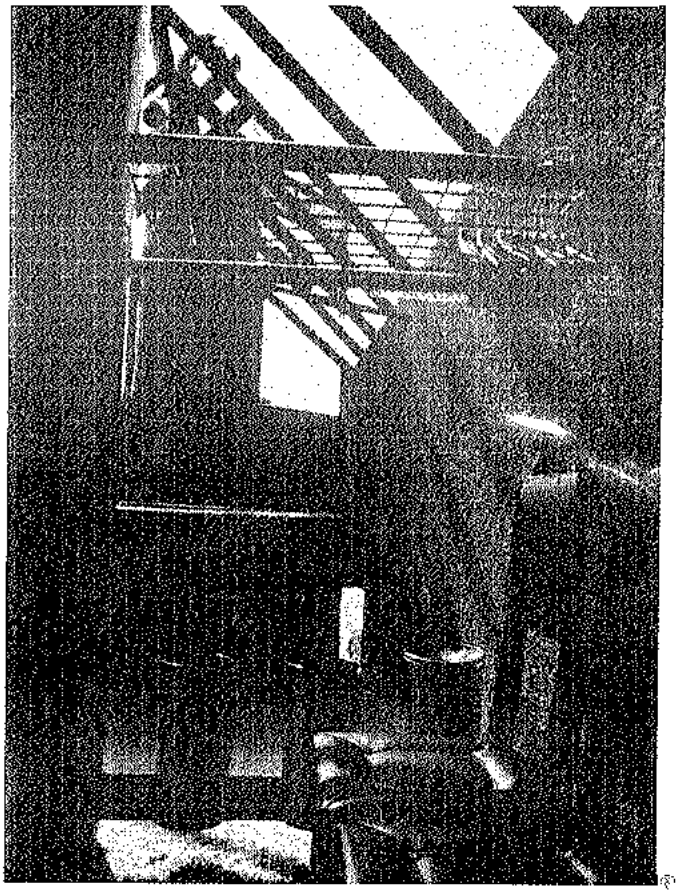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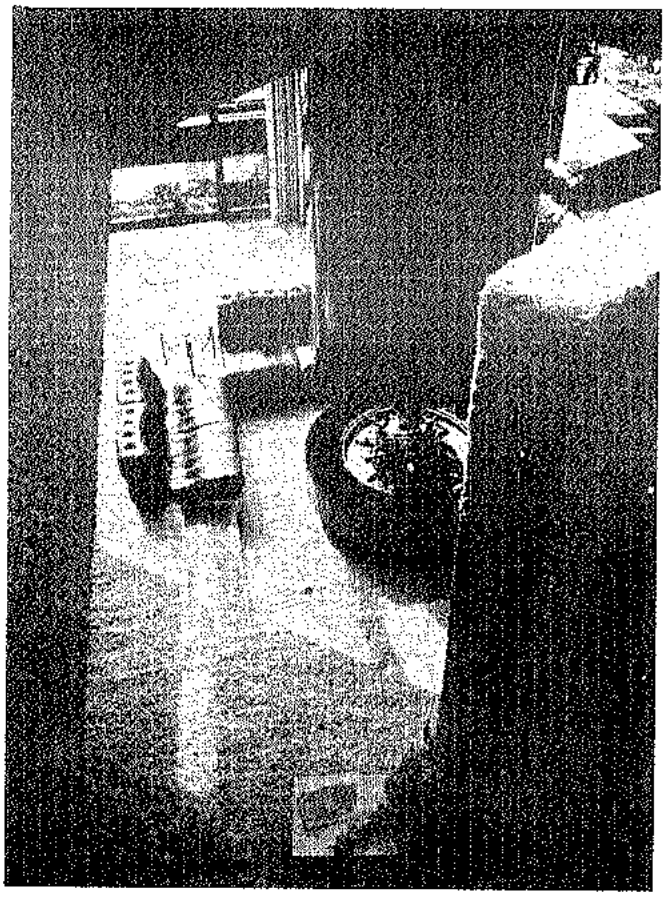
③옥내풀上部의유리지붕
④入口上部유리지붕
⑤入口앞 무용장에서 봄
⑥斷面図
⑦入口앞 무용장
⑧계단에서 거실을 봄
⑨居住층 平面図
⑩래－자층平面図

1. 步行用의 橋
2. 펫라운지
3. 빠
4. 주방
5. 창고
6. 어린이 방
7. 놀이방
8. 주인침실
9 갱의실
10. 욕실
11. 욕외空間
12. 차고
13. 유리지붕
14. 폭포
15. 옥내풀
16. 옥외풀
17. 놀이터
18. 푸렛홈
19. 土 침실에로의 계단
20. 어린이 방으로의 계단
21. 기계실
23. 기름창고
24. 보호실
24. 湖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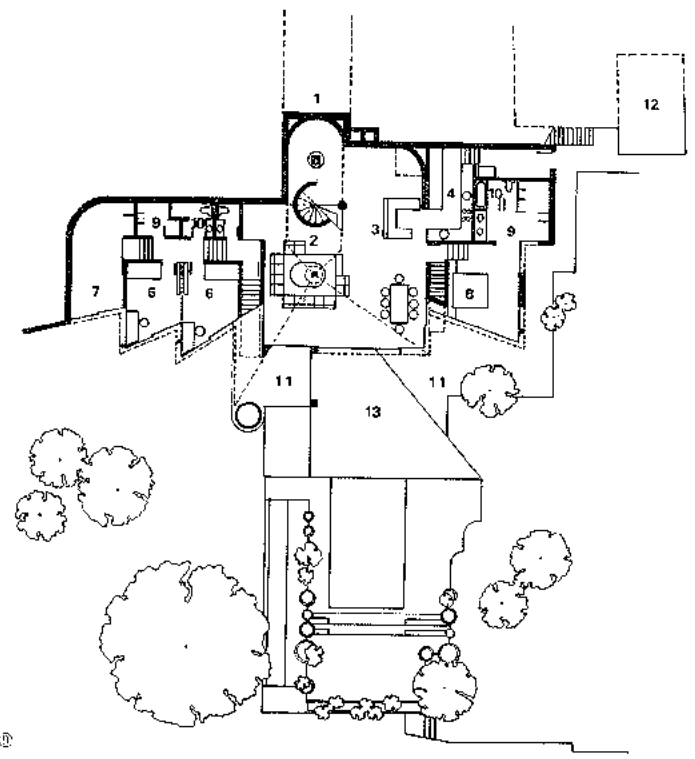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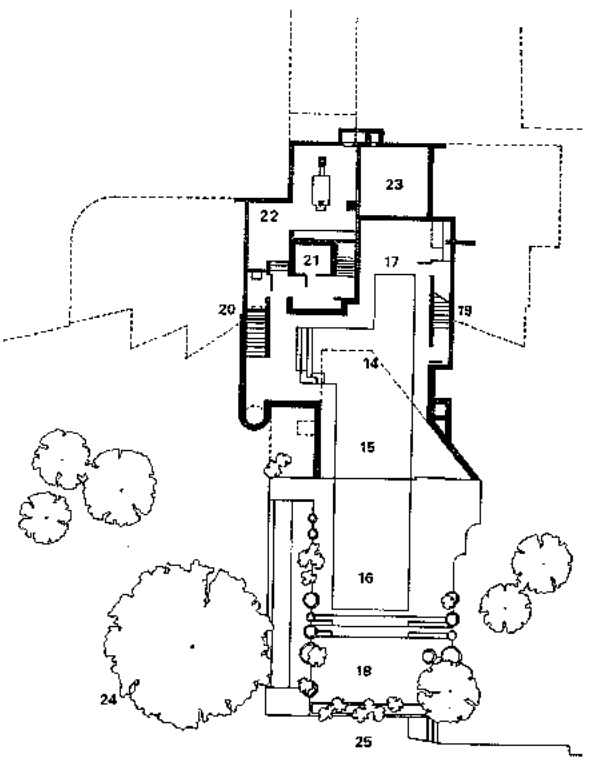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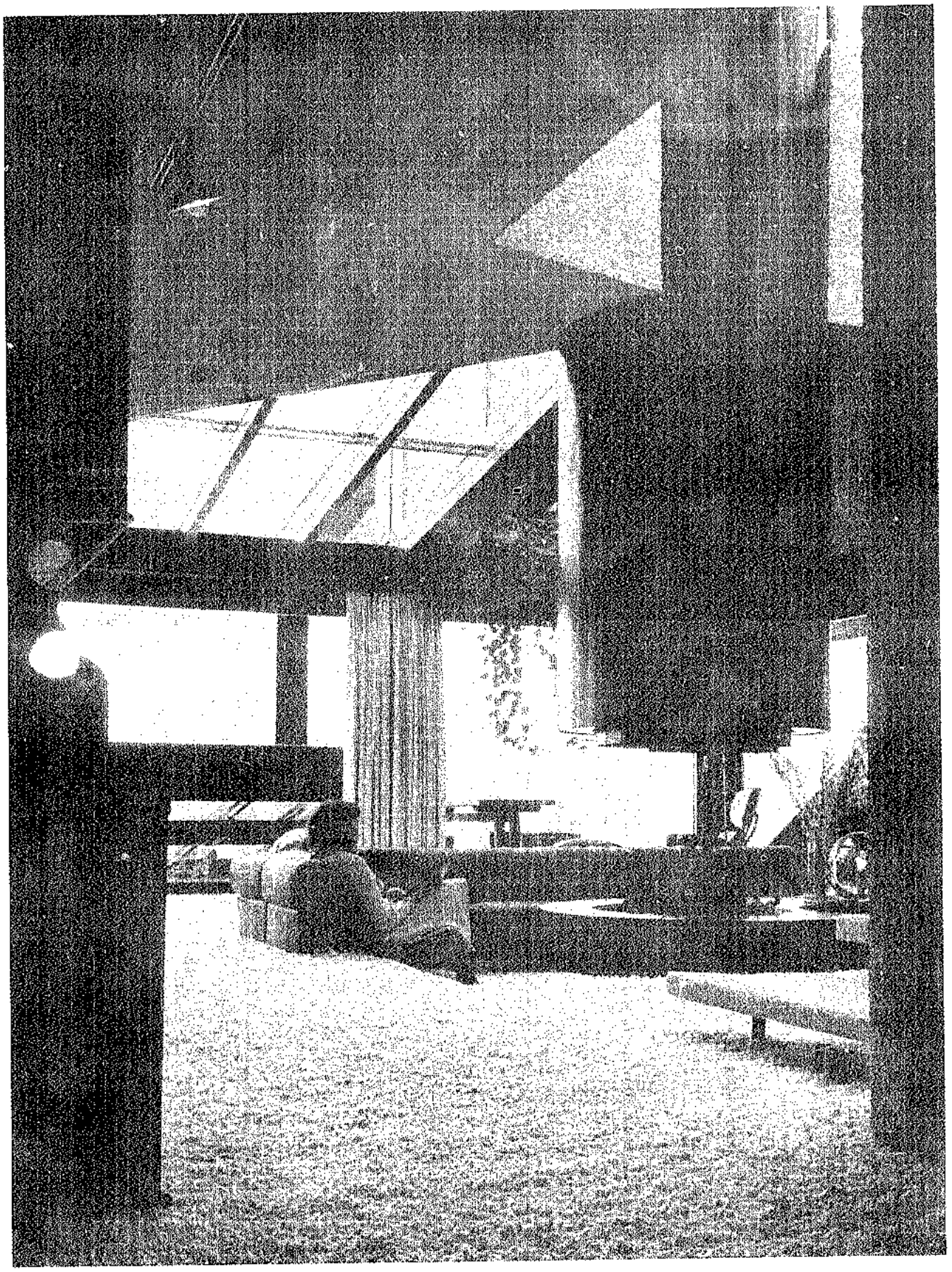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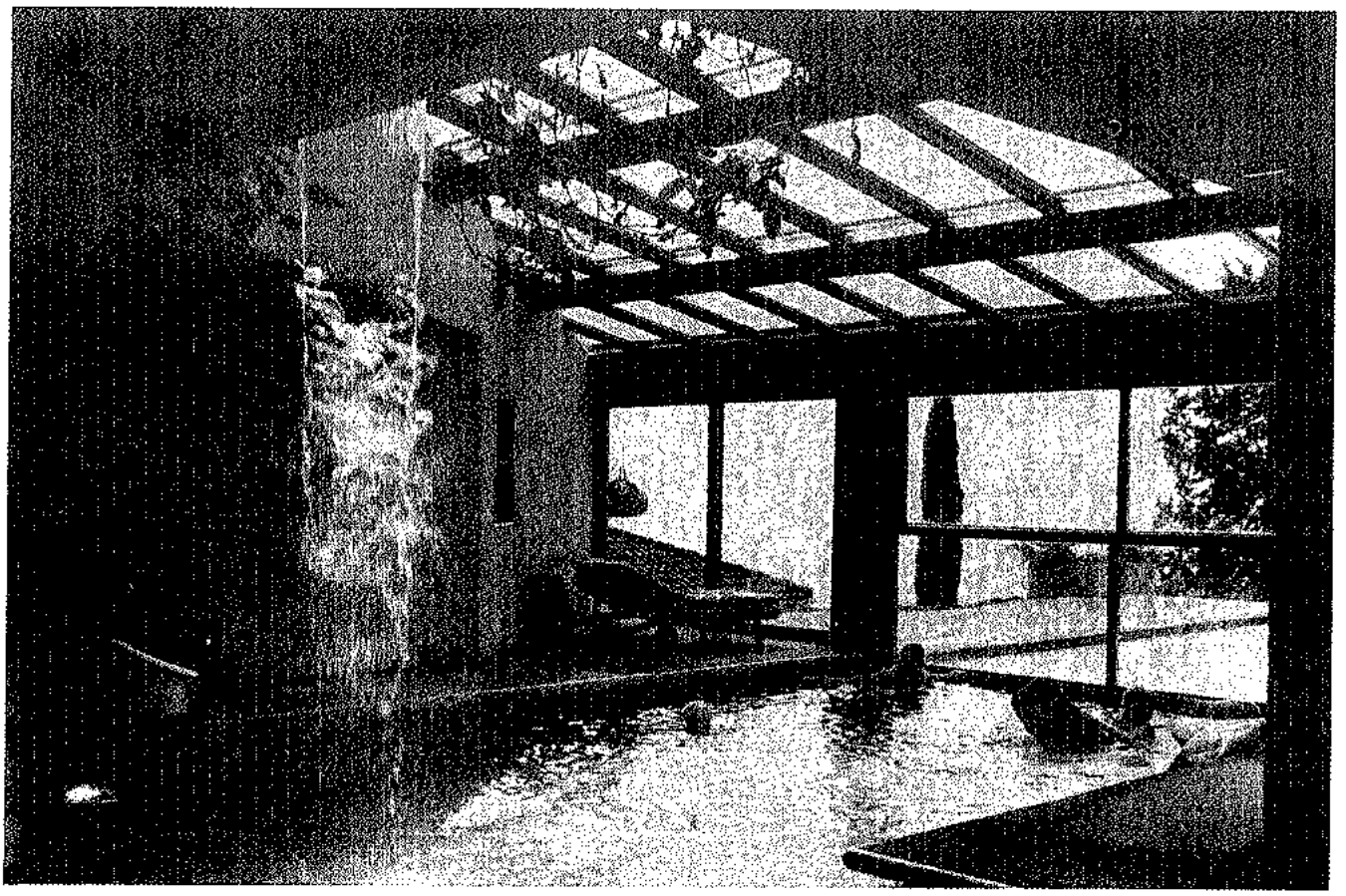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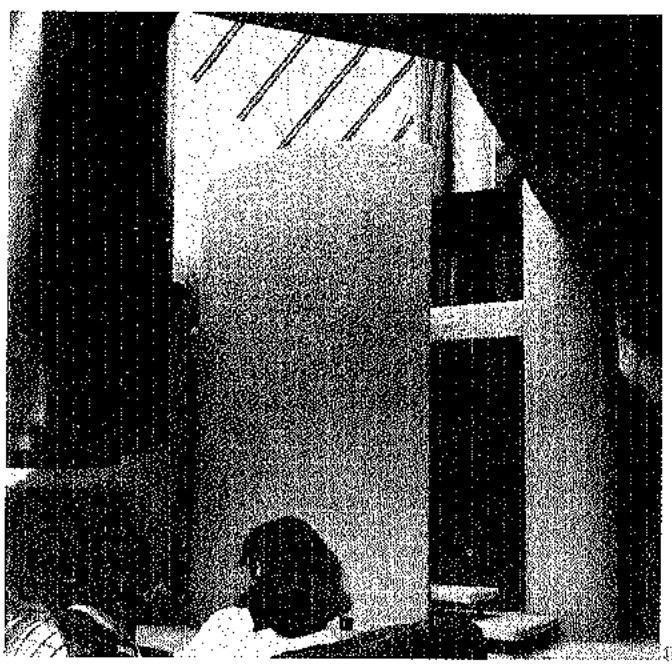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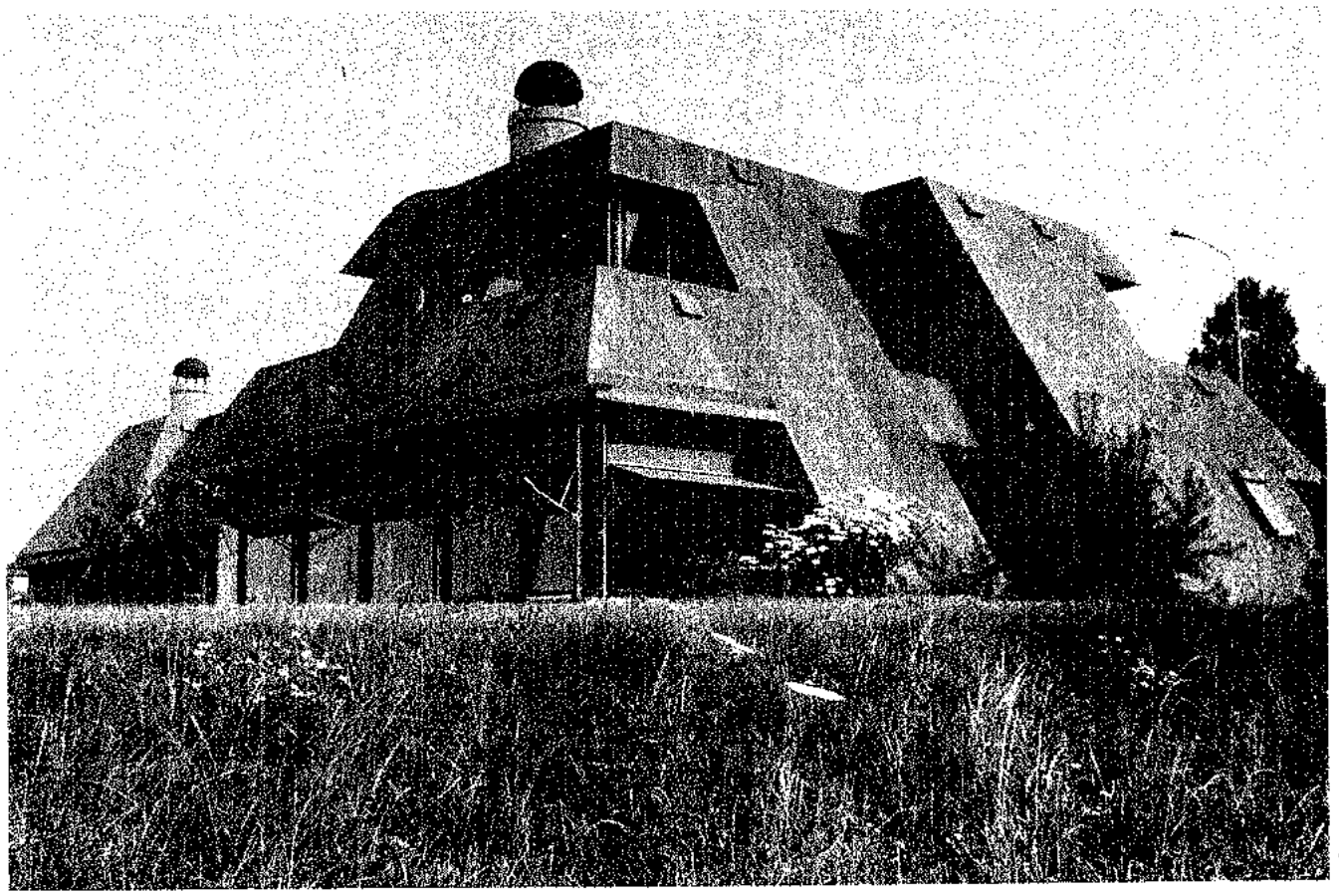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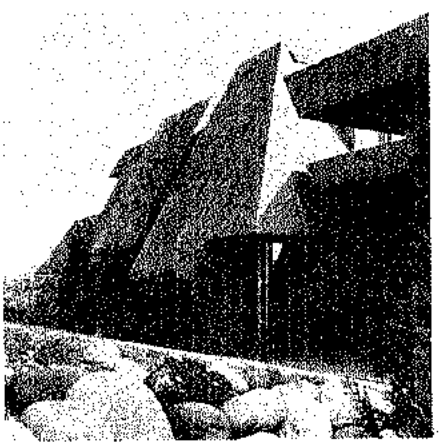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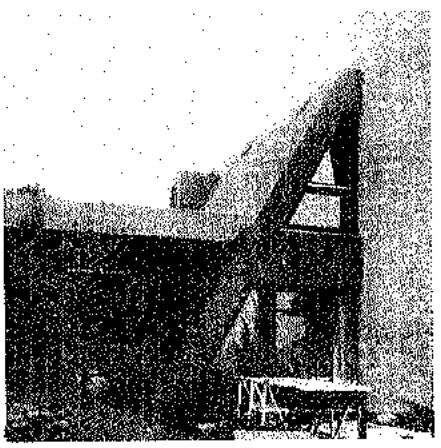
⑬

家族住宅群 (스위스)
유스투스 · 다힌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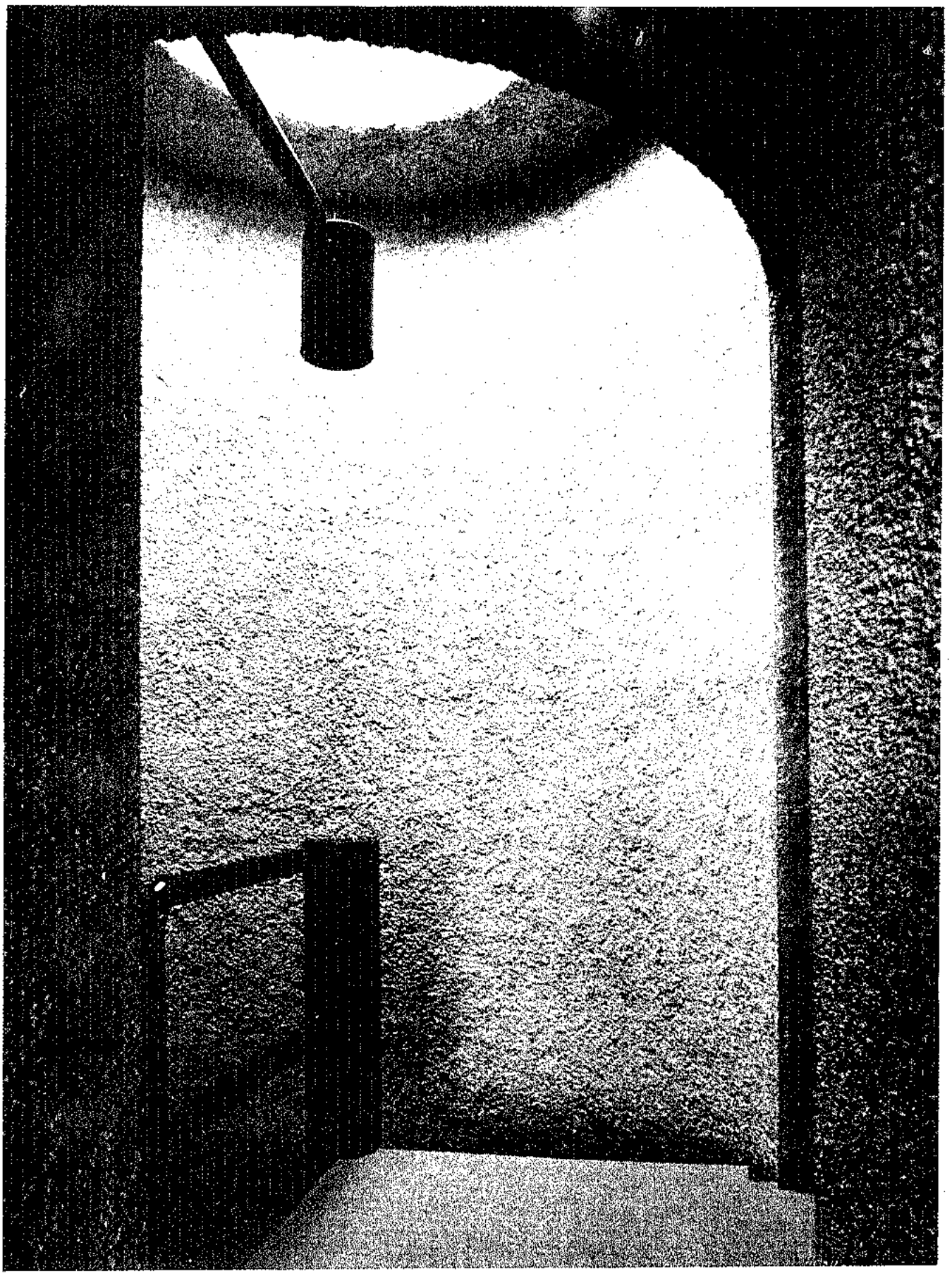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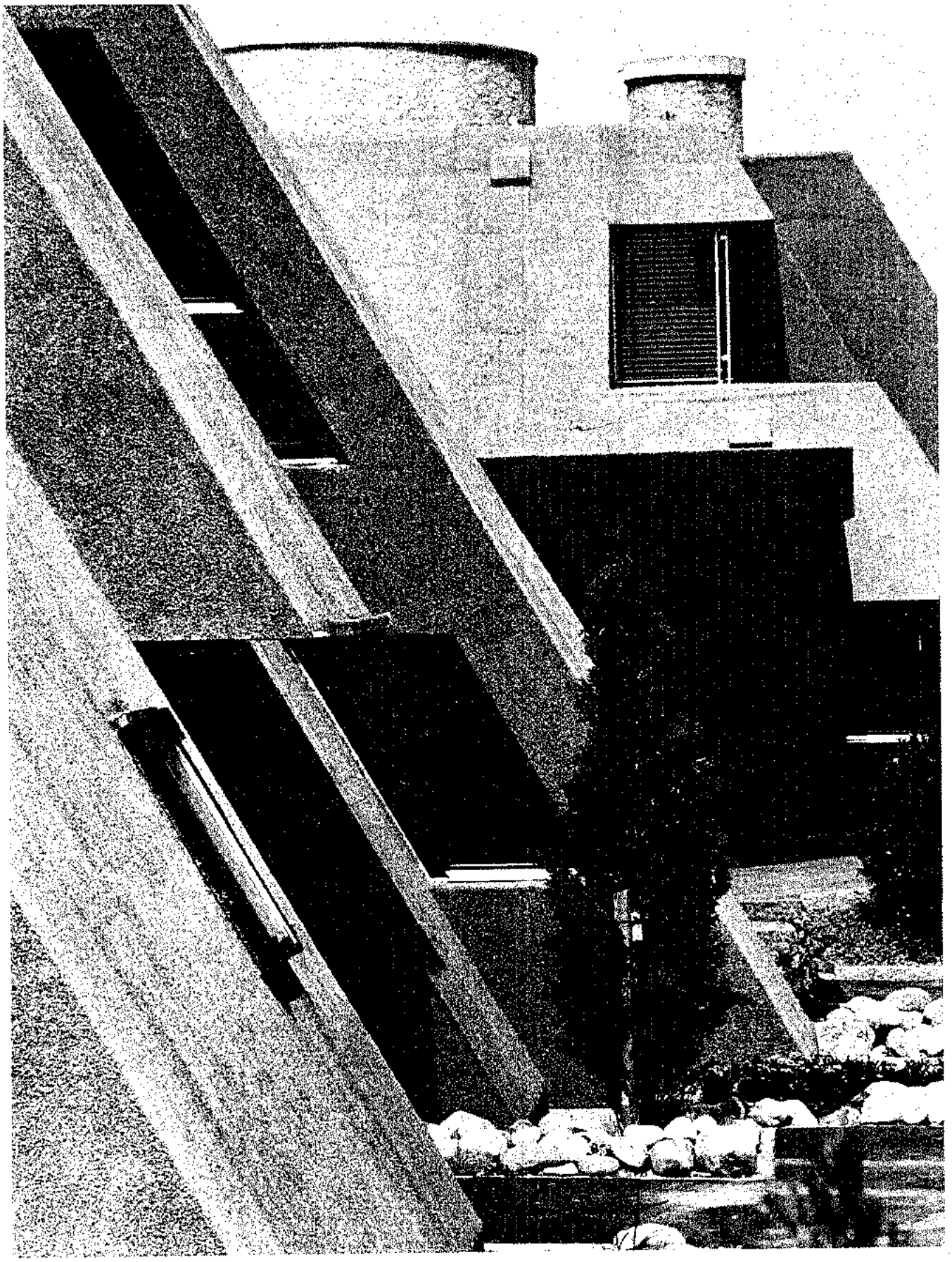
① 全景 · 中央에 지붕이 있는 주차장을 사이에, 두 住居가 대칭형으로 배치되어있다.

② 共用 · 아푸로ㅡ치를봄
正面은 부엌窓, 左側이 玄関, 右側벽에 共用의 車庫의 지붕이 보인다.

③ 테라스를 봄
正面은 식당 개구부 右側 円筒은, 둥근계단의 외벽, 左側에는 共用주차장의 지붕이 보인다.

④ 外觀.
바로 뒷면에 보이는 두住居의 외벽은 내부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發明 特許品 電子열쇠(도어로크) 新発売

열쇠界의 혁신! 電子열쇠로

여러분의 財産을 保護합시다

電子열쇠는…

1. 電子열쇠는 다른 열쇠나 어떠한方法으로도 열수 없음.
2. 電子열쇠는 故障이 全然없음.
3. 電子열쇠는 使用操作이 부드럽다.
4. 電子열쇠는 特殊磁石을 使用하여 永久的임.
5. 電子열쇠는 複製(合鍵)가 않됨.
   (439,296個가 生産될때 同一한 열쇠 한개가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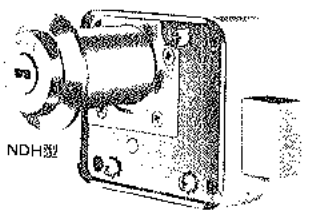
使用處 : 아파트, 住宅, 事務室, 병원 保管倉庫, 金庫, 호텔 등

販賣處 : 有名鐵物商이나 本社營業部

※ 열쇠가 더 必要하거나 紛失時는 本社로 注文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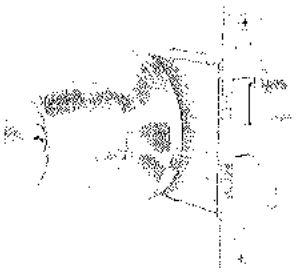
"쥐 쫓는 초음파기 판매"
(日本 完製品輸入)

補助錠(ECNDH型) 電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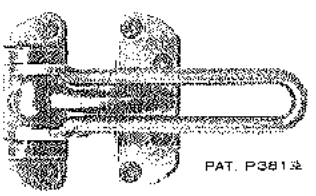
附着하기 쉬우며 堅固하고 耐久性이 좋고 防犯上 安全합니다.

도어록크(ECHMU型) 電子式



한가지型으로 左右 內外, 開門自由로히 使用할수 있고, 重要保管用途使用, 補助錠이 必要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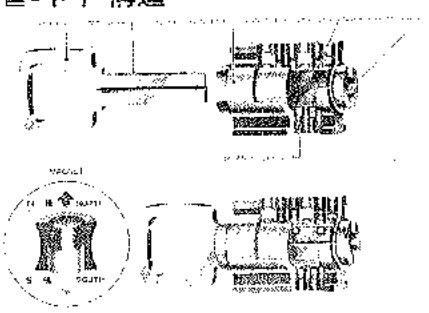
安全문고리(SL-1型)



外部에서 門을 열때 10cm 程度만 열리고 확인후 門을 열어주는 安全고리

※ 金庫用, 家具什器用, 카비넷트用, 私書函, 其他 電子열쇠가 있음.

電子열쇠의 構造



世林貿易株式會社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 街 60 - 3
TEL. 776 - 7040 · 7041
공장 TEL. 260 - 1623 부산지사 : 26 - 8765

日本美和LOCK株式会社

Rocket Boiler

연료비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産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고압연관식보일러(KRSH)

□ 1ton에서 10ton까지 용량에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연기에서 유리와 기름 절약 및 재오염 방지로 인 주변과 주민들 생활의 보일러입니다.

□ 연관식보일러의 신개념을 이룩한 제품입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KRS)

□ 1000명 미만 사용시 취사는 20분대에 해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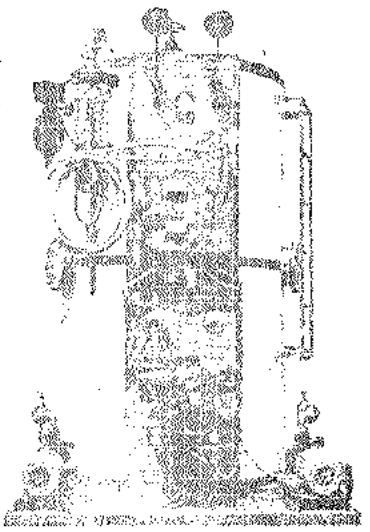
□ 식품공장 건조 세탁 증기 난리미용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의학발육기 살균 난방및 급탕용 식품가공 공장에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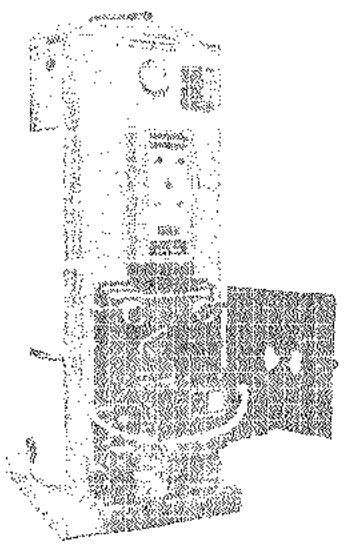
□ 미역해초류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규격 0.2에서 0.5ton 의 전자동 소형 스팀보일러로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관리인이 필요없읍니다.



다목적온수보일러(KRZ)



□ 난방용 급탕용 목욕탕 겸용.

□ 킹전지 또는 오일버너 고정식 연탄과 및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에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uch 식입니다.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급탕용 파동코일이 장입된 급탕 난방겸용이 됩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KR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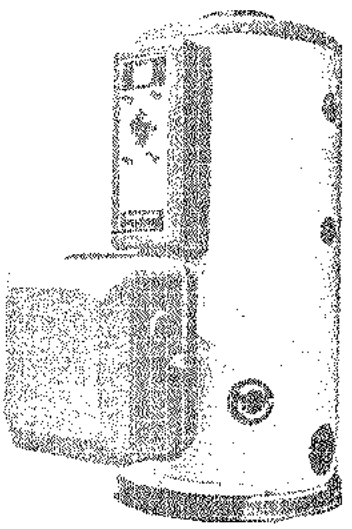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쇄신.

□ 신제품 KRQ는 벤기에의 인주 기술협력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평이상 30평미만 40평이상 60평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읍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비와 및 특히 가솔연료비 ⅙ HP소형 오일버너로 전자조비가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기하신 공업 창고등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기계화로 동종 다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 %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 (6) 5131－4

여의도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세우회관 6층)

전화 : (782) 7373, 7387, 8757

韓国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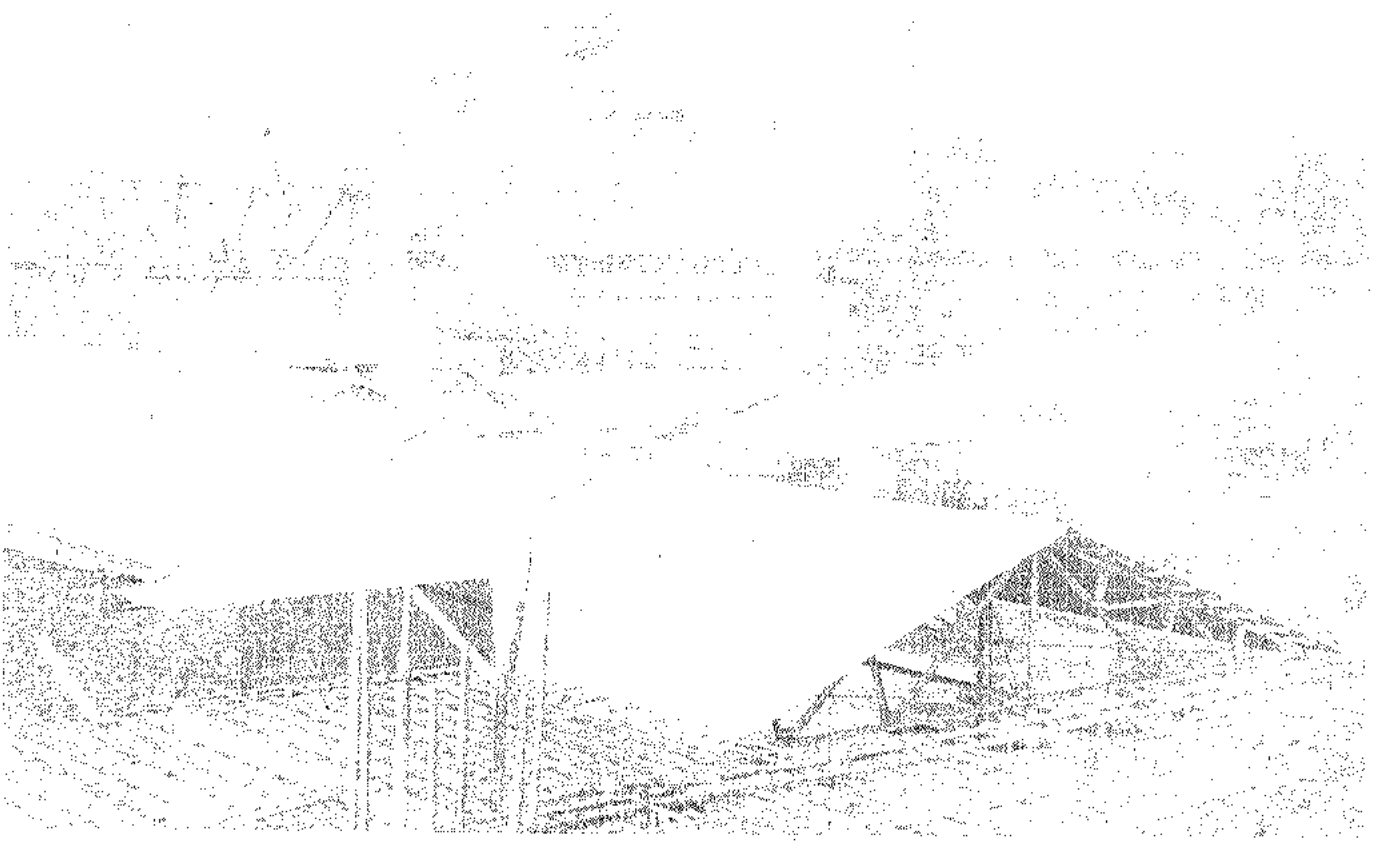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国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為해 끊임없이 研究努力하고 있읍니다.

⊙生産製品

- 맑은유리
- 무늬유리
- 安全強化유리

⊙맑은유리最大規格

두께 (mm)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75 ㉓ 7141～5 ㉗ 8022～6
仁川工場：京畿道 仁川市 東区 万石洞2 仁川 ⑦ 0111～0119
釜山工場：慶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㊷ 4066～4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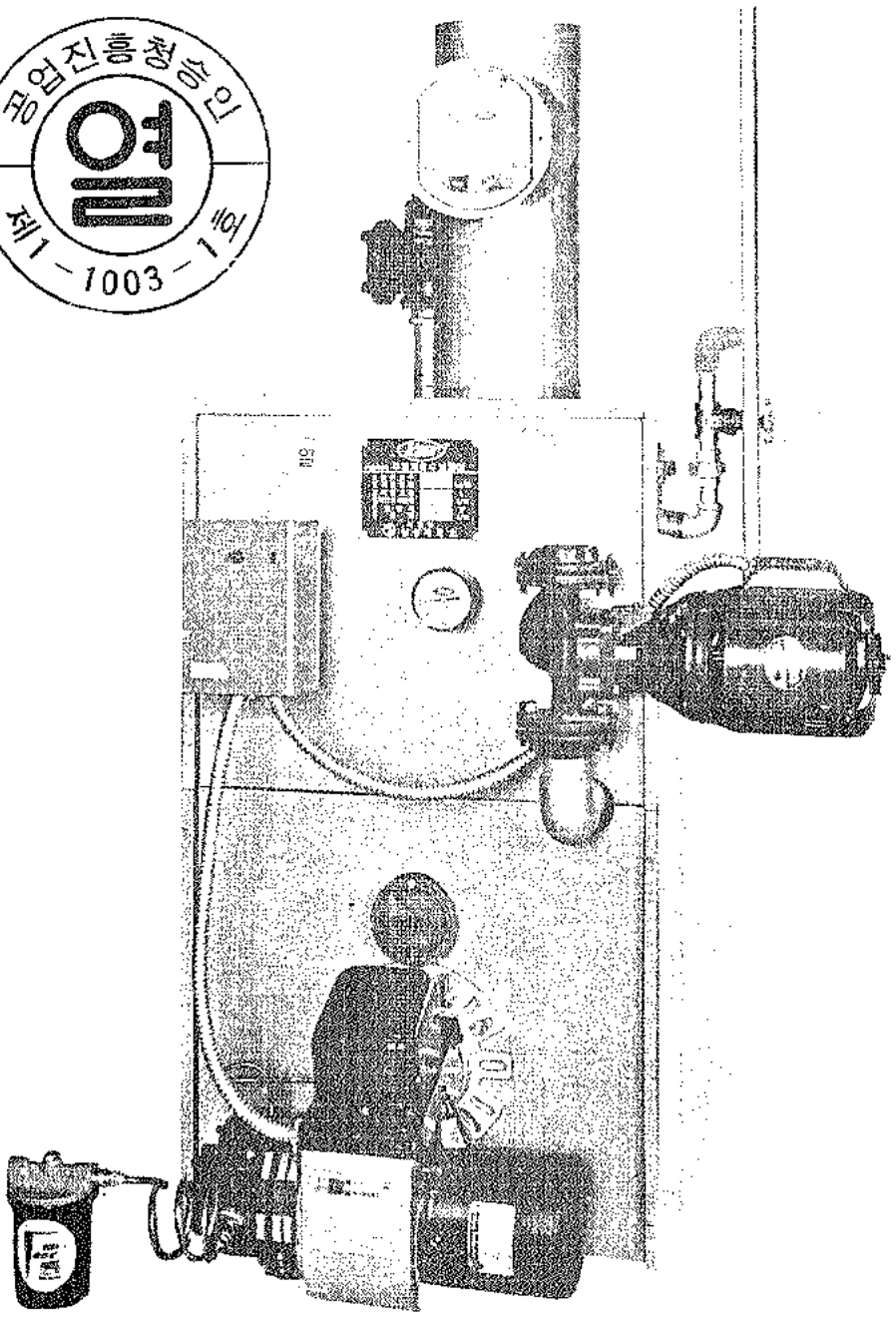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공업진흥청승인 열 제1-1003-1호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 2동 나열 109호

TEL: 266－2807, 266－8015